

大邱市史

第五卷(文化)

大邱市史編纂委員會

題字：戊子新刊 嶺營藏板《詩傳》에서 集字(朝鮮 純祖 28年; 1828年)

目 次

第十二篇 文 化

第1章 教 育	15
第1節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教育	15
I. 三國時代의 教育	15
II. 統一新羅時代의 教育	17
第2節 高麗時代의 教育	20
I. 麗初의 崇儒興學策	20
II. 官學教育	22
III. 私學의 發達	38
IV. 科擧制度와 教育	40
第3節 朝鮮時代의 教育과 大邱	43
I. 教育의 理想的 背景	43
II. 官學教育	48
III. 私學의 發達	59
IV. 科擧制度와 教育	62
第4節 開化期의 教育과 大邱	64
I. 時代的 背景	64
II. 近代 教育制度의 確立	65
III. 大邱의 近代學校	75
第5節 日帝下의 教育과 大邱	78
I. 日帝初期(1910~1921)의 教育	78
II. 日帝中期(1922~1937)의 教育	92
III. 日帝末期(1938~1945)의 教育	102

第6節 現代의 教育과 大邱	115
I. 美軍政期の 教育과 大邱	115
II. 政府樹立後の 教育과 大邱	122
III. 6・25戰爭과 教育의 試鍊	124
IV. 1950年代의 大邱教育	131
V. 1960年代의 大邱教育	144
VI. 1970年代의 大邱教育	157
VII. 大邱直轄市 發足後の 大邱教育	177
第7節 大邱教育의 支援機關	197
I. 大邱教員研修院	197
II. 教育科學研究院	199
III. 大邱教育院	206
IV. 學生綜合野營場	209
V. 圖書館	211
第8節 大邱의 學生運動	217
I. 日帝下の 抗日學生運動	217
II. 光復後の 學生運動	231
第2章 藝 術	234
第1節 漢文學	234
I. 緒 言	234
II. 大邱漢文學의 內因과 外緣	235
III. 三國・高麗時代 漢文學	236
IV. 朝鮮時代 漢文學	238
V. 大邱漢文學의 特色	245
VI. 結 言	248
第2節 現代文學	249
I. 序 言	249
II. 開化期(1920年代 文學)	252

III. 1930年代 文學	260
IV. 1940年代 文學	268
V. 1950年代 文學	275
VI. 1960年代 文學	283
VII. 1970年代 文學	292
VIII. 1980年代 文學	300
IX. 結 語	308
第3節 傳統音樂	311
I. 序 言	311
II. 樂·歌	312
III. 國樂活動	326
IV. 國樂教育	333
V. 樂器匠	335
第4節 西洋音樂	335
I. 西洋音樂의 流入期(1901~1919)	335
II. 西洋音樂의 定着期(1920~1949)	338
III. 西洋音樂의 活性期(1950~1964)	344
IV. 西洋音樂의 發展期(1965~1979)	355
V. 西洋音樂의 復興期(1980~1989)	362
VI. 作故西洋音樂家와 音樂賞	372
第5節 演 劇	381
I. 序 言	381
II. 草創期の 大邱劇團	382
III. 新派劇과 郷土劇	383
IV. 大邱演劇의 高等新派時代	386
V. 大邱에서 公演한 劇團과 演劇人	389
VI. 公演 레퍼터리의 特性和 演劇人	392
第6節 舞 踊	408

I. 日帝때의 大邱舞踊	408
II. 光復以後의 大邱舞踊	409
III. 6·25戰爭 以後의 大邱舞踊	410
IV. 1960年代 以後의 大邱舞踊	411
第7節 映 畫	413
I. 草創期の 大邱映畫	413
II. 光復以後의 大邱映畫	414
第8節 美 術	415
I. 大邱美術의 概觀	415
II. 西洋畫	417
III. 書 藝	436
IV. 寫 眞	442
V. 韓國畫·彫刻·工藝	449
第3章 言論·出版	462
第1節 新 聞	462
I. 日帝下の 大邱新聞	462
II. 解放以後 激動期の 大邱新聞	465
III. 6·25戰爭과 大邱의 新聞	470
IV. 大邱每日 백주테러事件	472
V. 4·19와 地方言論	484
VI. 5·16以後의 言論整備	485
VII. 第5共和國의 言論統廢合	487
VIII. 第6共以後의 大邱言論界	496
IX. 大邱의 言論關係事件	504
第2節 出 版	513
I. 序 言	513
II. 本 文	513
III. 結 言	529

第3節 放送	530
I. 日帝下の放送	530
II. 8·15와 새로운 放送文化	534
III. 政府樹立과 放送의 國營化	536
IV. 民營放送의 出現과 發展	537
V. TV時代와 放送의 成熟期	540
VI. 言基法과 放送界 再編	545
VII. 多채널時代의 到來	548
VIII. 大邱의 放送局 現況	550
第4章 文化財	553
第1節 國家指定 文化財	554
I. 寶物	554
II. 史蹟	563
III. 天然記念物	565
IV. 重要民俗資料	565
第2節 大邱直轄市 指定文化財	566
I. 有形文化財	566
II. 記念物	578
III. 民俗資料	582
IV. 無形文化財	583
第3節 文化財資料	601
第5章 體育·스포츠	610
第1節 解放前의 體育·스포츠(1895~1945)	610
I. 發芽期	610
II. 胎動 및 開化期	612
III. 日帝의 統制期	613
第2節 解放後의 體育·스포츠(1945~1993)	622

I. 過渡期的 努力과 6·25의 受難時代	622
II. 異常發達과 第2共和國時代	627
III. 第3共和國～第4共和國時代	632
IV. 第5共和國～第6共和國時代	644
V. 現代的 課題와 展望	668
第 6 章 宗 教	677
第1節 佛 教	677
I. 序 言	677
II. 三國時代	678
III. 統一新羅時代	689
IV. 高麗時代	698
V. 朝鮮時代	706
VI. 日帝時代	716
VII. 大韓民國時代	722
第 2 節 天主教	730
I. 朝鮮後期 天主敎의 受容	730
II. 天主敎의 大邱地域 傳播	738
III. 大邱敎區의 設定과 天主敎의 大邱地域 定着	745
IV. 民族의 受難과 激動을 함께한 大邱敎會	757
V. 韓國天主敎의 敎階制設定과 大邱地域 天主敎의 發展	766
VI.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宣敎 3世紀를 向하여	774
第 3 節 基督教(改新敎)	787
I. 黎明期	787
II. 敎會의 成長과 日帝의 彈壓	804
III. 解放과 敎會成長	819
IV. 韓國敎會成長의 特徵과 社會的 役割	824
V. 大邱地域 改新敎 現況	825
第 4 節 新宗教	847

I. 新宗教의 發生과 그 意義	847
II. 東學의 發生과 嶺南儒林社會	850
III. 日帝의 天皇制國家 支配理念과 新宗教運動의 새로운 展開	854
IV. 解放政局부터 第2共和國까지의 新宗教運動	861
V. 60年代의 經濟開發期와 70年代 高度 經濟成長期의 新宗教運動	872
VI. 80年代 以後 政治·社會的 變革과 新宗教運動의 새로운 展開	892
VII. 大邱地域 新宗教運動의 特性과 그 展望	905
第 7 章 民俗文化	914
第 1 節 序 說	914
第 2 節 人生儀禮	916
I. 序 言	916
II. 出生儀禮	916
III. 婚 禮	921
IV. 葬喪禮	927
V. 祭 禮	936
第 3 節 民俗信仰	940
I. 序 言	940
II. 洞 祭	941
III. 家神信仰	947
第 4 節 歲時風俗	950
I. 序 言	950
II. 農耕歲時	952
III. 民俗놀이	958
IV. 市民祝祭	965
第 5 節 農 樂	972
I. 序 言	972
II. 飛山農樂	975

III. 孤山農樂	977
IV. 旭水農樂	985
第6節 民 謠	987
I. 序 言	987
II. 모찌는 소리	989
III. 모심기 소리	992
IV. 논매기 소리	1001
V. 보리베기 소리	1006
VI. 타작소리	1007
VII. 어 사 용	1011
VIII. 방아타령	1016
第7節 傳 說	1020
I. 中 區	1020
II. 東 區	1024
III. 西 區	1033
IV. 南 區	1034
V. 北 區	1035
VI. 壽城區	1038
VII. 達西區	1040

第一卷 (通史)

第一篇 自然的 基礎

第1章 位置와 地理的 特性

第2章 地 質

第3章 地 形

第4章 氣 候

第5章 土壤·植生

第二篇 先史 및 古代

第1章 青銅器時代 以前의 文化情況

第4章 三韓時代의 大邱

第2章 青銅器時代

第5章 三國時代의 大邱

第3章 初期鐵器時代

第6章 統一新羅時代의 大邱

第三篇 高麗時代

第1章 後三國 鼎立期の 大邱地域과 公山戰鬪

第3章 民亂과 外侵

第2章 大邑中心의 郡縣制度 整備와 大丘縣의

第4章 高麗의 文化와 大邱

變遷

第四篇 朝鮮前期

第1章 地方雄府로서의 大丘都護府의 成長

第3章 朝鮮前期 文教政策과 大邱의 文化

第2章 大丘府의 社會·經濟的 成長

第4章 倭·胡兩亂과 大邱

第五篇 朝鮮後期

第1章 支配體制의 變化와 行政都市로의 定立

第3章 文化의 새 氣運과 文化都市로의 發展

第2章 社會構成의 變動과 經濟都市로의 成長

第4章 外勢의 侵略과 地域民의 抵抗

第六篇 日帝強占期

第1章 日帝 植民支配와 大邱地域의 行政

第4章 大邱地域의 教育

第2章 大邱地域의 産業과 經濟

第5章 大邱地域의 文化

第3章 大邱地域의 獨立運動

第七篇 現代

第1章 政治狀況의 變遷과 大邱市

第2章 大邱直轄市時代

第二卷 (政治·行政)

第八篇 政治

第1章 解放直後의 政治動向

第2章 美軍政時代

第3章 第1共和國時代

第4章 第2共和國時代

第5章 第3共和國時代

第6章 第4共和國時代

第7章 第5共和國時代

第8章 第6共和國時代

第九篇 行政

第1章 行政體制

第2章 市議會

第3章 市政施策

第4章 都市計劃과 都市開發

第5章 財政

第三卷 (產業·經濟)

第十篇 產業·經濟

第1章 總說

第2章 農·林·畜產業

第3章 鑛工業

第4章 流通 및 서비스產業

第5章 對外貿易

第6章 金融

第7章 建設과 住宅

第8章 交通·運輸·情報通信業

第9章 에너지產業

第10章 物價 및 消費動向 推移

第11章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第12章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第13章 觀光 및 「레저」

第14章 經濟團體 및 經濟關聯 研究機關

第15章 大邱經濟의 課題와 展望

第四卷 (社會)

第十一篇 社會

第1章 人口

第2章 住宅

第3章 交通·運輸

第4章 情報·通信

第5章 環境

第6章 社會福祉

第7章 市民意識

第8章 大邱市域 村落社會의 都市化

第9章 大邱의 建築

第六卷（資料）

第十三篇 資 料

第 1 章 三韓時代

第 2 章 三國時代

第 3 章 統一新羅時代

第 4 章 高麗時代

第 5 章 朝鮮前期

第 6 章 朝鮮後期

第 7 章 日帝強占期

第 8 章 政 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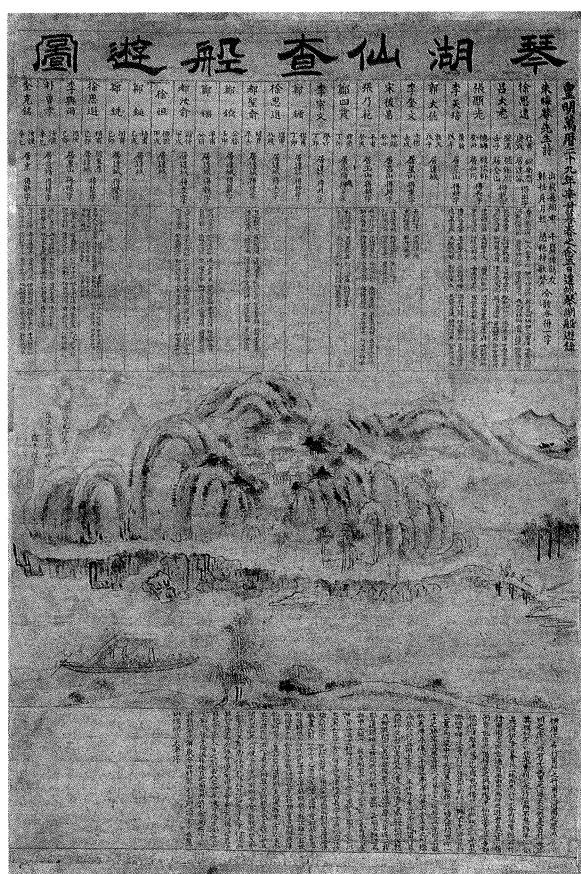
第 9 章 行 政

第 10 章 產業・經濟

第 11 章 社 會

第 12 章 文 化

第十二篇 文 化



琴湖仙查船遊圖

- | | |
|-----------|------------|
| 第1章 教 育 | 第5章 體育·스포츠 |
| 第2章 藝 術 | 第6章 宗 教 |
| 第3章 言論·出版 | 第7章 民俗文化 |
| 第4章 文 化 財 | |

第十二篇 文 化

第1章 教 育

第1節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教育

I. 三國時代의 教育

우리나라의 역사상 제도적인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삼국은 연맹 왕국시대를 청산하고 고대국가로서의 儀體를 갖추고 발전하여 가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사회도덕으로 유교를 중요시하고 이를 보급하고자 일찍부터 유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렇다고 선사시대에는 교육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촌락공동체 사회하에서는 단순한 관습이나 신앙의식, 생산기술, 도구의 제작술, 무예 전술 등이 전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교육 이전의 원시교육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삼국이전인 성읍국가시대부터 중국과의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문물이 흘러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한자는 철기문화의 전래와 함께 전해졌다. 기원전 2세기경에 辰國이 漢과의 교역을 희망하여 國書를 보낸 것을 보면 외교문서를 작성할 정도로 한자가 사용되었던 것 같다. 한자는 한군현 설치이후 널리 보급되어 갔으며, 삼국시대에는 문자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어 갔다.

한자의 전래와 사용은 문부의 정리, 외교문서의 작성, 사서의 편찬, 한문학의 발달을 가져왔다. 삼국시대에 문자의 사용이 이처럼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문자 지도를 위한 교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삼국시대의 유교교육은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을 세워 중앙의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를 교육하였다. 고구려 말기에는 국자박사, 대학사 등이 있어 모두 小兄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로서 임명하였다. 고구려는 지방에도 경당이라는 大屋을 세워서 평민의 자제들을 모아 독서나 弓射를 익히도록 하였다. 고구려인들은 유교의 경전인 5경, 중국의 史書, 옥

편, 字統, 字林 등의 사전, 문학서인 文選 등을 교재로 활용하였다.¹⁾

백제에도 박사제도가 있었으며 經·子·史 등의 서적을 읽었다 한다. 聖王때 양나라에 표를 올려 毛詩博士나 講禮博士를 구하였다²⁾는 것을 보면 유교에 대한 요구가 컸던 것 같다. 백제의 유교교육의 성과는 일본에 유교를 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阿直岐, 왕인 등이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였고, 5경박사인 高安茂, 段楊爾가 무왕대에, 王柳貴가 성왕대에 일본에 갔으며, 일본의 성덕태자의 스승이 된 阿佐太子 등의 공적은 백제의 유교교육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신라는 유교의 보급이 여·제에 비하여 늦었으며, 초기에는 학교마저 설립되지 않았으나 화랑도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화랑도는 성읍국가시대의 청소년 조직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나 청소년 집단은 연령과 性을 공통으로 하는 일종의 연령집단의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청소년 집단은 신라가 연맹왕국시대를 청산하고 고대국가체제로 발전하여 가는 과정에서 牛耕의 보급과 중국 군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6세기경 고구려와의 전쟁과 가야와의 싸움 등으로 많은 군사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진흥왕대에는 민간의 청소년 조직을 조정에서 공인하여 화랑도로 개편하였던 것 같다. 조정에서 화랑도를 공인한 것은 인재의 양성과 공급에 그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반관반민의 단체였다.

화랑도는 많은 경우 7개이상의 화랑집단이 있었으며, 이를 운영하는 중심기관이나 인물이 있었던 것 같다. 花主는 그 중심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랑도는 화랑 1명과 승려 약간 명, 수백명의 낭도로 구성되어있던 것 같다. 화랑집단의 구성원들은 15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었으며, 그들은 일정기간 동안 단체생활을 하면서 남산, 금강산, 지리산, 팔공산³⁾, 울주의 川前里계곡 등 명산대천을 유오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국토에 대한 애정을 기르는 도의를 연마하며, 유교의 경전을 익히기도 하였다. 화랑도의 도의는 원광법사가 쓴 세속오계나 壬申誓記石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당시의 신라인이 지켜야할 정신적 덕목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랑도는 진흥왕대에 만들어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약 1세기간에 걸쳐 활기를

1)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2, p. 259.

2) 《三國史記》百濟本紀 권 4, 聖王 19년條

3) 팔공산은 신라시대 中祀五岳의 하나인 中岳이며, 영남의 명산영악으로서 신라의 화랑들의 수련지이고 김유신 장군이 화랑시절에 수도한 최소로 화랑의 유적으로선 불멸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文暉鉉, 《八公山》八公山史蹟, 地表調査報告書,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 1987, p. 97).

떠어 현명한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⁴⁾ 화랑도는 진골귀족과 평민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전사단으로서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엄격한 신분제 사회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과 알력을 조절, 완화하는 데도 부분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통일후 장기간에 걸친 평화가 계속되고 사회 기강의 문란으로 그 수련과 목표도 통일전의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놀이를 위한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빛을 잃게 되었다.

삼국시대에는 유교교육외에도 불교·도교가 전래되어 당시의 敎誨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II. 統一新羅時代의 教育

신라의 삼국통일은 비록 불완전한 통일이었으나 독립된 한국민족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한국사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지대하다 하겠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막대한 영토와 인구를 지배하기 위하여 안으로 새로운 정치제도를 정비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통일이전의 제도와 唐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六典組織 체계를 확립하였다. 신문왕대에 정비된 중앙의 통치기구인 執事部이하 12부를 두고 각 관부의 관직체계는 令, 卿, 大舍, 舍知, 史를 기본으로 하는 5단계 조직을 갖추었고, 지방의 통치구구는 왕경(王京)을 6부 55리 360방으로 나누고, 신문왕 5년(685)에는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었다. 주 밑에는 군현을 두고 외관을 파견하였다. 군사조직면에 있어서도 9서당과 10정을 설치하였다. 이같은 제도의 정비에 따라 집권체제를 확립하고 지배체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삼국이래의 충·효·신을 사회 도덕적 이념으로 중시하였던 유교를 이제 도덕 정치의 이념으로 삼지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 통일신라의 관제교육기구의 정비는 새로운 면목을 띠게 되었다.

통일신라의 관학교육은 유교교육과 기술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중앙에 설치한 국학은 신라의 고등교육기관이었다. 국학은 진덕왕 2년(648)에 김춘추가 당에 들어 갔을 때 당의 국학을 시찰하고 釋奠과 강론을 보고 돌아온 후 동왕 5년(651)에는 교육을 관장할 大舍 2인을 둠으

4) 崔致遠, 〈鸞朗碑序文〉 참조.

로써 국학 설치의 바탕을 마련하였다.⁵⁾

그후 신문왕 2년(682)에는 국학의 장인 경을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기능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뒤 성덕왕 16년(717)에는 대감 守忠이 당으로부터 돌아오면서 문선왕(공자)·10哲·72제자의 圖像을 가지고 돌아와 국학에 안치함으로써 국학의 권위는 더욱 더하게 되었다.⁶⁾

국학의 교육은 3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그중 논어와 효경은 필수과목이었고, 거기에 5경과 문선을 더하여 박사와 조교를 두고 교수하였다. 국학에 입학한 자격은 位가 대사로부터 無位에 이르고, 연령은 15세~30세였던 것 같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 학업에 익숙하지 못한 자는 9년이 넘어도 재학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位가 大奈麻·奈麻에 이른 뒤에 국학을 졸업시켰다.⁷⁾ 이런 규정으로 보아 국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나마의 관등을 가질 수 없는 4두품은 입학의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5두품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 대나마이므로 졸업시에 이미 나마·대나마가 되는 학생은 5두품과 별 연관이 있지 않는 것 같다. 또한 9년의 학업 후에 대나마가 될 수 있는 국학생은 진골에게도 매력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국학에 입학한 학생은 6두품의 신분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⁸⁾

經學中心)의 유교교육이 신라 중대에 정비되면서 인재 채용의 기준은 종래의 骨品이나 화랑도 중심으로부터 유교적 교양을 갖춘 문적중심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원성왕 4년(788)에 독서삼품과라는 관리 채용을 위한 국가시험제도가 마련되었다.⁹⁾ 이것은 국학에서 배운 독서의 성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었다. 5경·3사·제자백가서에 능통한 자는 특채되었다. 이같은 유교교육을 신봉한 것은 6두품이었다. 이들은 현세적 도덕지상주의를 내세우고 佛土중심의 이원적 세계관에 비판을 가하였고, 신지식층인 이들은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진골귀족에게 대항하였다. 이러한 대표적 인물이 強首와 薛聰이었다.

신라의 유교교육은 중앙의 국학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학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말에 청주지방에 學院이라는 교육기관이 호족에 의하여 운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면,¹⁰⁾ 학원이 설치된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소경(小京)이나 주치소(州治所)같은 대읍(大邑)에는 지방의 관학기구인 학원이 설치되었던 것 같다. 경덕왕 6년

5) 《三國史記》 권 38, 雜志 7, 職官上, 國學條.

6) 《三國史記》新羅本紀 권 8, 聖德王 16년 9월條.

7) 註 5와 같음.

8)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pp.368~369.

9) 《三國史記》新羅本紀 권 10, 元聖王 4년條.

10) 金光洙, 〈羅末麗初의 地方教育問題〉 《韓國史研究》 7, 1992. 참조.

(747)에 각 주에 州助(助教인듯함)를 설치하고 熊川州 조교에 韓恕意를 임명하였으며,¹¹⁾ 원성왕 원년(784)에는 靑州(靑州)의 老居縣을 학생 녹읍으로 삼았다¹²⁾는 것은 이같은 사실을 잘 말하여 주는 자료라 하겠다. 그러나 중대에 설치한 학원은 하대에 이르러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호족이 대두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을 누리고 있었던 호족의 지배하에 들어가 어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청주의 학원은 이같은 시대적 배경하에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통일신라의 교육은 유교교육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의 기술교육은 천문학, 역학, 의학, 율·서·산학 등 다양하였다. 《삼국사기》의 천문지나 五行志, 曆志 등의 기록이나 첨성대의 설치, 효소왕대에 천문도의 전래, 성덕왕 17년(715)에 漏刻典을 설치하고 누각박사를 두어 시각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며,¹³⁾ 혜공왕대에 김유신의 후손인 金巖이 당으로부터 음양비법을 배워 돌아와 司天博士에 임명되었다¹⁴⁾는 것등을 보면 신라의 천문학과 역학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라의 의학은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던 것 같다. 효소왕 원년(692)에 의학을 세우고 의학박사 2인을 두어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脈經, 明堂經, 難經 등 7개 과목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면¹⁵⁾, 한의방의 바탕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덕왕 16년(717)에는 의학박사 1인을 설치하였고 내성의 藥典에 供奉醫師, 供奉卜師 등의 의관직을 두어 왕실이나 귀족들의 치병을 담당하도록 한 것 등을 보면¹⁶⁾ 신라의 의학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시대의 율학은 전제왕권과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輔治之具로서 중요시되었다. 경덕왕 6년(747)에는 諸業博士를 두었고 왕 17년(758)에는 律令博士 2인을 두었으며, 내성의 律令典에 박사 6인을 두었다.¹⁷⁾ 書學은 육예의 하나로 대외관계에 있어서 書表事라든가 文簿의 정리, 서적의 편찬 등 치자들에게는 필수불가결의 것이었다. 신라의 서학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학의 설치와 함께 국학생들에게 겸습시켰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산학은

11) 《東京通志》권 3, 景德王 丁亥 1월 및 《東史綱目》第4下, 景德王 6년 1월條.

12) 《三國史記》新羅本紀 권 10, 昭聖王 元년 3월條.

13) 위의 책, 권 38, 雜志 권 7, 職官上, 漏刻典條.

14) 위의 책, 권 43, 列傳 3, 金庾信傳下.

15) 위의 책, 권 39, 雜志 8, 職官中, 醫學條.

16) 위의 책, 藥典 및 供奉醫師, 供奉卜師條.

17) 《三國史記》律令典條.

국학에 설치하여 산학박사나 조교로 하여금 綴經, 三開, 九章, 六章을 교수하였으며,¹⁸⁾ 성덕왕 16년(717)에는 의학박사와 함께 산학박사를 두어 산학을 담당하도록 하였다.¹⁹⁾ 산학은 재정의 출납과 회계 등 재정사무에 관한 중요한 분야로서 귀족들은 六藝의 하나로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산학이 국학생 전원에게 항시적으로 지도되었는지 아니면 수시로 지도되었는지 또는 산학생에게만 지도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국학에서 귀족들의 교양으로서 교수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신라의 산학은 특히 불교예술의 발달과 함께 사원의 평면 구성이라든가, 석탑의 비례 구성 등에 정밀하게 응용되었던 것을 보면²⁰⁾ 그 수준을 짐작할만하다.

통일신라의 교육은 공교육외에 사교육도 실시되었던 것 같다. 귀족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독립성은 사교육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지배귀족의 후원하에 승려를 포함한 다양한 사상과 귀족문화가 요구했던 기예자를 양성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담당한 것은 불사의 승려나 귀족들의 家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을 것이다.²¹⁾

통일신라시대에는 홍학책의 하나로 국학진흥을 위하여 국왕의 행학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며,²²⁾ 宿衛學生들의 활동은 신라말의 유교사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²³⁾

第2節 高麗時代의 教育

I. 麗初의 崇儒興學策

고려는 신라의 골품제도로부터 벗어나 유교적 정치이념에 바탕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체제를 확립하였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창업의 안정과 成俗化民을 위하여 승유홍학책을 정책을

18) 앞의 책, 권 38, 雜誌 7, 職官上, 國學條.

19) 위의 책, 新羅本紀 권 8, 聖德王 16년 9월條.

20)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pp.293~295.

21) 強首가 스승으로부터 孝經·曲禮·爾雅·文選 등 일정수준의 유학교육을 받은 것은 가학이나 개인적인 교수에 의한 교육이라는 느낌이 든다.

22) 신라시대에 국학진흥을 위한 국왕의 幸學은 혜공왕 원년과 12년, 경문왕 3년, 헌강왕 5년에 시행되었음을 《三國史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3) 宿衛學生의 活動에 관한 모습은 申滢植의 〈宿衛學生考〉《歷史教育》11·12合, 歷史教育研究會, 1969가 참고된다.

의 중요한 과제로 내걸고 유교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태조 왕건이 송유흥학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은 먼저 학교의 건설이었다.

왕건이 창업초에 문물제도를 정비하면서 개경에는 신라의 고등교육기관을 이어받아 국학을, 지방에는 서경을 경략하면서 西京學校인 학원을 설치하였다. 서경학교는 태조 13년(930) 왕건이 서경에 행차하여 세운 최초의 학교였다.²⁴⁾ 서경학교가 설치된 것은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5년 전이었다. 이러한 태조의 송유흥학책이나 유교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은 신라말의 6두품출신으로 유교적 학문과 식견을 가진 신지식층이나 중국의 吳, 越 등에서 투화해 온 문사들로 보인다.²⁵⁾

태조의 흥학책은 광종대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된다. 광종은 貞觀政要를 읽고, 거기에 담긴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개국공신과 義向歸順者를 숙청하였으며, 왕 9년(958)에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문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광종대의 과거제도는 재위 26년간에 걸쳐 39명의 급제자를 내었으며²⁶⁾ 그 중 晉競과 유방현은 향공진사 출신이었다. 이러한 국초의 송유흥학책은 성종대에 이르러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성종은 好學의 군주로서 라말 경주 지방의 6두품 출신인 최승노의 보필을 받고, 유교적 정치이념을 치국의 요체로 삼았다. 성종은 치국의 본무는 효라고 하면서 6도에 사자를 보내어 효자, 順孫, 義夫, 節婦를 찾아 포상하도록 하였으며.²⁷⁾ 학교교육을 통하여 유교를 가르쳐 인재를 뽑아 관리로 등용하도록 하였다.²⁸⁾ 성종은 태조이래의 중앙관제를 3성, 6부, 7시로 고쳤다. 가 동왕 14년(995)에 제도의 정비를 보게 되었다. 또한 지방은 왕 2년(983)에 12牧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가하였다. 이같은 경외의 제도의 정비에 따라 유능한 관료의 양성과 선발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성종은 국초의 국학을 국자감으로 정비하는 한편 과거의 복시제를 실시하여 왕이 직접 과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송의 국자감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학문을 연구해 오도록 하였다. 성종 2년(983)에 박사 任老成이 송으로부터 돌아오면서 4도·72현찬기를 가져와 국학에 안치하였다.²⁹⁾

성종은 왕 6년(987)에 鄭又鉉 등에게 급제를 사하면서 내린 교서에 12목에 경학박사 및 의

24) 宋春永, 〈高麗時代의 西京學校〉《大丘史學》28, 大丘史學會, 1985, 참조.

25) 宋春永, 〈高麗時代 鄉校의 變遷史的 考察〉《歷史教育》41, 歷史教育研究會, 1987, pp.42~43.

26)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p.9.

27) 《高麗史》世家 권 3, 成宗 9년 9월敕.

28) 《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成宗 5년 7월條.

29) 4圖란 大廟堂圖 1鋪, 并記 1권, 社稷堂圖 1鋪, 并記 1권, 文宣王廟圖 1鋪, 祭器圖 1권을 말한다. 《高麗史》권 3, 世家, 成宗 5년.

학박사 각 1인을 파견하여 諸生을 교도케하고, 州牧府縣의 장관으로 하여금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京師에 천거하도록 하였다.

성종은 왕8년(989)에는 교육의 성효가 부짐함을 안타까워 하면서 대학 조교인 宋承演과 나주목의 경학박사 全輔仁을 포상하였으며,³⁰⁾ 동왕 9년(990)에는 修書院을 설립하고 史籍을 비장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왕 11년(992)에는 학교는 風化之源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사에 명하여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학당을 짓고 토지를 주어 제생들의 學糧에 충당하여 학업에 열심히 하도록 하였다.³¹⁾

여초의 송유흥학책은 이후 문종대에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고, 사학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예·인종대에 이르러서는 고려 전기의 교육이 절정기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인집정 이후 약 1세기간은 문무가 교체되고 오랜 전란으로 국토가 황폐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져 전기에 발달하였던 교육은 점차 쇠퇴하여 갔다. 그후 외침이 중단되고 고려의 정치적 안정이 나타나면서 고려후기의 교육은 차차 회복이 되어 갔다. 특히 충렬왕대에 원으로부터 주자학이 전해져 이것이 신홍사대부들에게 수용되면서 고려후기의 학풍은 전기의 唐宋絶句 중심의 詞章風에서 經學風으로 바뀌어져 갔으며, 성리학은 성균관과 향교뿐만 아니라 書齋교육을 통하여 보급되어 갔다.³²⁾ 여말의 이같은 성리학의 발달과 유학교육의 부흥을 주도한 것은 신홍사대부들이었으며, 이같은 변화는 조선시대교육의 바탕이 되었다.

II. 官學教育

1. 유학교육

고려는 유교적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초부터 학문과 식견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고자 관학교육기구를 설치하고 과거라는 관리등용제를 실시하여 유능한 관리를 채용하였다.

고려의 관학교육은 유학교육부와 기술교육부로 나누어져 있었다. 중앙의 국자감과 동·서학당, 지방의 향교는 유학교육을 위한 중심기구였으며, 율학, 서학, 산학, 의학, 譯學, 천문학, 지리학 등은 기술교육부에 속하며 이들 잡학부는 당해 전문기구에서 관장 운영하였다.

30) 《高麗史》志 28, 選舉 2, 學校, 成宗 8년 4월敎.

31) 《高麗史》世家 권 3, 成宗 11년 12월 丙寅敎.

32) 李秉然, 〈麗末鮮初의 科業教育 - 書齋를 中心으로 -〉《歷史學報》67, 歷史學會 1975, 참조.

1) 국자감의 설립과 그 운영

고려시대 중앙의 최고 학부인 국자감의 설치 연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성종 11년(992)에 ‘又創國子監’이란 기사가 보이는데 이를 국자감 설립의 연대로 보려는 견해가 적지 않다.³³⁾ 그러나 고려 국자감의 연원은 신라의 국학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 창업초에는 신라의 국학을 이어받아 명칭도 그대로 사용 운영하여 왔으나 성종초에 이르러 京外의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자감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그 직제를 정비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사》 선거지 서문에 태조 왕건이 ‘首建學校’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며, 태조 13년(930) 12월에 서경에 행차하여 학교를 세웠다는 기사를 보면, 수도인 개경을 버려둔 채 서경에만 학교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종 2년(983)에 태조 이래의 중앙제도를 3성·6부·7시로 정비하고, 개경을 5부로 나누고, 지방을 12목으로 나누어 목사를 파견한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교육기구도 정비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성종이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함에 따라 鄉豪들은 반발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성종은 향호들의 자제 260명을 개경에 불러올려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성종 2년(983) 5월에 박사 任老成이 송으로부터 돌아오면서 4도·72현찬가를 가져와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것을 보면 개경에 260명을 수용하여 교육을 시킬 정도의 전문기구가 마련되었을 것이 분명하며, 그 교육기구란 신라시대의 국학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같은 사실은, 성종 6년(987) 4월에 유방현이 유신대책에 응시하여 首科하였고, 2년 뒤인 왕 8년(989)에는 대학조교인 宋承演을 포상하여 국자박사에 제수하였으며,³⁴⁾ 그해 4월에는 헛되이 국학에 이름만 걸어놓고 春場에 재주를 겨루는 사람이 드물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勝地를 가려 서재와 학사를 널리 짓고, 田庄을 주어 學糧에 충당하도록 한 것 등을 보면 여초에는 신라의 국학을 이어받은 국립대학이 개경에 존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성종 11년 이전에 이 국학안에 국자학·태학·사문학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시기는 성종2년에 중앙의 제도를 정비하였던 시기로 비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성종 11년(992)의 ‘又創國子監’이란 국자감의 창립연대로 볼 수 없고, 이 연대는 여초의 국학을 국자감으로 개편 정비하고 그에 따른 學舍의 건립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33) 申千湜, 《高麗教育制度史研究》, 螢雪出版社, 1983, 참조.

34) 《高麗史》志 28, 選舉 2, 學校, 成宗 8년 4월敕.

고려의 국자감은 그후 문종대에 직제가 완성되었으나, 충렬왕 원년(1275)에는 국학, 동왕 24년(1298; 충선왕 즉위년)에는 성균감으로, 동왕 34년(1309; 충선왕 복위년)에는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공민왕대에는 國子監, 성균관 등으로 자주 변경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의 성균관으로 이어졌다. 국자감의 명칭이 이처럼 시대에 따라 여러차례 변경될 때마다 그에 속하였던 학관직명도 그때마다 바뀌어졌다. 고려시대의 국자감은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의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로 나누어졌으며 이를 문종대에는 京師六學이라 칭하였다.

문종대에 완비된 국자감은 거란 및 여진족의 침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과 사학의 발달로 인하여 숙종 7년(1102)에는 국학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예종 4년(1109)는 관학 진흥책으로 崔冲의 9재학당을 모방하여 국학에 7재를 설치하고, 동왕 14년(1119)에는 養賢庫를 설치하여 교육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7재중 6재는 유학의 전문강좌이고, 하나는 講藝齋(武學齋)로 이는 북방의 여진족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국자감생은 일반 국자감생과 7재생으로 양립되었다. 7재생중 유학의 전문강좌인 6재(麗澤, 待聘, 經德, 求仁, 服膺, 養正齋)에는 대학생 崔敏庸 등 70인을 試取하여 각 재에 분처케 하고, 강예재(무학)에는 韓自純 등 8인을 뽑아 처하게 하였다.³⁵⁾ 그후 인종 11년(1133)에는 문·무의 불화로 무학재인 강예재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인종대에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학규를 式目都監에서 손질하여 국자감의 학식을 상정하여 국자감의 입학자격, 교육과정, 수업연한 등을 규정하였다.³⁶⁾

학식에 규정된 입학자격은 국자학은 3품이상, 태학은 5품이상, 사문학은 7품이상의 자가 입학되었으나 율학, 서학, 산학은 8품이하의 자와 7품이상의 자중 원하는 자가 입학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응시자격은 문종대에 비하여 인종대에는 크게 완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인집정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하였던 당시에는 이같은 학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국자감의 정원은 학식에 국자학, 태학, 사문학에 각 300인 재학하였다는 것을 보면 유학부에는 900명의 정원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당의 제도를 본받아 그대로 법제적 정원을 이기한테 불과하며, 실제로는 유학부의 3학에는 각 100명으로 전체 300명 정도였던 것 같다.³⁷⁾ 이러한 사실은 인종 8년(1130)에 국학 폐지론에 반대하여 국학생들이 올린 상소에 ‘국

35) 앞의 책, 睿宗 4년 및 14년 7월條.

36) 위의 책, 仁宗朝 式目都監 詳定學式(下略) 참조.

37)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p.371.

학생도가 2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보면,³⁸⁾ 당시의 국학생들의 정원을 추정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국자감의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은 유학부의 경우, 효경·논어는 필수과목으로서 1년으로 하되 도덕·윤리의 기본적 교양을 갖추고 경서를 읽도록 하면서 산술과 시문책을 읽히며 하루 1장 정도의 습자도 쓰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자림등 사전류의 문자를 알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수업연한은 8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국자감생은 3년간 재학 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종 17년(1063)에는 유생으로 국자감에 9년을 재학 하였는데도 우매하여 성효를 거둘 수 없는 학생은 퇴출하도록 하였으며, 인종 14년(1136)에는 국자감생의 능력별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것을 보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능력에 따라 과목의 자유선택이 가능하였던 것 같으며, 재학 연한은 3~9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³⁹⁾

국자감의 유학부 교관은 대체로 과거합격자로서 경학에 뛰어나고 학행이 독실하여 사범이 될만한 인물을 박사·조교로 삼아 경서를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운영관으로는 국초에는 제거(提舉), 판사 등이 있었으나 겸관직이어서 실질적 운영관은 國子祭酒(종3품)가 총장직이었다. 그러나 예종 11년(1116)에는 판사를 대사성(종3품)으로 개칭하고 총장직을 맡게 하므로써 제주(祭酒)는 부총장격으로 격하되었으며, 그 아래에 실무를 관장하는 여러 직관을 두었다.

고려의 유학교육은 무인집정과 몽고의 침입으로 크게 쇠퇴하였으나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충렬왕이후에는 점차 회복되어 갔다. 經史教授都監의 설치, 瞻學田의 설치, 국학의 대성전 신축 등 흥학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성리학이 전래되어 신흥사대부들에게 정치적 새로운 이념으로 수용되면서 유풍은 크게 진작되었다. 특히 공민왕 16년(1367)에는 성균관을 중영하고 5경 4서재를 분설하여 李穡을 대사성으로 삼아 학관의 장으로 하고, 김구용(金九容), 정몽주, 李崇仁 등의 명유를 학관직에 겸대시켜 교도케 함으로써⁴⁰⁾ 국학은 크게 떨치게 되었고 유풍은 詞章風에서 경학풍으로 바뀌게 되었다.

고려후기의 이러한 유풍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교육의 변화는 종래 국자감에 소속되었던 율학과 서학, 산학을 분리시켜 당해 전문기구에서 관장 운영하도록 하면서 유학은 성균관에서만 관장하도록 하였다. 공양왕 원년(1389)에 10학교수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⁴¹⁾ 유학부와 잡학부(기술학부)의 분리로 이는 여말의 교육의 큰변화라 하겠다. 이같은 여말의 교

38)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仁宗 8년 7월.

39) 朴龍雲, 앞의 책, pp.372~373.

40) 《高麗史》 권 115, 列傳, 李穡.

41)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十學條.

육제도의 개혁을 주도한 것은 조선건국의 주체세력인 신흥사대부들이었다.

2) 향교의 설립과 보급

고려시대 지방교육을 담당하였던 교육기관은 향교였다. 그러나 향교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학교가 설치되었다. 태조 13년(930)에 설치된 서경학교인 학원이 그것이다. 이 학원은 여말에 이르러 향교화되었다.

고려의 지방학교인 향교는 조선시대 향교의 전신으로 지방자제의 교육과 선현의 奉祀라는 이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교적 정치이념을 널리 보급하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 공급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의 향교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그 연원은 통일신라기의 지방학교의 전통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기에 지방학교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라말의 청주지방에서는 호족에 의하여 학원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태조가 서경에 설치한 서경학교인 학원은 라말의 학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라말 여초의 호족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학원과 같은 지방학교는 고려의 집권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감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도 제도화된 지방교육기구로 설립하게 되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에 서경외의 다른 지방에 교육기구를 설치한 것은 성종대에 이르러서였으며, 그것은 지방제도의 정비과정과 때를 같이한다.

성종은 왕 2년(983)에 전국을 12주로 나누고 각 주에 牧을 두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12목이란 양주, 경주, 공주, 청주, 충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황주로서 이곳은 통일신라시대에도 중요시하였던 곳이다. 성종은 또한 그해 12월에는 주부군현의 吏職을 개혁하고 향호들을 재편하여 집권체제를 확립하였다. 이같은 성종의 지방정책은 전국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장악함으로써 지방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고,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함으로써 향호들의 지위와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호들은 그들의 제지적 기반이 약화되었을 것이며, 중앙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종은 향호들의 반발을 회유하고 이들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향호들의 자제를 중앙에 불러올려 유교교육을 시켜 관료로 등용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향호들은 중앙의 권력구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재지적 기반과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양자의 이같은 이해 관계는 이들이 상호 제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종은 12목에 외관을 파견하면서 향호들의 자제 260명을 개

경으로 불러들여 유학교육을 시켰던 것이다.⁴²⁾

그러나 260명의 上京習業生중 207명은 성종 5년(986)에 귀향시키고, 53명만 개경에 머물러 유학교육을 시켰다. 그후 성종은 귀향생 207명을 교육시킬 교수관이 없음을 알고, 동왕 6년(987) 8월에는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각 1명씩 파견하였다. 이같은 교수관의 파견은 라말여초에 향호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던 지방교육이 중앙의 통제하에 들어가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고려시대의 지방 관학교육기구인 향교 발족의 바탕이 되었다.

성종은 12목에 교수관을 파견한 후 지방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학생지도를 부지런히 행하고 제생을 가르치면 그 공적의 심천을 헤아려 탁용하도록 하고, 왕 8년(989) 4월에는 나주목의 경학박사인 全輔仁을 포상하였으며,⁴³⁾ 문관으로 제자가 10명이하 있을 때는 임기가 차서 천직할 때가 되어도 중앙에 알려 포폄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학박사가 1명의 문생도 과거에 응시할 자를 내지 못할 때는 유임시켜 성효에 따라 官階를 주도록 하였다.⁴⁴⁾ 성종 11년(992) 1월에는 교서를 내려 ‘중앙에는 학교를 열어 儒術을 높이고, 지방에는 학교를 설치하여 생도를 권과하여 문예를 경쟁하는 장으로 삼아 경서를 연구하는 업을 넓히도록 하라(《고려사절요》권 2, 성종 11년 1월교)’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볼때 성종초에 이미 지방 관학교육기구인 향교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향교의 시설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성종 6년의 교수관 파견을 향교의 발족으로 보고, 왕 11년의 학교설치를 향교의 시설 정비로 본다면 이시기에 제도적인 관학교육기구가 명실공히 마련되었음이 분명하다. 성종 6년에는 경주를 東京이라 하고 동경유수관에 文師(9품)와 의사(9품)를 각각 1인씩 설치한 것을 보면 12목과 3경에는 지방교육기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주향교는 《東京通志》학교조에 ‘신문왕 2년에 설치한 신라의 옛 국학기지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보면, 다른 지방의 향교 설치와는 다르다.

성종대에 정비된 지방 통치제도는 목종을 거쳐 현종 9년(1018)에 이르러 4도호부·8목·56지주군사·28진장·20현령으로 확립되었으며, 문종대에 그 완성을 보게 되었다.

성종초에 설립된 향교는 이같은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갔다. 목종 6년(1003)에는 3경10도의 박사·師長으로 교육에 성효가 있는 자는 그 명단을 보고하도록 한 것을 보면 지방교육이 성종대에 비하여 더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9년(1018)에 정비

42) 앞의 책,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成宗詔.

43) 위의 책, 成宗 8년 4월敕.

44) 위와 같음.

된 지방행정제도를 감안하면, 이 시기에는 강학을 담당할 교수관이 상당수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종대에는 더욱 확대되었던 것 같다. 문종이 남경을 설치하고 외직제를 개정하면서 東京·南京과 대도호부(대독부 포함)에는 의사와 문사를 각 1인씩, 방어진과 지주군사에는 문학과 의학을 각 1인씩 두어 강학과 치병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사실을 잘 말하여 준다. 그후 예종은 즉위년(1106)에 3경·8목의 通判이상 및 지주군현령중 문과출신자에게 학사 사무를 겸관토록 함으로써 守明學校를 수령의 중요한 직능으로 하였다.⁴⁵⁾

인종은 왕 5년(1127) 3월에 서경에 행차하여 15개조의 유신교서를 포시하였다. 그중 14번째의 항목은 지방교육을 진흥시키고자 ‘諸州에 학교를 세워 교도를 넓히라’고 하였다. 이같은 인종의 홍학책으로 고려 전기의 향교는 전국에 상당수 설립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향교라는 명칭은 인종 20년(1142)의 判文에 ‘界首官鄉校都會’라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보이며, 그후 충선왕과 이색과의 대화 가운데 ‘광묘이후 더욱 문묘를 닦아 서울에는 국학을, 지방에는 향교를 열치하였다’는 기사에서도 향교라는 명칭이 보이며, 여말에는 향교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된 기록이 보인다. 특히 인종 20년 전에 진주·부평·강화 등지에 향교가 실재하였다는 것을 보면⁴⁶⁾ 고려 전기부터 향교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럼에도 인종 5년(1127) 3월에 반포한 유신교서를 보고 향학의 시치 연대를 인종 5년으로 보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종 5년의 기사는 향교를 시치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전국에 널리 학교를 세워 敎誨를 넓히라는 것이다. 이런점으로 보아 고려시대 향교의 발족은 성종초로 보는 것이 옳을듯 싶다.

고려시대의 향교의 명칭은 주에는 주학, 군에는 군학, 현에는 현학으로 불렸을 것이며, 이것을 鄉學 즉 향읍(지방)의 학교인 향교로 통칭되었을 것이다. 고려후기에 향교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이색이 홍학책의 일환으로 ‘지방에는 향교, 서울에는 학당에서 재주를 시험하여 12도에 올려야 한다’⁴⁷⁾는 것이라든가, 공민왕12년(1363) 5월에 ‘성균관 12도, 동서학당, 諸州郡 향교는 엄격히 교육을 하여 인재를 기르도록 하라’⁴⁸⁾는 교서의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인종대에 향교가 전국적 규모로 확대 보급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구획안에 있던 제군현에도 향교가 보급되어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대에 상주향교와 경주향교가 설치되었으나

45) 앞의 책, 睿宗 卽位年制.

46) 朴贊洙, 〈高麗時代의 鄉校〉《韓國史研究》42, 韓國史研究會, 1983, p.45.

47) 《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恭愍王 元년 4월 李穡上.

48) 위의 책, 恭愍王 12년 5월敎.

문종이후 인종대에 이르기까지 선산, 영해, 영천, 성주, 안동 등에도 향교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大丘는 京山府에 속하였던 현이었으나 인종 21년(1143)에 현령을 둬으로써 대구의 자제들도 향교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무신집정 이후 약 1세기간의 정치적 혼란과 외침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등의 사정은 향교의 쇠퇴를 가져오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지방 관학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최씨 무신집정기에도 교육과 과거를 실시하여 문인을 포섭 등용하였다. 이것은 무신집정기에 침체하고 쇠퇴하였던 교육과 과거를 부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문인을 회유 포섭하고 무신집권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문한관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 제한적이고 변칙적인 것이었다. 예종대에 예부시 응시자가 600인 이었던 것이 명종 5년(1175) 10월에는 300인으로 반감한 것을 보면⁴⁹⁾ 문운이 크게 침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교육이나 과거가 쇠퇴하였다고 하여 향교의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종 7년(1220)에 李世華가 백령진장으로 가서 향교를 설치하여 권학에 힘써 과거에 응시하는 자가 많이 나와 고을 사람들이 경모하였으며⁵⁰⁾ 이규보가 狹島로 귀양갈 때 도중에 保安縣에 이르렀을 때 이곳의 교생들이 술을 가져와 위로함에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를 지어주었다는 것을⁵¹⁾ 보면, 여주·백령진·보안현 등지의 향교는 이 시기에 실제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후 고려가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충렬왕대에 성리학이 전래되어 신흥사대부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보급되고, 제왕의 홍학책으로 고려 후기의 향교는 점차 부흥되어 갔으며, 이것은 조선시대의 향교로 이어져 갔다.

향교의 시설은 祠宇와 명륜당, 齋가 기본 건물이지만 이외에도 부속건물이 마련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향교의 건물시설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문묘와 강학당이 구분되지 않고 한 건물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명륜당도 없었던 것 같다.

祠宇는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듯 하다. 신라 성덕왕 16년(717) 9월에 대감 수충(守忠)이 당으로부터 돌아오면서 문선왕·10월·72제자의 도상(圖像)을 가져와 국학에 비치한 것이 효시이다. 《삼국사기》권 40 잡지 직관조에 ‘공자 廟堂大舍’라는 직관이 보이고, 혜공왕이후 4차례나 幸學이 있었던 것을 보면, 국왕이 常祀日에 행학하여 석전제를 올리고 학관

49) 《高麗史》世家 권 19, 明宗 5년 10월 丙戌條 및 《東文選》권 23, 及第放榜敎書.

50) 《東國李相國集》後集 권 12, 墓誌, 李世華墓誌.

51) 위의 책, 全集 권 17, 古詩律, 十二月 移寓保安縣.

으로 하여금 경의를 강론하도록 하였던 것 같다.

고려의 廟學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종 2년(983)에 박사 任老成이 송으로부터 돌아오면서 4도와 72현찬기를 가져왔으며, 왕 8년(989)에는 대묘를 건립한 것을 보면 성종초에 이미 묘학제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후 선종 8년(1091) 9월에는 송의 국자감 예에 따라 72현의 도상을 국학의 벽에 걸어놓고 향사를 올리도록 한 것을 보면 선종대에 문묘제가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원의 耶律希逸이 고려의 문묘가 좁고 더러우니 새로이 지을 것을 건의함에 문묘를 증건하여 충렬왕 때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충렬왕 30년(1304)에 박사 金文鼎이 원으로부터 돌아오면서 문선왕상과 72제자의 상, 諸書, 제기 등을 가져왔으며,⁵²⁾ 충숙왕 12년(1325)에는 평양부의 祠宇에도 문선왕·10철·70제자와 본국의 文昌侯, 弘儒侯를 배향하여 문묘제를 갖추게 되었다.⁵³⁾ 이러한 문묘제도는 국학이나 서경학교에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제주현의 향교에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예지의 〈諸州縣文宣王廟條〉에 문묘석전제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강릉향교나 영해부신작소학기에도 묘학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하여 준다. 이러한 묘학의 설치시기는 성종 11년경으로 보이며 문묘제가 확립된 것은 선종 8년경으로 보인다.

문묘에는 공자이하 10철·72제자의 상을 봉안하고 춘추 2월과 8월의 上丁日에 석전제를 올렸으며, 이것은 중의가 같았다. 그런데 숙종 6년(1101) 4월에 문묘의 좌우 복도에 61자·21현의 도상을 그려놓고 從祠하도록 한 것을⁵⁴⁾ 보면 외방의 향교에도 이같은 것을 설치하여 향사를 올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성주조에 성주의 문묘에 5성·10철을 봉향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개경의 문묘제도를 모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문묘에 봉향한 선성선현은 처음에는 도상을 그려 국학이나 향교의 문묘벽에 걸어 놓았으나 원의 간섭하에서는 塑像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 같다. 충숙왕 7년(1320)에 왕이 은병 30개를 내고 宰樞들은 재물을 내어 문선왕을 塑造케 한 것은 이같은 사실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소상은 향교의 문묘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성주군 향교조에 ‘塑像은 개경의 대성전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 것이라든가, 성주 향교의 문묘조에 5성·10철은 옛날에는 소상을 썼으나 목사 康仲珍이 神主의 위판으로 바꾸었으며, 영해부 향교의 대성전에도 공자의 초상을 봉안하였다는 것을 보면 고려후기에는 소상이나 위판을 만들어 봉향하였던 것

52) 《高麗史》권 105, 列傳, 安珦 및 《高麗史節要》권 22, 忠烈王 30년 5월.

53) 《高麗史》권 35, 世家 忠肅王 12년 10월 己未條.

54) 《高麗史》권 11, 世家 肅宗 6년 4월 癸巳條.

같다. 그러나 《陽村集》의 提州鄉校記에 선성의 신을 봉안하였다는 것을 보면 고려전기에는 도상을, 고려후기에는 소상과 위판이 함께 쓰여졌으며 여말에는 신위를 봉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문묘의 선성선현이 모두 위판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다. 《佔畢齋集》 권 1 ‘謁夫子廟序’에 景泰 5년(1454) 김숙자가 성주목 교수로 가서 재생을 거느리고 문묘에 入禮하면서 대성이하 4성·10철이 모두 흙으로 만든 塑像으로 오래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 15세기 중엽까지도 소상과 위패가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개성부 학교조에 ‘대성전에는 5성·10철의 소상을, 동·서무에는 70현의 위판을 봉안하였다’는 기록은 소상과 위패가 병용된 예로서 이는 과도기의 현상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강학당은 문묘와 별치된 것이 아니라 廟學이 한 건물안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묘학이 한 건물안에 있었다는 것은 향교의 시설이 미비되었음을 의미하나 충목왕 2년(1346)에 묘학이 분치됨으로써 문묘와 강학당이 분리되었던 것 같다. 향교의 강학당은 명륜당이 아니라 左·右廡였다. 이러한 사실은 〈提州鄉校記〉에 東·西廊廡를 지어 재생의 강학소로 삼았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명륜당이 건립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묘학은 전기에는 前廟後學이라 하여 문묘가 앞에 있고 그뒤에 강학당이 있었으나 후기에는 前學後廟로 문묘가 강학당 뒤에 있었다 한다.⁵⁵⁾ 묘학의 위치가 이처럼 고려 후기에 바뀐것은 원의 간섭이후이며, 이것은 교육적 기능에 부수되었던 奉祀的 기능이 분리되어 그 기능이 커져갔음을 의미한다.

향교의 시설물로는 문묘와 강학당외에 창고라든가, 주방, 교관의 거처소, 기타 부속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提州鄉校記〉에 대성전 1칸, 동·서무 4영, 문 1칸, 庖廚4영, 교관 거처실 등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향교의 기본 건물의 일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향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재단을 만들거나 田庄을 주어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잡사 노역을 위하여 노비도 지급하였다. 그러나 무신집정이후에는 소속 불명의 학전이나 노비를 豪強이 강점함에 따라 향교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공민왕은 부당한 방법으로 강점한 토지와 노비는 관에서 분별하여 향교의 學糧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향교의 교육과정은 유학부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율·서·산학과 같은 기술교육도 부분적으로 지도되었을 것이다. 여말에는 성균관으로부터 향교에 이르기까지 무학을 가하기도 하였다.⁵⁶⁾ 이것은 왜구와 홍건적의 침노가 심하였던 당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공

55) 高明士, 〈羅·麗時代 廟學制의 創立과 그 展開〉《大東文化研究》23, 1989, pp.252~253.

56)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恭愍王 20년 12월條.

양왕때는 10학교수관을 두고 기술교육은 당해 전문기구에서 관장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향교에서는 유학교육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향교의 학관은 태조 13년(930)에는 서경학교에 서학박사를 둔 것이 효시이나 성종조에는 경학박사를 두었다. 문종조에는 방어진과 지주군에는 문학을, 府·牧 등 대읍에는 문사를 둔 것을 보면, 성종과 목종대에 설치한 박사는 문종조에는 文師나 文學 등으로 개칭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성리학이 전래된 이후 고려 후기에는 사대부들에 의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면서부터 府牧에는 교수로, 군현에는 훈도나 교도로 바뀌어졌으며, 이는 조선시대 향교의 학관으로 이어졌다. 지방 관학교육을 담당한 것은 이들 교수관외에도 때로는 승려나 掌書記라든가 司錄 등도 학관의 직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고려시대의 향교에 입학한 자격은 學式에 8품이하의子和 서인으로 하고, 7품이상의 자도 원하면 입학할 허락하였다는 것을 보면 하급관리의 자와 서인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서인이란 향중 자제를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토성 향리의 자제라 생각된다.⁵⁷⁾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어느정도 준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응시자격도 점차 완화되어 간 것을 보면 향교에 입학할 자격도 완화되어 갔을 것이다. 향교의 학생수는 행정구획의 대소나 또 그 지역의 인구수, 수령의 교육열, 향교의 재정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적을 경우에는 10명내외, 많은 경우는 수십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고려의 향교는 교학적 기능과 奉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관학으로서의 養士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진주향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보이는 姜民瞻이 목종대에, 姜君實이 충숙왕 5년(1318)경에, 河輯이 충숙왕대에, 鄭乙輔는 충숙왕 7년(1320)경에, 河允源이 충혜왕대에 河乙沚는 충혜왕 복위 5년(1344)경에 河崙이 공민왕 14년(1365)에, 鄭以湄가 동왕 23년(1374)경에 각각 등재한 것을 보면,⁵⁸⁾ 진주향교와 시대적 배경이 같았던 다른 지역의 향교에서도 교학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인재의 양성은 물론, 성리학의 보급에도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지방 관학기구는 향교외에도 서경학교가 있었다. 서경학교는 태조 왕건이 창업 초부터 서경을 경영하면서 서경인을 유교적 정신으로 무장된 인간으로 교화시켜 왕권 부지세력을 확보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한 것으로 짐작된다. 태조 13년(930) 12월에 서경에 행차하여 서경학교를 세우고 秀才 廷鸞을 서학박사로 삼았다. 정악은 학원을 세워 6부의 생도를 모아 가르쳤다. 이에 태조는 홍학의 소식을 듣고 비단을 하사하여 교육을 권장하고 또 醫

57)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p.256.

5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0, 晉州鄉校, 四教堂記 및 《釜山慶南鄉校記文》, 1986. p.27.

·卜二業도 겸치시켰다. 또한 창곡 100석을 내려 學寶로 삼아 그 이식으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 지방 관학기구의 설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태조 왕건은 창업초부터 서경을 경략하면서 평양을 대도호부로 삼고 堂弟인 王式廉과 廣評侍郎 列評을 보내어 이곳을 지키도록 하고 參佐 4·5인을 보내었다.⁵⁹⁾ 평양은 古朝鮮과 장수왕 15년(427)에 이곳으로 천도한 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의 도읍지로서 유서깊은 고도였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후 서북방 변경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평양은 황폐되어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蕃人(여진족)의 침노가 심하여 사냥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태조는 黃·鳳·海·白·鹽州(연안) 등지의 人戶를 평양으로 옮겨 살게 하였으며 뒤이어 이름을 西京이라 하고 자주 이곳에 순행하였다. 또한 성곽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태조가 이처럼 즉위초부터 서경을 적극적으로 경영한 것은 서경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상적(풍수지리설)으로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며, 특히 건국초에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당시에 호족의 세력이 부식하지 않았던 평양을 착목의 대상으로 삼고 이곳을 경영하여 왕권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⁶⁰⁾ 서경학교의 설치는 이같은 서경 경영 과정에서 이곳의 사람들을 유교적 정신으로 교화시켜 왕권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서경은 개경 못지 않으리만큼 副都로서의 시설과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서경학교인 학원은 諸學院, 諸學士院 등으로 명칭이 개칭되었다가 예종대에는 分司制度의 실시로 分司國子監으로 승격시켜 개경의 국자감과 같은 편제를 함으로써⁶¹⁾ 국자감의 분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인종조에 妙淸의 난 후에는 다시 학원으로 격하되었다가 여말에는 향교로 바뀌었다.⁶²⁾ 이런 점으로 보아 서경학교는 비록 외방에 설치된 관학기구라 하더라도 그것은 향교와는 다른 관학기구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었다.

2. 기술교육의 보급

고려시대의 잡학(기술학)은 율학, 서학, 산학, 의학, 譯學, 천문학, 지리학, 曆學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잡학은 집권체제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전문적 실무능력을 지닌 인력을 양성

59) 《高麗史節要》권 1, 太祖 元년 9월.

60) 宋春永(高麗時代의 西京學校) 《大丘史學》28, 大丘史學會, 1985, pp.8~11.

61) 위의 논문, pp.19~32.

62) 위의 논문, pp.27~32.

공급하고자 설치한 교육의 한 분야이다. 그중 율학과 서학, 산학은 국자감에 소속되었으나 다른 잡학은 당해 전문기구에서 관장 운영하였다.

율학은 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왕권을 확립 강화하는데 있어서 輔治之具로서 서학이나 산학에 비하여 중요시 되었다. 고려의 율학은 신라의 율학적 전통과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당·송의 제도를 받아드려 고려적인 율학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율학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선거지의 選場에 광종 9년(958)부터 목종 원년(998) 3월까지 약 40여년 간에 걸쳐 잡과시취에 등재한 사람은 81명으로 그중 明法業에 등재한 사람은 33인이며, 이 33인중 5명이 성종대에, 28명이 목종대에 등재하였다.⁶³⁾ 또한 《고려사》 식화지의 전시과나 녹봉조에도 율학박사와 율학조교명이 보이며, 형부와 국자감의 직관에도 율학박사가 설치된 것을 보면 율학은 국초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율학은 처음에는 형부에서 관장 운영하였으나 문종 17년(1063)에 국자감으로 이속되어 서학, 산학과 함께 京師六學으로 되었다. 그러나 공양왕 원년(1389)에 10학 교수관을 분치함에 따라 국자감에서 분리되어 典法司로 이관되었다.

서학은 簿籍의 정리, 서적의 편찬 간행, 書表事 등 국가의 요무를 수행할 전문적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데 필요하였다. 특히 서학은 산학과 함께 六藝의 하나로 귀족뿐만 아니라 치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서학은 국초부터 설치되었던 것 같다. 서경학교에 書學博士를 두었고, 《고려사》 식화지의 전시과 및 녹봉조에 서학박사와 篆書博士라는 교수관의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성종대에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고, 동경에는 文師를, 문종대에 외방에 문사나 문학을 둔 것은 이같은 사실을 잘 말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문반의 경직 吏屬으로 主事, 錄事, 書令史, 書史, 記官, 記事, 書藝, 書手 등을 두고 있는데 이들 이속은 서사 사무를 관장하였다. 서학은 국자감에 소속되어 유학교육과정에서 書學을 겸습시켰으나 여말에는 字學으로 바뀌어져 典校寺에서 관장 운영하였다.

산학은 전국의 출납과 회계, 토지의 측량, 조세의 징수, 녹봉의 지급, 술수와 역산 등의 제요무를 맡아 수행할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잡학 교육의 한분야였으며, 이것도 육예의 하나로 치자나 귀족들은 교양으로서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고려 초기의 잡과시취에 있어서도 명산업의 등제자는 15명이나 되었다. 《고려사》 백관지의 각관서에 설치된 重監, 算士, 計史 등은 60여명이 되며 외방에도 算士나 計史 등을 두고 있는데 이들 이속은 산학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산학도 율·서학과 함께 국자감에 소속되어 국자감생에게 겸습시켰으나 여말에는 10학교수관

63) 許興植, 앞의 책, 1981, p.17.

의 설치로 版圖司(조선시대의 호조)에서 관장·운영하였다.

역학은 역관의 양성과 외국 서적의 번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고려는 10세기초 5대와 발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송·요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대외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역관의 양성과 번역의 업무를 관장할 역학교육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역학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종 14년(995)에 童子를 선발하여 거란에 보내어 거란어를 학습하도록 한 것을⁶⁴⁾ 보면 성종대에 이미 역학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종 5년(1202)에는 禮賓省에서 譯語를 시취한 것을 보면⁶⁵⁾ 고려초부터 역학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 12년(1225)에 東真人 周漢이 瑞昌鎭에 투항해 왔을 때 漢이 小字文字(여진문자)를 알므로 그를 개경에 불러들여 사람들로 하여금 여진문자를 배우도록 한 것을⁶⁶⁾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고려사》식화지의 녹봉조나 백관지 등에 譯史, 通事, 通事舍人, 여진통사, 거란통사, 발해통사등의 속관이 있음을 볼때 이들은 역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역학은 고려후기에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역학의 대상도 달라져 갔다. 즉 원의 간섭하에서는 몽고어가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역학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구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역학의 종류는 漢語, 거란어, 여진어, 몽고어, 왜어 등이었으며, 그중 한어, 여진어, 몽고어는 조선시대에도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역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譯語都監을 충렬왕 이전에 설치하였으나 충렬왕 2년(1276)에는 通文館을 설치하여 여어도감을 이에 통합시켰다. 그후 충혜왕 1년(1331)에는 吏學都監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한어와 吏文을 교육하였으며, 공양왕 원년에는 吏學을 司譯院에서 관장하였고, 왕 3년(1391)에는 漢語都監을 한문도감으로 개칭하여 한어를 교육하도록 하였다.⁶⁷⁾ 이처럼 고려후기의 역학기구는 변개가 잦았으며 그때마다 역학교육의 대상도 출입이 잦았다.

의학은 인간생활의 活人之方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관을 양성 공급하는 잡학교육의 한 분야이다. 고려시대의 의학은 국초부터 설치되었던 것 같다. 서경학교에 의업을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 광종 9년(958)부터 성종 7년(988)까지 의업출신자가 7명이나 배출된 것은 의학교육의 성과로 보여진다.

64) 《遼史》聖宗本紀 권 13, 統和 13년 11월 戊辰條 및 《高麗史》권 3, 世家 成宗 14년 9월 庚戌條.

65) 《高麗史》권 21, 世家 新宗 5년 3월 丁巳條.

66) 《高麗史》권 22, 世家 高宗 12년 6월 辛卯條.

67) 宋春永, 《高麗時代の 雜學教育研究》, 曉星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pp.41~46.

고려시대의 의학은 당·송의 의학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太醫監을 설치하고 그 직관 편제는 문종대에 완성을 보게되었다. 고려의 의학은 외방에도 설치되었다. 성종 6년(987) 8월에 12목에 의학박사를 파견한 후 문종대에는 의학을 지주군사 및 방어진에까지 파견하였다. 서경에는 예종대에 의학원을 分司太醫監으로 승격시켜 서경지역의 의학교육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의학기구외에 의료기구로서 尙藥局, 救濟都監 등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의 太醫監은 고려후기에는 司醫署, 典醫寺 등으로 개칭되었으며, 공양왕 원년(1389)에는 의학교육은 전의사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의 의학은 송·원의 의관의 래왕과 의서의 유입 등으로 대륙의학의 수용함으로써 고려의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고려인은 당·송의 의서를 섭렵하고 고려인의 경험방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는 《御醫撮要方》과 《鄉藥救急方》과 같은 독자적인 의서를 간행함으로써 대륙의학의 수용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고려의학의 발달을 가져왔다.⁶⁸⁾ 그후 무신집정이 무너지고, 개경환도후 고려의 대원관계가 안정을 찾으면서 의학은 더욱 발달하였다. 원의 의관과 의서, 의약품이 전래되고, 서역의 의약품이 들어오면서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鄉藥惠民經驗方》, 《三和子鄉藥方》, 《향약간이방》, 《동인경험방》, 《진맥도결》 등의 의서는 이시기에 간행된 대표적 의서이다. 이러한 고려의학의 발달은 충렬왕 11년(1285)에 원의 세조가 병으로 치료가 어려웠을때 고려의 良醫를 구함에 고려에서는 尙藥局의 侍醫였던 薛景成을 보내어 세조를 치료하여 주었으며, 그후 성종(원)을 치료하여 줌으로써 고려의 수준 높은 의학을 원에 떨치기도 하였다.⁶⁹⁾

천문·지리학은 천문, 曆數, 測候, 刻漏 등의 직능과 일식, 월식, 星變, 기후의 이변,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궁택, 능묘, 도읍지 등의 적소를 선정하는 相地에 관한 제요무를 맡아 수행할 전문적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 공급하였던 잡학교육의 한 분야였다. 이러한 천문·지리학은 고려이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적으로 보다 정비된 것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였다.

고려는 국초부터 太卜監과 太史局을 설치하고 전문적 관원을 두어 그 직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고려의 귀족들은 天象과, 地變에 대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여 중요시하였다. 고려의 천문·지리학을 중요시한 것은 고려가 농업국가라는 점도 있겠으나 천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地變을 天譴으로 인식하고 天意를 받들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나 치자들은 이를 잘 알

68) 宋春永 앞의 논문, 1991, pp.68~71.

69) 《高麗史》世家 권 30, 忠烈王 11년 3월 戊子條.

아아만 하였기 때문이다. 고려의 치자들은 천인합일설에 입각한 천문관을 바탕으로 하여 천변과 지변은 왕이나 치자들의 부덕의 소치로 발생한 것이며 그것은 지배자에 대한 천견으로 보고 지배자의 修省과 德治로서 천명에 순응하는 仁政의 구현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리학은 음양오행사상이나 도참사상 등과 관련되어 相地學으로서 중요시 되었다. 풍수지리설은 지형지세를 인간의 골격과 형모에 관련시켜 인간생활에 미칠 길흉화복을 점쳐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유·불교와 연결되어 고려의 정치사상을 진전시켰다. 또한 천문·지리학은 풍수사상과 관련되어 정치·사회의 사상을 진전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천문·지리학과 풍수지리설은 10훈요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서경천도운동과 비보사찰설을 낳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천문·지리학을 관장한 기구는 국초에는 司天院과 刻漏院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사천원을 태복감, 각누원은 太史局으로 개칭되었다. 서경에는 각누원이 설치되었다가 예종대에 分司太史局으로 승격되었다. 그후 현종 14년(1023)에는 태복감을 司天臺로 고쳤다가 예종 11년(1116)에는 司天監으로 바꾸었다. 서경의 分司太史局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후 폐지되었다.

고려전기의 사천감과 태사국은 원의 지배하에서는 司天監을 觀候署로 고쳤다가 다시 사천감으로 복개하였으며, 충렬왕 34년(1308)에는 書雲觀에 태사국을 병합시켰다. 즉 二元的 기구를 一元的 기구로 통폐합시켰다. 공민왕대에는 司天監과 太史局으로 분치하였다가 다시 서운관에 통합시키기도 하였으며, 공양왕 원년(1389)에는 10학교수관을 분치하면서 풍수·음양학마저 서운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⁷⁰⁾ 이러한 서운관은 조선시대에 관상감으로 이어져 갔다.

司天臺의 직능은 《고려사》에서 살펴보면, 도읍지나 궁택, 능묘의 장소를 선정하는 相地가 가장 많고, 다음이 天象의 변화, 卜占, 地變, 국왕 호종 등의 순으로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太史局의 직능은 천상의 변화(천문관찰)에 관한 활동이 가장 많고, 다음이 천변·지변으로 인한 재해 관찰, 曆數에 관한 일, 軍候로서의 출동, 相地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법제적 기능과는 달리 양기구는 독자적 직능을 수행하면서도 사천감도 태사국의 직능을, 태사국도 사천관의 직능을 함께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기구는 相補的인 관계에서 그 직능을 수행하였던 것 같다.⁷¹⁾

잡학의 교수관은 역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잡학기구에는 당해 과목에 정통한 사람을 박

70) 《高麗史》 권 76, 志 30, 百官 1, 書雲觀條 및 宋春永, 앞의 논문, 1991, pp.62~97.

71) 宋春永, 위의 논문, pp.99~100.

사나 조교로 삼아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공양왕대에 10학교수관의 분치로 여말에는 교수나 훈도 등으로 교수관의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이들은 각 해당 잡과에 등제한 사람이거나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고려시대의 잡학생의 정원은 각 분야에 따라 다르겠으나 올생은 20~40, 서학과 산학생은 10~15, 譯學生은 10~15, 의학생은 태의감에는 30~40명, 외방에는 5~15, 천문지리학생은 10~15명 정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잡학의 수업연한은 譯學은 3년정도, 의학은 10~20년, 그외의 잡학은 3~6년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⁷²⁾

III. 私學의 發達

고려시대의 사학은 문종대(1047~1082)에 일어났다. 고려초부터 京外에 설치한 관학교육은 재정상의 어려움과 학관의 능력부족과 불성실 등으로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벌귀족들은 자제들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학을 설치하게 되었다.

사학을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해주 출신의 崔冲이었다. 그는 목종 8년(1005)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덕종 2년(1033)에는 재상급에 올랐으며, 문종 원년(1047)에는 門下侍中의 자리에 올라 9년간 재상직을 지내었다. 그는 23년간의 재직중 2차례나 知貢舉를 하였다. 최충은 致仕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년간 학당을 건립하여 유학교육에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세간으로부터 누대의 儒宗이요 삼한의 耆德이라는 평을 받았다.⁷³⁾ 그는 덕행과 학식을 겸비한 인물로서 私塾을 열자 학도들이 운집하여 街巷을 메울 정도로 번성하였다. 이것이 侍中崔公徒로서 그가 죽은 뒤에는 시호를 따라 崔文憲公徒라 하였다.

최충은 개경의 송악산 아래의 紫霞洞에 학당을 설립하여 전문강좌인 9재를 열어 9경·3사를 중심으로 지도하되 시가와 사장도 가르쳤다. 또한 개성에 있는 歸法寺의 僧房을 빌어 夏課를 열고 문헌공도의 급제자 출신중 未入仕한 자를 뽑아 教導로 삼았으며, 벼슬에 나간 사람이 찾아오면 諸生과 함께 刻燭賦詩하는 대회를 열고 종일토록 酬唱하기도 하였다.⁷⁴⁾ 이같은 교육 활동은 과거에 응시하는 자제라면 반드시 도중(徒中)에 속하였으며, 이곳에 와서 배우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72) 앞의 논문, pp.101~164.

73) 朴龍雲, 앞의 책, p.376.

74) 《高麗史》권 95, 列傳 崔冲 및 《高麗史》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私學條.

문헌공도의 이러한 활동은 침체하였던 고려의 유학계에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유신들은 사숙을 열어 개경에만도 11개의 徒를 세웠으니 이것이 사학12도이다. 12도는 문종 10년(1056)을 기점으로 왕의 치세중 말경을 전후하여 설립된 것 같으며, 당시의 귀족들은 관학보다도 사학으로 몰리어 학벌을 형성하게 되었다. 12도란 최충의 문헌공도, 鄭倍傑의 弘文公徒(일명 熊川徒), 盧旦의 匡憲公徒, 金尙賓의 南山徒, 金無滯의 西園徒, 殷鼎의 文忠公徒, 金義珍의 良愼公徒(일명 朴明保), 黃瑩의 貞敬公徒, 柳監의 忠平公徒, 文正의 貞憲公徒, 徐碩의 徐侍郎徒, 龜山徒(성명 失傳)를 말하며, 여기서 徒란 徒衆의 뜻으로 화랑도의 도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2도의 활동은 예종과 인종대의 관학부흥책으로 다소 약화되었으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유학의 발달과 인재의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학의 발달에 자극을 받은 관학은 최충의 9재를 본따서 국학에 7재를 설치하여 전문강좌를 개설하여 관학의 진흥을 가져오게 하였다. 7재중 講藝齋는 무학재로서 비록 여진의 침노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기는 하지만 국학에 무학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주목을 끄는 것으로 그것은 우수한 將才를 양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12도는 한때 국가감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민왕 원년(1352) 4월에 이색이 올린 상소에서 “지방에는 향교, 서울에는 학당을 세워 才藝를 시험하여 12도에 올리고, 12도에서는 또 모두 시험하여 성균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한 것은 고려후기의 12도가 갖는 위치가 국학의 예비과정으로 전락하는 한편 사학적 성격도 상실되어 갔던 것으로 짐작되며, 이러한 사학의 격하는 공양왕 3년(1391)에 이르러 정파되기에 이르렀다.

고려의 사학은 12도외에 고려후기에는 書齋가 널리 설립되어 과거 교육뿐만 아니라, 유학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고려후기의 역사표면에 부각된 寺院·精舍나 書齋는 사학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원·정사는 儒士들의 독서장으로 널리 활용되었으나 科業수준의 교육은 그곳에서 보편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이시기에 서재만이 사학의 독자적 체계로서 때로는 관학의 보완적 기능으로서 과업교육의 수행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⁷⁵⁾

書齋란 사대부나 유사들의 개인적 독서실을 의미하나 그것은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외부인에게 개방된 교육기구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재에 관한 기록은 성종 11년(992) 12월에 書齋·學舍를 널리 지어 교도케 하라는 교서에 처음으로 보이며, 《고려도경》 권 40 유학조에 經館·書社라는 기록이 보이며, 《破閑集》上에도 韓國彦의 書齋명이 보인다. 이러한 것은 모두 독서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서재의 초기적인

75) 李秉焦, 앞의 논문, p.47.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후기 사대부들이 대두되면서 서재교육은 사대부가의 학문적 전통과 지배층으로서의 지위를 전승시키려는 의욕에서 자기의 자손이나 근친에 한하여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가학에서 비롯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家學이 서재교육의 가내에 한정된 폐쇄적 형태였다고 한다면, 서재는 외부인에게 개방, 확대된 현대의 사학기구라 할 것이다.

서재는 옛부터 가학의 교육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사대부층의 욕구와 향촌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보강하려는 국가의 현실적 필요성이 합치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여말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정정의 불안과 왕조교체란 시대적 상황하에서 낙향하여 향촌에 은거하거나 유배생활을 하던 사대부들은 그들의 연고지의 서재에서 학문의 연찬과 후진의 교육에 힘썼다. 吉再가 선산의 금오산하에 낙향하여 서재교육을 하였으며⁷⁶⁾, 趙庸이 謫居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통하여 명유고관을 배출한 것 등은⁷⁷⁾ 이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같은 서재는 師儒의 능력이나 학문적 수준에 따라 교육수준이나 목표가 달랐을 것이다. 즉 초보적인 교화교육에서부터 과업교육과 爲學教育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였다.⁷⁸⁾ 서재에서 교육한 과목은 서재의 종류에 따라 과목의 성격이나 편성수준이 달랐을 것이나 童蒙訓, 효경,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시, 서, 춘추, 역, 예기, 통감, 諸史百家, 등이 지도되었던 것 같다. 이같은 과목은 유교의 경전과 史書, 百家 등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서재의 과업교육은 여말에 있어서는 개경과 근기지방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었으나, 鮮初에는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 대구의 문인 徐巨正이 柳方善으로부터 과업 교육을 받아 당대에 명성을 떨친 것은⁷⁹⁾ 서재교육의 성과이기도 한 것이다.

IV. 科學制度와 敎育

고려시대의 과거는 광종 9년(958)에 後周에서 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과거는 과목에 따라 製述業, 明經業, 雜業 등 3과가 있었으며, 제술업과 명경업은 양대업으로 중시되었으나 그중 제술업이 가장 중요시되었다. 제술업은 詩, 賦, 頌, 策 등 문학으

76) 公聚群中諸生徒 分爲兩齋 以閭閻之裔爲上齋 以鄉曲賤族爲下齋 教以經史 課其勤惰 受業者 曰以百數(《治隱先生言行拾遺》 권中).

77) 博學能文 而允精於性理之學 嘗謫居醴泉郡 教授不倦 多知名士趙末生·尹祥·裴恒·裴杠, 皆出其門(《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5, 慶尙道 眞寶縣 人物條).

78) 李秉然, 앞의 논문, p.57.

79) 위의 논문, p.58.

로, 명경업은 禮記, 書, 易, 春秋 등 유교의 경전으로 시험하되 초장, 중장, 종장 등 三場에 걸쳐 시험하였고, 3장 모두 합격하여야 급제가 되는 三場連法을 적용하였다.

양대업은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제술업이 명경업보다는 중요시 되었으며, 고려 일대를 통하여 제술업에 합격한 사람은 6,000명, 명경업에 등제한 사람은 450여명으로 경학보다 문학이 숭상되었던 것 같다.⁸⁰⁾ 雜業은 明法業, 明書業, 明算業, 의업, 呪禁業, 卜業, 地理業 등 다양하였으며, 이는 기술관을 등용하기 위한 시험으로 양대업보다 격이 떨어져 귀족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고려시대의 과거중 특징적인 것은 무과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예종대에 무과생을 시취하여 교육시켰으나 인종대에 폐지되었으며, 그후 무과가 설치된 것은 공양왕때 이르러서였다.

과거에 등제한 사람은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 병과, 同進士科로 나누어졌으나 갑과는 곧 폐지되고 을과 3인, 병과 7인, 동진사 23인, 계 33인을 선발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려의 과거는 정기시(3년마다)와 비정기시로 나누어지며, 2년에 한번씩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급제자는 증서로 홍패를 받았으며 登科田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받아 경제적 혜택도 누렸다. 고려의 과거 고시관은 知貢舉(정고시관), 同知貢舉(부고시관)가 있었으며, 이들 고시관과 과거 합격자와의 관계는 座主와 門生의 관계가 맺어져 마치 부자관계와 같이 일생동안 유지되었다.

고려의 과거는 초기에는 예비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시험에 응하였으나 문물제도가 정비되면서 과거의 규정도 정비되어 갔다. 현종 15년(1024) 12월에는 지방 자제들의 과거 응시수를 줄이려고 州縣의 人丁의 과다에 따라 3~1인으로 제하였고, 界首官試를 거치도록 한후 중앙의 국자감에서 재시험하여 합격자만 예부시에 응시하도록 하였으며, 덕종 즉위년(1031)에는 본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인 국자감시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靖宗 2년(1036)에는 국자감에 입학한 후 3년이 된 자에게만 본고시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예비시험인 국자감시(成均試; 南省試)는 국학생과 12도 가운데서 선발된 貢士와 界首官試를 거친 鄉貢이 응시하도록 하였으며, 합격자는 진사라는 칭호를 주었다. 본시험인 예부시험은 예종 5년(1110) 9월의 판문에 ① 양대업에 선발된 자로 국자감에서 3년간 재학한 자, ② 仕宦하여 300일이 된 자, ③ 서경의 留守官試를 거쳐 選上된 자, ④ 鄉貢으로 절차를 밟은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⁸¹⁾ 응시자격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0) 許興植, 앞의 책, pp.123~124.

81) 《高麗史》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1, 睿宗 5년 9월.

고려시대의 과거에 왕이 친히 참여한 것은 성종조에 覆試制를 마련함으로써부터였다. 그러나 인종이후에는 거의 폐지되고 공민왕 18년(1369)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 鄉試, 會試, 殿試를 채택함으로써 왕의 영향력이 커지고 지공거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과거의 과목은 전공에 따라 다르나 제술업의 경우는 詩·賦中心이었으나 고려후기에는 經學風으로 바뀌어졌다. 이같은 과거시험과목의 변화는 성리학이 전래되어 사대부들의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수용되고 특히 공민왕대에 성균관에 5경4서재를 분설함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는 경학이 중요시되었던 것 같으며, 과거풍의 변화는 유교교육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과거 응시자격은 고려전기에는 신분의 엄격한 제한이 있었으나, 인종이후에는 점차 완화되어 간 것으로 짐작된다. 문종 2년(1048)의 판문에 제술업은 副戶長 이상의 손이나 副戶正 이상의 자에 한정하여 향리중에서도 일정한 신분이상의 자손에게만 허락되었으나, 인종 3년(1125)의 판문에는 잡류의 자손도 군인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양대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⁸²⁾ 응시자격의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인종 14년(1136) 11월에 규정한 監試格에는 明經業이하의 잡업에 한하여 백정과 庄丁은 응시하도록 하였을 뿐, 제술업에 관한 규정에는 백정과 장정의 응시자격이 없으며, 고려의 여러 史料에도 白丁이나 장정이 제술업에 합격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제술업에는 일반 양인이 제외되고, 일정한 신분층 이상만이 응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과거에 합격된 자는 吏部の 銓注와 臺諫의 署經을 거쳐 仕路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과거외에도 사로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으니 蔭敍가 곧 그것이다. 음서는 父祖의 家蔭이나 음덕에 의하여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공신이나 5품이상(충선왕대는 4품이상)의 관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로 확립된 것은 성종조였다. 음서에 의한 사로진출은 실직이 아닌 散職인 同正職이었으나 때로는 실직에도 나갔다. 음서출신자의 대부분이 5품이상의 직까지 진출하였고, 50~60%가 재상직까지 오르기도 하였다.⁸³⁾ 이런점으로 보아 음서는 문벌귀족의 계속적인 사로진출의 통로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관리등용시험인 과거외에도 승려에게도 시험을 보여 法階를 준 승과제도가 있었다.⁸⁴⁾

이상과 같은 고려의 과거제도는 文風을 크게 진작시켜 유학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 적지 않았으며, 과거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82) 《高麗史》 권 75, 志 29, 選舉 3, 銓注, 凡限職.

83) 朴龍雲, 앞의 책, p.157.

84) 許興植, 앞의 책, pp.177 및 李載昌, 〈高麗佛教의 僧科僧錄司制度〉《朴吉眞華甲記念韓國佛教思想史》, 圓光大學校出版部, 1975, p.433.

第3節 朝鮮時代の 教育과 大邱

I. 教育의 思想的 背景

1. 성리학의 보급과 발달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과전법을 실시하여 새왕조 건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양왕으로부터 位를 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주체세력인 신흥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수용하면서 유교적 정치이념에 바탕한 양반관료체제를 확립하고, 숭유홍학책을 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일찍부터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적 자원을 양성공급하고자 중앙에는 성균관과 학당(5부학당 → 4부학당)을,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유교의 경전과 실천적 윤리 도덕서로 《소학》과 《주자가례》, 《삼강행실》 등을 중요시하였다.

성리학은 소학을 중심으로 일상 생활에 있어서 실천적 윤리를 중요시하였고 나아가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덕으로는 君臣之義를 강조하고 이단의 배척에도 날카로웠으며, 사원의 폐해와 승려들의 비행을 공격 배척하였다. 또한 친족혼이나 지나친 향락도 배척하였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적 실천적 윤리·도덕은 성균관과 향교를 통하여 보급되어 갔으며, 학교의 교육은 수령의 7事目인 修明學校로 중요시 되었다. 수령들은 가는곳마다 化民成俗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상도 각읍 名宦條에 기록된 지방관중 대구주변의 읍에서 성리학과 교육의 보급에 이바지한 수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⁵⁾

군	현	명	수	령	명
경	주	부	安珦, 田祿生, 安輔, 趙云伋, 權克和, 金淡, 李賢輔		
상	주	목	安珦, 鄭云敬, 安軸, 朴以昌, 金鉤		
안	동	부	李璡, 李仁復, 鄭云敬, 朴全之, 趙云伋		
선	산	부	金以吾, 金宗直		
성	주	목	尹澤, 李寶林, 孫昭		
영	해	부	金守雌, 禹倬		

85)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9, pp.239 ~ 240.

창	원	부	安珣, 金得培, 田祿生
진	주	목	安震, 李瑀, 安魯生, 孫昭
밀	양	부	鄭云敬, 李彦迪, 權揆
김	해	부	安軸, 李岳, 金峙
예	천	군	趙云乞, 全英伯, 朴漢柱
영	주	군	鄭習仁, 河崙, 尹祥, 李賢輔
합	천	군	李兆年, 田元均, 曹尙治, 俞好仁
합	양	군	曹尙治, 鄭從詔, 金宗直, 曹偉
개	령	고령현	金叔滋
의	성	현	俞好仁, 鄭從詔, 李耔

이처럼 경상도 지방에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수령들의 노력으로 교육적 전통과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들 수령들은 실천적 윤리 도덕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학과 주자가례를 爲己之學의 2대 수단으로서 중요시하였다.

소학은 원을 거쳐 고려에 전해져 사대부들에게 수용되어 관학이나 사학을 막론하고 다같이 중요시하였다. 태종 7년(1407) 3월에 權近의 건의로 勸學事目을 접하면서 중외의 교수관에게 명하여 학생들에게는 소학을 먼저 읽히고 다른 서적을 읽도록 하고 生員赴試나 국학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소학의 通否를 시험한 다음에 입학이나 응시를 허락하도록 한 것을 보면⁸⁶⁾ 왕공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소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 같다. 이에 조정에서는 明의 何士信의 《小學集成》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중외에 간행 배포하였다. 국가의 소학 장려책은 성종 2년(1481)에 8도에 하교하여 소학과 삼강행실을 간행 반포하도록 하였고, 동왕 7년(1476)에는 경외의 유생은 반드시 소학을 기본교재로 강독하도록 하였다.

《주자가례》는 사대부가의 실천윤리로서 중요되어 널리 보급되어 갔다. 이것은 주자가 선성의 의례와 송대 사대부의 居家儀禮를 참작하여 집성한 것으로서 通禮와 관혼상제의 4예, 사마광의 거가의례 등 송대 사대부들의 가례를 수록한 것으로 古禮에다 俗禮를 사대부의 편의에 따라 가감한 것이다. 이 주자가례는 공양왕 2년(1390)에 정몽주 등의 건의로 관혼상제례를 법제화하였고⁸⁷⁾, 조선의 건국으로 정책적인면에서 권장하였으며, 이것은 사람세력의 성장으로

86) 앞의 책, p.266.

87) 위와 같음.

널리 보급되어 갔다.

소학과 주자가례를 보급한 주체는 신흥사대부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영남지방의 인사들이 중심이었다. 특히 경북은 조선이전부터 학문적 전통과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구의 향교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개의 향교가 있었다. 17세기 전반까지 陞廡한 9현중 7현이 경북 출신이라는 것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방의 교회적 전통이 어떠하였는지 잘 말하여 준다. 또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방은 효자 열녀가 다른 도에 비하여 많은데 이것은 孝悌忠烈을 숭상하는 사회적 윤리적 분위기와 유교적 실천 윤리가 일찍부터 정착되어 왔음을 말하여 준다. 이같은 학문적 전통과 기반은 영남 성리학의 집대성을 가져올 수 있던 바탕이 되었다.

영남 성리학은 정몽주, 吉再의 학통을 이어받아 金叔滋, 金宗直 부자를 거쳐 이항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 15세기 후반부터 영남 성리학은 금산, 성주, 현풍, 청도를 잇는 지역은 김종직, 김굉필, 김일손 등의 세력권에 있었고, 상주의 박·김씨, 예천의 권씨, 함창의 김씨, 부계의 홍씨 등과 流寓士族은 상주권에서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였으며, 尹祥, 趙庸, 洪貴達, 權五福 등의 학적 기반은 노수신, 姜士安, 鄭經世 등으로 이어져 16세기 이래에 번성하였다. 16세기 중엽에 침체하였던 안동·예안 지방은 이후 이항을 비롯하여 李賢輔, 權撥, 柳誠龍, 金誠一, 趙穆 등의 명현석학이 배출되어 영남 성리학의 종주인 퇴계학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孫昭, 李彦迪, 이을규, 정극후, 최진립 등의 가문과 曹尙治, 曹好益, 鄭世雅 등의 가문이 경주권의 晦齋學統을 이어받았다.

김종직의 학통을 이어받은 曹植이 16세기 후반에 南冥學派를 형성하여 진주, 김해, 함천, 성주 등지를 그 세력권으로 하였다. 인조반정 후에는 鄭仁弘 세력이 몰락한 뒤를 이어 鄭述, 張顯光의 문도를 중심으로 寒旅學派가 성주, 인동, 칠곡, 대구 등지를 그 세력범위로 하면서 江左·右의 양파를 융합 조화하는데 노력하였다.⁸⁸⁾ 이러한 영남성리학자들은 숙종 20년(1694)이후부터 정치적으로 재야세력으로 몰려나 정권에서 유리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시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16세기 이후에 노정된 조선사회의 모순을 잡아보려는 적극적인 개혁의 의지를 갖지 못한 채 보수적 경향으로 흘렀다. 그러나 그들은 재지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향교나 서원을 주도하면서 鄉規, 향약, 洞約 등을 제정하였고, 在京南人 세력인 이원익, 허목, 채재공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出仕하거나 院祠의 건립이나 通文, 儒疏를 통하여 그들의 기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경북지방의 사림의 재지적 기반과 학문적

88) 李樹健, 〈慶北의 歷史的 傳統과 慶北鄉校의 性格〉《慶北鄉校誌》, 慶尙北道·嶺南大學校, 1991, p.25.

전통은 대구의 문운을 부흥시키고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운동의 역량을 쌓고 꽃피우게 하였다.

2. 실학의 발달

조선 후기 17·8세기에 문벌 세도정치가 행해지고 소수의 양반가문에서 정권을 독점으로써 몰락양반들은 전후의 정치적 사회 경제적 모순에 대한 自省과 함께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성이 촉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실학이 일어나 역사와 현실을 밝히는데 큰 관심을 가졌고, 그 대상은 사회과학 분야외에도 경학, 역사학, 지리학, 자연과학, 농학 등에 걸쳐 광범위하였다. 이러한 실학은 현실적이었고 실증적 독창적인 것이었다.

실학은 우선 농촌을 토대로 한 현실을 개혁하려는 주장이 먼저 일어났다 이들은 자영농민의 건전한 토지제도나 행정기구, 군사조직, 교육제도 등을 개혁하려는 이른바 경세치용의 학문이었다.

경세치용의 학문을 체계화한 것은 柳馨遠으로 그는 현종 11년(1670)에 《磻溪隨錄》을 지어 여러 제도의 역사와 현실을 검토 비판하였다. 그의 사상을 학파로 확립한 사람은 이익이었다. 그는 《星湖僊說》, 《菴憂錄》을 지어 그의 사상을 피력하였다. 그후 경세치용의 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정약용이었다. 그는 辛酉邪獄(1801)으로 18년간 康津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등을 지어 경외의 정치조직과 행정 등에 대한 사항을 피력하였다. 이들 경세치용학파는 자영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국가를 건설하려 하였다. 특히 교육의 기회 균등으로 능력위주의 관리를 등용하려한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의 시사 를 준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이용후생의 학문이 성장하였다. 이용후생학파는 상공업의 발전을 통하여 이상국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들을 종래에는 북학과 또는 重商主義學派라 부르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후생의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은 柳壽垣이다. 그는 《迂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모순을 개혁하려 하였고,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지어 청의 문물을 소개하고 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대용은 《燕記》를 지었으며, 박재가는 《北學議》를, 이덕무는 《燕記》를 지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청의 문화 수입과 기술의 혁신, 교통수단의 발전, 균등한 교육에 의한 직업관리의 양성, 신분제의 철폐, 능력에 따른 분업의 실시 등을 통한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실학자 중에는 국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 지리, 국어 등에 대하여 한국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정복은 《東史綱目》을 지어 고조선으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고증하였고, 한치윤은 《海東繹史》를 기전체 형식으로 썼으며, 이금익은 《燃黎室記述》을 기사본말체로 서술하였다. 특히 이시기에는 만주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柳得恭은 정조 8년(1784)에 《渤海考》를 지어 남북국의 주장을 강조하였으며, 洪良浩는 《海東名將傳》을 지어 국난을 극복한 명장들의 전기를 지었다. 역사지리서로는 신경준의 《疆界考》, 정약용의 《疆域考》 등이 있으며 인문지리서로는 이중환의 《擇里志》, 《八域志》, 정상기의 《東國地圖》 등이 있으며, 한글 음운연구서로는 신경준의 《訓民正音韻解》, 유희의 《諺文志》 등이 있다.

미술에 있어서도 중국적인 풍토로부터 벗어나 조선의 독자적인 서화풍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김홍도와 신윤복은 대표적 화가이며, 김정희의 추사체는 한국적이었다. 이처럼 실학이 조선후기의 영·정조때 발달함으로써 교육에 있어서도 민족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근대교육을 태동케하는 바탕이 되었다.

3. 서학의 전래

서학이 전래된 것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서양의 문화가 전해지면서 부터였다. 서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실학자들이었다. 이수광은 그의 저서인 《芝峰類說》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馬竇)가 지은 〈天主實義〉를 소개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에 이익, 안정복 같은 실학자도 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 들어온 서학은 南人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앙 운동으로 나타나 정조 7년(1783)에는 이승훈이 북경에 갔다가 서양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서학을 종교적인 면에서 신봉한 사람들은 이익의 문인들인 이승훈, 이벽, 이가환, 정약전, 정약용, 권철신, 권일신 등 남인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정권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며, 그외에도 金範禹 같은 중인층의 인물이 섞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같은 것은 별열중심의 양반 사회에 대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유교적 의식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된 典禮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며, 조정에서는 정조 9년(1785)에는 서학을 邪教로 규정하고 금지령을 내렸으며 북경으로부터 서적구입을 금하였다. 그후 정조 11년(1787)에 尹持忠이 처형되었다. 그럼에도 정조 19년(1795)에는 중국의 신부 周文謨가 입국하여 포교함에 따라 교세는 4천여명에 이르렀다. 이에 순조 원년(1801)에는 신유사옥으로 이승훈, 이가환, 정약중 등과 주문모가 처형되고 정약전, 정약용을 귀양보내었다.

천주교의 교세 확장에 따라 순조 31년(1831)에는 조선교구가 독립되고, 서양신부 모방(Maubant)에 이어 샤스탕(Crastan), 앙베르(Inbert) 등이 들어와 교세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

로 인하여 기해사옥(1839)이 일어나 외국신부와 함께 신도들이 처형되었다. 그후 김대건이 마카오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부가 되어 귀국 활동하였으나 1846년 처형되었다. 그러나 철종대에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와 포교활동을 함에 따라 19세기 중엽에는 신도수가 2만여명이 넘었다. 이처럼 천주교가 전파하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천주의 자녀로 누구나 평등하며, 양반과 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며, 천국에 대한 설교는 당시의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던 남인학자들이나 중인 및 부녀자들에게 복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학의 전래는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과 세계관을 넓히고 현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전래된 서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신교의 전래이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문호개방이후이며, 그 중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는 의료 및 교육사업을 병행하면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서학과 개신교의 전래는 민족의 의식을 확대시키고 근대적 민족교육의 태동을 가져오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지대하다 하겠다.

II. 官學教育

1. 유학교육

1) 성균관

조선시대 유학교육의 최고 전당은 중앙에 설립한 성균관이었다. 성균관은 고려말부터 조선 왕조말까지 약 500여년간 존속하여 온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였으며, 名賢碩學과 정치가를 배출하였다.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양반관료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학의 학문적 소양과 식견을 가지고 실천적 윤리·도덕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균관은 이같은 욕구에 부응한 유학교육기관이었다.

성균관은 태조 6년(1397) 3월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7월에 준공되었다. 그후 태종 5년(1405) 한성으로 천도한 후 문묘가 불탐에 동왕 7년(1407)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문묘를 준공하였는데 그 규모는 전대에 비하여 웅장하였다. 그후 선조 25년(1592)에 왜란으로 소실되었으나 동왕34년(1601)에 대성전을, 5년뒤인 1606년에는 명륜당을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⁸⁹⁾

89) 申奭鎬, 〈李朝初期의 成均館의 整備와 그 實態〉《大東文化研究》6·7合, 1969~70, pp.3~5.

성균관의 건물은 공자와 4성·10철의 위패를 모신 大聖殿(단종원년에 大成殿으로 고침), 우리나라의 명현을 모신 東西廡, 강학당인 명륜당, 유생의 기거소인 東西齋, 서무를 맡아보던 正錄所, 기타 典祀廳, 尊經閣, 丕闡堂, 書史廳, 啓聖祠, 그외에 부속건물 등 모두 96간이나 되었다. 그중 중심이 되는 것은 문묘와 명륜당이었다.

이러한 성균관의 직제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지사 1인(정2품), 동지사 2인(종2품, 이상은 겸직), 대사성 1인(정3품), 사성 2인(종3품), 司藝 3인(정4품), 直講 4인(정5품), 전적 13인(정6품), 박사 3인(정7품), 學正 3인(정8품), 學諭 3인(정9품), 學錄 3인(정9품) 등 모두 38명의 員吏를 두었다. 그러나 《續大典》에 보면 司業 1인(정4품)을 증치하여 祭注의 직능을 맡게 하였고, 사성과 사예는 각 1인씩 감원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종때까지 계속되었다. 그후 1894년에는 관장 1인, 교수 3인(전임), 직원 등을 두었다. 성균관의 실질적 총장격은 大司成이었다.

성균관의 재정은 養賢庫를 설치하여 여기에 員吏를 두어 재정과 회계의 출납을 맡도록 하였다. 양현고의 재원은 태종대에 토지 1만여결을 주어 학생의 供饋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얼마 안되었다. 그리하여 司宰監으로 하여금 필요한 魚菜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성종 15년(1484)에는 경상도 및 충청도의 田地 각 200결을 양현고에 주고 收稅하여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⁹⁰⁾ 또한 잡사에 종사할 노비를 태종대에 300口를, 세조대에는 100口를 문종 원년(1451)에는 속공노비 10口를 주어 노비수는 400口에 달하였다.⁹¹⁾ 그러나 다른 관서로 노비를 이속시켜 성균관의 노비는 감소되었다.

성균관의 교육과정은 4서 5경이 중요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그 지도방법은 講讀, 製述, 書法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4서 5경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수업연한은 대학 1개월, 중용 2개월, 논어·맹자 각 4개월, 시·서·춘추, 각 6개월, 주역·예기 각 7개월로 하여 수업연한은 3~4년 정도였던 것 같다. 생도의 강독성적은 大通, 通, 略通, 粗通, 粗通以下 등 5단계로 나누었다. 성균관의 學規는 학령을 비롯하여 권학사목, 9齋學規, 進學節目, 학교절목, 학교사목, 制講節目, 원점절목, 경국대전 등이 만들어졌으나 이같은 학규의 내용이 어느정도 준수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성균관의 생도는 양반의 자제가 입학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정원은 생원·진사 각 100명씩 계 200명이었다. 입학자격은 생원·진사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하였다. 그러나 정원이 부족할 때는 15세이상의 四學생도와 공신 및 3품이상의 관리의 자, 문과·생원·진사시의 향시와 漢城試에 합격한 자, 朝官者로 입학을 원하는 자를 입학시켰다.

90) 앞의 논문, p.13.

91) 위의 논문, pp.12~14.

2) 사학

중앙에 설치한 유학교육기구는 성균관외에 사학이 있었다. 사학은 성균관보다 규모가 작고 문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특색이다. 조선 초기에는 5부학당을 두었으나 북부학당은 세종대에 폐지하고, 4부학당만 두었다. 4부학당에는 교수와 훈도를 각 학당에 두었으나 성균관의 전적이하의 교관이 겸직하여 지도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성종 8년(1477)에는 전임교수관을 두었고, 효종 5년(1654)에는 名官중 학문이 훌륭한 자를 교수로 겸직시켜 문풍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4학의 생도는 15·6세가 되면 입학할 수 있었고, 각 학당의 정원은 각 100명이었으나 정원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3) 향교

고려중기부터 정비·확대된 향교는 조선의 건국으로 일읍일교의 원칙아래, 제주도로부터 함경도의 공주(慶源), 甲山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었다. 향교는 유교적 정치이념을 외방에까지 보급시키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인적 자원을 양성공급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지방의 유학교육을 위한 관학기구였다. 그러므로 수명학교는 수령의 7事目的 하나로 중요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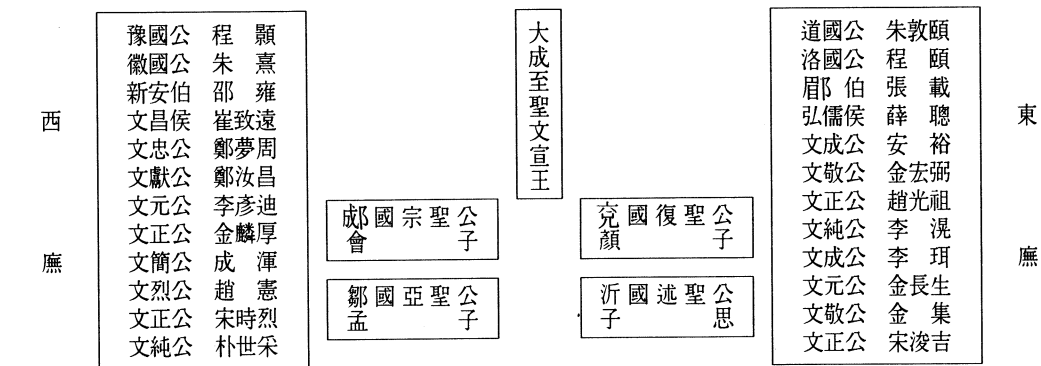
향교의 설립은 수령·교관·지방의 유지 등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공사는 백성의 예도 儒戶나 향리, 工匠, 僧徒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유불의 교체기에 있어서 佛舍가 강학소로 대치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廢寺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사원의 인적 물적 자원이 향교의 시설이나 경제적 인적 자원으로 이속되기도 하였다. 平海, 彦義, 開寧, 榮州鄉校의 건립에 廢寺의 寺址나 물적 자원을 이용한 것 등은 이같은 사실을 잘 말하여 준다. 폐사의 전지와 노비를 교육기관에 이속시킨 것은 세종 6년(1424)에는 僧錄司의 노비 및 사원노비를 東西學堂에 각 30호를, 중종 5년(1510)에는 각도의 폐사사원의 전지를 향교에 이속시켜 향교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중종12·13년(1517~18)에는 福泉寺소속의 전답 100결, 노비 80구를 성균관에 이속시킨 것은 좋은 예라 하겠다.⁹²⁾

향교의 시설은 성균관과 같으나 지방행정구역의 대소에 따라 그 규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문묘, 명륜당은 가장 기본적 건물이었다. 대성전은 고을의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되는데, 대구의 향교는 中設位에 속한다.⁹³⁾ 州郡의 묘제는 남향을 보도록 하고 東西廡가 있

92) 李樹健, 〈朝鮮初期 文教政策과 慶北鄉校의 發展〉《慶北鄉校誌》, 1991, p.76.

93) 大設位는 成均館制와 같이 孔子以下 4聖·10哲·46賢을, 中設位는 孔子·4聖·10哲·24賢(宋人 6, 韓國人 18位), 小設位는 孔子·4聖·22賢(宋人 4, 韓國人 18位)을 모신 향교를 말한다. 李樹健, 〈慶北地方의 歷史的傳統과 慶北鄉校의 性格〉, 위의 책, p.31.

었으나 현에는 廡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동서무를 설립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다. 문묘에는 先聖先賢을 봉안하였는데 이것은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제도적인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향교에 봉안되는 위패는 1948년 문묘에는 공자, 4성, 10철, 72현 등의 중국 명현을 봉안한다는 것은 사대사상의 여풍이라 하여 공자, 4성과 程伊川, 朱晦庵외의 위패는 철폐하고, 우리나라의 18현만 중향하도록 결의·시달하였다.⁹⁴⁾ 그런데 동서무나 동서재는 후대에 위패봉안의 기능이나 학생 기거소로서의 기능도 사라지면서 또한 건물의 훼손 등으로 복구가 어려워 현재는 없는 향교가 많다. 향교의 문묘에 봉안된 위패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⁹⁵⁾



〈圖 1-1〉

향교대성전 및 동·서무 선성선현위치

향교의 교육과정은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소학·4서 3경(또는 5경), 성리대전, 가례, 삼강행실, 효경, 근사록, 통감, 文選, 고문진보, 宋元節目, 楚辭 등 경전과 의례, 윤리, 諸史, 문학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중 소학은 향교교육의 기본 교재로서 중요시하였다. 소학은 立校·明倫·敬身の 3대강령에 적합한 내용을 추출 선택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유학의 강령을 실천하는 시행세목으로 사대부들의 居家·處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향교의 과목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수업연한은 3~4년 정도였던 것 같다.

향교의 교수관은 교수·훈도·교도로 구분되는데 군이상의 향교에는 교수, 현에는 훈도나 교도를 임명되었다. 그외에도 학장은 지방관이 지방인사 중에서 나이가 들고 교생을 지도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관찰사에 제청하여 학장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장은 공직이

94) 李樹健, 앞의 논문, p.32.

95) 李樹健, 위의 논문, 1991, p.11.

나 신분은 비관인이며 녹봉을 받지 못하고 호역을 면제받은 정도였다. 그러므로 학장에 대한 교생들의 경시는 향교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각도의 교수관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40세 이상이어야만 하였다.

〈表 1-1〉 각도의 교수관 수

도 교수관수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영안도	평안도	계
교 수	11	4	12	8	6	7	13	11	72
훈 도	16	50	55	49	18	19	9	31	257
계	27	54	67	57	24	26	22	42	329

향교의 교생은 16세이상인 지방의 양인자제가 입학되었으며, 향교에 居齋할 수 있는 상한선은 40세였던 것 같으며, 교생수는 행정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경국대전》禮典에 보면 부·목·대도호부는 각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이 정원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원은 향교의 성쇠에 따라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향교의 재원중 중요한 것은 향교전과 향교노비였다. 향교전은 국가에서 지급한 것 외에도 기진이나 투탁을 받은 향교소유의 전지도 있었다. 그러나 향교전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다. 국가에서 지급한 향교전과 노비를 보면 각 지방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니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2〉 향교전 지급액

관 부	유 수 관 부	대도호부·목	도 호 부	군 · 현	전 거
지 급 액	50결	40결	30결	10결	《경국대전》 예전
노 비 수	30구	25구	20구	10구	"

그외에 향교의 경제적 기반으로는 校保, 校村, 관과 유림의 보조, 식이전(殖利錢), 屬寺, 屬店등이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향교의 경제적 부담의 의무가 있었다. 즉 향교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는 대가로 군역이나 잡역 등을 면제받았다. 향교에서 지출하여야 할 내역은 祭需, 제관집사의 供饋, 校任의 식료, 교생의 守直饌價 및 노자, 지필묵대, 등유가 등이 있으며, 건물의 보수, 수리, 유생의 과거시험 보조, 통문수발 비용 등이었다.

4) 대구향교⁹⁶⁾와 칠곡향교⁹⁷⁾

(1) 대구향교

대구향교의 건립연대는 문헌이 없어 잘 알수 없으나 태조 7년(1398) 府東 2리(지금의 校洞)에 건립하였던 것 같다. 그후 선조 25년(1592)에 임진병화로 소실되었다. 그후 동왕 32년(1599) 관찰사 韓俊謙과 부사 金九鼎이 달성공원 남쪽 모퉁이에 건립하였으나, 관찰사(검부사) 柳永詢이 蛇蝎不祥之兆라는 상계를 올려 옛터인 교통으로 옮겼지만 명륜당은 여력의 부족으로 건립하지 못하였다. 그후 인조 2년(1624)에 鄉士林이 명륜당 건립을 부사 韓明勛에게 건의하여 착공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준공하였다. 이후 대구향교는 300여년동안 그곳에 있다가 주변이 상가로 변하여 복잡해지므로 1932년 지사 金瑞圭, 군수 朴濟輪, 直員 全炳坤이 상의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932년 4월 8일에 기초를 닦고 6월 25일 上樑하여 9월 25일에 준공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3일에 위패를 봉안하고, 10월 8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대구향교의 건물구조는 대성전 앞에 東西廡가 있고, 명륜당 앞에는 東西齋가 있어야 하지만 이곳으로 이전할 당시 유림 단체에서 항일운동이 심하였으므로 동서재가 있으면 유생들의 독립운동 장소로 사용될 염려가 있어 제재되었다. 그러나 1990년 시비 5천만원과 자체부담 5천만원으로 樂育齋 32평, 동서재 각 16평씩을 증건하였다.

대구향교는 24문중의 조상들이 힘을 합하여 창건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재원을 마련하였다. 24문중 중 알 수 있는 것은 15문중이며 그외의 문중은 鄉案의 분실로 알수 없다. 대구향교의 인적 구성은 임진왜란과 6·25전쟁 등 두차례에 걸친 병화로 儒案, 靑衿錄, 校任案, 校生案 등의 자료가 인멸되어 상고할 수 없으나 《齋錄》을 통해 1779년부터 1908년까지의 都有司(直員, 典校), 掌議의 이름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그 내역을 성씨별로 담당한 총회수를 보면 서씨 53, 이씨 34, 우씨 25, 구씨 18, 박씨 17, 전씨 14, 최씨 13, 유씨 9, 조씨 8, 양씨 8, 도씨 8, 채씨 5, 손씨 5, 윤씨 5, 배씨 3, 정씨 3, 곽씨 2, 조씨 2, 신씨 2, 주씨 1, 결(缺)·미상 2회이다. 도유사(都有司)를 역임한 자 중에는 진사·관관·군수도 있었던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6) 《慶北鄉校誌》, pp.801~810.

97) 위의 책, pp.813~817.

〈表 1-3〉 도유사 역임자 및 횟수

연 대	1835	1838	1840	1861	1869	1876	1878	1886	1894	1903
도유사명	관관 曹錫玄	진사 崔象龍	진사 李文煥	관관 金炳愚	관관 宋泰鎭	관관 金有鉉	관관 趙冕夏	관관 趙弼永	관관 申學休	군수 柳承榮
역임회수	5회	1	3	1	1	2	1	1	2	1

掌議는 향사시 1~3명이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2명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성씨별로 보면 서씨 103, 이씨 64, 최씨 50, 우씨 36, 구씨 35, 박씨 31, 도씨 30, 양씨 25, 각씨 22, 유씨 20, 채씨 19, 손씨 18, 조씨 9, 정씨 8, 김씨 7, 조씨 5, 남씨 3, 배씨 3, 윤씨 2, 허씨 2, 민씨 1, 두씨 1, 別任 이씨 1, 미상 3회이다.

대구향교의 경제적 기반은 《大邱鄕校略史》에 나타나는 융희 3년(1909) 11월의 전체 재산목록을 군·면별 전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4〉 대구향교의 전답⁹⁸⁾(1909) (단위:結)

區 分 地 域	畓	田	區 分 地 域	畓	田
大邱郡 東上面	132斗落只	15斗落只	大邱郡 租巖面	34斗8升落只	
東中面	47.5斗落		仁興面	32斗5升落只	
東下面	14斗落只		河西面	31斗落只	
西上面	62斗7升落只	10斗落只	河東面	51斗落只	
西中面	88斗8升落只	42斗6升落只	上守西面	25斗落只	
下水西面	34斗6升落只	6斗落只	清道郡 初同面	35斗落只	
守北面	58斗5升落只	10斗落只	二洞面	4斗落只	
守東面	2斗落只	22斗5升落只	縣內面	35斗6升落只	3斗5升落只
守縣內面	19斗落只		角北面	14斗5升落只	
下水南面	10斗落只		漆谷郡 下北面	27斗落只	
解北村面	27斗落只	2斗落只	東北面	24斗落只	17斗落只
解西部面	75斗落只	1斗落只	文朱面	22斗落只	
解東村面	146斗5升落只	8斗落只	密陽郡 上東面	267斗6升落只	56斗落只
月背面	39斗落只		穿火面	13斗落只	
河南面	25斗落只	18斗落只	丹陽面		97斗6升落只
甘勿川面	46斗落只		慶州郡 內東面	45斗6升落只	49斗3升落只
達西面	135斗9升落只	9斗落只			
城西面	18斗落只	1斗落只	합 계	1517斗5升落只	345斗落只

98) 앞의 책, p.806.

그뒤 대구향교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의 일실로 잘 알수 없으나 1948년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창립되면서 향교재단이 모두 여기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재산을 알 수 있는바 당시의 재산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5〉 대구 향교 재산내역⁹⁹⁾(1948) (단위: 坪)

地 域	區 分			計
	畓	田	垞	
大 邱 府	82,876	2,432	2,077.63	87,385.63
達 城 郡	89,601	3,705	557	93,753
慶 州 郡	9,684	4,084	501	14,269
漆 谷 郡	14,226	3,460		17,686
密 陽 郡	64,243	15,396	2,378	88,017
總 計	260,630	29,077	5,403.63	295,110.63

이 재산은 1948년 정부수립후 농지개혁으로 전답의 대부분이 농지분배되었고, 잔여재산도 관리 소홀로 태반이 망실되었다. 그 중 현금 150만원은 大邱大學 설립에 기부하였다. 그후 1973년에 망실된 향교재산은 색출하여 다시 찾았으니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6〉 1973년 색출한 대구향교재산¹⁰⁰⁾

所 在 地	番 地	地 目	坪 數	所 在 地	番 地	地 目	坪 數
太 平 1 街 洞	27	垞	66	南 山 洞	590	垞	315.6
大 明 洞	1892~1	"	33.8	新 岩 洞	245~3	垞	515.7
院 垞 3 街 洞	1120~1	"	537	壽 城 1 街 洞	213~2	道路	176
"	1435~1	溝渠	24	池 山 洞	1042~4	垞	289
飛 山 洞	1102~2	道路	104	公 山, 百 安 洞	467~10	道路	37
枝 底 洞	696~1	"	100	"	467~11	"	16
道 里 洞	739~2	畓	75	月 背, 松 峴 洞	961~1	溜池	558
中 谷 洞	347	"	416	城 西, 梨 谷 洞	51	"	202
魯 " 洞	977~2	"	4	"	52	"	201
"	977~3	"	28	城 西, 本 里 洞	169~2	田	135
砧 山 洞	264~2	垞	4	多 斯, 世 川 洞	1156~1	畓	280
公 山, 百 安 洞	467~2	道路	180	"	1156~2	溜池	117
"	467~3	垞	165	"	1070~1	垞	142
"	467~5	垞	86	竹 谷 洞	592	林野	272
"	467~6	道路	24				

99) 앞의 책, p.807.

100) 위와 같음.

대구향교의 소장 자료는 《大邱鄉校齋錄》과 《대구향교약사》가 있다. 대구향교재록은 正廟己亥(1779년)부터 융희무신(1908년)까지 춘추 향사시 都有司·掌議 등의 이름을 적은 《齋錄》을 1932년 直員 全炳坤의 친구인 李根泳이 부청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그 후 전병곤이 楊在湖 具龍海와 함께 등서하여 대구향교에 비치하였다. 그 뒤 1952년과 1978년에도 그후의 내용을 보충하여 새로 반질하였다. 1978년에 간행한 《재록》의 목차에는 1. 향교연혁, 2. 임원록, 3. 직제변경(제1차), 4. 향교이건사실, 5. 직제변경(제2차), 6. 위패존폐사실, 7. 聖牌복설사실, 8. 大祭집사록(임원록병록), 9. 校宮중수사실, 10. 향교중건사실, 11. 향교중건사실 추록, 12. 향교중건축시 간행사실, 13. 명륜당 보수사실과 부록으로는 14. 향교직제, 15. 향교운영규정, 16. 표창규정, 17. 효열선행표창사실, 18. 향교보존義損錄, 19. 향교보수찬조록, 20. 전국향교분포도, 21. 관내 院祠분포도, 22.跋이 있다.¹⁰¹⁾

《대구향교약사》는 1981년에 간행되었으며, 상당부분이 《대구향교재록》과 비슷하다. 대구향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7〉 대구 향교의 현황¹⁰²⁾

소재지 : 대구직할시 중구 남산동 735-4
기록자 직성명 : 대구향교 총무 도성열(都聲烈)
문화재 지정별 : 문화재자료 제1호

	직	임	성	명	연령	현	주	소	경	력	
중요현임원	典掌	校議	禹	億	基	72	달서구 송현동	798-12			
	"	"	徐	大	教	72	남구 대명동	1220-16			
	"	"	金	煥	泰	72	남구 대명동	1157-1			
	"	"	金	大	煥	71	중구 대명동	111-1			
	"	"	玄	海	鳳	65	북구 칠성 2가	302-124			
	"	"	孫	斗	錫	66	수성구 두산동	811-6			
	"	"	具	環	會	63	수성구 중동	7-4			
	재단이사장	儒道會	具	滋	業	74	북구 침산동	430			
	본부위원	李	壽	洛	78	수성구 수성 3가	196-1				
	관리인	柳	熙	木	35	중구 남산동	735-4				
구분	재산	地	연	건	평	田	畓	임	야	기	타
부 동 산	5필		12棟								
	2,262평		173평			99평	1,994평		평	垵	926평
衣 具	祭 器	祭 服	祭 床	樂 器	其 他						
	568	7	6								
운영경비및 조달 방법	시향사비보조 800,000, 재단보조 연 1,000,000, 헌성금 3,000,000, 충효교육시보조 2,000,000, 각구청예절교육보조 2,400,000										
수 익 사 업	혼례수입(헌성금) 18,000,000										

101) 앞의 책, p.808.

102) 위의 책, p.810.

(2) 칠곡향교

칠곡향교는 자료의 일실로 그 건립시기를 알 수 없으나 조선조의 일읍 일교의 원칙아래 전국적으로 향교를 설치한 것을 보면 조선전기에 향교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향교등록》을 통해 仁祖 20년(1642) 4월 10일의 향교건설과 景宗 2년(1722) 2월 30일(음)의 香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칠곡군은 星州牧의 속현으로 있다가 仁祖 18년(1640)에 칠곡도호부를 두게 되었다.

칠곡향교의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內三間 등이 있었는데 그중 대성전, 동서무, 내삼간은 담장으로 둘러 쌓였으며, 명륜당은 칠곡중학교의 확장으로 운동장의 한구석에 담장없이 놓여 있던 것을 최근에 담장과 外三間을 신축하였다.

칠곡향교의 경제적 기반은 田 969평, 畓 1,015평, 기타 387평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2. 기술교육

조선시대에는 유학교육뿐만 아니라 잡학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지않았다. 잡학은 집권체제를 이끌어 가는데 전문적 실무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을 양성·공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조선시대의 잡학은 공양왕원년(1389)에 10학교수관을 분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조조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조선시대의 잡학의 확립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8〉 조선시대 잡학의 확립과정¹⁰³⁾

시 대	잡 학 내 용	전 거
공 양 왕 원 년 (1389)	禮學, 樂學, 兵學, 律學, 字學, 醫學, 風水陰陽學, 吏學	《고려사》 권 77, 지 31, 배관2, 諸司都監各色
태 조 2 년 (1393)	兵學, 律學, 字學, 譯學, 醫學, 算學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0월 己亥條
태 종 6 년 (1406)	儒學, 武學, 吏學, 譯學, 陰陽風水學, 醫學, 字學, 律學, 算學, 樂學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1월 辛未條
세 종 12 년 (1430)	儒學, 武學, 漢吏學, 字學, 譯學, 陰陽風水學, 醫學, 樂學, 算學, 律學,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3월 戊午條
《경 국 대 진》	儒學, 武學, 譯學, 醫學, 陰陽學, 算學, 律學, 書學, 道學, 樂學	《경국대전》 권3, 예전·생도조

103) 宋春永, 〈高麗時代の 譯學教育〉 《大丘史學》 35, 1988, p.16.

이같은 조선시대의 잡학은 각 전문기구에서 관장 운영하였는 바 그 기구명을 보며 다음과 같다.

〈表 1-9〉 조선시대의 잡학기구

잡 학 명	잡 학 기 구 명	잡 학 명	잡 학 기 구
譯 學	司 譯 院	算 學	戶 曹
律 學	刑 曹	畫 學	圖 畫 署
醫 學	典 醫 監	道 學	昭 格 署
天 文 學	觀 象 監 (地理學, 命課學도 이 기구에서 관장)		

잡학에 입학한 학생은 양인이상의 자제라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였으나 이들 잡학은 신분의 세습으로서 중인계층의 자손이 입학되었다. 잡학생수는 각 분야에 따라 입학 정원이 달랐던 바 《경국대전》 예전 생도조에 보이는 학생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⁴⁾

〈表 1-10〉 잡 학 생 수

잡 학 구 분			중 앙 학 생 수	지 방 학 생 수
譯 學	漢 學	學	사 역 원 35(40)	평양, 의주, 황주 각 30, 제주(15)
	蒙 學	學	사 역 원 10(25)	
	女 眞 學	學	사 역 원 20(54)	북청10, 의주, 창성, 초산, 벽동, 위원, 만포 각 5
	倭 學	學	사 역 원 15(40)	부산포10, 재포10. 염포6, 제주(15), 거제(5)
醫 學			전 의 감 50(56) 혜 민 서 30(62)	府 각 16, 대도호부·목 각 14, 도호부 각 12, 군 각 10, 현 각 8
天 地 命	文 理 學	學	관 상 감 20(40)	
	理 學	學	" 15(10)	
	課 學	學	" 10	
算 學			호 조 15(61)	
律 學			형 조 40(80)	府 각 6, 대도호부·목 각 14, 도호부 각 12, 군 각 10, 현 각 8
畫 學			도 화 서 15(30)	
道 學			소 격 서 10 (0)	

104) 《經國大典》 권 3, 禮典, 生徒條.

잡학교육을 위한 교수관은 해당 전문분야의 잡과에 등제한 사람이나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대읍에는 교수(중6품)를 소읍에는 훈도(중9품)를 두어 지도하도록 하였다. 잡학생수는 법제적 정원이었을뿐 그 학생수는 교육의 성쇠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잡학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잡학의 분야에 따라 각각 달랐던 것 같다.

III. 私學의 발달

1. 서원

서원은 16세기 조선사회가 안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속에서 건립된 문화적 유산으로 이것은 단순한 교육만을 맡았던 書齋와는 달리 사적 교육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선현을 奉祀하는 祠廟를 건립하여 정신적으로 사람의 권위를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중종38년(1543)에 풍기군수 周世鵬이 세운 白雲洞書院이 효시이다.

주세붕은 宿水寺址에 安珦을 봉향하는 서원을 세우고 송의 朱子가 만든 白雲洞學規를 채용하여 이름을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그후 명종 5년(1550)에 李滉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건의함에 따라 국왕 친필의 「紹修書院」이라는 현판(額)을 하사받아 賜額書院이 되었고 이것은 조선시대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사액서원은 국가로부터 서적·전토·노비 등을 하사받았으며, 이 서원은 16세기이후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활로를 개척해 주고 사람들의 성장과 정치적 진출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다.

서원은 이후 각 지방에 설치되어 선조 때에만 하더라도 124개나 되었으며, 숙종때에는 한도에 8·90개를 헤아리게 되었으며, 정조때에는 600여개를 넘었다. 사액서원만도 200여개를 넘었다. 이같은 서원의 확대 증가는 사학과 성리학의 발달은 물론 사회 윤리의 순화, 지방문화의 발전이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 폐단이 너무 심하여 대원군은 고종 8년(1871) 서원 철폐령을 내려 600여개의 서원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훼철하였다. 남은 47개 서원중 14개(경상북도9, 경상남도5)가 경상도에 있었다.¹⁰⁵⁾

서원의 건물은 선현을 봉사하는 祠宇를 비롯하여 강학당, 동·서재가 중심을 이루었고, 그 외에

105) 慶北에 있는 書院은 西岳書院(경주, 薛聰享祀), 道洞書院(현풍, 金宏弼), 紹修書院(순흥, 安珦), 興巖書院(상주, 宋浚吉), 屏山書院(안동, 柳成龍), 金烏書院(구미, 吉再), 玉山書院(경주, 李彥迪), 玉洞書院(상주, 金千鎰) 등이 있다.

藏板閣(도서비치) 등 부속건물이 있었으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건물의 관리가 소홀히 되어 폐이되거나 소실되어 복원하지 못하여 원래의 모습을 다 갖추지 못한 서원도 적지 않다.

서원의 재원은 서원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사액서원은 국가에서 서원전 3결을 하사하였다. 院田은 국가에서 하사한 것도 있으나 願入田(기부토지), 면역전, 사찰위전(사원전을 이속한 것), 屬公田(관에서 공전을 이속한 것) 등이 있었다. 서원에는 토지외에도 잡사(경작, 사환, 直守 등)를 맡아 볼 노비도 있었는데 효종 8년(1657)에는 사액서원에 7인, 비사액서원에 5인, 鄉賢祠에 1인을 각각 주었다. 그러나 노비를 30명 내지 70명 소유한 서원도 있었던 것 같다.

서원의 교육과정은 소학, 가례, 4서 5경, 諸史子集 등을 강독, 製述, 習書(습자; 해서(楷書), 草書)하였고, 성적평가는 5단계법을 적용하였다. 서원의 교수관은 院長·講長·訓長 등이 교학적 직능을 맡아 보았으며 이들은 유학적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

서원의 학생은 생원·진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庶類도 입학하였던 것 같다. 원생의 정원은 사액서원의 경우 20명, 문묘에 종사한 儒賢을 봉양한 서원은 30명(뒤에 20명), 비사액서원은 15명으로 하였으나¹⁰⁶⁾, 이같은 규정은 그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것 같다.

2. 대구의 서원

대구의 서원중 가장 오래된 서원은 研經書院이다. 이 서원은 대구지역의 최초의 서원일 뿐 아니라 최초의 賜額書院으로 명종 18년(1563)에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퇴계의 문인인 李叔樸이 연경동 畫岩下에 서당을 세워 강학하던 것을 대구 유생들의 여망과 부사 朴應川의 후원으로 서원으로 승격시켜 건립한 것이다. 이서원의 건물은 40여칸으로 그 규모가 자못 컸다. 연경서원에는 퇴계를 주향으로 하여 寒岡·愚伏을 배향하였다. 그후 대구의 서원은 순조 28년(1824)에 이르기까지 약 250여년동안 23개「서원19, 祠4」의 사묘가 건립되었으며, 이중 연경서원과 表忠祠·洛濱書院은 사액을 받았다. 대구지역의 23개 사묘를 보면 <表1-11>과 같다.¹⁰⁷⁾

106) 丁淳陸, 《韓國書院制度研究》,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0, p.200.

107)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1, 1973, pp.436~437.

〈表 1-11〉

대구부의 서원과 사

서 원 명	위 치	건립시기	봉 향 인 물
研經書院(賜)	府北 20里 晝岩下(구) 대구직할시 북구 연경동(현)	명종 18년 (1563)	李滉(主), 鄭述·鄭經世(配)
表 忠 祠(賜)	府北 20里 智妙王山下(구) 대구직할시 동구 지묘동(현)	현종 11년 (1670)	申崇謙(主), 金樂(配)
洛濱書院(賜)	府西 40里 妙洞(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현)	현종 15년 (1674)	朴彭年 등 死六臣(并)
伊 江 書 院	府西 20里 伊川下 洛江上(구) 달성군 다사면 이천동(현)	인조 14년 (1636)	徐思遠(獨)
龜 巖 書 院	府西 3里 南山下(구) 대구직할시 중구 동산동(현)	현종 6년 (1665)	徐沈·徐居正·徐嶸·徐省(并)
南 崗 書 院	府南 70里 豐角縣 南山下(구) 청도군 각북면 남산동(현)	숙종 17년 (1691)	朴漢柱(主), 朴壽春(配)
靑 湖 書 院	府東 20里 守東面(구) 대구직할시 수성구 황금동(현)	숙종 20년 (1694)	孫處訥(主), 柳時潘(配), 孫肇瑞·鄭好仁(追)
百 源 書 院	府北 40里(구) 대구직할시 동구 도동(현)	숙종 18년 (1692)	徐時立(獨)
尙 德 祠	府 東門外(구) 대구직할시 중구 남산동(현)	숙종 8년 (1682)	李翻·俞拓基·金義淳·李在秀(并)
德 洞 書 院	府南 20里 月背面(구) 대구직할시 달서구 상인동(현)	숙종 34년 (1708)	禹拜善(獨)
西 山 書 院	府北 10里 東中面(구) 대구직할시 북구 검단동(현)	순조 24년 (1824)	蔡貴河·蔡應麟·蔡先修·蔡光見(并)
西 溪 書 院	府北 10里 東下面(구)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현)	?	李文和·李輅 (并)
玉 溪 書 院	府南 30里(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동(현)	정조 22년 (1798)	徐鈞衡(主), 徐忭(配)
梧 川 書 院	府南 20里 上守西(구) 대구직할시 수성구 파동(현)	영조 20년 (1744)	楊熙止(獨)
淸 白 書 院	府北 40里 解北村(구) 대구직할시 동구 백안동(현)	숙종 27년 (1701)	李榮·鄭守忠(并)
琴 巖 書 院	府北 40里 河南(구) 달성군 다사면 매곡동(현)	영조 40년 (1764)	鄭師哲·鄭光天(并)
柳 湖 書 院	府北 20里 解西村(구) 대구직할시 동구 불로동(현)	정조 8년 (1784)	郭再謙(獨)
龍 湖 書 院	府西 20里 河東(구) 달성군 다사면 鋤齋洞(현)	숙종 34년 (1708)	都聖俞·都汝俞·都愼修(并)
屏 巖 書 院	府西 30里 城西面(구) 대구직할시 달서구 용산동(현)	영조 40년 (1764)	都應俞·都慶俞(并)
龍 岡 書 院	府西 30里 城西面(구) 대구직할시 달서구 용산동(현)	숙종 22년 (1696)	許得良·許復良(并)
鹿 洞 書 院	府南 40里 上字南(구) 달성군 가창면 주동(현)	정조 15년 (1791)	金忠善(獨)
平 川 祠	府北 20里 解西村(구) 대구직할시 동구 지묘동(현)	정조 1년 (1777)	崔認·崔誠·崔東輔(并)
鳳 巖 祠	府南 10里 下守西(구) 대구직할시 수성구 상동(현)	정조 23년 (1799)	孫遴(獨)

(主):主享, (配):配享, (并):并享 혹은 合享, (獨):獨享, (구):舊地名, (현):現地名

3. 대구의 서당

서당은 사설 초등교육기관으로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였다. 서당은 설립자에 따라 훈장 자영서당, 유지독영서당, 유지조합서당, 촌조합서당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조선후기에는 전국의 각면·동(리)단위로 설치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설치되었다. 서당의 입학자격은 향촌 자체라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였으며, 7·8세가 되면 입학하여 15·6세까지 수학하였다.

서당의 교수관은 훈장, 接長이 있었으며, 수학과목은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사략, 사기, 4서 3경, 唐宋文, 唐律 등이 있었다. 이러한 과목은 講讀, 製述, 習書(습자)하였으나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개별 지도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대구에도 많은 서당이 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수는 알수 없다. 향촌의 서당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있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민족운동의 사상적 거점이 되어 일제의 탄압을 받아 많은 서당이 폐지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서당중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서당을 《達句伐文化財》〈대구직할시, 1991〉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암서당(지방문화재자료 제12호)

이 서당은 조선시대 고종 2년(1865) 현 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 223-3에 사는 최씨 문중에서 건립한 서당이다. 독암이라 한 것은 서당의 서쪽에 고려 태조 왕건이 공산싸움에서 견훤에게 패하여 혼자 피신해 앉아 있었다는 獨坐巖이 있어 거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2) 고산서당(지방문화재자료 제15호)

이 서당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성동 산22에 있다. 이서당은 언제 세워졌는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이황(1501~1570)과 鄭經世(1563~1633)가 이곳에서 講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늦어도 이 시기에는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두분 사후에 서당 뒤편에 사당을 건립하여 두분의 위패를 모시고 서원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때 소실되고 강당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그후 고종 16년(1879)에 경산의 유림에서 강당만 중건하여 고산서당이라 편액하고, 1904년 중수하였다.

IV. 科擧制度와 教育

고려 광종 9년(958)부터 실시한 과거는 1894년 폐지될 때까지 약 930여년간 계속되었으며, 조선시대에 가장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문관 채용을 위한 시험인 생진과와 문과, 무

관시험인 무과, 기술관 시험인 잡과가 있었다. 생진과(小科; 司馬試)는 4서 5경으로 시험하는 생원과와 시·賦·表·策 등 문예 사장으로 시험하는 진사과로 구분되었다.

서당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자제는 서울에서는 4학, 지방에서는 향교에 각각 진학하여 수학한 후 생진과에 응시하였다. 생진과 응시자는 잡과 같이 초시·복시 두단계의 시험을 치루었다. 생진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하였으며 성균관 유생들은 大科에 응시하여 초시·복시·전시 등 3단계의 시험을 거쳤다. 문과에 응시하여 합격한 갑과 제1인(1등)은 壯元及第라 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6품이상의 參上官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은 전형적인 관료로 나가는 길이나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관학이 쇠퇴하였을 때는 오히려 사학인 書齋에서 과업교육을 받아 과거에 응시하기도 하였다.¹⁰⁸⁾ 생진과나 잡과에 합격하면 白牌를, 문과나 무과에 합격하면 紅牌를 주었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정기 시험외에 增廣試, 別試, 謁聖試 등 부정기시험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관리를 채용하는 길은 과거외에 공신 및 3품이상의 관리의 자손에게는 蔭叔가 있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은 고려와는 달리 궁술, 騎槍, 격구 등의 무예와 병서, 경서 등의 학술시험을 시행한 무과가 있었으며, 음서가 제한되어 있었다. 무과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3단계의 시험을 거쳤으며, 합격자를 先達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무과는 후일 천민들의 진출고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전문적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관을 등용하기 위한 잡과는 譯科, 醫科, 陰陽科, 律科 등 4과가 있었다. 역과는 8역원에서, 의과는 전의원에서, 음양과는 관상감에서, 율과는 호조에서 각각 시험을 보았다. 이 잡과는 천시되어 중인의 자제가 세습적으로 배워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식년시의 정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2〉 식년시 과거 정원수¹⁰⁹⁾

과명		단 계		
		초 시	복 시	전 시
文生武譯醫陰律	科	200명	33명	甲科 3, 乙科 7, 丙科 23명
	進科	生員 700, 進士 700	生員 100, 進士 100	
	科	200	28	甲科 3, 乙科 5, 丙科 20명
	科	35	19	
	科	18	9	
陽科	科	18	9	
	科	18	9	

108) 李秉然, 앞의 논문, 참조.

109) 《經國大典》권 3, 禮典, 諸科條.

第4節 開化期の 教育과 大邱

I. 時代的 背景

1. 통상개화론의 대두

19세기에 들면서 조선사회는 17세기이후 누적되어 온 제도적 모순과 현실적 문제를 자각하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통상의 길을 터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밖으로는 유럽열강의 선박(夷洋船)이 조선의 연안에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때에 박재가, 이규경 같은 사람은 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최한기는 《海國圖誌》를 읽고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상론은 朴珪壽, 吳慶錫, 劉鴻基 등에 의하여 더욱 추진되었다.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로서 문호개방과 서양 문화의 수입을 주장하였으며, 오경석은 증인출신의 역관으로 청에 내왕하면서 《해국도지》 등의 책을 구입하여 읽고 이를 권장하였다. 유흥기(大致)는 醫業출신으로 오경석과 같이 통상과 개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대원군이 집정하고 있었던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후 고종 10년(1873) 대원군이 물러나고 난뒤에 민씨일파에 의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상과 개화를 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2.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의 추진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하면서 개국통상의 길로 나갔다. 조선의 문호개방은 雲揚號事件을 계기로 고종 13년(1876)에 일본의 무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丙子修好條約(江華島條約)을 맺어 부산·원산·인천 3개항을 개항하고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이것으로 일본은 장차 조선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선은 일본에게 개국을 당한후 구미 여러나라들과도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이로써 국제무대에 등장하여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강화도조약을 맺은후 조선은 金綺秀를 수신사로 일본에 보내었으며, 일본은 花房義質을 조선에 공사로 보내었다. 고종 18년(1881)에는 朴定陽, 魚允中, 洪英植 등을 紳士遊覽團이라 하여 70여일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돌아오도록 하였고, 金允植을 領選使로 삼아 수십명을 데리고 天津의 器機局에 1년간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군제를 개편하고 별기군을 조직하였으며 統理機務衙門을 두고 그 아래에 12司를 두어 행정을 분장 취급하였다. 이처럼 조선이 문호개

방이후 국제무대에 등장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세계 진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전통적인 유학교육체제로부터 벗어나 새시대에 맞는 근대적 교육체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3. 개화당의 개혁운동

문호개방이후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개화사상은 양반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김옥균, 박영효, 徐廣範, 洪英植 등의 청년들은 유대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은 급진적 개화정책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받아 청의 간섭을 배격하고 참된 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개화당은 郵政局의 낙성식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켜 혁신정당을 발표하고 개화정부를 수립하였으나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비록 정변은 실패하였으나 이로인하여 열강의 침투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정변의 결과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고종 21년(1884)에 맺었으며, 일본은 청과 천진조약을 맺었다.

조선을 둘러싼 청·일양국의 대립과 열강의 세력침투 속에서도 조선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조선의 농촌을 침체시켰으며 奸吏들의 행패와 국가 수입의 감소, 배상금지불, 새로운 문명시설의 도입 등은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때에 동학 농민군이 봉기하여 고종 31년(1894)에는 「폐정개혁안」12개조를 제시하고,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동학혁명군을 스스로 진압할 수 없었던 조선은 청의 원병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 결과 청일전쟁의 발발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下關條約을 맺고, 조선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개혁인 갑오경장을 단행하였다. 갑오경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면에서 있어서 일대개혁이었으며, 근대적 교육제도의 확립도 이로부터였다.

II. 近代 教育制度의 確立

1. 관·공립학교의 설립

국제무대에 진출한 조선은 세계진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신교육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83년에는 통상아문의 부속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하고자 同文學을 설치하여 영어와 일어를 가르쳤으나 육영공원의 설치로 폐지되었다. 그후 조정에서는 1886년 육영공원을 설립하여 영어, 수학, 경제학, 지리 등을 외국인 교사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였으나 갑오경장

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그외에도 1888년에는 사관생도에게 신식훈련을 시키고자 鍊武公院을 설립하였으나 이것도 1894년에 폐지하였다.¹¹⁰⁾

갑오경장으로 종래의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등용 제도를 실시하였다. 고종 32년(1895) 2월 2일에는 칙령으로 「教育立國詔書」를 발표하였다. 이 조서에는 국가 보전의 근본은 교육임을 강조하고 신교육으로 과학적 지식과 학문, 실용을 숭상하여 지·덕·체 교육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광설하고 인재를 교육하여 국가 보전과 민족 중흥이 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해 9월에는 학부에서 고시를 통하여 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1895년 4월에는 교사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관제를 공포하였다. 이것은 근대적 학교 법규로서 이후 여러 학교의 관제와 규칙이 제정되었다.¹¹¹⁾

〈表 1-13〉

제 학 교 관 제

학 교 관 제	제 정 연 월 일	학 교 관 제	제 정 연 월 일
한 성 사 범 학 교 관 제	1895. 4. 16	보 조 공 립 학 교 규 칙	1896. 2. 20
외 국 어 학 교 관 제	1895. 5. 10	의 학 교 관 제	1899. 3. 24
성 균 관 관 제	1895. 7. 2	중 학 교 관 제	1899. 4. 4
소 학 교 령	1895. 7. 19	농 상 공 학 교 관 제	1899. 6. 24
한 성 사 범 학 교 규 칙	1895. 7. 23	외 국 어 학 교 규 칙	1900. 6. 27
성 균 관 경 학 과 규 칙	1895. 8. 9	농 공 상 학 교 규 칙	1904. 6. 8
소 학 교 규 칙 대 강	1895. 8. 12		

소학교령에 의하면 소학교는 관립(국립), 공립, 사립의 3가지가 있으며, 편제는 심상과, 고등과로 나누어 심상과는 3년, 고등과는 2~3년으로 하였고, 학령은 7(8세)로부터 15세까지 8년간으로 하였다.

교육과정은 심상과는 수신, 독서, 작문, 산술, 체조로 하되 때로는 체조대신에 본국의 지리, 역사, 그림, 외국어, 數科, 여아를 위한 재봉을 더할 수 있었으며, 고등과는 심상과 과목외에 본국지리·역사, 理科가 더하였고, 때로는 외국어 1과를 더하고, 외국지리·역사, 도화의 1과 또는 數科를 제할 수 있었다.

110) 孫仁銖, 《韓國開化教育研究》, 一志社, 1980, pp.38~42.

111) 위의 책, p.85.

소학교령이 발표된 이후 1905년까지 설립된 소학교는 서울이 10, 지방이 50개교였으며, 대구에도 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고, 그뒤 경주, 안동 등지에도 소학교가 세워졌다.¹¹²⁾ 중학교는 1899년 4월 4일 칙령 제11호로 공포된 「중학교관제」와 1900년 9월에 학부령 제12호로 공포된 「중학교규칙」에 바탕하여 설립되었다. 중학교는 실업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正德利用厚生하는 것을 목적으로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수업연한을 7년(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하였다.¹¹³⁾

사범학교는 교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1895년 4월에 신학제에 의한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편제는 본과와 속성과를 두고 본과는 2년(1899년 4년연장), 속성과는 6개월로 하였으며, 학령은 본과생은 25세이하, 속성과는 22세이상 35세이하로 규정하였다. 교과과정은 본과가 수신, 국문 및 한문, 교육,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박물(博物), 습자, 작문, 체조 등을 수학하였으나 속성과는 물리, 화학, 박물은 제외되었다.¹¹⁴⁾

외국어학교는 문호개방이후 외국과의 통상, 사신의 왕래, 교섭이 잦아지면서 외교관이나 통역관의 양성이 필요하였다. 1895년 10월에 공포한 외국어학교관제에 바탕하여 일어학교와 영어학교를 설립하였다. 同文學과 育英公院이후 1891년에는 일어학교가, 1894년에는 영어학교를, 1895년에 불어학교를, 1896년에는 러시아어학교를, 1897년에는 漢語學校를, 1898년에는 독일어학교가 각각 설립되었다. 그중 일어학교는 인천과 평양에 분교(支校)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외국어학교는 16세이상 25세이하(뒤에 15세이상 20세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은 일어와 중국어학교는 3년, 기타는 5년으로 하였다. 1906년의 외국어학교학생수는 일어학생 17, 영어학생 127, 불어학생44, 중국어학생 54, 독일어학생이 20명이나 되었다.¹¹⁵⁾

그외에도 1899년 3월에는 경성의학교가 설립되어 池錫永이 초대 교장이 되었는데 입학은 중학교 졸업자로서 20세이상 30세이하로 한하였으며 수업연한은 3년이였다. 1899년에는 商工學校(1904년에 농상공학교로 개칭)를 설립하고 17세이상 25세이하로 하였으며, 수업연한은 속성과 1년, 본과 3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업계 교육은 천시를 받아 학생수가 적을 때는 10명이 안되는 때도 있었다. 1900년에는 鑛務學校를 세워 3년간 교육시켰다. 그외에도 1895년에는 법원안에 법관 양성소를 설치하였고 수업연한은 1년6개월로 하였으나 1905년에 2년으로

112) 앞의 책, p.87.

113) 위의 책, pp.90~92.

114) 위의 책, pp.92~94.

115) 위의 책, pp.94~96.

연장하였다.¹¹⁶⁾

문호개방후 청과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맺어 통감부를 설치하고 학제를 개정하여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꾸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하면서 심상과와 고등과를 통합하였으며, 중전의 교과목에 일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보통학교를 확장하여 1906년에는 서울에 9개교(水下洞·莊洞(뒤에 梅洞)·貞洞·齋洞·養士洞·漢洞·養賢洞·鑄洞·安洞), 지방에는 수원·공주·광주·전주·진주·대구·춘천·평양·영변·해주·함흥·중성 등 13곳에 각 1개교를 설립하였다. 1907년에는 지방에 28개교, 1908년에는 9개교를 늘려 1909년까지 60여개의 보통학교를 세웠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개칭하여 한성중학교를 한성고등학교, 평양일어학교를 평양고등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08년에는 한성고등여학교를 세웠다. 종래에 독립된 외국어학교는 1906년에 통합하여 한성외국어학교로 바꾸었으며 1909년 실업학교령을 공포하여 인천일어학교를 인천 실업학교로 바꾸고 부산·정주에 실업고등학교를, 1910년에는 평양·대구·전주에 농림학교를, 군산·춘천에는 실업학교를 각각 설치하여 한국인의 자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식민지 교육의 기반을 확립하여 갔다.

이상과 같은 학교의 변천은 학제 개정에 바탕한 것으로 1910년 이전까지 공포한 학제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¹⁷⁾

〈表 1-14〉

학 제 개 정 과 정

관	제	연 도	법 령	관	제	연 도	법 령
사	범 학 교 령	1906년	칙령 41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		1908년	학부령 16호
고	등 학 교 령	"	" 42호	실업학교령	1909년	칙령 56호	
외	국 어 학 교 령	"	" 43호	실업학교령시행규칙	"	학부령 1호	
보	통 학 교 령	"	" 44호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	"	" 2호	
고	등 여 학 교 령	1908년	" 22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	" 3호	
사	립 학 교 령	"	" 62호	고등학교령시행규칙	"	" 4호	
사	립 학교 보조 규정	"	학부령 14호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	" 5호	
공	사립학교인정규정	"	" 15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	"	" 6호	

116) 앞의 책, pp.97~100.

117) 위의 책, p.101.

1906년부터 1910년까지 관·공립학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5〉 구한말 관·공립학교수¹¹⁸⁾

구 분 \ 연 도	1906	1907	1908	1909	1910
관 립 보 통 학 교	9	9	9	9	1
공 립 보 통 학 교	13	41	50	82	100
관 립 법 학 교	1	1	1	1	
관 립 사 범 학 교	1	1	1	1	1
관 립 고 등 학 교	1	1	2	2	2
관 립 외 국 어 학 교	7	7	3	1	1
관 립 고 등 여 학 교				1	1
관 립 실 업 학 교				1	1
공 립 실 업 학 교				3	14
공 립 실 업 보 습 학 교					4

1910년 4월현재 관·공립고등학교의 학과와 수업연한, 학생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6〉 관립 및 공립고등학교 일람¹¹⁹⁾ (1910. 4.)

구 분	교 명	위 치	학 과	수 업 연 한	학 생 수
官 立	成 均 館	서 울	漢 籍	3年	30
"	法 學 校	서 울	漢 律	本科 3年	154
"	漢 城 師 範 學 校	서 울	教 員 養 成	豫科 1年	302
"	漢 城 高 等 學 校	서 울	高 等 普 通 (人 文)	本科 3年	232
"	漢 平 壤 高 等 學 校	平 壤	高 等 普 通 (人 文)	速成科1년	134
"	漢 城 外 國 語 學 校	서 울	各 種 外 國 語	3年	538
"	仁 川 實 業 學 校	仁 川	商 業	各部 3年	160
"	漢 城 高 等 女 學 校	서 울	女 子 高 等 普 通 (人 文)	日語速成科3年	224
公 立	釜 山 實 業 學 校	釜 山	商 業	3年	87
"	大 邱 農 林 學 校	大 邱	農 林 業	豫科 2年	81
道 立	平 壤 農 林 學 校	平 壤	農 林 業	速成科1年	81
道 立	全 州 農 林 學 校	全 州	農 林 業	"	50
道 立	咸 興 農 林 學 校	咸 興	農 林 業	2年	?
"	光 州 農 林 學 校	光 州	農 林 業	2年	?
"	春 川 實 業 學 校	春 川	農 林 業	3年	?
"	併 設 群 山 實 業 學 校	群 山	"	速成科1年	27
"	定 州 實 業 學 校	定 州	"	2年	40
"	濟 州 實 業 學 校	濟 州	"	2年	?
				3年	?

118) 文定昌, 《軍國日本 朝鮮占領 三十六年史》上, 栢文堂, 1965, p.200.

119) 孫仁銖, 앞의 책, p.105.

第1章 教 育

구한말의 보통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주당 수업시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7〉 구한말 보통학교 교과과정 및 주당 교수시수¹²⁰⁾

학 년 교과목	1		2		3		4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修 身	1	實踐道德	1	左 同	1	左 同	1	左 同
國語漢文	10	日常須知 한글 및 漢字, 讀法, 書法, 綴法, 平易한 漢文讀法	10	左 同	10	左 同	10	左 同
日 語	6	會話 및 國漢文 의 讀法, 書法, 綴法	6	左 同	6	左 同	6	左 同
算 術	6	簡易한 數와 計 算法, 書法, 加 減乘除	6	通常 加減乘除	6	左同 및 小數	6	諸等數, 分數, 步合算
理 科					2	動物, 植物, 鑛 物 及 自然의 現象	2	簡易한 物理, 化學上的 現象, 人身, 生理, 衛 生の 大要
圖 畫	2	簡易한 諸般形體	2		2	左 同	2	左 同
體 操	3	유희, 學校體操		左 同	3	左 同	3	左 同
唱 歌		單音 唱歌	3	左 同		左 同		左 同
手 工		簡易한 手工		左 同		左 同		左 同
農 業				左 同		農業大要		左 同
商 業						商業大要		左 同
계	28		28		30		30	

120) 앞의 책, p.304.

〈表 1-18〉 구한말 고등학교 교과과정 및 주당 교수시수¹²¹⁾

학 년 교과목	1		2		3		4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修身	1	實踐道德	1	左 同	1	左 同	1	左 同
國語漢文	6	講讀, 作文, 文法, 習字	6	左 同	6	左 同	6	左 同
日 語	6	讀法, 解釋, 會話, 習字	6	左同 及 作文, 文法	6	講讀, 作文, 文法	6	左同 및 翻譯
歷史地理	3	本國歷史數, 本國地理	3	外國歷史, 外國地理	3	左 同	1	地 文
數 學	6	算數, 代數	5	代數, 幾何	4	代數, 幾何, 簿記	4	幾何, 簿記
博 物	4	鑛物, 織物	2	動物, 生理	2	生理, 衛生		
物 理 學					3	化 學	4	化學 및 物理
實 業	1	實業概說	3	農業에 관한事項 商業에 관한事項 工業에 관한事項	3	左 同	5	左同 實習
圖 畫	1	自在畫	1	左 同	1	左同 및 用器畫	1	用 器 畫
體 操	3	學校體操	3	左 同	2	左 同	2	左 同
法及經濟							(2)	
唱 歌	(1)		(1)					
外 國 語	(2)		(3)		(3)		(3)	
계	31 (3)		30 (4)		31 (3)		30 (5)	

2. 사립학교의 설립

고종 32년(1895)에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된 후 경향 각지에는 관립 및 공립학교가 세워졌으나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 시대의 교육열은 민간에서 왕성하였다. 정치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 직접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전·현직 관리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교육사업에 참여하였다.

121) 咸宗圭, 《教育課程變遷史研究》前篇, 淑明女子大學校出版部 1983, p.36.

한국교육사에서 근대적 사립학교의 효시는 고종 20년(1883) 원산에 세워진 元山學舍였다. 이것은 개항장의 주민들이 외세에 대항하고자 자력으로 설립한 근대적 최초의 학교였다. 그 뒤 고종 23년(1886)에 배재학당 등 선교회 계통의 사립학교가 세워졌으며, 이화여학교가 여성 교육기관으로 세워졌다. 그리하여 1910년까지 전국에는 무려 3,000여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평민 자제교육을 담당하였다. 교과목은 역사·지리·정치학·법학·산술·대수 등 여러 과목을 수학하였다. 사립학교는 지식의 전달장으로서 뿐만아니라 민족운동의 근거지로서 애국열과 함께 성해갔다. 구한말 사립학교의 현황을 보면 <表 1-19>와 같다.

<表 1-19> 구한말 민간인 사립학교¹²²⁾

年 代	學 校 名	設 立 者	所 在 地
1883	元 山 學 校	德 源 有 志	원 산
1895	興 化 學 校	閔 泳 煥	서 울
1895	樂 英 義 塾 (뒤 乙 未 義 塾)	社 會 有 志	서 울
1896	中 橋 義 塾	閔 泳 綺	서 울
1897	貞 善 女 學 校	金 養 堂	서 울
1898	順 成 女 學 校	讚 揚 會	서 울
1899	漸 進 學 校	安 昌 浩	강 서
1901	文 東 學 院	申 圭 植	청 원
1901	洛 淵 義 塾 (뒤 普 光 學 校)	徐 光 世	서 울
1902	牛 山 學 校	梁 在 養	서 울
1904	青 年 學 院	全 德 基	서 울
1905	瑞 旬 義 塾	李 相 高	용 정
1905	養 正 義 塾	嚴 柱 益	서 울
1905	光 成 實 業 學 校	前 少 論 派	서 울
1905	漢 城 法 學 校	社 會 有 志	서 울
1905	普 成 學 校 (뒤 普 成 專 門 學 校)	李 容 翊	서 울
1906	徽 文 義 塾	閔 泳 徽	서 울
1906	進 明 女 學 校	嚴 貴 妃	서 울
1906	淑 明 女 學 校	嚴 貴 妃	서 울
1906	愛 國 學 校	社 會 有 志	평 양
1906	普 成 中 學 校	李 容 翊	서 울
1906	中 東 學 校	申圭植(뒤崔奎東)	서 울

122) 孫仁銖, 앞의 책, pp.125~126.

第4節 開化期の 教育과 大邱

年 代	學 校 名	設 立 者	所 在 地
1906	峴 山 學 校	南 宮 攄	양 양
1906	養 閨 義 塾	女 子 教 育 會	서 울
1906	華 野 義 塾	李 哲 鎔	포 천
1907	新 學 院	女 子 教 育 會	서 울
1907	西 友 師 範 學 校	西 友 學 會	서 울
1907	同 寅 學 校	大 韓 同 寅 會	서 울
1907	大 成 學 校	安 昌 浩	평 양
1907	講 明 義 塾	李 昇 薰	정 주
1907	五 山 學 校	李 昇 薰	정 주
1907	普 昌 學 校	李 東 輝	강 화
1907	鳳 鳴 學 校	李 鳳 來	서 울
1907	西北協成學校(뒤 五星學校→光新商業學校)	西 北 學 會	서 울
1907	精 理 舍	柳 一 宣	서 울
1907	鏡 城 中 學 校	李 鍾 浩	경성(함북)
1907	養 實 學 院	社 會 有 志	의 주
1907	楊 山 小 學 校	金 鴻 亮 · 金 九	안 악
1907	保 強 學 校	金 九	재 령
1907	長 薰 學 校	社 會 有 志	서 울
1908	畿湖學校(뒤에 隆熙學校와 合同하여 中央學校로 발전)	畿 湖 興 學 會	서 울
1908	東 媛 女 子 義 塾 (뒤 東 德 女 子 義 塾)	趙 東 植	서 울
1908	養 原 女 學 校	尹 高 羅	서 울
1908	新 明 學 堂	金 洪 植	김 제
1908	協 東 學 校	金 東 三	안 동
1908	明 東 學 校	金 學 淵	명 동
1908	星 明 學 校	金 昌 淑	성 주
1908	普 明 女 學 校	普 明 女 子 教 育 會	서 울
1908	養 貞 女 學 校	崔 誠 卿	서 울
1908	大 東 專 修 學 校	大 東 學 會	서 울
1908	輔 仁 學 校	輔 仁 學 會	서 울
1908	昭 義 學 校 (뒤 東 星 商 業 學 校)	張 志 暎	서 울
1909	隆 熙 學 校	俞 吉 濬	서 울
1909	楊 山 中 學 校	金 鴻 亮	안 악
1909	華 山 學 校	閔 泳 祚	고산(전북)

구한말의 사립학교를 지역별 및 종교단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20〉 지역별 사립학교수¹²³⁾ (1910. 5.)

지 방 별	인가된학교수	종교단체경영 학 교 수	지 방 별	인가된학교수	종교단체경영 학 교 수
서울	94	24	江 原	43	6
京 畿	200	64	黃 海	286	182
忠 南	91	16	平 南	443	254
忠 北	48	7	平 北	401	121
全 南	36	4	咸 南	218	21
全 北	77	31	咸 北	59	
慶 南	104	18			
慶 北	150	74	計	2,246	882

〈表1-21〉 종교단체 경영의 사립학교수¹²⁴⁾

경영주체별 종교·종파별	한국인경영	미국인경영	영국인경영	프랑스인경영	계
長 老 教	62	412	27		501
監 理 教	2	156			158
聖 公 會	1	3			4
降 臨 教 會		2			2
各 派 合 同		1			1
天 主 教	21			25	46
佛 教	5				5
未 詳	81	3			84
計	172	577	27	25	801

123) 大邱市教育廳, 《大邱教育史》, 1991, p.182.

124) 위의 책, pp.10~11.

III. 大邱의 近代學校

1. 소학교

근대학교 설립의 물결을 타고 대구에도 구한말에 신교육 기관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광무 3년(1899) 7월에 설립된 사립달성학교는 그해 4월에 공포된 중학교 관제에 따라 경상도 관찰 영내에서 개교되었다. 달성학교의 설립자 겸 제2대 교장인 尹弼五의 증손인 尹聖基가 소장한 「사립달성학교교칙」에 의하면 학교 설립의 목적은 국내의 俊才 총명지사를 배양 성취하는데 두고(제2조) 尋常科와 고등과로 나누어 수업연한을 각 4년으로 하고, 거기에 일어전수학교를 부설하였다(제3~4조).

전문17조로 되어있는 이학교의 교칙은 입학시험 과목, 입퇴학 절차, 휴일, 수업시간, 교과과정, 수업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문 12조의 「學徒遵守規則」까지 정해져 있는데, 엄중하고도 민주적인 기율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규칙에 보면, 발기인은 崔克昌, 朴潤祥, 尹弼五, 姜永尙, 崔桐宜, 鄭翊朝, 李寅秀, 張圭遠, 崔英達, 秋教鋌 등 10여명이고, 초대교장은 당시 경상도 관찰 사였던 金稷鉉이고, 부교장은 張圭遠이었다. 그후 1900년 10월 3일부터 윤필오가 2대 교장이 되었다.

사립달성학교는 개교 이래 1906년까지 구한국정부로부터 매월 일금 10원의 보조를 받았던 것이나 1905년 통감부가 설치 되면서 학교운영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이 학교의 심상과는 1905년 8월 27일자로 관립대구보통학교로 그 기구가 인계되었고 고등과는 1909년 3월 8일자로 구대구향교 강당(동본정; 현 교동)으로 옮겨져 사립협성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6년 5월 15일 칙령 103호 「조선총동부 고등보통학교관제」가 공포됨에 따라 대구고등보통학교에 그 기구가 인계되고, 협성학교는 없어지게 되었다.¹²⁵⁾ 비록 달성학교는 발전적으로 없으졌으나 이는 대구시민에 의한 대구시민이 자제를 위하여 설립된 최초의 학교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지대하다.

광무 4년(1900) 4월에는 회도심상소학교가 광무 6년(1902)에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아담스(Jame E. Adams, 安義窩)가 대남남자소학교를 마루다 부루엔(Mrs. Marda Bruen, 伊馬太)이 신명여자소학교를 각각 세웠다. 그후 광무 10년(1906) 9월에는 덕산공립심상소학교가 융희 2년(1908) 7월에는 해성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다.

125) 《大邱市史》1, 1973, p.446.

2. 중등학교

대구의 중등학교는 광무 10년(1906) 10월 15일에 개교한 계성중학교가 효시이다. 계성중학교는 아담스가 그의 자택(현 대구제일교회)에 설립한 학교로서 생도는 당시 27명이었다. 교직원인 아담스를 포함하여 4·5명이었으나 1910년 9월부터는 교장 아담스, 교감 李萬集, 교사 白信七, 權義胤, 鄭禱麟, 羅道來(Reiner) 등 6명으로 늘어났다.

교과목은 성경, 한문, 물리, 화학, 지지, 상업, 어학, 수학, 역사, 생물, 博物, 경제, 지리, 교육, 도화, 체조, 작문, 습자 등으로 근대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경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를 敬畏함이 지식의 근본이라’이라는 교훈으로 보아 기독교계의 학교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계성중학교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에 있어서 최초의 근대적 중등교육기관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외국의 선교사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계성학교가 설립된지 1년 뒤인 광무 11년(1907) 10월 23일에는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인 마르다 부루엔(Mrs. Marda Bruen; 伊馬太)에 의해 설립된 신명여자중학교가 개교되었다. 이 학교는 대구에 설립된 여자중학교로서 최초의 학교이며 계성중학교와 함께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자매학교였다. 개교 당시 신명여자중학교의 학생수는 분명히 알수 없으나, 계성중학교의 학생수 27명을 감안하면 27명 미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과목은 계성학교와 비슷하나 家事, 針工, 수예 등이 첨가되었다. 당시는 교과서없이 판서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부에서 교과서를 편찬한 것은 1906년이었고, 출판은 1908년에 시작되었다. 이 학교에서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이과, 도화, 습자 등의 교과서를 사용한 것은 1909년이였다. 이같은 교과서는 일본인 학정 참여관 三士忠造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이학교의 교직원인 교장 부루엔 여사를 비롯하여 교감 趙景魯(1912년 이쾌영과 교체), 교사 姜大馨, 禹鳳銀, 이내문, 아담스부인, 姜夫人(미국인), 박덕일 등 8명이였다.¹²⁶⁾

개교부터 1912년 4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초창기에는 생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신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당시에 있어서 전통적 교육과의 갈등, 교사진과 시설 설비의 부족 등은 생도를 확보하는 저해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저해요인이 해소되어 가면서 생도수는 점차 증가되어 갔다. 1910년 9월 현재 대구의 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⁷⁾

126) 앞의 책, p.447.

127) 위의 책, pp.446 ~ 448.

〈表 1-22〉

구한말 대구의 초등학교

학 교 명	위 치	설 립 연 월	개 교 연 월	비 고
大邱公立尋常小學校	文 化 洞	1905. 10.	1905. 10.	日本人 設立
大邱德山公立尋常小學校	鳳 山 洞	1906. 9.	1906. 12.	韓國人 設立
大邱喜道尋常小學校	南 城 路	1900. 4.	1900. 11.	韓國人 設立
大邱海星尋常小學校	桂 山 洞	1908. 9.	1908. 10.	韓國人 設立

〈表 1-23〉

대구의 학교일람(1910)

학 교 명	소 재 지	설 립 인 가 연 월 일	교 사 수		재 적 생 도 수		경 비 예 산 액 (단위: 원)
			일본인	한국인	남	여	
大邱普通學校(公)	西上面南一洞	1905. 9.	外囑託 1	外女 1	321	97	1,083,562
壽昌普通學校(私)	西上面刷還洞	1910. 5. 13	女 1	4	102		904,800
日新學 校(私)	花縣內面縣內洞	1909. 8. 6		2	23		324,000
仁壽學 校(私)	仁興面本理	1909. 8. 9		2	22		309,000
速成日語學校(私)	西上面達城里	1909. 8. 21	1		57		600,000
桂南學 校(私)	西上面南山洞	1909. 8. 25		1	41		150,000
聖立學 校(私)	西上面桂山洞	1909. 9. 6	1	2 外女 1	87	46	312,000
達西女學校(私)	西上面刷還洞	1909. 9. 6		2 外女 1		68	420,000
協成學 校(私)	東上面龍德里	1910. 3. 8	1	3	108		1,533,600
明新女學校(私)	西上面南山洞	1910. 8. 26		2		25	270,000
基督大南學校(私)	西上面南中洞	1909. 4. 7		3	80		420,000
達南學 校(私)	上守西面龍溪洞	1909. 4. 12		1	8		80,000
信明女學校(私)	西上面南中洞	1909. 4. 22		2		70	240,000
繼聖小學校(私)	守東面池山東	1909. 4. 24		1	15		90,000
興化學 校(私)	祖岩面下洞	1909. 9. 6		1	11		48,000

〈表 1-24〉

대구지역 학교의 생도수(1910. 9. 30)

연 도	심 상 과			고 등 과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1905. 10. 2. 개교당시	25		25	13		13	38
1906년말	25	35	60	9	6	15	75
1907년말	64	62	126	32	17	49	175
1908년말	141	117	258	18	16	34	292
1909년말	229	189	418	23	21	44	462
1910. 9. 30 현재	287	257	544	47	28	75	619

대구의 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외에도 서원·서당 등이 있었다. 서원과 서당은 학습 내용이 근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본받지 못하고 전통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서원·서당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가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투과정에서도 서원이나 서당은 전통문화를 저항적으로 고수하려는 정신적 온상이 되었다.

第5節 日帝下の 教育과 大邱

I. 日帝初期(1910~1921)의 教育

1. 일제의 무단정치와 식민지교육

광무 9년(1905) 11월에 을사조약을 맺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을 간섭한 일본은 한국 군대를 해산시킨후 경찰권을 이양받았으며, 1910년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讓國의 조서를 내리게 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을 희생시켜 일본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설치하여 무단정치를 실시하였다. 총독은 육·해군 대장중에서 임명하였고, 한국에서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물론 군사통수권까지 쥐고 있었다. 초대 총독인 寺內正毅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여 무단정치를 실시하였는데 640개소의 헌병기관에 헌병 2,019명, 480개소의 경찰기관에 경찰관 5,693명을 두어 강력한 탄압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병·경찰관수와 그 보조원수는 해가 갈수록 증원되었다.

일제의 무단정치로 1912년에는 5만이상, 1918년에는 14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무고하게 강제로 검거되었다. 특히 1910년 安明根의 데라우지 총독암살 미수사건을 계기로 1911년에는 新民會의 尹致昊, 梁起鐸, 李昇薰 등 저명인사 60여명이 무조건 검거되었고, 그중 105명이 기소된 사건은 일제의 무단정치하에서 자행된 악독한 고문과 날조된 조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 또한 일본은 신문을 폐간하여 언론기관을 봉쇄하고, 일반관리나 교원에게도 제복·착검을 하도록 하였다.

정치적으로 무단정치를 한 일본은 경제적인면에 있어서도 토지의 약탈과 자본의 독점, 금융과 공공사업을 지배하여 한국의 경제를 수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일제의 정

책에 복종할 「忠良한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 愚民化 교육정책을 폈다. 데라우지 총독은 1910년 11월에 한국인이 지은 교과서 《초등대한역사》, 《대한지지》, 《을지문덕》, 《幼年必讀》 등 51종의 서적발매와 배포를 금지하고 신문, 잡지 등을 몰수하여 언론을 봉쇄하였다.

데라우지 총독은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기 앞서 1911년 7월에 개최한 「제2회 도 장관회의」에서 조선의 교육에 대해 “제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하는데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보통교육의 완비와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교육은 개인의 立身·家計를 닦아가는 소지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진운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후 1911년 9월 1일에 칙령 29호로 ‘조선교육령’을 전문30조로 제정 발표하였다. 그 중요한 내용은 첫째 일본어의 보급과 일본국민이 될 성격을 함양하여 보통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4년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고, 둘째 농·상·공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2~3년제 실업학교를 두며, 세째 고등학술·기예를 수련하기 위한 3~4년제 전문학교를 둔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일제는 대학교육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이 식민정책을 수행하는데 비판하고 독립사상을 주창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지도적 인물보다는 말단 행정을 맡아볼 충복을 기르려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의 근간이 되었다.

〈表 1-25〉 한·일인별 학교세력 일람¹²⁸⁾ (1919)

나 라	연 도	계		공 립		사 립	
		학 교 수	아 동 수	학 교 수	아 동 수	학 교 수	아 동 수
한 국	1912	361	44,922	336	42,891	25	2,031
	1916	439	73,211	423	81,869	16	1,342
	1919	531	88,827	498	84,306	33	4,521
일 본	1912	180	21,455				
	1916	316	35,112				
	1919	379	42,767				

이와는 달리 일제는 일본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우대하였다. 1912년 3월 27일에 총독 부령 44호로 공립소학교규칙을 제정하여 6년제 일본인 소학교를 인정하고 총독부령 45호로 5

128) 文定昌, 앞의 책, p.203.

년제 일본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인정하였다. 1916년 1월 4일에 내린 훈령2호에서 실용위주의 지식과 기술을 교수하여 실용적 인재를 육성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자녀에 대한 차별 교육을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일양국의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세에 있어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1915년 현재로 한국인 보통학교수는 399개교, 학생수는 남자 56,253명, 여자 5,976명이었는데, 일본인 소학교수는 291개교, 남학생 31,442명, 여학생 28,206명이었다. 고등보통학교는 2개교에 922명이었는데, 일본인 중학교는 2개교에 1,034명, 여자고등보통학교는 2개교에 250명이었는데 일본인 고등여학교는 7개교에 1,191명이나 되었다. 전문학교는 경성법학전문학교(1916), 경성의학전문학교(1916), 경성공업전문학교(1916년 4월 신설),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원 및 학생수를 비교하여 보면 <表 1-26>과 같다.

<表 1-26> 한·일 양국의 교원 및 학생수 비교¹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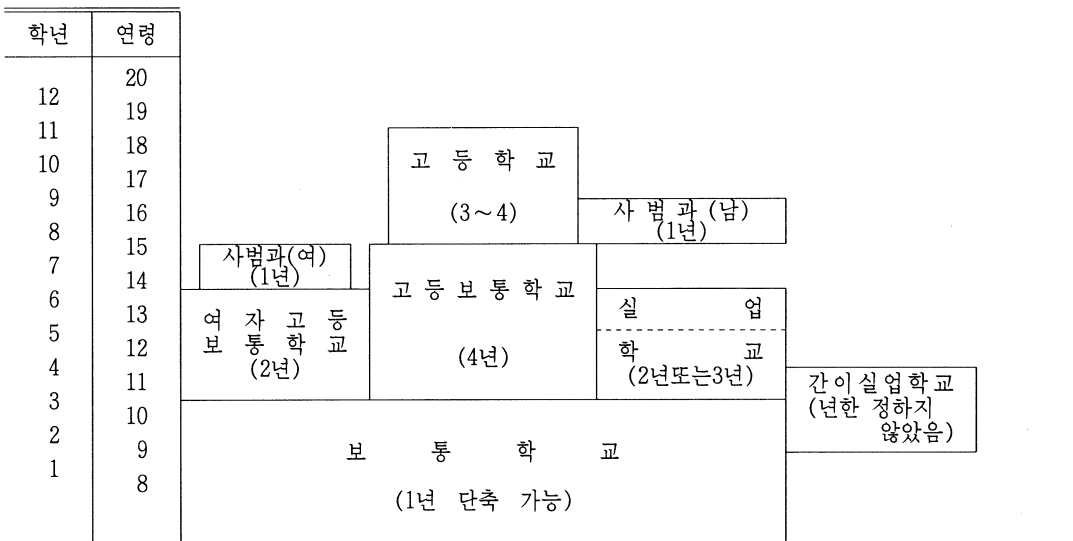
교 명	학 교 수		직 원 수							학 생 수					
	1912.4	1919.5	일인	한인	計	일인	한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普通學校	官立 2	82	6	8	14	10	5	15	269	138	407	302	159	461	
	公立 328	462	362	1,029	1,391	725	1,659	2,384	38,837	3,362	42,200	73,726	10,580	84,306	
	私立 25	33	24	67	91	24	102	126	1,634	497	2,031	3,211	1,310	4,521	
	計 355	517	392	1,104	1,496	759	2,562	40,640	3,968	44,638	77,239	12,049	89,288		
高等普通學校	官立 2	5	41	15	26	74	14	88	565		565	1,705		1,775	
	私立 1	7	3	3	6	22	58	80	88		1,499			1,449	
	計 3	12	44	18	62	96	72	168	653		653	3,154		3,154	
女子高等普通學校	官立 1	2	8	1	9	926	7	33		151	151		378	378	
	私立 2	4	9	11	20	2,023	15	33		113	113		309	309	
	計 3	6	17	12	29	49	22	71		264	264		687	687	
專門學校	官立 1	4	7	1	8	59	7	66	93		93	474		474	
	私立	2				12	14	26				111		111	
	計 1	6	7	1	8	71	21	92	93		93	585		585	
實業學校	農業	公立 15	17	51	22	73	64	18	82	941		941	1,334		1,334
		私立		1	4	5				30		30			
	商業	公立 2	3	9	3	12	16	3	19	335		335	359		359
		私立 1	1	6	1	7	20	2	22	150		150	162		162
	工業	公立	1			15	2	17				179		179	
		計	19	22	67	30	97	115	25	1,456		1,456	2,034		2,034

129) 慶尙北道教育委員會, 《慶北教育史料》, p.246.

교 명		학 교 수		직 원 수						학 생 수					
		1912.4	1919.5	일인	한인	계	일인	한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簡易 實業 學校	農業	公立 15	49	2	2	4	44	21	65	454		454	806		806
	水産	公立	2				3	1	4				44		44
	商業	公立 3	6		1	1	9	3	12	165		165	258		258
	工業	公立	1				18	6	24	15		15	144		144
	계	19	67	2	3	5	74	31	105	634		634	1,252		1,252
各種 學校	一般	私立 823	430	124	1,655	1,779	54	840	894	34,289	1,688	35,977	19,021	1,058	20,079
	宗教	私立 494	260	29	1,070	1,099	29	616	645	14,574	4,762	19,336	9,777	5,119	14,896
	계	1,317	690	153	2,725	2,878	83	1,456	1,539	48,863	6,450	55,313	28,798	6,177	34,975
合 計		1,717	1,320	682	3,893	4,575	1,247	3,393	4,640	92,339	10,712	103,051	113,062	18,913	131,975
書 堂		16,540	23,556			16,771			23,795	141,034	570	141,604	267,572	1,035	268,607

※ 학교수의 작기 숫자는 1912년 4월말, 우기 숫자는 1919년 5월말의 것임.

조선교육령에 의한 학제는 한국의 보통학교는 4년, 일본인 소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는 한국이 4년, 일본인 중학교는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도 일본인 고등여학교보다 1년 단축되었다. 실업학교는 수업연한이 2~3년이었고, 간이 실업학교는 규정이 없어 총독이 그때 그때 임의로 정하였다. 이러한 학제를 도해하면 <圖 1-2>과 같다.



<圖 1-2> 일제 초기의 학제¹³⁰⁾

130) 韓基彦, 《韓國教育史》, 博英社, 1963, p.274.

第1章 教 育

이 시기의 교육과정을 보면 보통학교는 읽기, 쓰기, 셈하기에 두었고, 수신·조선어·한문·일본어·산수가 필수과목이며,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당분간 뺄 수 있는 과목은 理科·창가·체조·도화·수공·재봉·수예·농업초보·상업초보였다.

고등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은 수신·일본어·조선어 및 한문·역사·지리·수학·이과·실업·경제·습자·도화·수공·창가·체조·영어 등이고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수신·조선어·일본어·한문·역사·지리·산문·理科·가사·습자·도화·재봉·수예·음악·체조 등이다.

〈表 1-27〉 제1차 조선교육령시대 보통학교 교과과정 및 주당 교수시간수¹³¹⁾(1911~1922)

학년	교과목 구분	수신	국 어 (일본어)	조선어 및한문	산 술	이 과	창 가	체 조	도 화	수 공	재봉및 수 예	농 업 초 보	상 업 초 보	계
1	시 수	1	10	6	6		3		(1)	(1)	(1)			26
	과 정	修身 要旨	읽기·해석·會話·書 取·作文 習字	읽기·해석·書 取·作文	整數		知 音 唱 歌 유희	普 通 體 操	自在書	簡 易 木 工	運 針 衣 類			
2	시 수	1	10	6	6		3		(1)	(1)	(1)			26
	과 정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同上				
3	시 수	1	10	5	6	2	3		(1)	(1)	(1)	(1)	(1)	27
	과 정	同上	同上	同上	同上	自然界 事務現象	同上		同上	同上		農 業 初 步	商 業 初 步	
4	시 수	1	10	5	6	2	3		(1)	(1)	(1)	(1)	(1)	27
	과 정	同上	同上	同上	同上	人體同上 生理衛生	同上		同上	同上		同上		

※ ()안의 시수는 朝鮮語 및 漢文時間을 할애해서 실시함.

131) 忠淸南道教育委員會, 《忠南教育史》, 1992, p.210.

고등보통학교 교과목 및 주당 수업시수¹³²⁾(1926)

구 분	과 목	학 년	1	2	3	4	5
고 등 보 통 학 교	修 身	1	1	1	1	1	1
	國 語 및 漢 文	7	7	6	5	5	5
	朝 鮮 語 및 漢 文	2	2	2	3	3	3
	外 國 語	6	6	6	5	5	5
	歷 史 · 地 理	3	3	3	3	3	3
	數 學	4	4	4	4	4	4
	博 物 學	2	2	2	1		
	物 理 및 化 學			2	4	3	
	法 制 및 經 濟					1	
	實 業	2	2	2	3	3	
	圖 畫	1	1	1	1	1	
	唱 歌	1	1				
	體 操	3	3	3	3	32	
	計	32	32	32	33	32	
여 자 고 등 보 통 학 교	修 身	1	1	1	1	1	1
	公 民 科						1
	國 語	6	6	6	5	5	5
	朝 鮮 語	3	3	2	2	2	2
	外 國 語	3	3	3	3	2	2
	歷 史 · 地 理	3	3	2	2	2	2
	數 學	2	2	3	3	3	3
	理 科	2	2	3	3	3	3
	圖 畫	1	1	1	1	1	1
	家 事				2	4	
	裁 縫	4	4	4	4	4	4
	音 樂	2	2	2	1		
	體 育	3	3	3	3	3	3
	計	30	30	30	30	30	

132) 咸宗圭, 앞의 책, pp.126 ~ 127.

총독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도 가하였다.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였고, 인가 후에도 명칭·위치·규칙 또는 설립자 변경시에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교원을 바꿀때에도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지나 교사의 소유자나 유지방법을 바꿀 때에는 총독에게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 결과 사립학교의 수는 점차 감소되어 1910년에 1,973개교였던 것이 1912년에는 1,317개교, 1914년에는 1,230개교, 1919년에는 690개교로 격감되었다. 이시기의 사립학교수의 추이를 보면 <表 1-29>와 같다.

<表 1-29> 사 립 학 교 수¹³³⁾

연 도	일 반 계	종 교 계	계
1910	1,302	779	2,080
1911	1,044	677	1,721
1912	817	545	1,362
1913	796	487	1,283
1914	769	473	1,242
1915	704	450	1,154
1916	624	421	1,045
1917	518	350	868
1918	461	317	778
1919	444	298	742
1920	410	279	689
1921	356	279	635
1922	352	262	614

조선총독부는 전문학교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여 보성전문학교가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시켰고, 세브란스전문학교, 연희·송실 및 이화전문학교 등이 각종 학교로 격하되었으나, 계속적인 투쟁과 노력으로 1917년에는 연희·세브란스가, 1922년에는 보성이, 1925년에는 송실과 이화가 각각 전문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133) 慶尙北道教育委員會, 앞의 책, p.243.

조선총독부는 서당에 대해서도 통제와 탄압을 가하였다. 1908년 8월 28일 학부훈령 3호 「서당 정리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지방관이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1911년 8월에는 政務總監이 각 도의 장관에게 通牒文을 보내어 서당을 폐지하지 않고 溫存시키면서 식민지교육 방침에 알맞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13년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사설강습회를 탄압하면서부터 서당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그후 1918년 2월 21일 「서당규칙」을 발표하면서 총독부훈령 9호로 「서당규칙 발표에 관한 건」을 지방 장관에게 발하여 서당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였다. 또한 서당에서 지도하던 과목에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가르치도록 하고, 童蒙先習을 빼도록 하였다.¹³⁴⁾ 1911년 이후에 조사된 서당의 변천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30〉 서 당 의 변 천¹³⁵⁾

연 도	서 당 수	직 원 수			생 도 수		
		남	여	계	남	여	계
1911	16,540	16,711		16,711	141,034	570	141,604
1912	18,233	18,435		18,435	168,728	349	169,077
1913	20,268	20,807		20,807	195,298	391	195,689
1914	21,358	21,570		21,570	203,864	297	204,161
1915	23,441	23,674		23,674	229,023	522	229,550
1916	25,486	25,831		25,831	258,614	917	259,531
1917	24,294	24,507	13	24,520	264,023	812	264,835
1918	23,369	23,590	23	23,613	260,146	829	260,975
1919	24,030	24,173	12	24,185	275,261	659	275,920
1920	25,492	25,602	19	25,621	290,983	1,642	292,625
1921	24,195	24,507	24	24,531	295,280	2,787	298,067
1922	21,057	21,663	36	29,699	275,952	4,910	280,862

134) 盧榮澤, 《日帝下 民衆教育運動史》, 探求堂, 1979, pp.99~101.

135) 위의 책, p.99.

〈表 1-31〉 각 도별 서당수¹³⁶⁾

도	별	1915년			1926년		
		서 당 수	생 도 수	인 구	서 당 수	생 도 수	인 구
경	기	2,171	20,950	1,612,845	1,444	5,729	1,831,223
충	북	779	5,203	701,658	840	6,671	818,366
충	남	1,314	8,133	1,046,851	981	7,511	1,226,233
전	북	1,747	12,085	1,057,162	991	7,974	1,318,228
전	남	2,657	31,843	1,802,967	1,463	21,125	2,093,626
경	북	1,710	12,107	1,915,031	925	9,503	2,249,614
경	남	1,936	19,900	1,658,325	814	8,564	1,880,134
황	해	2,991	27,781	1,242,610	2,514	22,556	1,399,370
평	남	1,680	18,982	1,037,408	1,522	21,369	1,205,712
평	북	2,051	26,957	1,166,474	1,755	34,410	1,367,287
강	원	1,958	16,000	1,072,622	1,888	18,956	1,297,251
함	남	1,965	22,281	1,144,597	1,188	16,724	1,334,099
함	북	482	6,328	499,080	293	5,718	593,890
계		23,441	229,550	15,957,630	16,188	196,838	18,615,033

2. 대구의 교육기관

1) 보통학교 및 소학교

조선교육령 발표이후 1922년까지 설립된 보통학교와 소학교를 보면 〈表 1-32〉와 같다.

〈表 1-32〉 대구의 보통학교 및 소학교 일람¹³⁷⁾

학 교 명	소재지	설립연월	수업연한	현재 학교명
대 구 공 립 보 통 학 교	鳳山町	1906. 9	6	대구국민학교
대 구 수 창 공 립 보 통 학 교	八雲町	1914. 3	6	
대 구 여 자 공 립 보 통 학 교	南旭町	1919. 6	6	
칠 곡 공 립 보 통 학 교	漆谷面	1912. 4	6	
대 구 본 정 공 립 심 상 소 학 교	本 町	1917. 5	11	종로국민학교
대 구 봉 산 정 공 립 심 상 소 학 교	鳳山町	1921. 4		경대사대부속국민학교
동 촌 공 립 심 상 소 학 교	解顔面	1911. 9		
칠 곡 공 립 심 상 소 학 교	漆谷面	1914. 7		
대 구 심 상 고 등 소 학 교	南旭町	1905. 10		
구 남 심 상 고 등 소 학 교	花園面	1913. 10		
하 양 심 상 고 등 소 학 교	河陽面	1912. 1		하양동부국민학교

136) 앞의 책, p.102.

137) 慶尙北道教育委員會, 앞의 책, pp.247~250.

(1) 대구공립보통학교

이 학교는 1899년 7월에 설립된 사립 달성학교의 심상과를 1906년 8월 27일에 인수하고 1907년에 본교사가 낙성되었으며, 1938년 4월 1일 교명을 심상소학교로 바꾸었다가 1942년 4월 1일에 대구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은 엄성구(嚴星九)였으나, 일제는 일인 西山熊助를 교무를 보도록 하여 출발부터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근성을 나타내었다. 대구공립보통학교의 제1회 졸업생으로서 전생애를 이학교의 교육에 이바지한 徐永達(대구시 중동 현재는 사망)은 초창기의 실정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일본인을 왜놈이라 하고 일본어를 왜말이라 하였다. 시민들은 일본인과 일본어를 몹시 싫어하였으며, 일본인학교(공립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제복은 한복을, 신은 짚신, 또는 미투리였고, 교모는 사포였다. 상투를 틀고 갓과 망건을 쓰고 다니는 학생도 많았다.”

(2) 대구수창공립보통학교

이 학교는 1907년 7월 1일에 개교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립수창보통학교라 하였다. 그후 1914년 3월 19일에 대구공립수창보통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23년 5월 현재의 본관이 낙성되었다.

(3) 사립聖立학교

이 학교는 1908년 3월 1일에 천주교 경영의 海星齋를 聖立學校(남자부)라 개칭하였으나 1910년 6월 15일에 해성소학교로 개칭하고 부설 효성여자부로 발족하여 현 효성국민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4) 사립희도소학교

이 학교는 1902년 기독교계의 大南男子小學校와 신명여자소학교를 발족·개교하였으며, 1914년에는 회원소학교와 순도여자소학교로 개칭되었다. 그후 1922년에는 양교를 통합하여 喜道小學校라 개칭하였으나 1950년 이학교를 폐교하고 재학생은 효성국민학교와 종로 및 남산국민학교로 분산 수용하였다.

(5) 사립明新학교

이 학교는 1910년 8월 26일 순종의 하사금 200원을 기금으로 하여 개교하였으나 1911년 6월 14일 경영권이 천도교중앙총부로 이관, 1916년 8월 16일에는 사립달서여학교로 흡수 병합하였으며, 1917년부터 1925년 12월까지 4차례나 경영권이 바뀌었고, 1926년 4월에는 대구북명여자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1927년 11월 12일에 남산동의 현 교사가 준공되어 이전하였다.

(6) 대구여자보통학교

이 학교는 1919년 6월 1일 설립되었으나 1935년 4월 1일 대구 南旭町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어 남녀 공학을 하였다. 1937년 8월 12일에 비산교사로 이전하여 대구서부보통학교라 개칭되었다.

그외에도 1919년 3월 25일에는 대구달성보통학교가 八雲町 101번지에 있었던 이일우씨의 강의원 교사에서 개교되었고, 1921년 4월 1일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1921년 10월 6일에는 대구수성보통학교가 개교되었다가 1937년 5월 1일에는 대구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가 되었다.

2) 고등보통학교 및 중학교

(1) 관립대구사범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신인 대구사범학교는 1923년 3월 대구시 대봉동 60번지에서 경북도립사범학교로 개교하였다. 개교당시는 수업연한은 3년인 특과와 1년인 강습과가 있었으나 이는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28년 4월 28일에는 관립대구사범학교로 개칭되어 특과 2·3학년 132명, 강습과 63명, 심상과 98명을 모집하였다. 그후 1930년 11월 15일에는 본관과 기숙사가 준공됨으로써 사범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39년에는 15학급에 691명(한국인 485, 일본인 206명)과 교원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졸업생은 심상과 434, 강습과 958, 단강과 696, 연습과 62, 특과 132명 등 모두 2,282명을 배출시켰다. 심상과는 5년, 특과는 3년, 강습과는 1년으로 학비면제는 물론,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은 ‘반디불’ 사건이 유명하며 이로인하여 학생들이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옥고를 겪어야 하였다.

(2) 대구공립농림학교

이 학교는 1910년 3월 1일 대구향교의 일각을 빌려 개교하였다가 그 이듬해 1911년에 대봉동 가교사(현 사대부고위치)로 옮겼다. 개교당시에는 수업연한 2년의 農科 및 林科와 1년의 속성과가 있었는데 속성과는 2회생까지 89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이 학교는 토지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기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후 1923년 신천동 1093번지(현 코오롱공장 및 대구은행 본점, 대구직할시 교육청자리)로 이전하여 1만여평의 대지에 목조 2층의 본관과 각종 시설의 농산가공실, 농구실, 축사, 裝蹄庫, 정미소, 기숙사, 직원사택까지 마련하여 농림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20년에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1927년에는 5년으로 연장하였다. 1939년 4월에는 교원 21명, 학생은 10학급에 472명(한국인 339, 일본인 33명)이었다.

(3) 대구공립상업학교

이 학교는 1923년 2월 26일에 인가되어 4월 16일 대구중학교의 교사 일부를 빌려 개교하였고, 그해 8월 6일에는 신축교사(현 공무원연금공단 위치)가 준공되어 대봉동으로 이전하였다. 그후 본관은 1924년 7월 15일 준공되었고 1939년 현재 10학급에 498명(한국인 256, 일본인 242명), 교원 18명, 수업연한은 5년이었다. 이학교는 8·15해방 당시까지 19회 졸업생 총 1567명을 배출하였으며, 그중 한국인은 55%로 추산된다.

(4) 대구공립공업학교

이 학교는 1925년 4월 1일 발족하여 수업연한 2년, 정원 60명(1학급)으로 기초적 공업기술의 補習教育을 목적으로 하였다. 1927년 4월 3일에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대구공립 직업학교로 개칭하였으며, 대봉동 가교사에서 현 신암동 본교사로 옮겼다. 1939년 3월 1일자로 기계과가 증설되고, 1944년 3월 31일에는 대구공립공업학교로 승격되었다. 구성은 4학급에 152명(한국인 140, 일인 12명), 교원 11명이었다.

(5) 경북공립중학교

현재 경북고등학교의 전신인 이 학교는 1906년 5월 15일 대구공립보통학교로 설치되었다. 이 학교는 대구향교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민립협성학교의 체기구를 그대로 인수하여 개교한 후 1917년 12월 현 대봉동 청운맨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18년 6월 목조 2층의 본관이 준공되었다. 1921년 4월 21일에는 이학교에 補習科와 師範科를 두고 보습과는 대학진학을 위하여 4년제 고등보통학교 출신을 1년간 보습시켰고, 사범과는 보통학교의 교사를 양성하고자 설치하였으나, 보습과는 1922년에, 사범과는 1925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1925년 2월 1일에는 본교의 운영권이 경상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립이 공립으로 바뀌었으며, 사범과는 1925년 1월 1일자로 경성사범학교 대구분교실이 설치되었다가 익년에 폐지되었다.

1931년 8월 2일부터는 일본인 현역장교가 배속되어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38년 4월 1일자로 이 학교의 명칭이 경북중학교로 개칭되었다. 1939년 4월 현재 총 14학급에 재학생은 486명(전원 한국인), 교원 22명을 두었으나 1945년 4월 5일에 본관과 특별교실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8·15해방당시까지 총 1,821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6) 경북고등여학교

오늘날 경북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이 학교는 1925년 기성회에서 5만원의 기부금을 걷기로 하고, 도청에서는 지방예산에서 계산하기로 하여 남산정에 교지가 확보됨으로써 1929년 3월 20일 설립인가가 나 4월 25일 장관동에서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2학년 여학생 38명을 교남학교 여학생을 인수한 것이었다. 1927년 10월에는 현 남산동에 신축교사가 준공되어 이전하

였고, 1938년 4월 1에는 경북고등여학교로 개칭되었으며, 한국인 여학생만 입학하였던 인문공립여자중학교라는 점에서 경북중학교와 더불어 대구의 쌍벽을 이루는 공교육기관이었다. 1943년 현재 총학급수는 8학급에 재학생 41명, 교원 17명을 두었으며, 8·15해방당시까지 22회에 1,000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7) 사립계성중학교¹³⁸⁾

계성고등학교의 전신인 이 학교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아담스(James, E. Adams; 安義窩)에 의해 1906년 10월 15일 현 제일교회내에 瓦家 3동을 임시교사로 정하고 계성중학교를 설립 개교하여 27명을 모집하였다. 1908년 3월 30일에는 현교지인 대구시 중구 대신동 227번지에 건평 100평의 2층 벽돌 건물을 준공하여 교사를 옮겼다. 1912년 5월 17일에는 본관 연건평 363·5평을 준공하였으며 그해 4월 1일에는 졸업생에게 대학입학자격 인정교로 확정되었다. 1914년 9월에는 맥퍼슨이 낸 기부금 1만원으로 건립한 맥퍼슨관(관학관)이 건립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본교에 대한 박해가 가중되어 매년 설립자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던 18,000원이 당국의 강제로 단절되었다. 이로부터 본교의 경영권은 미국선교사로부터 경북노회로 이관되어 이문규가 형식상 설립자가 되었다.

1941년 5월 3일에는 金奭榮(가네고사카에; 金子榮)이 교장으로 부임한 후부터는 개교정신과는 달리 ‘충량한 황국신민화’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그후 1945년 2월 13일자로 「啓聖」이란 교명이 不逞스럽다고 트집하여 「公山中學校」라 부르게 하였으나 8·15해방으로 계성중학교로 환원되었다. 1944년 4월 현재 총 10학급에 재학생 584명, 교원 13명을 두었으며, 해방당시까지의 졸업생수는 1,400명에 달하였다.

초기의 과목은 성경, 한문, 물리, 화학, 地誌, 상업, 어학, 수학, 역사, 생물, 博物, 경제, 地文, 교육, 동물, 식물, 도서, 체조, 음악, 작문, 습자 등이었으며, 그 중 성경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철봉, 야구, 축구 등의 운동을 하였으며 축구부는 전국에서도 명성을 날렸다.

(8) 대륜중학교¹³⁹⁾

대륜고등학교의 전신인 대구 교남학원은 대구부내 八雲町에 있었던 강의원을 가교사로 빌려 개교하였다. 3·1운동후 출옥한 洪宙一·金永瑞는 민족학교 설립을 결심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남학교를 창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두사람은 동지를 얻고자 鄭雲騏를 찾아 찬동을 받았다. 그후 모금운동을 벌였으나 일제의 감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후 1921년 9

138) 啓聖中·高等學校, 《啓聖五十年史》, 1956, 참조.

139) 大倫中·高等學校, 《大倫六十年史》, 1981, 참조.

월 15일 대구시 북성로(당시 八雲町) 友炫書樓를 가교사로 빌려 사설학술강습소인 교남학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초대교장으로 정운기씨를 추대하였다.

1924년 5월 21일에는 남산정 657번지에 신축교사를 준공하여 대구교남학교로 승격시켰고, 1925년에는 고등과내에 여자부를 개설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여학생전원을 그곳에 편입시켰다. 1928년 3월 31일부터는 정규의 고등보통학교 과정을 과하게 되었는데 이에 노력한 사람은 李一雨, 鄭圭學, 鄭海鵬, 徐琦洙, 洪宙一, 金永瑞, 鄭雲驥 등이다. 1929년 5월 1일에는 金燾均이 설립자 겸 교장으로 부임하고 李相和, 金相悅, 徐東辰, 李孝祥 등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무보수로 교편을 잡으면서 후진교육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이 학교도 不逞鮮人의 학교로 지목되었으며, 1939년에는 재단 부실의 이유로 폐교통보를 받았다. 이때 사유지 75만평을 회사하고 현재 수성동에 본교 부지 18,000평을 구입하여 본관 신축을 서둘렀다. 1942년 4월 9일에는 蘭史 徐丙朝를 이사장으로 하는 교육재단과 대륜중학교의 인가를 받았으며 그해 5월 20일에는 수성동 교사로 옮겼다. 동년 11월 14일에는 이효상을 교장으로 추대하고 정규의 갑종 중학교로 바꾸었다. 이 학교는 1943년 현재 총 7학급에 재학생 380명, 교원 10명을 두었으며 8·15해방 당시까지 270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9) 신명여자중학교

이 학교는 신명여자고등학교의 전신으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브루엔 여사에 의하여 1903년 10월 23일 남산동 동산위에 마련된 가교사에서 개교되었다. 개교 당시는 한민가의 옥사였으며 초대 교장은 부해리 선교사의 부인인 부마태 여사였고 교감은 조경로였다. 1912년 4월 1일에는 하리드 이 폴라드(H·E·Pollad)가 2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와서 1913년 4월 20일 남산동 현위치에 본관과 기숙사를 완성시켰다. 당시 남산동 부지는 앤더스 선교사가 구입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의 박해를 받았으며 재정보조가 단절되었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다. 그후 1939년에는 본교의 경영권이 명목상 경북노회로 이관되고 이사장에 李文奎, 교장에 徐昌均이, 1940년에는 교장에 李圭元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재정부족으로 폐교위험을 받던중 1944년 金忠學이 재단유지 기금으로 14만평을 회사함으로써 이사장이 되었으며, 교명도 대구남산여학교로 변경하였다가 전후에 신명여자중학교로 환원되었다. 1943년 5월 현재 4학급에 재학생 210명, 교원 11명을 두었으며, 해방당시까지 33회의 졸업생 558명을 배출하여 명실공히 이 고장의 여성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 기타 사설학원

일제하의 정규 학교시설만으로는 취학학령이 넘는 농민이나 노동자, 여성들을 수용하여 교육하기란 너무도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이 고장에도 自生的으로 사설학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表 1-33〉 사 설 학 원 일 램¹⁴⁰⁾

학 원 명	설 립 연 월	소 재 지
大 邱 培 英 學 院	1920. 9	大 邱 府 西 城 路
大 邱 命 道 女 學 院	1920. 9	大 邱 府 德 山 洞
大 邱 三 成 女 子 夜 學 院	1920. 4	大 邱 府 大 新 洞
大 邱 培 聖 女 子 夜 學 院	1932. 12	大 邱 府 南 城 洞
大 邱 同 慶 學 院	1927. 5	大 邱 府 鳳 山 洞
大 邱 愛 隣 學 院	1937. 9	大 邱 府 大 新 洞
大 邱 錦 光 學 院	1931. 4	大 邱 府 太 平 洞
大 邱 實 修 學 院	1935. 9	大 邱 府 南 山 洞
大 邱 嶺 南 學 院	1936. 11	大 邱 府 德 山 洞

II. 日帝中期(1922~1937)의 教育

1. 3·1운동과 일제의 문화정치

한국을 무력으로 합병한 일본은 헌병경찰제도를 통한 무단정치를 실시하면서 민족교육을 탄압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안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망명인사들이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등지에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조직하여 무력항쟁을 하였으며,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망명활동과 비밀결사에 의하거나 교육 및 종교활동에 의지하였던 민족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윌슨(Wilson)의 민족자결주의 제창으로 한민족에게는 새로운 힘을 갖게 하였다. 1919년 3월에 열린 파리 평화회의에 金奎植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호소하였고, 일본 동경의 유학생 600여명은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1919년 2월 8일에 발표하였다. 이에 자극되어 국내에서

140) 《大邱市史》2, 1973, p.513.

는 孫秉熙, 李承薰, 韓龍雲 등 민족대표 33인이 1919년 3월 1일에 泰和館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3·1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200만을 넘었고, 참가 집회 횟수 1,500여회, 전국 218개군중 211개군이 가담하였다. 일본 관헌에 체포된 자는 46,948명, 피살자 7,509명, 피상자 15,961명이었고, 소실되거나 월린 민가는 715, 교회당 47, 학교 2개교에 이르렀다. 水原 堤岩里 사건은 끔찍한 것이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운동의 통합체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서 1919년 4월 수립되어 조직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은 일제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식민정책은 새 총독인 사이토(齋藤實)를 부임시켜 무단정치를 폐지하고 문화정치를 쓰게 하였다. 즉 헌병 경찰제도 대신 普通警察制度를 채용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고, 언론의 통제 완화, 신문의 간행 등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허위와 기만이었으며 하나의 회유책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문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였고, 삭제, 압수, 정간, 폐간 등이 연속되었다. 1923년 관동대진재때 무고한 한국인을 처참히 학살시킨 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는 한국에서 식량과 공·광산물을 약탈하고 한국을 상품시장과 중공업의 투자지로 삼고 대륙침략의 기지로 만들어 갔다. 일제의 이같은 약탈에 대하여 한국인은 小作爭議, 勞動爭議, 물산장려운동, 신간회 활동으로 항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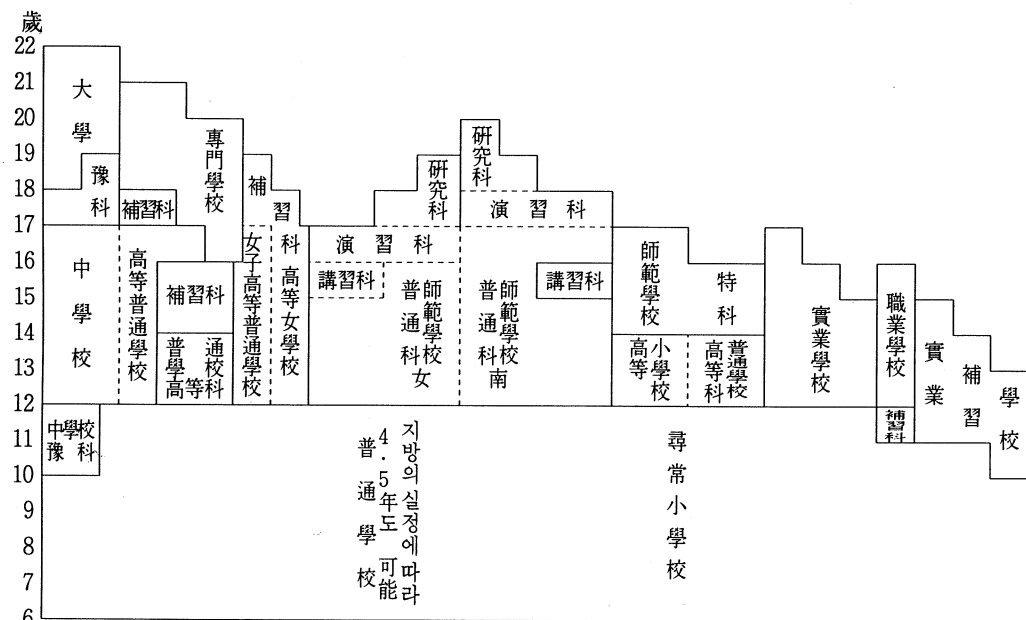
2. 조선교육령의 개정

일제는 3·1운동후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융화정책을 실행하면서 학교제도를 교쳐 일본의 그것과 비등한 제도로 개정하였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도 표면상 완화하였으나 이것은 반일감정과 독립의식을 무마하려는 회유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一視同仁, 內鮮一體, 內地準據主義 등의 표어를 내걸고 회유책을 쓰면서도 同化主義와 차별주의를 실시하였다.

1922년 2월 4일에 칙령 79호를 발표하여 제1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일본은 1920년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제 심의를 위촉하였는데 그 위원회 구성은 일본인 25명, 한국인 3명(李完用, 보성법률상업학교장인 高原勳, 실업가 石鎭衡)이었다. 이들 위원은 1921년 1월에 제1회 위원회, 4월에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령을 제정하였으며, 1922년 2월 4일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이 교육령의 취지는 內鮮共學과 일시동인에 따라 차별철폐하고 동일한 제도에 의하는 일시동인주의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것은 기만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교육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내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교육제도와 한국인을 위한 교육제도를 따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일
어 상용자를 위한 것과 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었다.
- ② 보통학교의 수업연한 4년을 6년으로 연장하였다.(그러나 4년제 보통학교가 존치하였다.)
- ③ 조선어를 정과목으로 하고 한문은 수의과로 하였다.
- ④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에서 4
년으로 연장하였다.
- ⑤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내지 5년으로 연장하였다.
- ⑥ 한국인에게도 대학교육을 인정하고, 사범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었다.
- ⑦ 한국인·일본인과 차별하지 않고, 일시동인으로 하였다.

이같은 교육령의 개정은 교육연한이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종래 11~12년이었던 것이 16~1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우리말과 글을 명목상 교과과정에 넣었다는 점이며, 한국인도 사범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회유·기만에 지나지 않았으며, 차별적 교육을 실시하면서 민족교육을 탄압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시기의 학제를 보면(圖 1-3)와 같다.¹⁴¹⁾



〈圖 1-3〉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학제(1922~38)

※ 제2차 조선교육령 및 각급 학교규정의 관계조문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종래에 제시된
學制圖와는 多少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1) 韓國大學教育協議會, 《韓國高等教育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1989, p.132.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1929년부터 1936년까지 8년간에 걸쳐 공립보통학교수는 매년 130여 개교씩 신설되어 모두 1,074개교가 증설됨으로써 1면 1교 계획을 완수할 것을 공포하는 동시에 1929년 보통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종래의 선택과목인 직업과를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1920년부터 1926년까지 6년동안 보통학교수는 595개교에서 1,336개교로 증가하여 학생수도 107,200명(취학아동 취학률; 4.6%)에서 438,990명(취학아동 취학률; 17.6%)으로 증가하였다. 사립학교의 수는 3·1운동후에도 일제의 탄압으로 감소하였으나 학생수는 <表 1-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민의 교육적 여망에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 된다.

<表 1-34> 3·1독립운동전후의 사립학교수와 학생수 현황¹⁴²⁾

年 度	學 校 數	生 徒 數
1917	868	49,730
1920	689	37,669
1923	649	83,217

한국인의 교육적 여망은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은 일제의 식민지대학의 본산인 京城帝國大學의 설립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반포하고, 1926년 동대학을 개교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게 된 배경은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 이화학당을 연합기독교여자대학으로 승격시키려했다는 점, 1925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협성신학교 등을 병합하여 종합대학교로 발전시키려 했기 때문이라 한다.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은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억제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식을 저지하기 위한 식민지교육정책의 일환이라 하겠다.

조선민립대학의 설립에 관한 논의는 1923년에도 있었으나 일제의 제2차 조선교육령 발표로 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1922년 2월 東亞日報와 조선일보에서는 민립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후원하였다. 그해 4월에는 조선청년회연합회에서는 민립대학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922년 11월에 李商在를 대표로 하는 발기인 47인이 구성되었고, 조선교육협회에서 조선민립대학 期成準備會를 결

142) 앞의 책, p.133.

성하였으며, 1924년 3월 29일에는 조선민립대학 기성발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뜻있는 사람들에게 수용되어 각 도의 府郡에 지부가 설치되었고 발기인 1,170명중 462명이 솔선참가하였다. 그러나 중산층 주도의 지지기반이 미약한데다가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의 동시 추진으로 힘이 분산됨에 따라 모금이 잘 안되어 실패하고 말았다.¹⁴³⁾

〈表 1-35〉 민립대학 기성회 지방부 설립현황¹⁴⁴⁾

郡	名	설 립 일	근 거 (동 아 일 보)	비 고
定 州	州	1923. 4. 8	1923. 4. 20	
松 禾	禾	?	1923. 5. 11	
平 山	山	1923. 5. 25	1923. 5. 13	
平 壤	壤	1923. 5. 14	"	
江 西	西	1923. 5. 17	1923. 5. 22	
金 堤	堤	1923. 5. 13	"	
壅 津	津	?	1923. 5. 23	
博 川	川	?	"	
平 原	原	1923. 5. 19	1923. 5. 25	
咸 興	興	1923. 5. 20	"	
瑞 興	興	1923. 5. 15	1923. 5. 26	
長 連	連	1923. 5. 21	1923. 5. 27	
陽 德	德	?	1923. 5. 27	
密 陽	陽	1923. 5. 23	1923. 5. 28	
河 東	東	1923. 5. 20	"	
堤 川	川	?	1923. 5. 29	
驪 州	州	?	1923. 5. 30	
沃 川	川	?	"	
論 山	山	1923. 5. 21	"	
江 華	華	1923. 5. 28	1923. 5. 31	
尙 州	州	?	"	
鐵 原	原	1923. 5. 26	"	
孟 山	山	1923. 5. 15	"	
會 寧	寧	1923. 5. 20	"	

※ 위의 〈表 1-35〉에 나타난 지방부의 설치는 주로 1923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것임.

※ 설립일에 ?표는 당시 동아일보에 지방부 설치기사만 게재되고, 설립일자 는 게재되지 않은 것임.

143) 盧榮澤, 〈民立大學設立運動研究〉《國史館論叢》11, 1990, p.94.

144)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앞의 책, p.169.

3. 문화정치하의 학교교육

1) 교육시설의 확대

1919년에는 전국에 1,320개교였던 학교는 1925년에는 2,045개교로, 학생수는 131,975명에서 500,710명으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6년간에 걸쳐 학교수는 1.5배이상, 학생수는 4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취학률도 4.6%에서 17.6%로 늘어났다. 그러나 1926년부터 1931년까지는 세계경제 공황과 농촌경제의 파폐로 학교수는 2,045개교에서 2,543개교로, 학생수는 500,710명에서 587,951명으로 늘어났으나, 취학율은 17.6%에서 18.9%로 크게 둔화되었다. 그후 1932년부터 1935년까지는 학교수가 3,563개교, 학생수는 863,19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서 재한 일본인의 이기간의 교육상황은 소학교의 아동수는 42,73명에서 82,864명으로 2배, 중학교의 학생수는 2,010명에서 6,379명으로 3배, 고등학교 학생수는 1,905명에서 10,005명으로 5배, 각종 실업학교의 학생수는 809명에서 5,430명으로 7배, 전문학교의 학생수는 82명에서 1,773명으로 약 20배나 증가되었다. 전체 학생수는 48,884명에서 110,511명으로 2배가 넘는다. 민족별 취학자 수와, 제학교 직원 및 학교수, 전문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36〉 민족별 취학자수¹⁴⁵⁾

학 교 구 분	민 족 별	취 학 자 수	인구1만명에 대 한 비 율	비 율 의 비 교
초 등 학 교	한 국 인	386,256	208.20	1
	일 본 인	54,042	1,272.35	6
남 자 중 학 교	한 국 인	9,292	5.01	1
	일 본 인	4,532	106.70	21
여 자 중 학 교	한 국 인	2,208	1.19	1
	일 본 인	5,458	128.50	107
실 업 학 교	한 국 인	5,491	2.96	1
	일 본 인	2,663	62.70	21
사 범 학 교	한 국 인	1,703	0.92	1
	일 본 인	611	14.38	16
전 문 학 교	한 국 인	1,020	0.55	1
	일 본 인	605	14.24	26
대 학 예 과	한 국 인	89	0.05	1
	일 본 인	232	5.46	109

145)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90, p.466.

(表 1-37) 제학교 직원 및 학생수¹⁴⁶⁾(1919~1935)

학교구분	연 도	학교수	직 원 수			학 생 수		
			한국인	일본인	계	남	여	계
普通學校	1919	517	1,766	759	2,525	77,239	12,049	89,288
	1925	1,254	5,518	2,063	7,581	344,832	62,460	407,292
	1931	1,856	6,965	2,637	9,602	409,502	89,658	499,160
	1935	2,358	7,734	3,523	11,257	568,867	147,863	716,730
高等普通學校	1919	12	72	26	168	3,154		3,154
	1925	23	136	283	419	10,107		10,107
	1931	26	212	337	549	12,700		12,700
	1935	26	222	314	536	14,364		14,364
女子高等普通學校	1919	6	22	49	71		687	687
	1925	9	63	65	128		2,021	2,021
	1931	16	136	92	228		4,749	4,749
	1935	19	154	99	253		6,047	6,047
實業學校	1919	22	25	115	140	2,034		2,034
	1925	44	69	316	386	5,311		5,311
	1931	53	113	466	579	8,504	344	8,848
	1935	60	144	546	690	11,541	474	12,015
實業補習學校	1919	67	31	74	105	1,252		1,252
	1925	20	19	43	62	867	25	892
	1931	83	59	152	211	3,340	48	3,388
	1935	94	79	129	208	3,735	94	3,829
專門學校	1919	6	21	71	92	585		585
	1925	9	51	157	208	991	62	1,053
	1931	13	134	222	356	1,380	190	1,570
	1935	15	125	166	291	2,496	226	2,722
大學	1919							
	1925							
	1931	1		110	110	182		182
	1935	1		117	117	210		210
師範學校	1919							
	1925	(公)14	13	119	132	1,624	72	1,696
	1931	(官) 3	15	72	87	888	75	963
	1935	(官) 4	17	98	115	1,278	205	1,483
各種學校	1919	690	1,456	83	1,539	28,789	6,177	24,975
	1925	671	2,318	138	2,456	58,468	15,799	72,267
	1931	491	1,596	139	1,735	42,039	14,250	56,289
	1935	406	1,385	179	1,564	51,275	18,713	69,988
合 計	1919	1,320	3,393	1,247	4,640	113,062	18,913	131,975
	1925	2,045	8,187	3,207	11,394	420,271	80,439	500,710
	1931	2,543	9,231	4,248	13,479	478,637	109,313	587,951
	1935	3,563	10,374	5,303	15,677	785,858	177,337	863,195
簡易學校	1935	579	514	109	623	31,980	3,715	35,695

146) 慶尙北道教育委員會, 앞의 책, pp.260~261.

〈表 1-38〉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전문학교 설립현황¹⁴⁷⁾

구 분	학 교 명	설 립 일	비 고
관 립	京城法學專門學校	改稱: 1922年 4月 1日 " 存 續 轉換: 1922年 4月 1日	舊京城專修學校
	京城高等工業學校		舊京城工業專門學校
	水原高等農林專門學校		舊水原農林專門學校
	京城高等商業學校		舊私立京城高等商業學校
공 립	大邱醫學專門學校	新設: 1923年 新設: 1923年	
	平壤醫學專門學校		
사 립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	存 續 存 續 新設: 1922年 4月 1日 新設: 1925年 4月 新設: 1925年 4月 23日 新設: 1929年 新設: 1930年 新設: 1930年 4月 7日	舊普成法律商業學校
	延禧專門學校		舊崇實學堂大學部
	普成專門學校		舊梨花學堂大學科
	崇實專門學校		
	梨花女子專門學校		
	京城齒科專門學校		
	京城藥學專門學校		
	中央佛教專門學校		舊佛教專修學校

〈表 1-39〉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관립·공립 전문학교 현황¹⁴⁸⁾

학 교 명	항목	년도	1925								1927								1937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한국인	일본인	계		전 체	1 인 당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계			한국인	일본인	계		전 체	1 인 당	한국인
京 城 法 學 專 門 學 校 (官)	—	11	—	115	39	154	41,978	272	1	14	—	—	118	61	179	73,228	325	13	149	54	203			
京 城 醫 學 專 門 學 校 (官)	2	35	—	174	219	393	75,224	191	6	47	—	—	107	238	345	151,442	294	111	78	250	328			
水 原 高 等 工 業 學 校 (官)	2	47	—	48	80	128	119,211	931	2	28	—	—	50	117	167	171,816	849	29	64	141	205			
京 城 高 等 農 林 學 校 (官)	1	22	—	66	121	187	82,191	439	2	31	—	—	75	95	170	118,050	576	7	57	156	213			
京 城 高 等 商 業 學 校 (官)	1	37	3	32	221	253	75,321	297	1	23	4	—	32	198	230	95,702	411	6	61	230	291			
大 邱 醫 學 專 門 學 校 (公)																		17	84	194	278			
平 壤 醫 學 專 門 學 校 (公)																		12	112	180	292			
총 계	6	152	3	435	680	1,115	393,925	平均 426	12	143	4	159	382	709	1,091	610,328	平均 491	195	605	1,205	1,810	1,990,000(円)		

※ 1937년의 경상비 총계인 1,990,000원은 1936년의 것임.

147)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앞의 책, p.136.

148) 위의 책, p.139.

〈表 1-40〉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사립전문학교 현황¹⁴⁹⁾ (단위: 원)

학교명	항목	년도		1925								1927								1937						
		직원 수				학생 수				경상비		직원 수				학생 수				경상비		직	학생 수			경
		한	일	외	계	한	일	계	전	1	한	일	외	계	한	일	계	전	1	원	한	일	계	상		
		국	본	국	인	인	인	체	인	국	본	국	인	인	인	인	체	인	당	수	국	본	인	인	비	
세브란스연 의학전문학 교		6	6	13	25	69	—	69	55,000	797	10	6	12	28	92	—	92	62,828	683	31	180	—	180			
보성 전문학 교		15	8	—	23	339	—	339	47,958	142	12	6	—	18	248	—	248	44,355	171	45	582	—	582			
이화학자 전문학 교		10	2	12	24	62	7	69	45,295	656	6	1	5	12	96	5	101	36,689	363	41	235	—	235			
연희 전문학 교		14	3	7	24	144	—	144	95,305	661	11	4	2	17	234	—	234	182,641	561	80	443	—	443			
숭실 전문학 교											10	3	6	19	69	—	69	97,635	1,050	15	145	—	145			
경성치과 전문학 교																				33	129	336	465			
경성약학 전문학 교																				21	88	205	293			
중앙불교 전문학 교																				14	97	—	97			
계		45	19	32	96	614	7	621	243,558	392	49	20	25	94	739	5	744	424,148	570	280	1,899	541	2,440			

〈表 1-41〉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경성제국대학 현황¹⁵⁰⁾

연도	구분	직원수				학생수			경상비(圓)		비고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계	한국	일본	계	전체	개인	
1925	예과	1	22	—	23	91	233	324	149,701	462	
1927	예과	1	21	1	23	104	204	308	168,677	547	
	본과	2	29	—	31	89	226	315	1,147,341	3,642	
1932	예과	—	23	—	23	110	214	324	140,922	434	
	본과	—	498	—	498	190	389	579	1,580,594	2,729	
1937	예과	2	37	2	41	165	296	461	218,695	474	
	본과	128	409	2	539	126	289	415	1,814,115	4,371	

149) 앞의 책, p.143.

150) 위의 책, p.146.

〈表 1-42〉 경성제국대학의 현황¹⁵¹⁾(1926 ~ 1941)

연 도	학 부	교 원 수			학 생 수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A)	$\frac{A \times 100}{C}$ (%)	일본인 (B)	$\frac{A \times 100}{C}$ (%)	계(C)
1926	법문학부	3	28(5)	31(5)	33	39.3	51	60.7	84
	의 학 부	2	22(4)	24(4)	14	21.2	52	78.8	66
	계	5	50	57	47	31.3	103	68.7	150
	예 과	1(1)	19(3)	20(5)	103	30.5	235	69.5	338
1930	법문학부	13(2)	88(13)	103(16)	87	38.8	137	61.2	224
	의 학 부	52	216(4)	268(4)	98	33.1	198	66.9	296
	계	65	304	371	185	35.6	335	64.6	520
	예 과	1	21(3)	23(4)	86	28.5	216	71.5	302
1935	법문학부	—(1)	61(6)	63(9)	102	43.0	135	57.0	237
	의 학 부	2	51(5)	53(5)	71	23.1	236	76.9	307
	계	2	112	116	173	31.8	371	68.2	544
	예 과	—	23(12)	25(14)	112	36.2	197	63.8	309
1941	법문학부	—	49(2)	49(6)	126	44.7	156	55.3	282
	의 학 부	1(1)	55(2)	56(3)	162	41.6	227	58.4	389
	이공학부	—	36(5)	36(5)	16	41.0	23	59.0	39
	계	1	140	141	304	42.8	406	57.2	710
	예 과	—	36(5)	38(15)	216	35.4	395	64.6	611

※ 계*는 조선인외의 외국인을 포함하였음.
교원중 ()안은 겸임 교원수를 나타냄.
1930년의 교원수는 교원 및 직원의 합계수임.

2) 대구의 고등교육기관

(1) 대구의학전문학교

이 학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으로 처음에는 의학강습소로부터 출발하였다. 1910년 9월 대구의 慈惠醫院이 개원되었고, 1923년 12월 7일에는 자혜의원내에 의학강습소가 설치되었다. 1924년부터는 경상북도 지방비로 醫生을 양성하였고, 1925년 4월 1일자로 조선도립의학관제에 의해 본원의 관리권이 경상북도로 이관되는 동시에 道立大邱醫院이라 개칭되었으며 그 부속기관을 도립의학강습소라 하였다. 그리고 1926년부터 수업연한 3년을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4월에는 신입생 50명을 모집하였고, 5월부터는 강습생들이 동 강습소를 의학전

151) 앞의 책, p.171.

문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5월 31일에 진정서를 도 당국과 도내의 중직자에게 배부하였다. 1926년 3월 13일에 동문동 청사가 불의의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1927년에는 현재의 동인동 경북대학교 부속병원자리로 옮기고 동 강습소는 현재의 의과대학으로 옮겼다. 그후 조선공립학교 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1933년 3월 6일자로 동강습소는 폐지되고 동시에 공립대구의학전문학교로 되었다.

1939년 4월 현재 수업연한 4년제의 재학생수는 287명으로 이중 한국인 학생은 91명에 불과하였다. 당시 이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임상실험을 중요시하였으며, 도립의원의 설비와 환자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學用患者 전문교실 2개, 전속 간호원 양성소, 약제국, 대구의학전문학교의 학회, 교수회, 平醫院會 등을 두었다. 이학교는 대구·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의료기구로서 전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III. 日帝末期(1938~1945)의 教育

1.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주를 대륙침략을 위한 괴뢰국으로 만든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침략을 자행하였다.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이 전쟁을 수행하고자 비상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였다. 1936년 8월에 온 제7대 총독인 南次郎은 國體明徴, 鮮滿一如, 교학진흥, 農工併進, 庶政刷新 등 5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황국신민화를 통한 내선일체의 촉진, 대륙침략을 위한 한국의 병참기지화, 일본어의 상용 강화, 전시체제화 등이 그 중요한 골자였다.

일본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文章 등을 폐간하였고 朝鮮語學會, 震檀學會를 해산시켜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李允宰 등이 옥사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신사참배와 일장기 제양을 강요하고 1940년 창씨개명을 단행함으로써 한민족의 혼과 의식을 말살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국의 쌀과 면화를 공출하도록 하였고, 각종 금속기를 강제로 헌납하도록 하였으며, 전선의 확대에 따라 인적 자원을 강징하였다. 강제 징용된 사람 수도 70만이 넘었으며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 노릇을 하도록 하였다. 지원병, 학병 등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강제 동원하였고, 징병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이같은 만행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국내외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민족문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쟁하였다.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면서 1937년 “황국신민서사”를 일어로 만들어 강제로 암송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내용

아	동	용	성	인	용
①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①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 조국에 보답하련다.
②	우리들은	마음을 합쳐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②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③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③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2. 교육령의 개정과 학원탄압

1911년에 발표된 조선교육령은 1922년 2월 4일에 개정하였으나,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종래의 회유·기만책을 버리고, 유례없는 최악의 교육령을 발표하였으니 이것이 제3차 조선교육령이었다. 1938년 3월 3일 南次郎 총독은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고, 3대강령을 강요하였다. 당시 총독부의 학무국 八本信雄은 그 내용을 補說하였다. 3대강령이란 國體明徴, 內鮮一體, 忍苦鍛鍊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을 황국신민으로서의 인격존중과 덕육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인으로서의 국민적 성격을 도야하여 일본 문화의 건설에 힘쓸 인간을 기르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이어 소학교규정, 중학교규정, 고등학교규정, 사범학교규정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중학교인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각각 개칭하였다. 이것은 한국인학교와 일본인학교의 명칭을 통일시킨 것이다.

② 수업연한 4년제의 보통학교를 6년제의 소학교로 바꾸는 데는 재정이 소요되므로 당분간 4년제 심상소학교로 존속시키고 점진적으로 수업연한을 연장한 것이었다.

③ 교수요지, 교과목, 교과 과정등에 관해서는 조선어외의 것은 양국민의 것을 같이한다.

그리고 소학교 교과서는 일본의 문부성이 편찬한 것을,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교과서는 총독부나 문부성검정의 도서를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의 특수 사정에 비추어 총독부 편찬의 것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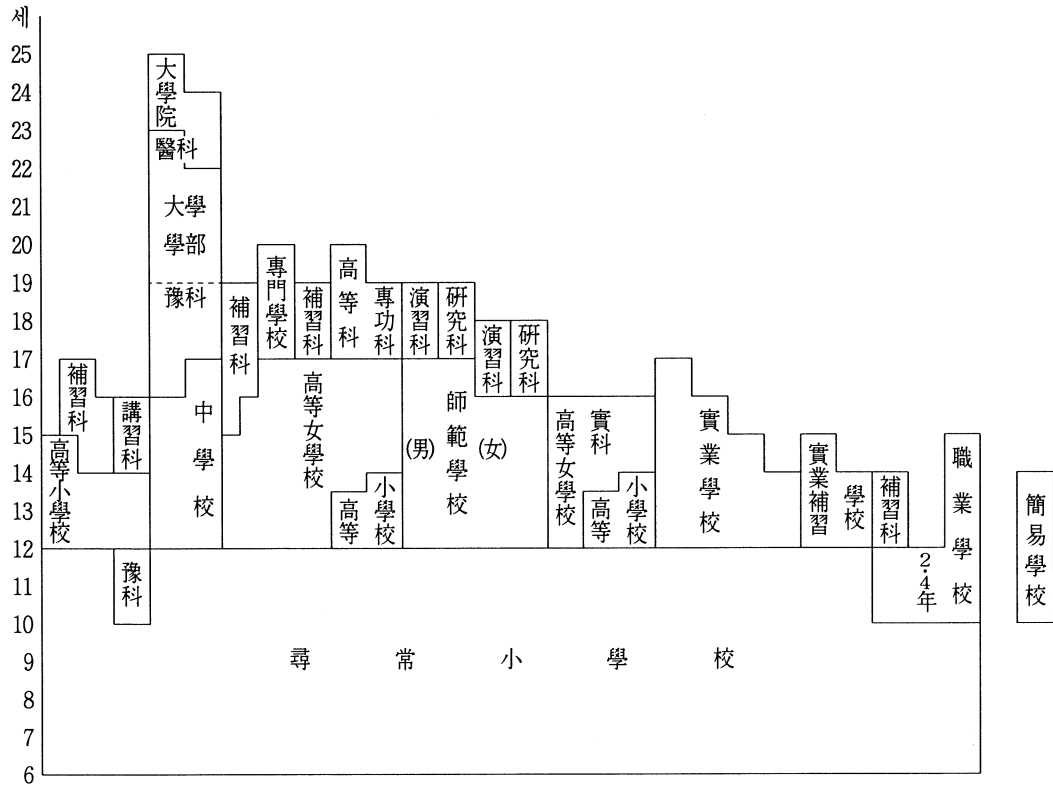
④ 조선어는 正課로부터 수의과를 하여 조선어 교육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이러한 근본 취지는 학교내에서 일본어를 일상 용어로 쓰게하여 우리말을 쓰지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전선을 확대시켜 갔다. 이에 따라 병력의 충원과 물자의 공급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 5월에는 신임 小磯國昭 조선총독이 통치의 기본방침을 황국신민의 자각 철저에 있다고 하면서 그 시정 목표로서 황민의 鍛成, 결전생활의 확립, 필승 생산력의 확충, 징병제도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일본은 전시체제하에서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1943년 4월 1일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의 요지는 皇道에 따른 국민의 鍛成이며, 노동봉사를 통한 전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이에 앞서 1941년 4월 1일에는 소학교령을 국민학교령으로 바꾸어 종래의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으며, 전문학교와 대학의 수업연한은 3년에서 2년, 4년에서 3년으로 각 1년씩 단축시키고, 3월에 졸업하던 것을 3개월 앞당겨 12월에 졸업시켰으며, 1942년에는 6개월 앞당겨 9월에 졸업시켰다. 이같은 것은 전쟁의 확대로 인한 인력 공급의 필요에서였다. 제4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① 시국에 적응하여 생산 실무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실무에 종사케 하였다.

② 문과계 학교를 정비하고, 이과계 학교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43년 10월 13일에는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을 발표하고 노동력을 동원하여 수업은 거의 전폐 하다시피 하였다. 1944년 8월 22일에는 학도동원령을 내려 국민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생은 「학도보국대」에 편성하여 일본의 전쟁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충당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바른 교과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학제를 보면 〈圖 1-4〉와 같다.



〈圖 1-4〉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학제¹⁵²⁾(1938~1943)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에 실시된 각급 학교의 일람 및 교육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43〉 전국 관·공립국민학교 일람¹⁵³⁾

연 도	학 교 수	직 원 수	학 생 수	비 고
1936	官 4	韓人 5,741	男 604,254	
	公 2,411	日人 3,04	女 160,285	
	計 2,415	計 8,765	計 764,539	
1937	官 8	韓人 7,031	男 667,128	
	公 2,503	日人 4,494	女 191,288	
	計 2,511	計 11,525	計 858,416	

152) 앞의 책, p.175.

153) 忠淸南道教育委員會, 앞의 책, p.252.

第1章 教 育

연 도	학 교 수	직 원 수	학 생 수	비 고
1938	官 10	韓人 8,525	男 767,137	
	公 2,599	日人 5,740	女 234,429	
	計 2,609	計 14,265	計 1,001,566	
1939	官 11	韓人 9,023	男 876,413	
	公 2,727	日人 7,248	女 286,328	
	計 2,738	計 16,271	計 1,162,741	
1940	官 12	韓人 9,432	男 82,260	
	公 2,851	日人 8,676	女 344,911	
	計 2,863	計 18,108	計 1,327,171	
1941	官 13	韓人 11,008	男 1,078,667	
	公 2,973	日人 9,671	女 428,872	
	計 2,986	計 20,678	計 1,507,539	
1942	官 14	韓人 13,298	男 1,180,539	
	公 3,110	日人 9,856	女 511,266	
	計 3,124	計 23,154	計 1,691,805	
1943	官 15	韓人 16,684	男 1,327,851	
	公 3,717	日人 9,543	女 606,617	
	計 3,732	計 26,227	計 1,934,568	

〈表 1-44〉 각종 공립학교 통계¹⁵⁴⁾(1943)

구 분	중학교	고등여학교	계	실업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	직업학교
학교수	41	44	85	54	10	22	11
학생수	16,292	10,161	26,453	15,244	4,445	10,774	4,460
구 분	수산학교	계	농업보습학교	공업보습학교	상업보습학교	수산보습학교	계
학교수	4	101	94	5	9	2	110
학생수	1,107	36,030	4,986	614	1,097	69	6,766

154) 慶尙北道教育委員會, 앞의 책, p.277.

〈表 1-45〉 심상소학교 교과목 및 주당 수업시수¹⁵⁵⁾(6년제)

학 년 교과목	1	2	3	4	5	6
修身	2	2	2	2	2	2
國語	10	12	12	12	9	9
朝鮮語	4	3	3	2	2	2
算數	5	5	6	6	4	4
國史					2	2
地理					2	2
理科				2	2	2
職業				男2, 女1	男3, 女1	男2, 女1
圖畫			1	1	男2, 女1	男2, 女1
手工	1	1	4	1	1	1
唱歌	4	4	1	1	2	2
體操			3	3	男3, 女2	男3, 女2
家事 및 裁縫				3	4	4
計	26	27	29	男32, 女34	男34, 女34	男34, 女34

〈表 1-46〉 중학교 교과목 및 주당 수업시수¹⁵⁶⁾(5년제)

학 년 교과목	1	2	3	4	5
修身	2	2	2	1	1
公民科				2	2
國語 · 漢文	7	7	6	5	5
朝鮮語	2	2	1	1	1
歷史	3	3	3	3	3
地理					
外國語					4
數學					
理科	3	3	3	4	4
實業	2	2	2	2	3
圖畫	1	1	1	1	1
音樂	1	1	1	1	1
體操	5	5	5	5	5
計	34	34	35	35	35

155) 咸宗圭, 앞의 책, p.64.

156) 위의 책, p.166.

第1章 教 育

〈表 1-47〉 고등여학교 교과목 및 주당 수업시수¹⁵⁷⁾(5년제)

학 년		1	2	3	4	5
교과목						
修公教國朝歷地外數理實圖家裁音體	身科育語語史理語學科業畫事縫樂操	2	2	2	1	1
					1	1
					1	1
		6	6	6	5	5
		2	2	2	1	1
		3	3	3	2	2
		3	3	3	2	2
		2	2	3	3	2
		2	2	3	3	3
		1	1	1	1	1
		1	1	1	1	1
		1	1	2	3	4
		4	4	4	4	4
		2	2	1	1	1
		3	3	3	3	3
計		32	32	32	32	32

〈表 1-48〉 사범학교 교과목 및 주당 수업시수¹⁵⁸⁾(남)

학 년		1	2	3	4	5
교과목						
修 公 教 國 朝 歷 地 外 數 理 實 圖 手 音 體	身 科 育 文 語 語 史 理 語 學 科 業 畫 工 樂 操	2	2	2	1	1
					2	2
					1	3
		8	8	6	5	5
		2	2	2	1	1
		3	3	3	2	2
		3	3	2	2	2
		4	4	5	4	4
		2	2	4	6	4
		2	2	2	3	3
		2	2	2	1	1
		1	1	1	1	1
		5	5	5	5	5
計		34	34	34	34	34

157) 앞의 책, p.168.

158) 위의 책, pp.171~172.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전문학교는 2개의 관립전문학교와 4개의 사립전문학교가 신설되고 숭실전문학교가 폐교되었다. 신설된 관립전문학교는 京城鑛山전문학교(1939), 부산고등수산학교(1941)이며 사립전문학교는 대동공업전문학교(1938),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1938), 숙명여자전문학교(1939), 명륜전문학교(1940) 등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에 설치된 공·사립전문학교는 총 20개교였으나 직원수와 학생수를 한·일별로 비교해 보면 너무도 일본인 중심으로 불평등하였다. 제3차 교육령시행기의 전문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49)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관립·공립 전문학교 현황¹⁵⁹⁾ (경상비 단위: 원)

연도 구분	1938										1940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직 원 수			
	한	일	외	계	한	일	외	계	전 체	1인당	한	일	외	계
京城法學專門學校	1	13	—	14	158	44	202		58,000	287	1	12	—	13
京城醫學專門學校	56	73	—	129	86	251	337		410,000	1,216	68	82	—	150
京城高等工業學校	6	35	—	41	96	215	311		496,000	1,594	8	42	—	50
京城高等商業學校	1	23	—	24	67	228	295		97,000	328	1	23	—	24
水原高等農林學校	6	40	—	46	65	178	243		177,000	728	10	34	—	44
京城光山專門學校											17	19	—	36
大邱醫學專門學校														
平壤醫學專門學校														
釜山高水產學校														
계	70	184	—	254	472	916	1,388		1,238,000	4,153	105	212	—	317

연도 구분	1 9 4 0					1 9 4 2									
	직 원 수			경 상 비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학 교 명	한	일	계	전 체	1인당	한	일	외	계	한	일	계	전 체	1인당
京城法學專門學校	160	65	225	69,000	306	2	11	1	14	137	122	259	79,108	305	
京城醫學專門學校	79	266	345	408,000	1,182	74	77	—	151	70대 만5	272 外 1	348	657,098	1,888	
京城高等工業學校	95	271	366	359,000	980	9	55	—	64	80	425	505	299,000	592	
京城高等商業學校	94	222	316	89,000	281	—	22	1	23	96	138	234	89,913	384	
水原高等農林學校	65	196	261	185,000	708	23	29	—	52	97	146	243	364,184	1,498	
京城光山專門學校	147	119	266	167,000	627	29	24	—	53	95	174	269	172,014	639	
大邱醫學專門學校						16	17	1	34	92	184	276	65,668	238	
平壤醫學專門學校						—	9	—	9	119	193	312	70,865	227	
釜山高等水產學校						2	28	—	30	23	97	120	149,532	1,246	
계	640	1,139	1,799	1,277,000	4,084	155	272	3	430	809	1,751	2,566	1,947,382	7,017	

159)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앞의 책, p.177.

〈表 1-50〉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사립전문학교 현황¹⁶⁰⁾

연도 구분	1938									1940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직 원 수			
학 교 명	한	일	외	계	한	일	계	전 체	1인당	한	일	외	계
普 成 專 門 學 校	32	25	2	59	529	—	529	132,000	250	38	2	—	40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16	—	5	21	192	—	192	328,000	1,708	16	1	3	20
延 喜 專 門 學 校	56	9	17	82	473	—	473	152,000	321	40	4	6	50
梨花女子專門學校	5	4	11	20	265	—	265	111,000	418	34	5	9	48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	15	—	15	195	278	473	146,000	308	—	16	—	16
京城藥學專門學校	5	20	—	25	102	187	289	81,000	280	4	18	—	22
中央佛教專門學校	15	1	—	16	128	—	128	251,000	1,961	11	1	—	12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	5	3	—	8	55	5	60	304,000	5,066	9	7	—	16
大同工業專門學校										12	7	—	19
淑明女子專門學校										5	18	—	23
明 倫 專 門 學 校													
계	134	77	35	246	1,939	470	2,409	1,505,000	10,312	169	79	18	266

연도 구분	1940					1942								
	학 생 수			경 상 비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학 교 명	한	일	계	전 체	1인당	한	일	외	계	한	일	계	전 체	1인당
普 成 專 門 學 校	548	—	548	1116,000	211	28	3	—	31	546	—	546	179,496	328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211	—	211	452,000	2,142	20	1	—	21	239	—	239	597,118	2,497
延 喜 專 門 學 校	449	—	449	238,000	530	53	7	1	61	505	—	505	191,167	378
梨花女子專門學校	378	2	380	166,000	436	52	5	—	57	527	—	527	154,060	292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245	226	471	162,000	344	4	43	—	47	208	272	480	184,603	384
京城藥學專門學校	104	203	307	89,000	290	1	23	—	24	113	224 대만 12	349	131,652	377
中央佛教專門學校	108	—	108	29,000	268	12	4	—	16	301	3	304	67,370	221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	156	25	181	385,000	2,127	57	8	—	65	135	59	194	272,040	1,402
大同工業專門學校	226	8	234	219,000	935	14	7	—	21	195	35	230	178,915	777
淑明女子專門學校	155	53	208	77,000	370	5	18	—	23	195	92	287	132,958	463
明 倫 專 門 學 校						10	—	—	10	54	1	55	392,341	7,133
계	2,580	517	3,097	1,933,000	7,653	256	119	1	376	3,018	686 대만 12	3,716	2,481,720	14,253

160) 앞의 책, p.181.

〈表 1-51〉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경성제국대학 현황¹⁶¹⁾

연 도 구 분		1 9 4 0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학	과	한	일	외	계	한	일	외	계	전 체	1인당
본 과	본 부	17	52	—	69	—	—	—	—	2,639,000	4,162
	법분학부	13	77	—	90	105	154	—	259		
	의 학 부	159	281	—	440	145	230	—	375		
	이공학부	—	—	—	—	—	—	—	—		
	소 계	189	410	—	599	250	384	—	634		
예 과	문 과	6	43	3	52	110	207	—	317	484,000	894
	이 과					95	129	—	224		
	소 계	6	43	3	52	205	336	—	541		
총 계		195	453	3	651	455	720	—	1,175	3,123,000	2,657.87

연 도 구 분		1 9 4 2									
		직 원 수				학 생 수				경 상 비	
학	과	한	일	외	계	한	일	외	계	전 체	1인당
본 과	본 부	37	51	—	88	—	—	—	—	6,204,446	7,863
	법분학부	11	83	3	97	136	148	—	284		
	의 학 부	216	253	—	469	204	210	2	416		
	이공학부	37	90	—	127	25	64	—	89		
	소 계	301	477	3	781	365	422	2	789		
예 과	문 과	8	50	2	60	74	147	—	221	300,091	466.70
	이 과					127	295	—	422		
	소 계	8	50	2	60	201	442	—	643		
총 계		309	527	5	841	566	864	2	1,432	6,504,537	542.27

※ 1942년에는 이공학부도 포함됨
경상비의 단위는 원임

161) 앞의 책, p.185.

〈表 1-52〉 일제하 대학 및 전문학교의 변천현황¹⁶²⁾(1910 ~ 1945)

연도 구분		제1차 조선교육령시행기 (1910~1922)	제2차 조선교육령시행기 (1922~1938)	제3차 조선교육령시행기 (1938~1943)	제4차 조선교육령시행기 (1943~1945)
대학	관립		京城帝國大學 豫科(1924)·法文學部(1926)·醫學部(1926)	理工學部の 증설(1941) →	
전립	관립	• 京城法學專門學校(1916) →		→	京城經濟專門學校로 통합(1944) →
		• 京城醫學專門學校(1916) →			→
		• 京城工業專門學校(1916) →	京城高等工業學校로 개칭(1922) →		→
		• 水原農林專門學校(1918) →	水原高等農林學校로 개칭(1922) →	• 京城鑛山專門學校(1939) → • 釜山高等水産學校(1941) →	→
공립		• 京城高等商業學校官立으로 전환(1922) → • 大邱醫學專門學校(1923) →		京城經濟專門學校로 통합(1944) → →	
	문화교육		• 平壤醫學專門學校(1923) →		→
•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1917) →			旭醫學專門學校로 개칭(1942) →		→
• 延禧專門學校(1917) →				京城工業經營專門學校로 전환(1944) →	京城殖經濟專門學校로 전환(1944) →
		• 普成專門學校(1922) →			
• 崇實專門學校(1925) →		閉校(1939)			
• 梨花女子專門學校(1925) →			→	同女子靑年練成所指導者養成科로 전환(1943)	
립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1929) →			→
	• 京城藥學專門學校(1930) →				→
	• 中央佛教專門學校(1930) →	惠化專門學校로 개칭 → • 明倫專門學校(1942) → •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1938) → • 淑明女子專門學校(1939) → • 大同工業專門學校(1938) →	→ → → → →	1944년 5월 폐쇄 靑年練成所로 전환(1943) 同女子靑年練成所指導者養成科로 전환(1943)	

162) 앞의 책, p.195.

〈表 1-53〉 전문학교 수준의 각종학교현황¹⁶³⁾(1943년 5월말)

학 교 명	교 직 원 수			학 생 수			경상비 (圓)	비 고
	한국인	일본인	계	한국인	일본인	계		
景 城 法 政 學 校	4	26	30	313	1	314	27,632	1944년 폐교
中 央 保 育 學 校	8	—	8	111	—	111	25,230	
聖潔敎會京城神學校	2	1	3	50	—	50	16,000	
朝 鮮 無 線 通 信 學 校	—	7	7	10	111	121	37,630	
平 壤 神 學 校	7	2	9	219	—	219	41,820	
德 源 神 學 校	13	3	16	111	—	111	13,015	
京 城 保 育 學 校	15	1	16	101	—	101	19,308	
합 계	49	40	89	915	112	1,027	180,635	

3. 대구의 교육기관

1) 초등학교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대구에 설치된 초등학교는 모두 5개교로 이들 학교에 관한 내용을 보며 다음과 같다.

(1) 대구삼덕국민학교

이 학교는 1938년 3월 12일에 개교하였는데 처음에는 대구삼립정공립보통학교로 설립 개교 되었으며, 1939년 8월 18일에 본관이 준공되어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8·15해방까지 530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2) 대구칠성국민학교

이 학교는 수창심상소학교 가교사에서 대구칠성공립심상소학교로 1939년 4월 20일개교되었다. 8·15해방까지 263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3) 대구동도국민학교

이 학교는 1940년 3월 31일 대구삼립정심상소학교의 가교에서 대구동도심상소학교로 개교 되었으며, 1941년 4월 27일에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8·15해방까지 75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163) 앞의 책, p.197.

(4) 대구명덕국민학교

이 학교는 대구남부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1940년 3월 31일 개교하였으나 1945년까지 졸업생이 나오지 않았다.

(5) 대구인지국민학교

이 학교는 대구달서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1943년 4월 1일 개교하였으나 8·15해방까지 졸업생을 내지 못하였다.

(6) 대구대성국민학교

이 학교는 1932년 3월 7일 개교하였으나 1933년 9월 5일 사립남명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46년 3월 29일에 대구대성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8·15해방까지 675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7) 대구남산국민학교

이 학교는 1935년 6월 14일 개교하였으며, 1936년 6월 25일 신축교사 준공으로 현 교사로 이전하고 대구남산정공립보통학교라 개칭하였다.

(8) 대구국민학교

이 학교는 대구공립보통학교로 출발하였으나 1938년 4월 1일 대구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42년 4월 1일에는 대구국민학교로 개칭하였으며 8·15해방까지 4,854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그외에도 간이학교로서 대구덕산심상소학교부설 봉산정(봉산동)간이학교가 1937년 5월에, 대구수창심상소학교 부설 팔운정(수창중)간이학교가, 1937년 5월에, 대구서부심상소학교 부설 서부간이학교(비산동)가 1938년 4월에, 대구남산심상소학교가 1937년 5월에 각각 개교되었다.

2) 중등학교

(1) 영남중학교

이 학교는 1935년 9월 1일 남산동 178번지의 구교사뜰에서 학생 200명과 교사 3명 및 설립 이사 몇명등이 모여 개교식을 가졌다. 朱德根은 학교설립을 결심하고 大邱實修學院창설에 나섰다. 金在明(당시 南山病院長)과 주덕근은 私財를 털어 대구부 남산정 178번지(대지 375평)에 터를 잡고 교사 신축에 착수하여 1935년 3월 31일 건평 50평 규모의 교사를 준공하였다. 그후 설립허가를 얻어 1935년 9월 1일 개교하였으며, 1944년 4월에는 2년제 중등과정의 대구농공실무학원으로 개편되었다. 당시 교과목은 수신, 일어, 조선어, 산술, 국사, 지리, 理科, 직업, 체조 등이었다.

第6節 現代의 教育과 大邱

I. 美軍政期の 教育과 大邱

1. 해방 당시의 教育여건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36년간의 일제식민지 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소에 의한 한반도 정책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북위 38선에 의한 국토의 분단으로 민족의 분열과 역사의 이질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타율적 분단체제하에서 자율적 자주통일 정부 수립에 실패한 것은 외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민족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해방된 정국은 50여개 정당의 난립, 좌·우파의 대립, 친일·附日세력의 정치 참여, 해외로부터 200만이나 되는 동포의 이주·귀환 등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불안과 혼란을 더하게 하였다. 남한은 미군정하에, 북은 소련의 군정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안이 결정됨에 따라 전민족적 반탁운동이 일어났다. 한국 문제는 이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결렬되었고, 이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엔에서는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통한 독립정부를 수립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이 총선거를 하고,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하고, 7월 20일 대통령선거를 하여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행정부가 조직되고, 8·15에 대한민국정부수립을 내외에 반포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승인을 받았다.

2. 미군정기의 教育

광복 초기의 한국 교육여건은 38도선이남의 질서유지, 일제식민지 교육정책의 잔재 불식,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교육행정체제 확립 등을 그 기본방침으로 출발하였다. 미군정청은 1945년 9월 11일 학무국을 출범시켜 초등, 중등, 대학, 의학, 전문교육 등을 주관하는 행정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 24일부터 공립 초등학교의 재개를, 10월 1일부터 관립 및 공립의 중등·고등교육기관의 재개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우리의 자치적 노력에 의하여 재개되기도 하였다. 교육용어는 한국어가 되었고, 교과서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였으나 국어·국사교과서 등의 朝鮮語學會, 震檀學會 등의 협조로 편찬 제공되었다. 이러한 미군정하에서의 교육은 미 육군대위 록카드(E.L.Lockard)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를 협조한 사람이 吳天錫이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의 자문기관으로는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가 조직운영되었다. 전자는 9월 16일에 발족되었으며, 후자는 11월 14일에 발족되어 9개분과위원회에 100여명이 참여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의학교육 분과위원회가 증설되어 10개분과위원회로 늘어났다. 분과위원회는 총 105회, 전체회의 20회를 열어 홍익인간의 이념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5대 교육방침을 수립하였다.¹⁶⁴⁾ 교육제도는 종래의 이원제에서 일원제를 채택하고 식민지시대의 간이학교, 보습학교, 강습과, 연습과를 폐지하였으며, 수업연한도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6년(초기 3년은 중등과 후기 3년은 고등과), 사범학교 3년, 대학 4년(의대는 6년), 이과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두었다 학기제는 3학기제를 폐지하고, 1년을 2학기로 나누어 1학기를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2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로 하여 1946년 9월부터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여건은 교육을 뒷받침할 재원이나 인적 자원에서 큰 재약을 받았다.

(表 1-54) 한국교육위원회의 구성원¹⁶⁵⁾

성명	학 력	종 교	정치단체	한국교육위원회	조선교육 심 의 회	경 력
金城達	일본 와세다 대학	기독교	한민당	초등교육		휘문고교장
玄相允	일본 와세다 대학	기독교	한민당	중등교육	교육행정	보성전문교장
億兼	일본 와세다 대학	기독교	한민당	전문교육	교육제도	연회전문교장
白樂濬	미국 예일 대학	기독교	한민당	교육전반	교육이념	연회전문교장
金活蘭	미국 콜롬비아 대학	기독교	독립촉성 부인회	여성교육	교육이념	이화여전교장
金性洙	일본 와세다 대학		한미당	고등교육	고등교육	보성전문교장, 미군정행정고문
崔奎東	상 고 졸 업			일반교육	교육행정	중등고교장
尹日善	일본 京都大	기독교		의학교육	의학교육	경성대교수
趙伯顯	일본 九州大			농업교육	농업교육	수원농림전문교장
鄭寅善	(중국)			학계대표		중국망명활동
白南薰	일본 와세다 대학	기독교	한민당	고등교육	교육행정	
吳天錫	미국 콜롬비아 대학	기독교		교육위원회조직	교육제도	미군정학무차장

164) 5대教育方針은 다음과 같다.

- ① 민족적 독립, 自尊의 기풍과 국제우호·협조의 정신이 건전한 국민의 품성을 도야함.
- ② 실천공행과 근로 力作의 정신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 愛助의 공덕심을 발휘케 함.
- ③ 고요문화를 순화 양양하고 과학기술의 독창적 창의로써 인류문화에 공헌을 기함.
- ④ 국민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난공불난의 기백을 함양케 함.
- ⑤ 숭고한 예술의 감상, 창작성을 고조하여 순후원만한 인격을 양성함(《韓國教育2000年史》, 1981, p.330).

165)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위의 책, p.204.

〈表 1-55〉 조선교육심의회의 조직과 구성원¹⁶⁶⁾ (1945. 12)

分科委員會	委 員
제 1 분 과 위 원 회 (教育理念)	安在鴻, 河敬德, 白樂濬, 金活蘭, 洪鼎植, 鄭寅普, 키퍼(G.S. Kieffer)大尉
제 2 분 과 위 원 회 (教育制度)	俞億兼, 金俊淵, 金元圭, 李勳求, 李寅基, 에레트海軍少尉(P.D. Ehret), 吳天錫
제 3 분 과 위 원 회 (教育行政)	崔圭東, 崔斗善, 玄相允, 李卯默, 白南薰, 글렌大尉(R.G. Grant), 司空桓
제 4 분 과 위 원 회 (初等教育)	李克魯, 李浩盛, 李揆百, 李康元, 밀렌中尉(F.M. Milan), 李承宰, 鄭錫胤
제 5 분 과 위 원 회 (中等教育)	趙東植, 高鳳京, 李炳奎, 宋錫載, 徐元出, 비스코中尉(W.S. Biscoe), 李興鍾
제 6 분 과 위 원 회 (職業教育)	鄭文基, 張勉, 趙伯顯, 朴奎載, 朴璋烈, 로렌스大尉, 로리든中尉(F.P. Lauriden), 李敎善
제 7 분 과 위 원 회 (師範教育)	張利郁, 張德秀, 金愛麻, 愼驥範, 孫眞圭, 팔리大尉(L.E. Farley), 許鉉
제 8 분 과 위 원 회 (高等教育)	白南雲, 俞鎮午, 金性洙, 그로프트少尉(Alfred Crofts), 朴鍾鴻, 고오든少尉(J. Gordon)
제 9 분 과 위 원 회 (教科書)	崔鉉培, 張志映, 趙鎮滿, 趙潤濟, 皮天得, 黃信德, 월취(J.C. Welch)中尉, 金性達
제 10 분 과 위 원 회 (醫學教育)	沈浩燮, 俞億兼, 李容尙, 朴秉來, 崔相彩, 高秉幹, 尹日善, 崔棟, 鄭求忠

※ — 는 문교부 직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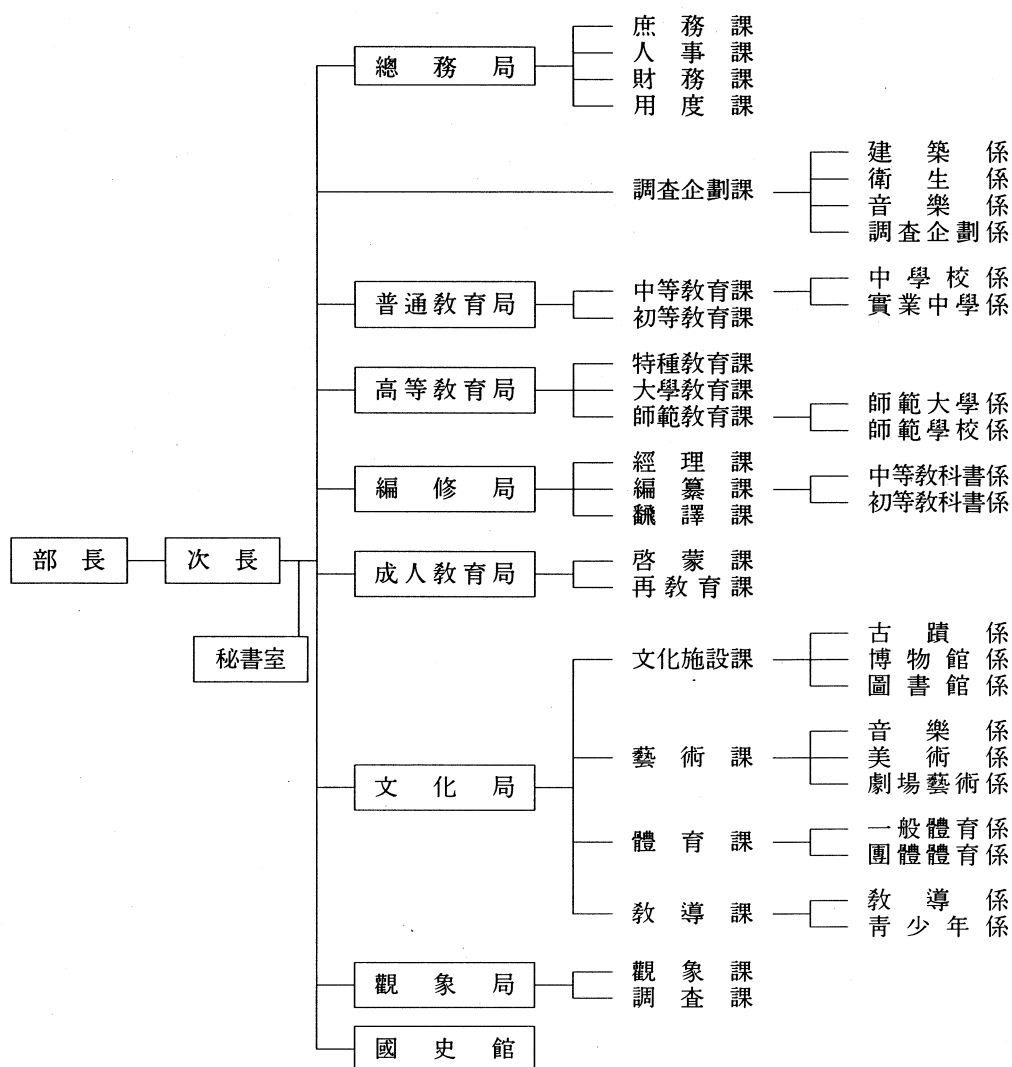
연령	학년					연수		
24	1	대 학 원		대 학 원		17 16 15 14 13		
23	6	의 과 대 학						
22	5							
21	4			교 원 양 성 과 (사 대)				
20	3			사 범 대 학				
19	2	각 종 대 학		교 원 양 성 과 (사 범)				
18	1							
17	3	중 또는 고급 학업 중 학교	고 급 중 학 교	고 급 실 업 중 학 교	사 범 학 교	12		
16	2		초 급 중 학 교	초 초 급 실 업 중 학 교		11		
15	1					10		
14	3					9		
13	2					8		
12	1		7					
11	6		국 민 학 교				6	
10	5	5						
9	4	4						
8	3	3						
7	2	2						
6	1	1						
5		유 치 원				취학전		
4								

〈圖 1-5〉 미군정시대의 신학제¹⁶⁷⁾

※ — 는 문교부 직원이었음.

166) 앞의 책, p.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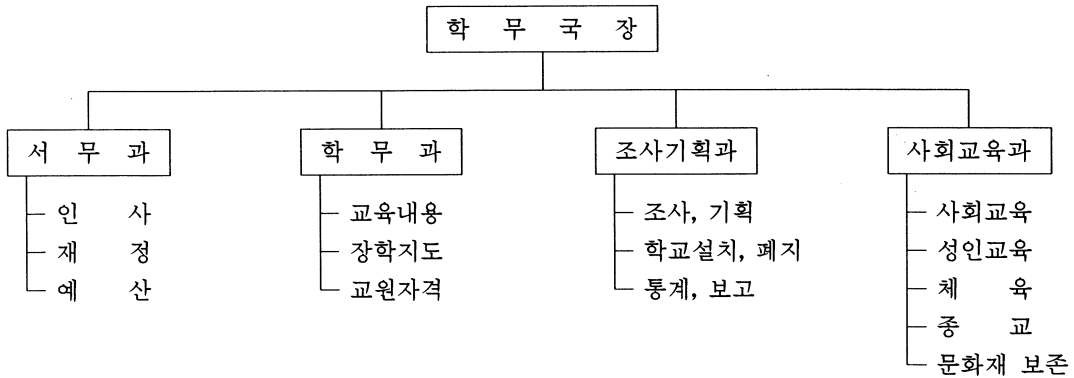
167) 《大邱市史》3, p.636.



〈圖 1-6〉

미군정말기 문교부 기구¹⁶⁸⁾(1946. 7. 10 현재)

168)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앞의 책, p.220.



〈圖 1-7〉

각 도의 학무국 편제¹⁶⁹⁾ (1946. 10 승격)

〈表 1-56〉

군정초기에 편수된 교과서¹⁷⁰⁾

① 한글 첫걸음	1945년 9월 1일	⑦ 공민 1~2, 3~4, 5~6학년용	1945년 12월 16일
② 국어 독본 I	1945년 9월 1일	⑧ 음악 1~6학년용	1945년 12월 20일
③ 국어 독본 II	1945년 12월 2일	⑨ 습자 1~2학년용	1946년 2월 15일
④ 국어 독본(중학교용)	1946년 1월 28일	⑩ 지리 5학년용	1946년 2월 15일
⑤ 교사용 국어독본	1945년 10월 1일	⑪ 국사 5~6학년용	1945년 10월 15일
⑥ 국사(중학교용)	1945년 12월 11일		

광복후 문교부에서는 1군 1교안에 따라 1945년 8월 15일 당시 146개교에 학생수 133,857명이었던 중등교육의 학교현황이 1948년 정부수립 당시에는 564개교에 397,567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개성의 존중, 창의적 활동의 조장, 아동의 경험과 자발적 활동 존중 등에 관한 신교육방법이 발표되고, 듀이(J. Dewey)의 교육철학이 수용되었으며, 사회생활과라는 교과목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교육내용은 경험중심과 생활중심으로 ‘單元’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미군정기의 교육의 새로운 모습은 남여공학제를 취한 것이다. 1946년 9월 연희대학교(현

169) 《大邱市史》3, p.634.

170) 위의 책, p.637.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남여공학이 실시되었다. 그후 國大案¹⁷¹⁾과동을 겪고 서울국립종합대학교가 발족되었다.

1945년 8·15당시 남한의 고등교육기관은 19개교에 교원 1,490명, 학생 7,819명이었다. 그후 1948년 정부수립 당시까지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은 42개교에 교원수 1,265명, 학생수는 24,000명에 이르렀다.¹⁷²⁾

3. 미군정기 대구의 교육

1) 초등교육

1946년 1월 미군정청은 교육심의회의안을 수용하여 의무교육 실시요강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1946년부터 1951년까지 6개년間に 전국적으로 1학년의 학급수를 35,331학급, 교실수를 5,742개로 추산하여 1학년 내지 4학년은 2부제수업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취학 적령이 넘는 7세이상 12세까지의 아동을 취학하도록 추진하였다.

8·15당시 전국의 초등학교수는 2,834개교였으며 이중 경북의 초등학교는 국립1(사대부속국민학교), 공립 439개교, 사립 4개교였다. 그러나 해방직전 대구의 초등학교는 20개교(한국인 학교 15, 일본인 학교 5)에 지나지 않았다. 즉 해방당시 대구시내의 초등교육상황은 1940년대 전후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의 학생수는 270,804명이며, 이중 대구시의 초등학생수는 12,300명, 경북을 포함한 대구시의 교원수는 4,979명으로 해방직 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3분의 2가 일인교사이고, 3분의 1이 한국인 교사였다.

171) 이 파동은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1946년 4월 京城大學醫學部와 京城醫學專門學校를 통합할 것을 지시하고, 6월 19일에는 서울과 그 부근에 있는 官立高等教育機關을 전부 폐지하고 새구상아래 거대한 綜合學校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경성대학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는 반대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부분적 개편을 단념하고 그해 8월 27일 法令 第102號로 서울종합대학교 설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國大案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 충돌로 휴교선언까지 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는 좌익분자의 책동이 가해져 망휴를 단행한 학교가 400여개교에 달하였으나 1년여가 지나서야 정상상태로 돌아섰다. 서울大學校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다(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 探求堂, 1988, pp.579~580.)

1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앞의 책, p.209.

〈表 1-57〉 8·15당시 대구의 국민학교 일람¹⁷³⁾(1945. 10. 31)

군 명	국 민 학 교 명			
大 邱 府	大邱德山國民學校 大邱三德國民學校 大邱達西國民學校 大邱東雲國民學校 大邱南明國民學校	大邱壽昌國民學校 大邱達城國民學校 大邱東都國民學校 大邱本町國民學校 大邱喜道國民學校	大邱西部國民學校 大邱七星國民學校 大邱南旭國民學校 大邱新岩國民學校 大邱曉星國民學校	大邱南山國民學校 大邱南部國民學校 大邱壽城國民學校 大邱復明國民學校 大邱海星國民學校

2) 중등학교

1945년 9월 28일 미군정청 학무국은 통첩을 내려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10월 1일을 기하여 개학하도록 하면서 교원 채용, 전출, 학생 정원과 편입학, 교과편제와 시간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밝히고 1군 1교 이상의 중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방침을 세워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원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광복직후에 대구 시내의 중학교가 13개교(사범학교1, 남자중학교4, 실업학교4, 여자중학교3, 여자실업중학교1)에 학생수는 5,300명이었다. 그외에 사설학원이 9개에 1,600명이었다. 미군정기의 대구시의 중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58〉 미군정시대의 중등학교 현황¹⁷⁴⁾

교 명	공·사립	교 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대 구 공 립 농 립 학 교	공 립	21	10	(일본인 133) (한국인 339) 한·일공학
경 북 공 립 중 학 교	"	22	40	486
대 구 공 립 상 업 학 교	"	18	15	(일본인 242) (한국인 255) 한·일공학
대 구 공 립 중 학 교	"	21	10	(일본인 485) (한국인 7) 한·일공학
대 구 사 범 학 교	관 립	30	15	(일본인 206) (한국인 485) 한·일공학
대 구 공 립 직 업 학 교	공 립	11	4	(일본인 12) (한국인 485) 한·일공학
대 구 공 립 상 업 실 수 학 교	공 립		2	58
계 성 학 교	사 립	18	10	539
대 륜 중 학 교	사 립	10	7	380
대 구 공 립 고 등 여 학 교	공 립	23	14	717(일본인 학교)
경 북 공 립 고 등 여 학 교	공 립	17	8	410
대 구 신 명 여 학 교	사 립	11	4	201
대 구 여 자 기 예 학 교	사 립	7	4	(일본인 109, 한국인 65) 한·일공학

173) 《慶北教育史料》, p.459.

174) 《大邱市史》3, p.667.

3) 고등교육기관

해방 당시 대구의 고등교육기관은 전문학교가 2개교(대구의학전문학교, 대구농업전문학교)에 300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후 대구사범학교가 1946년 대구사범대학으로 대구 농업전문대학이 대구농과대학, 대구의학전문학교가 1947년 대구의과대학으로 각각 승격되어 대구의 최고 학부가 되었다. 사립대학으로는 1947년 3월 10일 대구대학이 대구문리과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그해 9월 23일에 대구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그해 10월 1일에 개교식을 가졌다.

II. 政府樹立後の 教育과 大邱

1. 교육이념의 확정과 교육법 제정

1948년 8월 15일 감격에 넘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취임하였다. 이승만의 반일주의는 대일 외교상의 중요한 이슈로 내세웠으나 교육·문화계에는 친일 세력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다.

초대 문교부장관에 취임한 安浩相은 제헌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의 정신에 바탕하여 교육법안의 기초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을 공포하였다. 이 교육법은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홍익인간은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의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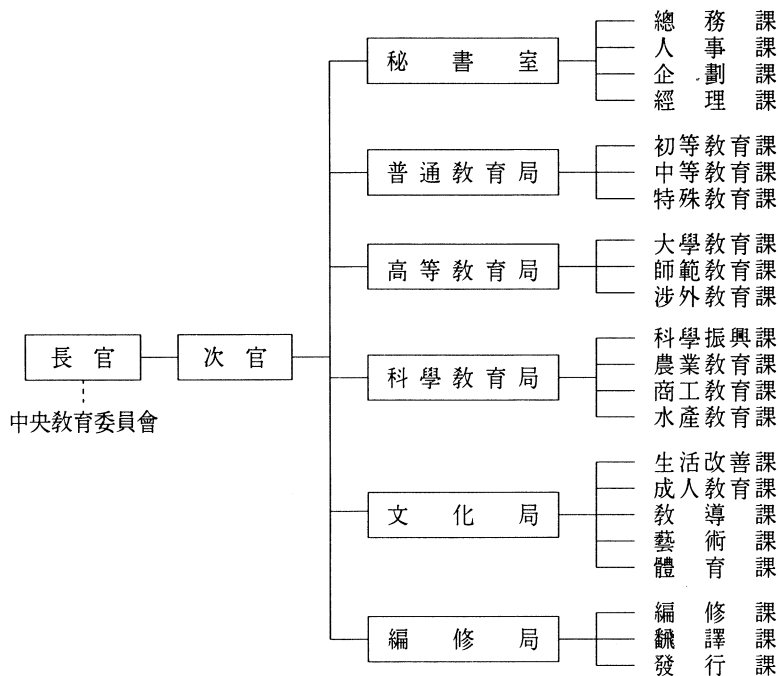
교육법은 또한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하여 군단위의 교육구를 두고, 각 시·도에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초등교육기관을 유지·경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25전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정부 수립과 더불어 초대 문교부 장관에 취임한 安浩相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교육을 강력히 주창하는 한편 국민사상을 한데 모아 반공정신을 확립하고자 「一民主義」사상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당시의 혼란중에서 학원의 안정과 반공체제의 확립은 시급한 과제였다. 일민주의는 이같은 상황하에서 인간주의와 민주주의로 된 민족주의로서 이에 의한 교육을 일민교육 또는 민주적 민족교육이라 하였다.¹⁷⁵⁾

175)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 探求堂, 1988, p.582.

2. 문교부의 발족

정부수립후 교육을 관장할 주무부서인 문교부가 발족되었다. 문교부는 미군정하의 학무국이 그 바탕이 되었다. 1945년 9월 미군정이 시작되자 吳天錫, 崔鉉培, 崔承萬 등이 미군정의 교육행정에 참여하였고, 동년 12월에 俞億兼이 학무국장으로, 오천석이 차장으로 취임하였다. 그후 1946년 1월에는 4실·編修課·초등교육과 등 7과로 편성되었으나 그해 3월 29일 문교부라 개칭하고, 과를 국으로 개편하였으며 동년 7월 10일 다시 기구의 개편으로 7국 1관 21과의 편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편제가 정부수립까지 존속되었다. 정부수립후 문교부는 1948년 11월 5일 장·차관을 두고, 그아래 5국 1실 22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다(대통령령 제22호). 1948년 11월 5일 현재 문교부의 기구를 보면 <圖 1-8>과 같다.



<圖 1-8> 정부수립 당시의 문교부 기구¹⁷⁶⁾ (1948. 11. 5 현재)

※ 1949年 10月 5日字로 文化局 生活改善課 廢止

176)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앞의 책, p.221.

3. 학도호국단의 설치

정부수립후 교육과 관련된 특기할만한 사실은 학도호국단의 조직과 운영이었다. 학도호국단은 1949년 4월 20일경 발족되었다.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당시의 성격과 목표를 보면

- 우리학도는 화랑도의 기백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반민족적 행동과 반국가적 사상을 철저히 쳐부수고 국토통일과 조국 방위에 결사 헌신한다.
- 우리 학도는 학원을 바로 잡아 민족문화 양양을 위하여 분투 노력한다.
- 우리학도는 민족적 양심을 굳게 갖고 자주독립의 정신밑에서 민족 도덕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 솔선 매진한다.

고 되어있다.

학도호국단은 중학교이상의 각급학교에 있어서 학생과 교원을 단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반공사상교육을 실시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정립하며, 유사시에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도록 대비하였다.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학생 2,400명을 선발하여 중앙학도훈련소에 입소시켜 단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지도 교관의 부족, 국군 장교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고·대학의 체육 담당자 287명을 모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시켜 교육을 시킨후 육군 소위로 임명하여 당해 학교에 배속시켰다. 문교부는 1949년 1월 23일 「학도호국단조직령」을 공포하고, 중학교는 2월중에, 대학은 3·4월중에 결성을 완료하고, 4월 22일에 「중앙학도호국단」의 결성을 보게 됨과 동시에 문교부에는 이 사무를 관장할 학도호국단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그 해 9월 28일에는 대통령령 제186호로 「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학도호국단은 1949년~1960년간에 한국현대교육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것이며, 일민주의 교육은 지나친 중앙집권적 획일주의적이었다는 인상을 받기도하였다.

III. 6·25戰爭과 教育의 試鍊

1. 전시하의 문교부와 교육비상조치

1950년 5월 30일 선거에 의하여 제2대 국회가 개원된지 20여 일만에 한국전쟁(6·25)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자 문교부는 1951년 1월 7일 부산시청을 임시청사로 하고, 그해 2월 26일자로 「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을 발표하여 중단되었던 수업을 재개할 것을 시달하였다.

그리하여 피난학생은 피난 소재지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교실, 분교장, 특별교실 등을 설치하고, 북한 피난학생의 피난지학교 수용, 도시(대구·대전·부산·광주등)피난학교의 설치, 전시 연합대학의 설치, 생벽돌교사의 건축, CAC원조로 임시교사의 건축, 전시 교재의 발행(초등은 전시생활, 중등은 전시독본) 등이었다.

〈表 1-59〉 초·중등학교용 전시교재¹⁷⁷⁾

교 재 명	1 집	2 집	3 집
戰 時 生 活 (1)	비행기	탱크	군함
戰 時 生 活 (2)	싸우는 우리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씩씩한 우리 겨레
戰 時 生 活 (3)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우나?	우리도 싸운다.
戰 時 讀 本	침략자는 누구냐?	자유와 투쟁	겨레를 구원하는 정신

〈表 1-60〉 전시하 국민학교의 교과목 및 연간 시간배당¹⁷⁸⁾

학 년 교과목	1	2	3	4	5	6
국 어	245	245	245	245	245	245
사 회	140	140	175	175	210	210
이 과				140	140	140
산 수	140	140	175	175	175	175
보 건	35	35	35	35	35	35
음 악	35	35	35	35	35	35
미 술	35	35	35	35	남105, 여70	남105, 여70
가 사					70	70
계	630	630	700	840	남980, 여945	남980, 여945

※ 1. 5·6학년은 매주 2시간 이상의 근로작업을 과할 것
2. 1시간은 40分 내지 45分으로 한다.

177) 韓國教育三十年史編纂委員會, 《韓國教育三十年史》, 四和書籍株式會社, 1980, p.62.

178) 韓國教育十年史刊行會, 《韓國教育十年史》, 豐文社, 1960, p.138.

그후 1951년 5월 4일에는 문교부령 제19호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을 공포하여 연합대학을 설치 운영케 함으로써 세계교육사상 전례없는 전시하의 대학 운영에 관한 사례를 남겼다.

전시연합대학은 白樂濬과 兪鎮午 등이 교수단과의 협의에 따라 발족한 것으로서 이 결과 중단된 고등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피난처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피난지에서 이산된 교수와 학생들을 모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교육을 일시적으로나마 지방에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대학의 지방분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들 전시연합대학의 학생수를 보면 부산전시연합대학이 4,268명, 대전전시연합대학이 377명, 전북전시연합대학이 1,283명, 광주전시연합대학이 527명 등으로 모두 6,455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이들 전시연합대학에 동원된 교수의 수만도 444명이었다.¹⁷⁹⁾ 이러한 전시연합대학은 약 1년간 계속되다가 1952년 5월말에 폐지되었다.

당시의 교육중점은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황과 국제안전집단보장의 인식을 명철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방침으로 ① 도덕교육, ② 일인일기교육, ③ 국방교육 등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한편 6·25전쟁으로 미루어 오던 교육자치제가 1952년 4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무부 관료들에 의해 이를 폐지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1·2공화국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 공적은 의무교육을 추진한 일이라는 점이다.

백낙준의 뒤를 이어 金法麟이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하여 그는 전후의 복구와 재건, 건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자 교육방침을 전시문교, 건국문교, 독립문교라는 3가지를 내걸었다. 그는 교육개선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개편,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국가고시제 실시, 1도1교 공립대학 설치, 국민학교에서의 상용한자 1,000자 교수(4학년 300자, 5학년 300자, 6학년 400자), 교육과정의 혁신(경험·생활중심 교육중시, 자치활동과 과외활동 중시)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6·25전쟁중에 종래의 후원회를 「사친회」로 바꾸어 발족함으로써 재정적 후원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1951년에 사친회에 관한 지시령, 1952년에 1월에 ‘사친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건’을, 1953년 2월에는 ‘師親會規約準則’과 ‘師親會監督規程’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친회는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운영의 역기능도 나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79) 白樂濬, 《韓國教育和 民族精神》, 文教社, p.286.

연령					학령
27					21
26	대 학 원 (2 년)				20
25					
24	의 과				18
23					
22					16
21					
20	초급대학	대 학	사범대학		14
19					
18	고 등 학 교		사범학교		12
17					
16			고등기술학교		10
15					9
14	중 학 교			기 술 학 교	8
13					
12					6
11					
10	국 민 학 교				4
9					
8					2
7					
6					
5					
4	유 치 원				

〈圖 1-9〉

정부수립후의 학제¹⁸⁰⁾(1951. 3)

〈表 1-61〉

피난지구 초·중등학교 현황¹⁸¹⁾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사 수	비 고
피난지				
부 산	초등 24	32,927	404	초등은 1953년(1월 3일현재), 중등은 1952년말 현재임.
	중등 45	18,736	611	
대 구	초등 14	11,705	134	
	중등 4	3,134	73	
대 전	초등 3	2,587	27	
	중등 1	1,196	21	
수 원	초등 2	1,195	15	
	중등 1	1,524	35	
안 성	초등 1	182	6	
	중등 1	419	12	

180) 韓基彦, 앞의 책, p.370.

181) 《大邱市史》3, pp.644~645.

〈表 1-62〉 대학복 시기의 고등교육 실태¹⁸²⁾

區 分 年 度	機 關 數					學 生 數	教 員 數
	大 學 校	大 學	初 級 大	各 種 學 校	計		
1952	8	27	9	10	54	31,342	1,823
1953	13	27	4	13	57	38,411	1,900
1954	13	31	7	15	66	62,663	2,400

〈表 1-63〉 6·25전쟁중 파손된 교실수 및 복구상황¹⁸³⁾

학교별 파괴수 기관별 복구교실수	전 파 (전 괴)				반 파 (반 괴)			
	국민학교 7,899	중 고 교 2,430	대학·기타 562	계 10,891	국민학교 8,161	중 고 교 2,844	대학·기타 1,057	계 12,063
CRİK					563	402	35	100
UNKRA	2,016	1,117	186	3,319	372	78		450
ICA	746	752	192	1,690	15	25		40
AFAK	1,152	1,027	147	2,326				
기 타 원 조 계 획			230	230				
외 원 교 실 수 합 계	3,914	2,361	404	6,679	950	505	279	1,734
복 구 증 축		535	351	886				
지 방 자 체					2,180	1,839	704	4,723
미 복 구	3,985	69	158	4,212	5,032	500	74	5,606

2. 정부의 환도와 교육재건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6·25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우리민족은 통일없는 휴전을 반대하면서 전국민적 시위를 벌였다. 휴전을 계기로 정부가 환도하여 1953년 8월에 각 기관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이어 정치, 사회경제, 문화, 교육,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건에 착수하였다. 50%에 달하는 교실과 80%에 달하는 직업 및 고등교육시설이 파괴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였다. 특히 전후의 시설복구와 재건을 위하여는 외국기관의 원조에 힘 입은바 크다. 당시 한국교육의 재건에 참여하였던 외국의 원조기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2) 文教部, 《文教概觀》, 1958, p.96.

183) 《慶尙北道史》中, 1983. p.1000.

- ① 유엔민사처(Civil Assistance Command, :CAC)
- ② 유엔 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Reconstruction Agency, :UNKRA)
- ③ 대한민국사원조단(Armed Forces Assistance Korea, :ARAK)
- ④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 ⑤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 ⑥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 :AFK)
- ⑦ 미국원조물자발송협회(Cooperative for American Remittance to Everywhere, Inc, :CARE)
- ⑧ 한미장학위원회(Fulbright Scholarship Commission)
- ⑨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이밖에도 종교단체, 자선단체, 재단 등을 비롯하여 여러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미국교육사절단(American Education Team)의 활동은 1952년부터 3년에 걸쳐 3차내한하여 10개월씩 체류하면서 기술원조라는 명목으로 교사교육,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조언하였고 미국의 피바디사범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1956년부터 1961년까지 교사교육과 도서관교육을 중심으로 조언하였다. 전후의 복구와 재건에는 외국기관의 도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주적 노력고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수립후 착수하려다가 6·25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교육과정은 1952년 재개되었다. 몇차례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1954년 4월 20일에는 「문교부령고시 제35호」로 각급학교의 교과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을 작성·공포하는 한편, 1955년에는 각급학교의 교과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교과서도 이에 맞추어 편찬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편찬에는 미국의 물홀랜드(Vester. M, Mulholland)를 단장으로 하는 교육사절단의 조언도 적지 않았으나, 독자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미국의 영향을 본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시기의 교육정책의 주안점은

- ① 전란으로 파괴된 교육시설의 복구
- ② 교원의 수급·양성·인사 등에 관한 체제의 확립
- ③ 반공 및 도의교육의 강화와 교육과정 개선
- ④ 의무교육의 실질적 추진
- ⑤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⑥ 교과서의 개선, 연구기능의 강화, 입시제도의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 강화
- ⑦ 교육재정제도의 정비확립

등으로 이같은 정책은 李瑄根, 崔奎南, 崔在裕같은 장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대학교육에 관해서는 1955년 8월 4일 「대학설치기준령」을 대통령령 제1063호로 공포하여 대학의 시설기준과 교원 등에 관한 소정의 기준에 도달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대학, 일부학과에 대한 정비가 단행되기도 하였다. 1950년대의 고등교육의 실태를 보면 <表 1-64>와 같다.

<表 1-64> 고등교육의 실태¹⁸⁴⁾(1955~60)

	고 등 교 육 기 관 수					학 생 수	교 원 수
	대 학 교	대 학	초급대학	각종학교	계		
1955	15	30	6	20	71	78,649	2,564
1956	15	30	8	21	74	84,996	2,626
1957	15	32	9	23	79	80,142	3,055
1958	NA	NA	NA	NA	79	79,449	4,315
1959	18	33	10	19	80	81,641	3,356
1960	18	35	10	22	85	101,041	3,803

※ NA : not available(자료없음)

이시기에는 1951년 3월 30일 문교부령 제17호로 연구학교규정을, 1955년에는 훈령 제10호로 국민학교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1956년에는 훈령 21·24호로 중·고등학교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각각 바꾸었다. 이처럼 전후의 복구와 재건으로 국민생활이 안정되면서 한편 교육인구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1945년 해방당시 국민학교수는 2,834개교에서 1960년에는 4,620개교로 62.3%나 증가하였고, 학생수도 1,366,024명에서 3,599,627명으로 2.6배나 늘어났으며, 중학교는 97개교에 50,343명이었던 것이 1,053개교에 528,614명으로 증가하여 학교수는 11배, 학생수는 10배나 늘어났다. 고등학교는 인문·실업계를 합쳐 224개교에 84,363명이었던 것이 640개교에 263,563명으로 학교수는 3배, 학생수는 3.1배로 늘어났으며, 대학의 경우도 19개교에 7,819명이었던 것이 63개교에 93,819명으로 학교는 33배, 학생수는 12배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학교수나 학생수가 증가된 것은 교육열의 증가, 학령 인구의 증가, 문교부의 교육기획 확대, 대학교육의 대중화, 초·중·고 졸업자의 취업난 등의 결과라 생각된다.

184) 金鍾喆, 《韓國高等教育研究》, 培英社, 1979, p.70 및 p.77.

IV. 1950年代의 大邱教育

1. 대구교육의 방향

1950년대의 대구교육의 방향은 '50년대의 장학방침에 의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장학방침에 따라 ① 반공교육, ② 과학·기술교육, ③ 건강교육을 기본방침으로 수립하였다. 각급학교에서는 국민사상의 통일과 정신교육을 강화하고자 반공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을 강화하고, 문교부에서 제정한 反共防日教育요강 및 反共讀本을 활용하였다.

한편 과학교육방안을 혁신하고 실업교육을 강조하여 생산교육을 강화하였다. 건강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지도의 효율화로써 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을 국방력과 관련시켜 군사훈련도 실시하였다.

1957년에는 의무교육 6개년계획을 세워 의무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내용이나 방법면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에 준한 실질적 인간육성에 역점을 두고 도의의 양양으로 인간성의 도야, 애국·애족사상의 고취, 협동심과 책임감의 육성, 勤勞力行政心の 함양과 실천구현에 이바지하고, 도의교육의 핵심을 사도채신에 두고 모든 교육자가 신념을 가지고 도의교육의 구감이 되도록 하였다.

2. 대구의 학교교육

1) 국민학교

6·25전쟁으로 대구는 별다른 전화는 없었으나 1·4후퇴로 피난민이 쇄도하였을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군에서 점령하였기 때문에 대구의 학교교육이 극심한 시설부족에 봉착하였다. 게다가 피난민학생들까지 수용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시설의 부족으로 로천교육, 야외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산곡에서 들에서, 천막속에서, 또는 폭양아래에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시내 국민학교에 피난민 학생들을 수용하려 하였으나 아동의 등교 기피현상이 일어나 부득이 달성공원, 내당동, 신암동 등에 피난학교를 설치하여 당시 14개교에 학생 11,705명, 교사 134명이 있었다.

195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이로부터 의무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대구시에는 1952년에 70%였던 취학률이 1년뒤인 1953년에는 93%, 1956년에는 97%로 증가하여 1957년에는 100% 취학하였다. 이같은 취학율의 증가에 비하여 교실수의 확충률은 미치지 못하여 2부제 수업사

第1章 教 育

태가 계속되었다. 1952년이후부터 1960년까지 적령 아동의 취학률과 국민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65〉 적령아동의 취학률¹⁸⁵⁾

연 도	적령아동수	미취학아동수	입학아동수	입 학 비 율
1952	8,517	2,607	5,910	70%
1953	10,304	761	9,543	93%
1954	15,368	979	14,389	94%
1955	14,946	747	14,199	95%
1956	13,215	260	12,950	97%
1957	10,699	2	10,997	100%
1958	14,332	298	14,034	98%
1959	19,134	303	18,831	98%
1960	18,985	306	18,679	98%

〈表 1-66〉 대구시 국민학교 현황¹⁸⁶⁾

연 도	학 교 수	학 급 수	교 실 수	학 생 수	교 원 수
1958	국립 1 공립 42 사립 1 계 44	1,167	정교실 419 가교실 192	81,626	1,146
1959	국립 2 공립 42 사립 1 계 45	1,271	정교실 467 가교실 262	90,852	1,256

단위: 명

〈表 1-67〉 대구시 초등교육 취학상황¹⁸⁷⁾ (1957)

구분 시·도·명	총 수			불 취 학				현재취학자		졸 업 자					
				국		문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교	
	해			부			남	여	남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대 구	609,316	293,691	315,625	38,678	59,959	72,457	94,846	84,662	69,189	62,463	73,815	29,454	17,031	5,977	775

185) 《大邱市史》 3, p.651.

186) 위의 책, p.661.

187) 《大邱教育史》, p.344.

1954년에 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68〉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기준¹⁸⁸⁾(1954. 4. 20)

학년 시간수 교과	1	2	3	4	5	6
국 어	25~30%분 (240~290분)	25~30%분 (250~300분)	27~20%분 (290~220분)	20~23%분 (220~260분)	28~18%분 (240~220분)	20~18% (250~220분)
산 수	10~15 (100~140)	10~15 (100~150)	12~15 (130~160)	15~10 (170~110)	15~12 (180~120)	15~10 (190~120)
사 회 생 활	10~15 (100~140)	10~15 (100~150)	15~12 (160~130)	15~12 (170~130)	15~12 (180~140)	15~12 (190~150)
자 연	10~ 8 (100~ 80)	10~ 8 (100~ 80)	10~15 (110~160)	13~10 (140~110)	10~15 (120~180)	10~15 (120~190)
보 건	18~12 (170~120)	15~12 (150~120)	15~10 (160~110)	10~12 (110~130)	10~12 (120~140)	10~12 (120~150)
음 악	12~10 (120~100)	15~10 (150~100)	8~10 (190~110)	8~ 5 (90~ 60)	8~ 5 (100~ 60)	8~ 5 (100~ 60)
미 술	10~ 8 (100~ 80)	10~ 8 (100~ 80)	8~10 (90~110)	7~10 (80~110)	10~ 8 (120~100)	10~ 8 (120~100)
실 과				7~10 (80~110)	7~10 (80~110)	7~10 (90~130)
특 별 활 동	5~ 2 (50~ 20)	5~ 2 (50~ 20)	5~ 8 (50~ 80)	5~ 8 (60~100)	5~10 (60~120)	5~10 (60~120)
계	100% (960분)	100% (1,000분)	100% (1,080분)	100% (1,120분)	100% (1,200분)	100% (1,240분)
1년간 총수 업 시간수	840시간 (24)	875시간 (25)	945시간 (27)	980시간 (28)	1,050시간 (30)	1,085시간 (31)

※ 1. 백분율은 각 교과 및 활동의 1년간 수업시간수에 대한 학년별 시간 배당량을 표시함.
2. ()내는 매주 평균 수업시간량을 표시함.

특히 도심지 일류학교에 집중하는 폐단을 막고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균등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학구제를 실시하였는바 당시의 학구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88) 大韓敎科書株式會社, 《韓國敎科敎育課程의 變遷》, 1990, p.8.

〈表 1-69〉

대구시 국민학교 통학구역¹⁸⁹⁾

연번	학교명	통 학 구 역
1	대 구	1. 봉산동 1구중 중앙파출소부터 삼덕우체국도로 이남(1반부터 5반, 9반부터 11반까지 제외) 2. 봉산동 2구 3. 대봉동 3구중 삼덕동 우체국부터 팔군단 정문도로 이서(1반부터 10반, 12반부터 26반, 39반) 4. 남산동 6구중 중앙통 이동(1반부터 27반까지) 5. 덕산동중 중 앙로 이동(22반부터 24반, 35반부터 50반까지) 6. 종로구중 24반(중앙파출소 남편) (동 성로 3가중)
2	수 창	1. 수창구 중 서성로 도로 이서(6, 8, 9반과 10반부터 12반까지 제외) 2. 서성로 구중 구 서야 인교동과 서성로 1, 2가중 25, 27, 29, 33, 35, 39반 제외 3. 달성동중 달서천 이동 (1반부터 20반까지와 46반) 4. 서성구 중 자갈마당부터 동산병원도로 이동까지(구 동산 동 시장 북로중 18반부터 23반까지와 서문로2가)
3	서 부	1. 비산동 2구중 4구 2. 비산동 3구(중 1반부터 24반까지 제외) 3. 비산동 4구중(1반부터 6반까지 제외) 4. 평리동 1구중(13반부터 16반까지 제외) 5. 평리동 2구중(1반부터 4반 까지 제외) 6. 달성동 2구중 달서천이서(1반부터 20반까지와 45반 제외) 7. 내당동 3구
4	남 산	1. 남산동 1구 2. 남산동 2구 3. 남산동 3구중(1반부터 8반, 10부터 12반, 29반부터 42반 까지) 4. 대신동중(21반부터 36반까지)
5	삼 덕	1. 삼덕동 3가 2. 대봉동 1구중(1반부터 28반까지) 3. 대봉동 3구중(27반부터 38반까지와 40반) 4. 수성동 2가중(4반부터 6반, 14반부터 21반까지) 5. 신천동 3구중(1반부터 7반 까지와 17반 19반까지) 6. 대봉동 2구(중 1반부터 7반까지)
6	달 성	1. 원대동 3가중 삼호방직 남편도로 이남(25반부터 30반까지와 21, 31반의 반은 제외) 2. 태평로 3가중(경부선 철로 이북) 3. 태평로 3가 2구
7	칠 성	1. 칠성동 2가 2구중 1반부터 42반까지(대한방직구내 제외) 2. 침산동 2구중(8반부터 16 반까지 제외) 제2변전소 남편도로 이남 3. 침산동 3구 4. 산격동 1구 5. 산격동 2구중 (6, 7반제외) 6. 칠성동 2가 1구중(4, 12반과 14반부터 42반까지) 7. 칠성동 2가 2구중 (35, 41반)
8	동 도	1. 범어동 2. 만촌동 2구 3. 황청동 중(1반부터 6반까지) 4. 수성동 2가중(1반부터 3반, 7 반부터 13반, 22반부터 26반까지) 5. 신천동 3구중(8반부터 16반까지와 18반, 22반부터 25반까지) 6. 효목동
9	명 덕	1. 남산동 3구중(43반부터 51반까지) 2. 남산동 2구 3. 대명동 2구 5구 7구 4. 대봉동 3 구(중 1, 2, 35, 38반 제외)
10	인 지	1. 비산동 1구 2. 비산동 2구중 3구 3. 원대동 1구중(78반과 12반부터 19반까지 제 외) 4. 원대동 2가

189) 《大邱市史》3, pp.661~663.

연번	학교명	통 학 구 역
11	대 성	1. 비산동 3구중(1반부터 34반까지) 2. 비산동 4구중(1반부터 6반까지) 3. 대신동 중(자갈마당부터 동산병원도로 이서)(구 대신동 1구 29반부터 54반, 구 시장북로의 24반부터 28반까지) 4. 대신구(중 구대신동 2, 3구) 5. 내당동 2구중(구 내당동 5구 6구)
12	중 앙	1. 동성구 2. 교동 3. 삼덕동 1·2가 중 교도소 서편도로 이서(구삼덕동1가) 4. 동성로 1구 중앙로 이동(구 동성로 1가 화전동 북성로 1가중 1반부터 4반, 6반부터 10반, 21반부터 25반까지와 42반) 5. 서문구중 중앙로 이동(구 포정동 1반부터 3반까지) 6. 동인동 1·2가중 시청 한전간도로 이서(44, 52, 53반과 51반의 서편) 7. 종로구 중앙로이동(구 동성로 3가, 사일, 남일동중 1, 2반, 18반부터 42반까지) 8. 봉산동 1구중 중앙과출소로부터 삼덕우체국 이북까지(1반부터 5반 9반부터 11반까지)
13	수 성	1. 상동 2. 중동 3. 수성동 1가(일부 4. 봉덕동 2구
14	동 인	1. 동인동 3가 2. 동인동 4가
15	북 명	1. 남산동 3구중(9반과 13반부터 28반까지) 2. 남산동 2구 3. 남산동 3구중 중앙로 이서(28반부터 39반까지) 4. 덕산동 중 중앙로 이서(1반부터 21반까지와 25반부터 34반까지) 5. 남성구중 계산동 1,2가
16	종 로	1. 동성로 1가중 중앙로 이서(구 향촌동, 태평로 2가, 화전, 북성로 1·2가) 2. 서문구 중앙로 이서(구 대안, 북내, 서내, 서문로 1가, 포정동중) 3. 종로 1·2가 동일, 전동과 남일, 동성로 3가, 사일동의 중앙로의 이서 4. 남성구중(구상서, 하서, 남성동, 수동, 장관동) 5. 서성구중(25, 27, 29, 33, 35반 39반) 6. 수창구중 서성로도로 이동(6, 8, 9반과 10반부터 12반까지)
17	신 암	1. 신암동 1구중(10, 18, 19반과 38반부터 45반까지 제외) 2. 신암동 2구 3. 신암동 3구 4. 신암동 4구 5. 신천동 2구
18	문 성	1. 검단동 2. 복현동 3. 산격동 4. 산격동 3구중(7, 8반)
19	대 봉	1. 대봉동 2구 2. 봉덕동 1구
20	대 명	1. 대명동 1구 2. 성당동
21	노 곡	1. 노곡동
22	중 리	1. 중리동 1,2구 2. 상리동 1,2구 3. 평리동 중(13반부터 16반까지) 4. 이현동 5. 내당동 1구(중 12, 13, 14반)
23	내 당	1. 내당동 1구(중 2, 13, 14반 제외) 2. 내당동 3구 3. 내당동 4구 4. 내당동 5구
24	침 산	1. 침산동 구 2. 침산동 2구중 제2변전소 남편 이북(8반부터 16반까지) 3. 침산동 4구 4. 원대동 1가중(7, 8반 및 12반부터 19반까지) 5. 원대동 3가중 삼호방직 남편도로 이북(25반부터 30반까지와 21반 31반의 북반) 6. 칠성동2가 2구중 대한방직 구내(43반부터 55반까지) 7. 조야동

第1章 教 育

연번	학교명	통 학 구 역
25	봉 덕	1. 동인동 1,2가중 시청 한전간 도로 이동(44, 52, 53반과 51반의 서편 제외) 2. 삼덕동 1,2가 구중 교도소 서편 도로 이동(구 삼덕동 2가) 3. 대봉동 1구(중 29반부터 50반까지)
26	지 산	1. 범물동 2. 지산동 3. 두산동 4. 황천동 1구 5. 황천동 중 7, 8, 9반
27	옥 산	1. 칠성동 1가 2. 칠성동 2가중(4, 12반부터 14반까지 제외) 3. 칠성동 2가 2구 중 35, 41반
28	공 산	1. 백안동 2. 도학동 1구 2구 3. 진인동 1구 2구 4. 능성동 1구 2구 5. 미곡동 6. 용수동 7. 미대동 8. 내동 9. 신무동 10. 평광동
29	성 북	1. 서변동 1구 2구 3구 2. 동변동 3. 연경동 1구 2구 4. 지묘동 3구
30	서 촌	1. 중대동 1구 2구 2. 송정동 1구 2구 3. 덕곡동 1구 2구 3구 4. 신흥동 5. 지묘동 1구 2구
31	해 안	1. 부동 1, 2, 3구 2. 돈산동 1, 2, 3, 4구 3. 검사동 1, 2구 4. 신평동 2구
32	동 촌	1. 방촌동 1, 2, 3구 2. 검사동 3, 4구 3. 신평동 1구 4. 지저동 중구 1구(대구선 이남) 5. 입석동
33	해 서	1. 불로동 1, 2, 3, 4구 2. 도동 1, 2, 3구 3. 봉무동 1, 2, 3, 4구 4. 지저동 중구 2구(대구 선 이북)
34	월 배	1. 상인동 1, 2, 3, 4, 5구 2. 도원동 1, 2구 3. 진천동 1, 2, 3구 4. 류천동 5. 대천동 6. 원성동 1, 2구 7. 월암동
35	성 서	1. 파산동 2. 파호동 3. 호재동 4. 갈산동 5. 강동 1, 2구 6. 신당동 1, 2, 3구 7. 장기동 8. 이곡동 1, 2구 9. 용산동
36	본 리	1. 본리동 1, 2, 3구 2. 송현동 3. 감산동 1, 2구 4. 죽전동
37	가 창	1. 대일동 2. 냉천동 1, 2구 3. 부정동 4. 상원동 1, 2구 5. 단산동 6. 옥분동 7. 충우동 1, 2구 8. 광산동
38	용 계	1. 파호 2. 오동 3. 용계 1, 2, 3구
39	우 립	1. 삼산동 1, 2구 2. 우록동 1, 2구
40	정 대	1. 정대동
41	신 천	1. 신천동 1구 2. 신천동 3구중(20반부터 21반까지와 26반부터 35반까지) 3. 신천동 4구 4. 신천동 5구
42	아 양	1. 신암동 1구중(10, 18, 19반과 38반부터 45반까지) 2. 신암동 5구 3. 효목동 2구 4. 만촌동 1구

또한 연구학교 규정이 1951년 3월 30일 부령 제17호로 공포됨에 따라 여러국민학교가 문교부 및 도지정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교육의 이념과 기술을 연구 실천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였는데 1951년부터 59년까지의 연구학교를 보면 <表 1-70>과 같다.

<表 1-70> 연구학교 지정현황¹⁹⁰⁾

지정 학교	지정 기간	지정 구분	연구 영역	당시학교장
大邱中央國校	1953. 6. 1~1958.	文 教 部	學 習 指 導	李 壽 完
大邱東仁國校	1954. 6. 3~1956. 6. 30	中央教育研究所	體 育 科	朴 基 鎮
大邱三德國校	1955. 4. 1~1957. 3. 31	道 指 定	道 德 科	柳 千 壽
大邱南山國校	1956. 4. ~	道 指 定	科 學 科	金 長 哲
大邱南山國校	1958. 1. ~	文 教 部 委 囑	實 科	曹 光 支
大邱南山國校	1958. 10.	文 教 部 委 囑	實 科	曹 光 支
大邱壽昌國校	1958. 7. 8~	道 指 定	自 然 科	崔 君 七
大邱南山國校	1959. 4. ~	道 指 定	生 產 教 育	曹 光 支

2) 중등교육

1945년 해방당시 대구시내의 중학교는 14개교였으나 1949년에는 국립1, 공립8, 사립7, 모두 16개교에 학생은 31,183명, 교원수 514명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자 피난민들이 대구에 밀려옴에 따라 피난민 학생들이 이곳으로 많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이들 피난민 학생들을 위한 전시특별조치요강이 발표됨에 따라 대구에서도 피난민 학생들을 모아 피난학교를 설치하거나 수개의 학교가 연합하여 연합중·고등학교를 개교하게 하고, 그외에 특설학교나 분교장을 설치하여 비상조치를 강구하였다. 이 당시의 중·고등학교는 모두 26개교(사립중학9, 공립중학5, 사립고등학교7, 공립고등학교5)가 있었다.

부산에서 피난학교들이 속속 개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도 피난하고 있던 서울시 교육관계자들이 달성군청내에 서울시 연락사무소를 두고 이곳에 모여 당국의 협조를 얻어 1951년 9월 20일경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를 개설 운영하였다. 이 연합중학교 개설 운영에 참가한 사람은 대구시 피난초등교육 담당관 崔允秀 장학관, 李圭鉉 중등담당 장학사, 학교장직을 맡은 孫貞順(영동포 여중)외 12명이었다. 6·25당시 3학년 학생의 일부는 경북중학교 가교사(대구교외기와굴)에서 다부원, 가산 격전의 포성을 들으면서 소개령이 언제 내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수업을 받았다. 광복당시 대구의 중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0) 慶尙北道教育委員會, 《慶北教育史料》, 1982, p.470.

〈表 1-71〉 광복당시 대구시 중학교 현황¹⁹¹⁾

학 교 명	설립구분	설 립 연 도	위 치	학 생 수	교 원 수
계 성 중 학 교	사 립	1906. 10. 15	신 정 (제 일 교 회)	547	25
신 명 여 자 중 학 교	"	1907. 10. 23	남 산 정	368	18
대구공립농림학교	공 립	1910. 5. 10	동 인 정	900	28
대 구 여 자 중 학 교	"	1915. 2. 18	"	371	39
경 북 공 립 중 학 교	"	1916. 5. 16	동 본 동 (향 교)	460	20
대구공립중학교	"	1921. 4. 19	대봉정	?	?
대 룬 중 학 교	사 립	1921. 9. 15	팔 운 정	500	22
대구공립상업학교	공 립	1923. 2. 16	대 봉 정	401	32
대 구 사 범 학 교	"	1923. 4.	"	470	?
대구공립공업중학교	"	1925. 4. 1	사 천 대 전 정	314	16
경 북 여 자 중 학 교	"	1926. 4. 15	남 산 정	569	28
오산농림실수학교	사 립	1939. 10. 9	동 화 사	?	?
대구여자상업학교	공 립	1945. 4. 20	봉 산 정	200	11
대 성 중 학 교	사 립	1945. 10. 20	남 산 동	?	?

〈表 1-72〉 피난 대구연합중학교 상황¹⁹²⁾ (1952. 5)

교실수	교 직 원 수			학 년 별 학 급 수 및 학 생 수									
보 통	남	여	서무 직원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계		학급수	학 생 수
				학급수	학 생 수	학급수	학 생 수	학급수	학 생 수	학급수	학 생 수		
가 28	46	9	2	5	중학부 608	5	중학부 432	3	중학부 343	13	중학부 1,383		
					고등부 475		고등부 318		고등부 249		고등부 1,042		

이같이 운영된 피난대구연합중학교는 1954년 3월 잔유학생과 교사, 시설일체를 피난학교 소재지 교육구에 이관하고, 동년 3월 31일 폐쇄되었다. 환도이후 대구의 중학교는 국민학교의 취학률이 높아지고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1959년에는 국립2, 공립8, 사립21, 모두 31개교로 증가되었으며, 학급수는 366학급에 학생수는 22,943명, 교원수는 566명이었다. 이같은 대구시 내의 중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1) 앞의 책, p.548.

192) 《大邱教育史》, p.472.

〈表 1-73〉

대구시 중학교 현황¹⁹³⁾

① 공립 남자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일자	소 재 지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병 설 학 교
경북사대부속중학교	1946. 10. 15	대봉동 60	21	1,284	34	경 북 사 대 부 고
경 북 중 학 교	1916. 5. 15	대봉동 124	22	1,334	33	경 북 고 등 학 교
대 구 중 학 교	1921. 4. 19	대봉동 257	24	1,461	35	
경 상 중 학 교	1951. 8. 20	대명동 1895	33	1,995	50	
경 일 중 학 교	1954. 5. 17	원대동 1505	24	1,487	35	
대 구 동 중 학 교	1960. 2. 28	수성동 32	15	917	18	

② 공립 여자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일자	소 재 지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병 설 학 교
경북여자중학교	1960. 2. 18	남산동 710	22	1,338	32	경 북 여 자 고 등
대구여자중학교	1915. 11. 8	동인동 42	24	1,452	35	
제일여자중학교	1951. 8. 20	봉산동 230	24	1,449	35	

③ 사립 남자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일자	소 재 지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재 단
영 남 중 학 교	1947. 4. 18	대명동 2461	30	1,837	43	영 남 교 육 재 단
계 성 중 학 교	1906. 10. 15	대신동 277	30	1,889	52	계 성 교 육 재 단
대 룬 중 학 교	1942. 4. 9	수성동 624	30	1,815	50	대 룬 교 육 재 단
능 인 중 학 교	1939. 10. 9	대봉동 650	29	1,785	47	능 인 학 원
대 건 중 학 교	1946. 9. 20	남산동 225	30	1,821	33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영 신 중 학 교	1946. 10. 17	신천동 557	28	1,724	37	영 신 교 육 재 단
대 성 중 학 교	1945. 10. 20	봉덕동 565	21	1,297	26	대 성 교 육 재 단
오 성 중 학 교	1952. 2. 8	수성동 96	27	1,610	18	오 성 학 원
대 구 서 중 학 교	1952. 9. 22	비산동 240-2	19	1,118	22	춘 추 속
성 광 중 학 교	1952. 10. 26	칠성동 133	39	2,422	44	남 산 교 육 재 단
청 구 중 학 교	1954. 12. 31	신천동 850	28	1,733	31	청 구 학 원
심 인 중 학 교	1953. 6. 5	대명동 1745	15	928	25	위 덕 학 사
중 앙 중 학 교	1956. 2. 28	신천동 1145	26	1,583	53	경북공업교육재단
경 구 중 학 교	1961. 3. 7	대명동 2380	24	1,456	25	"
협 성 중 학 교	1955. 2. 28	대명동 2148	35	2,109	42	자 해 학 원
선 목 중 학 교	1966. 1. 7	봉덕동 99-3	2	90	5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193) 《大邱市史》3, pp.672~673.

第1章 教 育

④ 사립 여자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 립 일 자	소 재 지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효 성 여 자 중 학 교	1949. 8. 30	대명동 2435	30	1,807	42
상 서 여 자 중 학 교	1955. 2. 25	장관동 1	24	1,482	45
경 명 여 자 중 학 교	1959. 12. 31	칠성동1가 11	28	1,703	32
신 명 여 자 중 학 교	1907. 10. 15	수성동 96	30	1,820	26
성 명 여 자 중 학 교	1907. 10. 23	남산동 2	24	1,464	42
원 화 여 자 중 학 교	1953. 2. 26	대신동 5	30	1,807	30
경 복 여 자 중 학 교	1961. 3. 25	대명동 2148	38	2,319	41
경 일 여 자 중 학 교	1964. 12. 5	대명동 2232	21	1,303	15
상 서 여 자 중 학 교	1966. 3. 19	비산동 240	20	1,208	24
구 남 여 자 중 학 교	1955. 4. 15	내당동 252	23	1,471	24
정 화 여 자 중 학 교	1967. 9. 25	상동 80	12	714	17

1954년에 만든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시간 배당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74〉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¹⁹⁴⁾

구분 \ 학년시간수			1	2	3
구분	교과목				
필수교과	국	어	140(4)	140(4)	140(4)
	수	학	140(4)	105(3)	105(3)
	사	회 생	175(5)	175(5)	140(4)
	과	학	140(4)	140(3)	105(2)
	체	육	70(2)	70(2)	70(2)
	음	악	70(2)	35(1)	35(1)
	미	술	70(2)	35(1)	35(1)
	실	업 가 정	175(5)	175(5)	175(5)
	소 계			980(28)	875(25)
선택교과	실	업 가 정	35 ~ 245(1 ~ 7)	35 ~ 245(1 ~ 7)	105 ~ 175(1 ~ 5)
	외	국 어	105 ~ 175(3 ~ 5)	105 ~ 175(3 ~ 5)	105 ~ 175(3 ~ 5)
	기	타 교 과	0 ~ 105(0 ~ 3)	0 ~ 210(0 ~ 6)	0 ~ 280(0 ~ 8)
특 별 활 동			70 ~ 105(2 ~ 3)	70 ~ 105(2 ~ 3)	70 ~ 105(2 ~ 3)
계			時間 時間 1,190 ~ 1,330(34 ~ 38)	時間 時間 1,190 ~ 1,330(34 ~ 38)	時間 時間 1,190 ~ 1,330(34 ~ 38)

※ ()안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시간을 표시함.

194) 咸宗圭, 《教育課程沿革調查》, 1974, p.234.

〈表 1-75〉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¹⁹⁵⁾

교과목		시간수	학년	1	2	3	내	용
필수교과	국 어 (I)			시간 140(4)	시간 140(4)	시간 105(3)	현대인의 국어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고전 일부를 넣음.	
	사 회	일 반 사 회		105(3)	105(3)	35(1)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민주사회와 공민적 자질을 신장함.	
		도 덕		35(1)	35(1)	35(1)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예를 올바르게 지도함.	
		국 사		104(4)	105(3)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함.	
	수 학			140(4)			1차함수, 2차함수, 대수함수, 3각함수 기타 일반 교양으로 필요한 일반 수학의 기초를 연구함.	
	과 학			140(4)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로 과함.	
	체 육			31(1)	35(1)	35(1)	건강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로 도수 육상경기, 구기, 기계체조(체력검사 등의 실기 지도)	
	음 악			140(4)			성악, 악기, 작곡, 감상에 대한 지도와 연구, 도서, 공작, 서도의 실기 및 그 감상에 대한 지도 연구	
	미 술							
	실업·가정			105(3)	105(3)	105(3)	실업·가정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습득시킨다.	
	소 계			770(22)	490(14)	420(12)		
선택과목	보통과과정	국 어 (II)		105(3)	105(3)	105(3)	현대문, 고전, 문법, 문학, 어학사, 문학사, 한문 등에 관하여 연구	
		사 회	세 계 사		195(3)		현대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세계문화의 유형과 그 발전의 역사를 고찰함.	
			지 리	105(3)			인문 지리를 중심으로 함.	
		수학 II	해 석		105~210(3~6)		수학(Ⅰ)의 기초 위에 해석을 연구함	
			기 하		70~140(2~4)		수학(Ⅰ)의 기초 위에 기하를 연구함.	

195) 文敎部, 《高等學校教育課程》, 1989, pp.22~23.

第1章 教 育

교과목			시간수	학년	1	2	3	내	용		
선택 과 목	과 학	물	리	140(4)			물체의 성질, 원자물리의 기초지식에 관하여 연구함.	필수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 목 중 에서 선택한다.			
		화	학	140(4)			무기화학, 유기화학의 기초지식에 관하여 연구함.				
		생	물	140(4)			동물, 식물, 생리, 위생을 중심으로 생물 전반에 관하여 연구함.				
		지	학	140(4)			지질 광물을 중심으로 하고, 천문, 기상, 해양도 함께 연구함.				
	보 통 과 목	교	련	140(4)	140(4)	140(4)	남학생에게는 필수로 과한다. 군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하여 아울러 심신의 단련을 꾀함.				
		철학·교육			210(6)		논리, 철학개론, 교육원리, 교육사, 교육심리학, 교 육방법 등 중에서 그 기초를 연구함.				
		체	육	0~210(0~6)			체육, 음악, 미술 중에서 선택함.				
		음	악								
		미	술								
	외 국 어	영	어	0~175 (0~5)	0~175 (0~5)	0~175 (0~5)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되, 문장 문법에 대한 기초 능력, 회화 능력 및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독	일							어	
		불	란							서	어
		중	국							어	
	전문 과정	실업기타 전문에 관 한 교과		0~420 (0~12)	0~700 (0~20)	0~770 (0~22)					
특 별 활 동				70(2)	70(2)	70(2)					
총 계 (시 간)				1,190~ 1,365 (34~39)	1,190~ 1,365 (34~39)	1,190~ 1,365 (34~39)					

※ ()는 매주 평균 수업시간량을 표시함.

3) 고등교육

(1)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는 1952년 10월 6일 종전의 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등 3개 대학을 통합하고, 여기에 문리과대학, 법정대학을 신설하여 5개 단과대학으로서 국립종합대학교인 경북대학교로 창립하여 1952년 5월 28일에 개교기념식을 거행하고 출범하였다. 동교는 1953년 3월 28일에 제1회 졸업생 211명을 낸후 1970년 현재 박사 353명, 석사 640명, 학사 11,676명의 영재를 배출한 국내 유수의 지방국립대학으로 70년 현재 부지가 237,085평(782,380.5㎡)이고, 교사는 70,218,885㎡(21,518.45평)이며, 학생수는 4,000명이었다.

(2) 영남대학교

이 학교는 대구대학(1947. 9. 22 설립)과 청구대학(1950. 4. 10 설립)이 1967년 12월 16일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종합사립대학교로서 발족하였다. 대구대학교는 영남대학교로 통합되기 전까지 3,433명을, 청구대학은 3,459명을 각각 배출시켰다. 영남대학교는 영남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학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공헌한 공적은 지대하다. 이 학교는 1967년 12월 16일 학교법인인 영남학원을 설립하고, 그해 12월 22일 영남대학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아 문리과대학, 법정대학, 상경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등 5개 단과대학과 2부대학을 포함하는 종합대학으로서 출발하였다. 1971년 현재 이 학교는 6,000명의 학생수를 가진 영남 최대의 사립종합대학교로서 100만평의 부지에 웅대한 캠퍼스를 건설중이었다.

(3) 효성여자대학교

이 학교는 영남의 유일한 여자대학으로서 1951년 12월 8일 천주교 대구교구유지재단에서 「효성여자학원」을 설립하고, 1952년 4월 동년 5월 15일에 개교하였다가 1953년 2월 18일 4년제 여자대학으로 승격 인가를 받아 이후 계속 발전하였다. 1956년 3월 24일 제1회 졸업식을 가진 이래 1970년 현재까지 2,295명의 여학사를 배출하였으며 1970년 현재 총학생수는 1,274명이었다.

(4) 계명대학교

이 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지회와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부가 협력하여 1955년 2월 5일 재단법인 「계명기독교대학」을 설립하고 동년 2월 25일 「계명기독교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아 출발하였다가 1956년 2월 18일에 계명기독교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65년 5월 20일 교명을 계명대학으로 변경하였다. 이 학교는 1958년 3월 11일 제1회 졸업식을 가진 이후 1970년 현재까지 979명의 졸업생을 내었고, 1970년 현재 총학생수는 701명이었다.

(5) 대구대학교

이 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교법인 榮光學園(원장; 李永植 牧師)을 근간으로 하여 지체부자유, 정신박약, 맹아, 농아 등 불우한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나 유능한 사회사업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대규모의 특수유형의 대학이었다. 1957년 3월 29일 韓國社會事業學校로 인가를 받아 발족하였으며, 1961년 2월 4일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62년 1월 27일 2년제 초급대학으로 되었다가 1964년 1월 21일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70년 현재까지 522명의 졸업생을 내었으며, 1970년 현재 총학생수는 232명이었다.

(6)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는 5·16이후 초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1962년 3월 1일에 대구사범학교를 승격 개편한 2년제 대학으로서 각령 제455호에 의하여 경북대학교 부설교육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1년 뒤인 1963년 3월 1일에 대구교육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경북대학교 金渭錫 교수가 초대학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병설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 1964년 2월 15일 제1회 졸업생 243명(남 153명, 여90명)을 배출시킨 후 1970년 2월 16일 제7회 졸업생까지 1,983명을 배출하여 초등교사의 직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1970년까지 총학생수는 960명이었다.

V. 1960年代의 大邱教育

1. 4·19혁명과 제2공화국의 교육

반공민주국가로 출발한 자유당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정권의 연장을 피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 4월 19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4·19혁명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142명의 목숨을 잃게되었고, 드디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독재하에서 벗어난 민중들은 무질서와 방종으로 전국의 거리와 광장은 대모대의 난무장이 되었으며, 학원은 비민주적 제거운동으로서 학원의 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1960년 4월 29일 許政중심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李丙熙가 문교부장관에 취임하였다. 문교부는 과도정부의 시책으로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의 중립성 확보」라는 3대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7월 29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과도정부의 뒤를 이어 민주당 정부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문교부장관에는 吳天錫이 취임하였다. 문교부는 학생들의 피의 대가로 낡은 역사가 단절되고 새 역사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반공·국방교육의 철저, 생산교육의 강화, 향토교육의 강화, 대학교육의 정비강화, 과학의 진흥, 국민문화의 창달, 국민체위의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제2공화국하에서는 1960년 5월 22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각급 학교의 교원 300여명이 모여 대한교원노조연합회를 결성하고 각 도에는 연합회를 두고 교원노조들이 활동을 하여 한국 현대교육사상 처음으로 교원노조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경북은 7할이나 가입하였다. 교원노조는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안을 반대하였으며,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안도 호응하였다. 이러한 때에 제2공화국은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민중의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4. 19혁명때의 학생선언문

상아의 진리탐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理性과 眞理 그리고 自由의 대학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知性과 良心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 광정하려는 주체적 과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땀땀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知性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民主와 自由를 위장한 전제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自由의 투쟁사이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도 민중 앞에 군림하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같이 헤설픈 것임을 고시한다.

한국의 일천한 大學史가 적색전횡에의 과감한 투쟁의 거획을 장하고 있는데 크나큰 자부름 느끼는 것과 꼭같은 論理의 연역에서 民主主義를 위장한 백색전횡에의 향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간은 自由다. 우리에게서 自由는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理性의 해안으로 직시하자. 이제 막 自由의 戰場엔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당히 가져야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와 투쟁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自由의 戰域은 바야흐로 풍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주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家父長的 전횡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벗었다. 民主主義 理念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專制權力의 악랄한 발악으로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흑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金朱烈의 참시를 보라! 그것은 가식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체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협과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百步를 양보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같은 학창의 良心을 강열히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自由의 햇빛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감감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打手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日帝의 鐵鎖下에 미칠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과 같이 ——

兩心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死守派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2. 5·16과 제3공화국의 교육

1961년 5월 16일 군부의 청년장교들은 오전 10시 ‘軍事革命委員會’의 이름으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을 제시하면서 일체의 옥내외 집회를 금지시키고, 언론, 출판, 보도의 사전 검열을 실시하였다.

군사정부는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교육에 있어서는 인간개조운동과 재건국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였다. 한편 학원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육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미명아래 1961년 9월 1일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고(법률 제708호) 1963년 6월에는 「사립학교법」을 제정공포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유례없이 강화하였다. 또한 교원노조운동을 일체 불법화시켰다.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낮추고 명예교수제도를 신설하였다. 1961년 12월 7일 전국의 18개 사범학교중 10개교를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시키고, 1도1교의 원칙하에 1962년 3월 1일부터 개교하였다. 그러나 1962년 2월 1일부터 시·군단위의 교육자치제는 행정에 병합되어 폐지되었다. 학기제도 1963년 3월 1일부터 신학년의 1학기 실시하였다. 군사정부에서는 1963년 2월 15일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적용하였다.

군사정부는 1963년 11월 26일 총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여 그해 12월 17일 새헌법에 따라 제3공화국의 수립을 봄으로써 해체되었다.

제3공화국하에서는 1964년 1월 1일에 교육자치제를 부활하되 도단위의 자치체로 개편하였다. 1968년 2월 1일 權五炳 문교부장관은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를 공포하여 서울은 1969년부터 실시하고 1970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외수업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었으나 학교시설과 학생의 능력 차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3공화정하의 교육의 일대전환점은 1968년 10월 14일 「대학입학예비고사제도」를 공포하여 실시하였으며, 그해 12월 5일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선포하였다. 이것은 민족중흥과 새 역사 창조라는 한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1964년 민정으로 수립된 제3공화국이 1·2차 경제개발계획의 수행과 그 성공적 결과에 따른 민족중흥과 새 역사 창조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생산성을 강조하고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공부하는 학원의 건설, 민족문화애호사상의 고취 등이 문교 시책으로 중요시 되었다.

특히 4·19혁명이후 혼란하였던 학원가를 바로 잡고 대학을 정비하려는 군사정부는 대학정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1961년 12월 9일 각령 제238호로 학교정비기준령을 공포하여 4년제 대학의 경우 52개교가 50개교로, 628개 학과가 548개 학과로, 91,540명의 정원이 66,410명으로 감축되었다. 1961년도 대학 정비 전후의 대학교육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76〉 대학정비 전후의 대학교육 실태비교¹⁹⁶⁾(1961)

大學 種別	區 分 設 立 別		整 備 前				整 備 後				學生數 增減率	
			學 校 數	學 科 數	學 生 數		學 校 數	學 科 數	學 生 數		%	
					定 員	現 員			定 員	現 員	定 員	現 員
四 年 制	國 立	大 學 校	5	177			6	162				
		大 學	4	17	29,440	30,080	4	17	19,320	32,071	-34%	+6%
	公 立	大 學 校	1	20								
		大 學	4	20	5,240	5,453	2	9	760	1,401	-86%	-74%
	私 立	大 學 校	12	244			12	249				
		大 學	26	150	56,860	93,712	24	111	46,330	82,033	-19%	-13%
	合 計	大 學 校	18	441			20	411				
		大 學	34	187	91,540	129,245	30	137	66,410	115,505	-27%	-11%
初級大學(教育大學包含)	國 立	一 般 大 學	2	10	700	835	—	—	—	—	—	—
		初級教育大學	—	—	—	—	10	10	3,920	2,350	—	—
	公 立	—	—	—	—	—	3	10	740	370	—	—
	私 立	—	8	23	2,960	2,623	24	132	10,160	8,238	+249%	+206%
	合 計	—	10	43	3,660	3,458	37	152	14,820	10,958	+307%	+ 7%
各 種 學 校 (神學校 및看護學校包含)	國 立	—	—	—	(254)	254	4	4	420	448	—	+76%
	公 立	—	—	—	—	—	5	5	510	199	—	—
	私 立	—	—	—	(1,822)	1,822	32	59	4,460	5,276	—	+189%
	合 計	—	20	(未詳)	(2,076)	2,076	41	68	5,390	5,923	—	—
總 計	—	—	82	571	97,276	134,779	128	768	85,690	131,739	-12%	-2%

196)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앞의 책, p.256.

대학에 대한 통제는 이에 거치지 않고 1965년말 「대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2331호) 공포, 1966년 12월 9일 대학생정원령의 개정으로 더욱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1965년 12월에는 「학사등록제」(대통령령 제2332호)를 각의에서 의결하고, 1967년 12월 24일 교육법시행령중 제125조를 개정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3. 대구의 학교교육

1) 유치원

우리나라의 유치원교육은 1962년 문교부령 제106호로 유치원설치기준령이 공포됨에 따라 그 법적 행정적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후 1969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4398호로 유치원의 설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구시내에도 많은 유치원이 설립·운영되었는바 1960년대의 유치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77〉 대구시의 유치원 현황¹⁹⁷⁾

설 립 연 도	유 치 원 명	주 소	비 고
1952. 4. 7	삼 덕 유 치 원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624-2	천 주 교
1952. 10. 28	성 심 유 치 원	대구시 서구 비산1동 627	천 주 교
1952.	북 부 유 치 원		기 독 교
1953. 3. 2	달 성 유 치 원		
1954. 3.	경 북 유 치 원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985-57	재단법인회락원
1955. 7. 23	산 격 유 치 원	대구시 북구 산격1동 1071	
1956. 7. 23	성 모 유 치 원	대구시 중구 남산3동 225-1	천 주 교
1957. 7. 23	본 심 유 치 원	대구시 남구 대명8동 2026-10	개 인
1957.	셋 별 유 치 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782	천 주 교
1958. 4. 15	대 봉 유 치 원	대구시 남구 대봉동3구 310	기 독 교

197) 《大邱教育史》, p.282.

1960년대 유치원 현황¹⁹⁸⁾

〈表 1-78〉

연 도	유치원수	학급수	교 직 원 수			재 학 생 수			수 료 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62	19	27	68	12	56	1,119	630	489	1,036	609	427
1963	26	35	112	26	86	1,485	806	679			
1964	28	41	63		63	1,314	752	562	1,381	748	633
1965	29	46	110	19	91	1,637	916	721	1,423	800	623
1966	29	51	120	23	97	1,767	1,023	744	1,490	849	641
1967	30	42	119	22	97	1,582	969	613	1,664	980	684
1968	30	46	93	20	73	1,551	915	636	1,334	788	546
1969	30	45	84	14	70	1,415	874	541	1,121	645	476

2) 국민학교

5·16군사쿠테타이후 대구시의 학령 아동수는 계속 증가하여 1962년에 19,824명이었던 것이 1966년에는 25,118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유 교실수는 1966년 3월말 현재 1,074개이고, 필요한 교실수는 1,631개로 557개 교실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3부제 수업과 2부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0년대 대구시내의 초등교육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학생 및 적령아동 증가상향¹⁹⁹⁾

〈表 1-79〉

연 도	재적아동수	졸업생 대 적령아동의 비교		
		졸업생 수	적령아동수	차인증가수
1962	99,137	13,652	19,824	6,172
1963	106,892	12,601	22,719	10,118
1964	115,319	13,262	24,845	10,315
1965	119,791	17,611	23,228	5,617
1966	128,611	15,350	25,118	9,768

198) 앞의 책, p.284.

199) 《大邱市史》3, p.664.

〈表 1-80〉 국민학교 교육시설 상황²⁰⁰⁾(1966)

구 분	시 설								
	보통교실	특수교실	관 리 실	강 당 및 체 육 관	급 식 실	변 소	숙 직 실	창 고	교 지
소 요 수	1,631	41	41	41	41	1,631	41	82	543,118㎡
보 유 수	1,074	6	30	10	14	972	37	수 23	
부 족 수	557	35	11	31	27	659	4	정 32	

〈表 1-81〉 국민학교 상황(국·공·사립)²⁰¹⁾

구 분 연 도	학 교 현 황		학급편성현황		교직원현황		교지면적 (㎡)	건물면적 (㎡)
	학교수	증 감	학급수	증 감	교직원수	증 감		
1963	39		1,457		1,527			
1965	40	+1	1,805	+348	1,763	+236	618,709	135,758
1967	46	+6	1,712	- 93	1,842	+ 79	681,540	150,522
1969	53(2)	+3(+2)	1,900	+188	2,115	+273	766,440	187,704

※ ()안은 분교장 수임

〈表 1-82〉 국민학교 부별 학급상황²⁰²⁾

구분 설립별	부 별 학 급 상 황										
	학교수	아동수	학급수	1 부		2 부		3 부		계	
				학급수	아동수	학급수	아동수	학급수	아동수	학급수	아동수
공 립	39	124,556	1,605	1,097	85,128	461	35,704	47	3,724	1,605	124,556
국 립	2	2,153	36	36	2,153					36	2,153
사 립	4	1,902	32	32	1,902					32	1,902
계	45	128,611	1673	1,165	89,183	461	35,704	47	3,724	1,673	128,611

200) 앞의 책, p.665.

201) 《大邱教育史》, p.362.

202) 《大邱市史》3, p.665.

〈表 1-83〉 국민학교 남녀별 교원상황²⁰³⁾

성 별 \ 연 도	1963	1965	1967	1969
남	1,002	1,083	1,112	1,333
여	501	630	640	697
계	1,503	1,713	1,752	2,030

1960년대의 국민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84〉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기준²⁰⁴⁾(1963. 2. 15)

구 분 \ 학 년		1	2	3	4	5	6
교	국 어	6~5.5	6~7	6~5	5~6	6~5.5	5~6
	산 수	4~3	3~4	3.5~4.5	4.5~4	4~5	5~4
	사 회	2~2.5	3~2	3~4	4~3	3~4	4~3
	자 연	2~2.5	2~2.5	3.5~3	3~3.5	4~3	4~3
과	음 악	1.5~2	2~1.5	2~1.5	1.5~2	2~1.5	1.5~2
	체 육	2.5~3	3~2.5	3~3.5	3.5~3	3~3.5	3.5~3
	미 술	2~1.5	2~1.5	2~1.5	1.5~2	2.5~1.5	1.5~2.5
	실 과				2~1.5	2.5~3	2.5~3.5
반 공 · 도 덕		1	1	1	1	1	1
계		21	22	24	26	28	28
특 별 활 동		5%~10%	5%~10%	5%~10%	5%~10%	5%~10%	5%~10%

3) 중등교육

5·16이후 대구시민의 교육열이 높아지고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도의 실시로 중등학교는 많이 증가하였다. 1969년말 현재 중학교 36개교에 878학급, 교원수 1,415명, 학생수 53,759명 이고,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20개교에 287학급, 학생수는 23,529명, 교원수 686명, 실업계는 14개교에 277학급, 학생수 16,914명, 교원수 566명이었다. 이것을 1959년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203) 《大邱教育史》, p.363.

204) 《韓國教科教育課程의 變遷》,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0, p.14.

중등학교 학생수는 2.3배,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1.8배로 늘어났다. 이것은 같은 기간의 인구 증가를 1.7배와 비교해 볼때 중등학교의 진학률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69년말 현재 대구시내의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85〉 국·공·사립 중학교 현황²⁰⁵⁾

구분	학 교 명	설립연도또는 교명변경연도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학 교
국 공 립 중 학 교	경북사대부속중학교	1946. 10. 15	대봉동 60	21	1,284	34	경북사대부고
	경북중학교	1916. 5. 16	대봉동 124	22	1,334	33	경북고등학교
	대구중학교	1921. 4. 19	대봉동 257	24	1,461	35	
	경상중학교	1951. 8. 20	대명동 1895	33	1,995	50	
	경일중학교	1954. 5. 17	원대동 1505	24	1,487	35	
	대구동중학교	1960. 2. 28	수성동 32	15	917	18	
	경북여자중학교	1960. 2. 18	남산동 710	22	1,338	32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중학교	1915. 11. 18	동인동 42	24	1,452	35	
	제일여자중학교	1945. 3. 31	봉산동 230	24	1,449	35	
사 립 중 학 교	영남중학교	1947. 4. 18	대명동 2461	30	1,837	48	영남교육재단
	계성중학교	1906. 10. 5	대신동 277	30	1,889	52	계성교육재단
	대륜중학교	1921. 9. 15	수서동 624	30	1,815	50	대륜교육재단
	능인중학교	1939. 10. 9	대봉동 650	29	1,785	47	능인학원
	대구건중학교	1946. 9. 20	남산동 225	30	1,821	33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영신중학교	1946. 10. 17	신천동 557	28	1,724	37	영신교육재단
	대성중학교	1945. 10. 20	봉덕동 565	21	1,297	26	대성교육재단
	오성중학교	1953. 2. 18	수성동 96	27	1,610	18	오성학원
	대구서중학교	1951. 9. 22	비산동 240-2	19	1,118	22	춘추학숙
	성광중학교	1953. 6. 26	칠성동 133	39	2,422	44	남산교육재단
	청구중학교	1954. 12. 31	신천동 850	28	1,733	31	청구학원
	심인중학교	1953. 5. 15	대명동 1745	15	928	25	위덕학사
	중앙중학교	1956. 2. 28	신천동 1145	26	1,583	53	경북상업교육재단
	경구중학교	1961. 3. 7	대명동 2380	24	1,456	25	경북공업교육재단
	협성중학교	1955. 2. 28	대명동 2148	35	2,109	42	자혜학원
	선목중학교	1966. 1. 7	봉덕동 99-3	2	90	5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효성여자중학교	1949. 8. 30	대명동 2435	30	1,807	42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상서여자중학교	1955. 2. 25	장관동 1	24	1,482	45	상서학원
	경명여자중학교	1946. 2. 10	칠성동 1가 11	28	1,703	32	경명학숙
	신명여자중학교	1944. 4. 30	수성동 96	30	1,820	26	남산여자학교유지재단
	성명여자중학교	1953. 1. 31	남산동 2	24	1,464	42	신명여자학교교육재단
	원화여자중학교	1953. 2. 23	대신동 5	30	1,807	30	조양회관
	경북여자중학교	1961. 3. 25	대명동 2148	38	2,319	41	협성교육재단
	경일여자중학교	1964. 10. 31	대명동 2232	21	1,303	15	협성교육재단
	경상여자중학교	1966. 3. 10	비산동 248	20	1,208	24	협성교육재단
	구남여자중학교	1954. 4. 11	내당동 252	23	1,471	24	구남학원
	정화여자중학교	1967. 9. 25	상동 80	12	714	17	정화교육재단

205) 《大邱市史》3, pp.672 ~ 673.

〈表 1-86〉 국·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현황²⁰⁶⁾(1969)

학 교 명	설립연도또는 교명변경연도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학 교
경 북 사 대 부 고	1951. 8. 14	대봉동 60	21	1,311	46	사 대 부 중
경 북 고 등 학 교	1916. 5. 16	대봉동 124	24	1,466	41	경 북 중 학
대 구 고 등 학 교	1958. 3. 12	대명동 187	24	1,425	43	
경북여자고등학교	1926. 3. 27	남산동 70	24	1,453	44	경 북 여 중
대구여자고등학교	1954. 5. 28	동인동 78	24	1,444	41	

〈表 1-87〉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 현황²⁰⁷⁾(1969)

학 교 명	설립연도또는 교명변경연도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재 단
영 남 고 등 학 교	1935. 4. 1	대명동 2461	32	1,948	62	영 남 교 육 재 단
계 성 고 등 학 교	1906. 10. 15	대신동 277	24	1,503	52	계 성 교 육 재 단
대 른 고 등 학 교	1921. 9. 15	수성동 624	25	1,499	45	대 른 교 육 재 단
능 인 고 등 학 교	1939. 10. 9	대봉동 650	20	1,197	36	능 인 학 원
대 건 고 등 학 교	1949. 9. 20	남산동 225	21	1,253	46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영 신 고 등 학 교	1954. 3. 16	신천동 557	13	789	22	영 신 교 육 재 단
성 광 고 등 학 교	1954. 9. 8	칠성동 133	24	1,409	30	남 산 교 육 재 단
청 구 고 등 학 교	1954. 12. 31	신천동 850	12	715	29	청 구 학 원
선 목 고 등 학 교	1966. 1. 14	봉덕동 99	3	126	—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효성여자고등학교	1949. 8. 30	대명동 2188	24	1,475	34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남산여자고등학교	1953. 1. 31	수성동 96	15	890	27	남산여자학교유지재단
신명여자고등학교	1907. 10. 23	남산동 2	24	1,493	45	신명여자학교교육재단
원화여자고등학교	1955. 2. 25	대신동 2	15	886	27	조 양 회 관
상서여자고등학교	1962. 3. 17	장관동 1	9	555	16	상 서 학 원
경명여자고등학교	1966. 1. 17	칠성동 411	11	682	17	경 명 학 속

〈表 1-88〉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현황²⁰⁸⁾(1969)

학 교 명	설립연도또는 교명변경연도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학 교
대구농림고등학교	1910. 3. 14	수성동 32	21	1,261	49	대 구 동 중 학 교
대구공업고등학교	1925. 4. 1	신암동 811	35	1,953	76	
대구상업고등학교	1923. 2. 16	대봉동 60	39	2,352	66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1962. 12. 31	봉산동 230	12	789	23	

206) 앞의 책, p.674.

207) 위와 같음.

208) 위의 책, p.675.

〈表 1-89〉 사립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²⁰⁹⁾(1969)

학 교 명	설립연도또는 교명변경연도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재 단
중앙상업고등학교	'52. 6. 20	신천동4가 1145	22	1,337	42	경 북 상 업 교 육 재 단
협성상업고등학교	'55. 2. 28	대명동 1804-1	32	2,038	64	자 혜 학 원
오성종합고등학교	'53. 12. 24	수성동 96	4	121	71	오 성 재 단
경북공업고등학교	'55. 2. 2	대명동 2380	34	1,910	55	경 북 공 업 교 육 재 단
대성공업고등학교	'45. 10. 20	봉덕동 565	12	696	27	대 성 교 육 재 단
경상공업고등학교	'60. 1. 7	대명동 101	9	402	34	일 용 학 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53. 5. 23	대명동 1835-3	15	931	24	난 강 학 원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57. 3. 11	대명동 2148	40	2,520	69	협 성 학 원
구남여자상업고등학교	'64. 12. 5	내당동 252	4	270	15	구 남 학 원
경상여자상업고등학교	'68. 2. 21	비산동 240	5	276	12	춘 추 숙
경북예술고등학교	'64. 10. 31	대명동	11	492	17	서 라 별 교 육 재 단

1960년대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90〉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²¹⁰⁾(1963)

과 정 \ 학 년			1	2	3
교 과	국 어	어	5~6	5~6	4~6
	수 학	학	3~4	3~4	2~4
	사 회	회	3~4	3~4	2~4
	과 학	학	3~4	3~4	2~4
	체 육	육	3~4	3~4	2~4
	음 악	악	2	2	1~2
	미 술	술	2	2	1~2
과 외	실 업 · 가 정	정	4~5	5~6	5~9
	외 국 어	어	3~5	3~5	2~5
반 공 · 도 덕			1	1	1
총 계			30~33	30~33	30~33
특 별 활 동			8% ~	8% ~	8% ~

209) 와 같음.

210) 《韓國教科教育課程의 變遷》, p.15.

고등학교 교고목 단위 시간배당 기준²¹¹⁾(1963)

〈表 1-91〉

교 과	과 목	단위수	교 과	과 목	단위수
국 어	국 어 I	24	사 회	일 국 반 사 회 리 제 사 사 I II	4 4 4 6 6 6
	문 법 (4)			치 윤 경	
	한 문 (6)	18		세 지 지	
	국 어 II 고 전 작 문 (4)			계 리 리	
수 학	공 통 수 학 I II	8 12 26	실 업	농 업 기 타 과 목	38
				공 업 공 일 기	14 4 38
과 학	물 리 I II I II I II 학	6 12 6 12 6 6 4		수 산 수 일 기	14 4 38
	물 리 화 학 생 지			상 업 상 일 기	14 4 38
체 육	체 육	24	가 정	가 일 기 정 반 타 일 관 과 반 리 목	14 4 38
음 악	음 악 I II	6 24			
미 술	미 술 I II	6 42	외 국 어	영 어 I 1과목 또는 2과목	18
실 업	농 업 농 일 반 관 리	14 4		영 영 어 어 어 불 중 국 어	30

4) 고등교육

(1)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는 1951년 10월 국립경북대학교로 개편된 이후 1960년대의 주요 발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53. 4; 의과대학 의예과를 문리과대학으로 개편하고, 그해 5월에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 1955. 4; 교양학부를 설치하고 1956년 10월에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1집을 발간하였다.
- 1957. 3;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및 의과대학, 치의학과를 폐과하였다.
- 1958. 3; 본관 석조 건축물을 착공하여 1960년 4월 준공하였다.
- 1961. 4; 본관진료소가 설치되었으며 그해 6월에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설치되었다.

211) 《高等學校教育課程解説》, 1989, p.28.

第1章 教 育

- 1962. 3; 교육대학이 병설되었으며 1963년 2월에 병설교육대학을 대구교육대학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1962년 9월에는 시청각교육관과 학생생활연구소가 설치되었다.
- 1964. 2; 어학연구소가 설치되었고, 그해 12월에는 생산기술연구소가 설치되었다.
- 1965. 3; 한국농촌사회연구소가 설치되었으며 농학관(1965), 신과학관(1967), 교수회관(1968)이 건립되었다.
- 1969. 3;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었고 그해 12월에는 과학연구소가 설치되었다.

(2)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는 1967년 12월 학교법인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병합하여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설립한 이후 1968년 1월 1일에 申基碩 총장이 취임하여 6개 단과대학(문리대, 공대, 법정대, 상경대, 약학대, 2부대학) 35개 학과와 대학원 12개 학과로 출발하였다. 1968년 6월에는 경북 경산군 경산읍과 압량면에 105만평의 학교부지를 마련하여 새로운 도약의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1969년 2월에는 대학원 약학대에 박사과정의 설치를 인가받았다.

(3)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는 1965년 5월 계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후 1967년 1월에 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았으며, 그해 12월에는 교육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았다. 1969년 12월에 학생생활연구소의 설치인가를 받았다.

(4) 효성여자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는 1953년 2월 4년제 여자대학으로 승격된 후 1956년 11월에 남구 봉덕동(현 효성아파트 위치)에 새 캠퍼스로 이전하여 강의관을 준공하였다. 1961년에는 원예학부가 신설되고, 문학과에서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가 분리되었으며, 1962년에는 商學科와 생활미술학부가 신설되었다. 1968년에는 음악과에서 기악과와 성악과가 분리되었다. 행정기구면에서는 1965년에 교무과를 교무과와 학적과로, 서무과를 총무과와 경리과로 분리하였다. 1969년에는 여성문제 연구소와 교양학부가 설치되었으며, 대강당이 준공되어 영남의 여성고등교육장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5)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는 1961년 2월 한국사회사업대학(2년제)으로 출발하였으나 1963년 2월에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대구대학교의 유지 경영재단은 학교법인 榮光學園으로 조직 변경되었다. 이 학교는 1970년대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특히 특수교육과 사회복지분야에서 인류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6) 대구교육대학교

이 학교는 1962년 2월에 경북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출발한 후 1963년 3월에 그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교명을 대구교육대학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그해 3월에 대구교육대학 학보사가 설치되었고, 1966년 3월에는 부설 초등교원양성소가, 1969년 6월에는 제208학생군사교육단이 창설되었으며 그해 9월에는 학생지도연구소가 설치되었다.

(7)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전신은 고등전문학교라 할 수 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1963년 8월 법률 제1387호를 공포하여 수업연한 5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그후 1970년 1월 법률 제2175호를 공포하여 실업고등전문학교를 2년제 초급대학에 준하는 전문학교로 개편하였으며, 1977년 12월 법률 제3054호로 전문대학의 설립을 규정하고 1979년 1월 이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1978년부터 1979년間に 전문학교들이 모두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칭되어 대구시내에는 영남공업전문대학, 경북공업전문대학, 대구공업전문대학, 영진공업전문대학, 계명실업전문대학, 신일실업전문대학, 대구간호전문대학, 대구보건전문대학, 동산간호전문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경북공업전문대학이 경북산업대학으로, 1989년에는 동산간호전문대학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설치인가됨에 따라 이 학교는 폐교되었다. 전문대학의 구체적인 사항은 1970년대의 대구의 학교교육에서 논급하고자 한다.

VI. 1970年代의 大邱教育

1. 유신헌법의 선포와 제4공화국의 교육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는 냉전체제가 해빙기를 맞게 되었고, 안으로는 「8·15」선언으로 자유평화통일의 원칙을 밝혔으며, 1971년에는 「이산가족찾기운동」의 제의, 1972년에는 「7·4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1970년대초의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 선포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보상의 취약점이 되는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최악의 경우 자유의 일부라도 유보한다는 등 6개항의 결의를 천명한 것이었으나 이는 정권의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 그리하여 1972년 10월 17일에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1월 21일에는 유신체제를 구축하고자 국민투표에 의한 유신헌법을 확정시켰다. 그리고 그해 12월 23일에는 「통일민족국민회의」를 구성하고 그 모임

에서 朴正熙를 대통령으로 재선하여 유신체제인 제4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의 교육은 1972년 3월 24일 전국 교육자대회에서 「국적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문교부는 1973년 주체적 민족사관의 확립을 위하여 국사교육의 강화, 민족사적 정통성의 고취, 새 한국인상의 확립을 위한 확고한 국가관의 정립, 한국민주주의의 토착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에는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73년에는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과정을 독립시키고, 국사교과서를 처음으로 국정으로 하였으며, 국민윤리교육을 강화하였다.

한편 1970년 11월부터 「새마을운동」에 착수하였고, 1972년 3월 17일에는 대통령의 특별 유시로 새마을 교육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새마을 교육의 목표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아래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향토인에게 새로운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향토개발과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실질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두었다. 새마을 교육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 기조위에 국민생활 태도의 변혁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유신체제하에서는 사회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1972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부설 방송통신대학을 개교하였다. 1974년 3월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를 채택하여 교육열을 충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72년 8월 30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발족을 보았고, 정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1978년 6월 30일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하였다.

1970년대의 교육은 균운을 좌우한다는 기치아래 근대화와 경제적 발전,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추구하는 한국적 교육으로 진전되었으나 1970년말에 나타나는 정치, 경제적 상황은 교육상의 많은 문제와 함께 새로운 사회체제와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은 1980년대의 교육개혁을 예고하는 것이 되었다.

2. 대구의 학교교육

1) 유치원교육

1970년대 대구의 유치원 교육기관은 1976년말 현재 36개에 74학급이 편성되었으며, 원아수는 2,783명, 교원수는 164명이었으나 1979년말 현재는 유치원수 48개에 119학급, 원아는 4,659명, 교원수는 17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구시내의 연도별 유치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유치원 현황²¹²⁾(1970~1979)

〈表 1-92〉

연 도	유치원수	학 급 수	아 동 수	교 원 수			기 타 직 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70	25	41	1,471	101	23	78	30	10	20
1971	24	40	1,482	99	24	75	34	11	23
1972	26	43	1,430	99	22	77	34	9	25
1973	28	49	1,704	115	22	93	35	14	21
1974	31	54	1,946	122	25	97	37	13	24
1975	30	63	2,393	118	25	93	60	16	44
1976	36	74	2,783	164	22	142	47	13	34
1977	38	84	3,160	172	26	146	58	58	46
1978	42	91	3,474	167	23	144	84	84	71
1979	48	119	4,659	220	25	195	91	91	67

1970년대 유치원 설립별 현황²¹³⁾(1970~1979)

〈表 1-93〉

연 도	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유 교	학교부속	개 인	공 립	기 타
1970	25	16	4	1		3			
1971	24	11	8	1		3	1		
1972	26	14	10	1			1		
1973	28	11	10	1		3	3		
1974	31	11	11	1		3	5		
1975	30	10	12	1		3	4		
1976	36	13	12			2	9		
1977	38	15	12			2	9		
1978	42	14	12			1	14		1
1979	48	17	11			4	15		1

2) 국민학교

196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던 학생수는 1970년대에 들면서 전후 베이비붐에 의한 급증기가 지나고,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학교수와 학급수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970년에 학교수는 54개교에 2,024학급, 학생수 158,706명, 교원수 2,166명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62개교에 학급수는 3,097학급, 학생수는 206,928명, 교원수는 3,303명으로 증가되었다. 1970년대의 대구시의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12) 《大邱教育史》, p.292.

213) 위와 같음.

〈表 1-94〉 국민학교 개황²¹⁴⁾

연 도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 생 수		교 원 수		기타직원수		교 실 수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정 규	가	임 시
1970	국립	2	36	2,165	774	46	8	7	1	36	36		
	공립	48(2)	1,932	153,441	73,399	2,057	760	151	28	1,705	1,685	20	
	사립	4	56	3,100	1,244	63	11	20	1	60	60		
1971	국립	2	36	2,145	770	46	8	9	2	36	36		
	공립	50(2)	2,080	157,422	75,437	2,239	835	168	40	1,852	1,827	25	
	사립	4	57	3,156	1,168	65	10	23	3	57	27		
1972	국립	2											
	공립	50(2)	2,200	158,230	75,333	2,361	889	177	45	2,094	2,094		
	사립	4											
1973	국립	2	36	2,158	771	46	8	9	1	36	36		
	공립	50(2)	2,220	157,183	74,935	2,383	904	199	45	2,168	2,168		
	사립	4	57	3,183	1,196	66	12	23	4	57	57		
1974	국립	2	36	2,160	794	46	7	8	2	36	36		
	공립	51(2)	2,255	159,154	75,754	2,431	941	218	53	2,226	2,226		
	사립	4	58	3,258	1,239	67	15	23	4	58	58		
1975	국립	2	36	2,160	797	46	8	7	1	36	36		
	공립	51(2)	2,318	166,213	79,085	2,478	992	181	16	2,280	2,274		6
	사립	4	59	3,357	1,328	68	14	15	3	62	62		
1976	국립	2	36	2,160	824	46	8	8	3	36	36		
	공립	52(2)	2,442	169,284	80,679	2,602	1,052	180	15	2,346	2,340		6
	사립	4	60	3,436	1,400	69	15	20	2	63	62	1	
1977	국립	2	36	2,158	833	45	7	7		36	36		
	공립	52(2)	2,800	177,203	84,341	2,968	1,208	221	72	2,390	2,385		5
	사립	4	61	3,520	1,441	72	17	20	4	62	62		
1978	국립	2	36	2,159	856	46	9	6	2	36	36		
	공립	52(1)	2,870	187,936	89,741	3,053	1,207	236	93	2,433	2,430		3
	사립	4	63	3,561	1,481	70	17	20	4	62	62		
1979	국립	2	36	2,160	870	46	10	7	2	36	36		
	공립	56(1)	2,997	201,138	95,548	3,185	1,247	263	103	2,505	2,500		5
	사립	4	64	3,630	1,491	72	17	23	6	64	63		1

214) 앞의 책, p.387.

2부제수업 학급수²¹⁵⁾

〈表 1-95〉

연 도	구 분	총 계	학교수	2 부 제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970	국립 공립 사립	219	36	219	107	65	47			
1971	국립 공립 사립	230	33	230	91	81	35	22	1	
1972	국립 공립 사립	132	33	132	74	41	14	3		
1973	국립 공립 사립	52	16	52		47	5			
1974	국립 공립 사립	33			33		25	8		
1975	국립 공립 사립	59 6	19 1	59 6		29 3	30 1	1	1	
1976	국립 공립 사립	115	18	115	4	75	31	5		
1977	국립 공립 사립	384	41	384	13	335	34	2		2
1978	국립 공립 사립	423	41	423	28	285	98	12		
1979	국립 공립 사립	472	43	472	72	287	104	9		

215) 앞의 책, p.391.

〈表 1-96〉 국민학교 학년별 아동수²¹⁶⁾

연 도	구 분	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국 립	2,165	774	360	123	360	132	360	116	360	126	360	140	365	137
	공 립	153,441	73,399	26,945	13,044	25,358	12,250	25,690	12,476	26,146	12,535	24,934	11,849	24,368	11,245
	사 립	3,100	244	547	212	536	526	526	209	529	193	517	203	445	219
1971	국 립	2,145	770	353	126	359	129	357	128	360	124	361	126	355	137
	공 립	157,422	75,437	25,713	12,355	26,826	12,965	25,960	12,496	26,363	12,745	26,856	12,783	25,704	12,039
	사 립	3,156	1,168	540	211	536	196	530	199	518	175	515	189	517	198
1972	국 립														
	공 립	158,230	75,333	25,119	11,867	24,897	12,006	27,177	13,100	26,519	12,689	26,876	12,826	27,642	12,845
	사 립														
1973	국 립	2,158	771	360	131	360	125	360	129	360	135	360	133	358	118
	공 립	157,183	74,935	26,201	12,670	24,407	11,512	24,829	11,931	27,413	13,168	26,790	12,704	27,543	12,950
	사 립	3,183	1,196	547	225	539	200	536	214	532	188	521	199	408	70
1974	국 립	2,160	794	360	136	360	136	360	125	360	128	360	137	360	132
	공 립	159,154	75,754	28,139	13,584	25,984	12,557	24,782	11,559	25,081	12,037	27,696	13,217	27,472	12,800
	사 립	3,258	1,239	601	241	542	217	540	209	530	202	533	188	512	182
1975	국 립	2,160	797	360	129	360	137	360	136	360	125	360	136	360	134
	공 립	166,213	79,085	30,818	14,820	28,019	13,613	26,497	12,803	25,544	11,900	25,940	12,264	29,395	13,685
	사 립	3,357	1,328	617	252	604	239	538	234	544	204	526	205	528	194
1976	국 립	2,160	824	360	154	360	135	360	139	360	136	360	124	360	136
	공 립	169,284	80,679	31,063	15,097	30,474	14,643	28,274	13,658	26,855	12,891	25,932	11,984	26,686	12,406
	사 립	3,436	1,400	613	264	612	252	602	238	544	238	543	207	522	201
1977	국 립	2,158	833	360	149	360	152	360	135	359	141	360	127	359	129
	공 립	177,203	84,341	31,807	15,139	30,946	15,008	30,884	14,791	28,894	13,972	27,591	13,110	27,081	12,321
	사 립	3,520	1,441	610	237	606	264	613	252	604	238	540	236	547	214
1978	국 립	2,159	856	360	149	360	138	360	154	360	134	359	141	360	140
	공 립	187,936	89,741	33,542	16,222	31,925	15,164	31,678	15,360	31,624	15,066	29,982	14,329	29,185	13,600
	사 립	3,561	1,481	606	253	607	240	601	262	609	255	603	238	535	233
1979	국 립	2,160	870	361	156	360	149	359	140	359	153	360	132	361	140
	공 립	201,138	96,548	35,370	16,937	34,096	16,404	33,106	15,616	32,965	15,864	33,311	15,680	32,290	15,047
	사 립	3,630	1,491	600	238	606	260	605	242	602	259	612	254	605	238

216) 앞의 책, p.390.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²¹⁷⁾(1973)

〈表 1-97〉

구 분 \ 학 년			1	2	3	4	5	6
교과활동	도덕		70(2)	70(2)	70(2)	70(2)	70(2)	70(2)
	국어		210(6)	210(6)	210(6)	210(6)	210(6)	210(6)
	사회		70(2)	70(2)	105(3)	105(3)	140(4)	140(4)
	산수		140(4)	140(4)	140(4)	140(4)	175(5)	173(5)
	자연		70(2)	70(2)	105(3)	140(4)	140(4)	140(4)
	체육		70(2)	105(3)	105(3)	105(3)	105(3)	105(3)
	음악		70(2)	70(2)	70(2)	70(2)	70(2)	70(2)
	미술		70(2)	70(2)	70(2)	70(2)	70(2)	70(2)
	실과					70(2)	70(2)	105(3)
계			770(22)	805(23)	875(25)	980(28)	1,050(30)	1,085(31)
특별활동			35 ~ (1 ~)	35 ~ (1 ~)	52.5 ~ (1.5 ~)	52.5 ~ (1.5 ~)	52.5 ~ (1.5 ~)	52.5 ~ (1.5 ~)

※ 사회과 5·6학년 시간 배당 140(4)중, 70(2)시간은 해당 학년의 국사 부문에 해당한다.
()안은 35주일 경우의 주당 평균 시간량임.

직위별 초등학교원 상황²¹⁸⁾

〈表 1-98〉

연 도	구 분	계		교 장		교 감		교 사		양호교사		강 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국 립	46	8	7	1	12	1	27	6				
	공 립	2,057	760	48	2	48	1	1,930	726	31	31		
	사 립	63	11	5	1	3		54	10			1	
1971	국 립	46	8	2		2		42	8				
	공 립	2,239	835	50	2	50	1	2,104	797	31	31	4	4
	사 립	65	10	3		3		58	10			1	
1972	국 립												
	공 립	2,361	889	51	1	50	2	2,224	850	35	35	1	1
	사 립												
1973	국 립	46	8	2		2		42	8				
	공 립	2,383	904	49	1	50	2	2,249	866	35	35		
	사 립	66	12	3		3		58	12			2	

217) 文教部, 《國民學校教育課程》, 1973, p.16.

218) 《大邱教育史》, p.388.

第1章 教 育

연 도	구 분	계		교 장		교 감		교 사		양호교사		강 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4	국립 공립 사립	46 2,431 67	7 945 15	2 51 3	1	2 51 3	3	42 2,292 59	7 900 13	35 1	35 1	2	2
1975	국립 공립 사립	46 2,478 68	8 992 14	2 51 4	1	2 51 3	3	42 2,336 60	8 949 13	38 1	38 1	2	1
1976	국립 공립 사립	46 2,602 69	8 1,052 15	2 52 3		2 52 3	3	42 2,459 62	8 1,010 14	39 1	39 1		
1977	국립 공립 사립	45 2,968 72	7 1,208 17	2 52 4	2 1	2 52 3	4	41 2,824 63	7 1,162 14	39 2	39 2	1	1
1978	국립 공립 사립	46 3,053 70	9 1,209 17	2 55 4	2 1	2 52 3	5	42 2,904 61	9 1,159 14	39 1	39 1	3 1	2 1
1979	국립 공립 사립	46 3,185 72	10 1,247 17	2 56 4	2 1	2 56 3	5	42 3,032 63	10 1,200 14	39 2	39 2	2	1

1970년대에 지정된 문교부 및 도지정연구학교를 보면 1974년에 8개교였던 것이 1979년에는 6개교로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99〉 문교부 및 도지정 연구학교 일람(초등)²¹⁹⁾

연 번	시 군	학 교	학 년 도								비 고
			'74	'75	'76	'77	'78	'79	'80		
1	대구	남양	문	문	문	문	문	문	문	특수교육 장애교육(74), 자연과(79, '80) 새마을교육시범(76, '77) 학교 급식 교육과 교육과 체육과 체육과 자연과(75, '76), 생활지도(78, '79) 국기교육 교육평가 자연교실운영시범교 새마을교육시범교 능력별학습시범교	
2	대구	동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3	대구	동덕	문	문	문	문	문	문	문		
4	대구	사대부	문	문	문	문	문	문	문		
5	대구	교대부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자연과(75, '76), 생활지도(78, '79) 국기교육 교육평가 자연교실운영시범교 새마을교육시범교 능력별학습시범교	
6	대구	침명	문	문	문	문	문	문	문		
7	대구	중산	문	문	문	문	문	문	문		
8	대구	명덕	문	문	문	문	문	문	문		
9	대구	중수	문	문	문	문	문	문	문		
10	대구	삼덕	문	문	문	문	문	문	문		
11	대구	동성	문	문	문	문	문	문	문		
12	대구	대봉	문	문	문	문	문	문	문		
13	대구	평광	문	문	문	문	문	문	문		

219) 《慶北教育史料》, p.521.

교사들의 연구활동도 활발하였는데 1970년에 전국 1등급입상자가 14명이었으나 이후 그 성과가 미진하였다. 그러나 1975년 이후에는 10여편이상 입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00〉 교육연구대회 참가상황²²⁰⁾

연 도	논 문 제출자수	도 단 위 입 상 자 수			전 국 단 위 입 상 자 수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논문제출자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1970	223	30	38		30	14		
1971	155	34			33	6		
1972	197	37	45		37	14		
1973	185	28	56		31	6		
1974	225	36	52		28	6		
1975	484	65	55	42	53	15		
1976	549	77	86	120	54	18		
1977	640	73	79	177	56	13		
1978	963	77	75	263	59	14		
1979	601	74	67	248	57	10	20	27
계	4,222	531	553	850	438	116	20	27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노력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에 대구교대에서 4,223명, 안동교대에 서 3,037명을 양성하였다. 연도별 양성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01〉 초등교원 양성상황²²¹⁾(1970~1979)

구 분 연 도	대 구 교 육 대 학		안 동 교 육 대 학	
	교육대학 졸업	양성소 수료	교육대학 졸업	양성소 수료
1970	392	278	347	198
1971	469	187	344	
1972	473		382	
1973	577		395	
1974	507		393	
1975	472		392	
1976	340		304	
1977	274		198	
1978	124		84	
1979	130			
계	3,758	465	2,839	198

220) 앞의 책, p.520.

221) 《大邱教育史》, p.383.

3) 중등교육기관

1970년말 현재 대구시의 중학교는 38개교에 910학급, 학생수는 58,698명, 교원수 1,437명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42개교에 1,280학급, 학생수는 87,534명, 교원수는 1,789명으로 늘어났다.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1970년말 현재 21개교에 399학급, 학생수 24,630명, 교원수 738명이었던 것이 1979년말 현재 23개교에 755학급, 학생수 46,808명, 교원수 1,647명으로 늘어났으며, 실업계고등학교는 1970년말 현재 14개교에 308학급(편성), 학생수 2,019명, 교원 604명이었던 것이 1979년말 현재 17개교에 674학급(편성), 학생수 40,437명, 교원수 1,451명으로 늘어났다. 1970년대의 중등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02〉 중 학교 현황²²²⁾(1970~79)

구 분 연 도	학교수	학 급 수 (편 성)	학 생 수			교 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70	38	910	58,698	35,396	23,302	1,437	1,229	208
1971	37	942	61,355	36,200	25,155	1,515	1,298	217
1972	37	961	63,203	36,510	26,693	1,480	1,265	215
1973	37	975	64,791	37,238	27,553	1,495	1,264	231
1974	37	1,013	70,400	40,626	29,774	1,542	1,265	277
1975	38	1,054	73,294	42,386	30,908	1,554	1,241	313
1976	41	1,134	77,929	44,288	33,641	1,590	1,216	374
1977	42	1,166	76,928	43,850	33,078	1,679	1,247	432
1978	42	1,238	83,847	47,190	36,657	1,733	1,278	455
1979	42	1,280	87,534	48,681	38,853	1,789	1,316	473

1979년말 현재 대구시의 중학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2) 《大邱統計年報》, 1979, pp.158~161.

각 중학교 현황²²³⁾

〈表 1-103〉

구 분 학 교	설립및교명 년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교 및 재 단
〈국·공립〉						
경대사대부속중학교	1916. 10. 15	대봉동 60	21	1,470	41	경 대 사 대 부 고
경운중학교(구경북중학)	1916. 5. 16	대봉동 124	35	2,453	48	
대 구 중 학 교	1921. 4. 19	대봉동 257	30	2,123	43	
경 상 중 학 교	1951. 8. 20	대명동 1895	42	2,660	50	
경 일 중 학 교	1954. 5. 17	원대동 1505	27	1,872	38	
대 구 동 중 학 교	1960. 2. 28	수성동 32	27	1,841	37	
경혜여자중학교	1926. 3. 27	남산동 710	24	1,630	35	경 북 여 고
대구여자중학교	1915. 11. 18	동인동 42	35	2,361	53	
제일여자중학교	1945. 3. 31	봉산동 230	27	1,856	37	
평 리 중 학 교	1969. 11. 7	평리동 1079-1	40	2,783	55	
대명여자중학교	1969. 11. 17	대명동 519	36	2,422	49	
〈사 립〉						
계 성 중 학 교	1906. 10. 15	대신동 277	29	2,032	41	계 성 교 육 재 단
영 남 중 학 교	1947. 4. 18	대명동 2461	30	2,094	43	영 남 교 육 재 단
대 룬 중 학 교	1921. 9. 15	수성동 624	24	1,691	32	대 룬 교 육 재 단
능 인 중 학 교	1939. 10. 9	대봉동 650	30	2,090	42	능 인 학 원
대 건 중 학 교	1946. 9. 20	남산동 525	30	2,087	45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영 신 중 학 교	1946. 10. 17	신천동 557	30	2,062	45	영 신 교 육 재 단
대 성 중 학 교	1945. 10. 20	봉덕동 565	24	1,695	34	대 성 교 육 재 단
오 성 중 학 교	1953. 2. 18	수성동 96	30	2,052	41	오 성 학 원
성 광 중 학 교	1953. 6. 26	칠성동 133	38	2,688	53	남 산 교 육 재 단
경 북 중 학 교	1959. 9. 22	봉덕동 산90-2	38	2,688	52	협 성 교 육 재 단
청 구 중 학 교	1954. 12. 31	신천동 850	36	2,480	49	청 구 학 원
심 인 중 학 교	1953. 5. 15	대명동 1745	30	2,096	41	위 덕 학 사
중 앙 중 학 교	1956. 2. 28	신천동 1145	30	2,054	42	경북상업교육재단
경 구 중 학 교	1961. 3. 7	대명동 2380	24	1,677	34	경북공업교육재단
협 성 중 학 교	1955. 2. 28	대명동 2148	35	2,411	49	자 혜 학 원
경 신 중 학 교	1972. 10. 6	범어동 2435	30	2,053	40	경 신 학 원

223) 《大邱教育史》, pp.488 ~ 489.

第1章 教 育

구 분 학 교	설립및교명 변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교 및 재 단
효 성 여 자 중 학 교	1949. 8. 30	대명동 2435	36	2,443	49	대구교구전주교육재단
상 서 여 자 중 학 교	1955. 2. 25	장관동 1	24	1,593	32	상 서 학 원
경 명 여 자 중 학 교	1946. 2. 10	칠성동1가 11	31	2,087	41	경 명 학 원
신 명 여 자 중 학 교	1944. 4. 30	수성동 96	30	2,057	44	남 산 여 자 학 원
성 명 여 자 중 학 교	1953. 1. 31	남산동 2	24	1,629	34	신명여학교교육재단
원 화 여 자 중 학 교	1953. 1. 31	대신동 5	24	1,626	34	조 양 회 관
경 북 여 자 중 학 교	1961. 3. 25	대명동 2148	45	2,989	54	협 성 교 육 재 단
경 일 여 자 중 학 교	1964. 10. 31	대명동 2232	31	2,100	44	협 성 교 육 재 단
경 상 여 자 중 학 교	1966. 3. 10	이산동 248	37	2,512	52	협 성 교 육 재 단
구 남 여 자 중 학 교	1954. 4. 11	내당동 252	29	1,938	42	구 남 학 원
정 화 여 자 중 학 교	1967. 9. 25	상 동 80	36	2,470	51	정 화 교 육 재 단
경 화 여 자 중 학 교	1974. 1. 5	두류동 3-771	29	1,956	41	
소 선 여 자 중 학 교	1974. 11. 30	만촌동 375	35	2,360	49	
성 화 여 자 중 학 교	1975. 11. 14	북현동 2-540	32	2,140	46	성 화 교 육 재 단

〈表 1-104〉

인문계고등학교 현황²²⁴⁾

구분 연대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70	21	399	24,630	14,804	9,826	738	673	65
1971	19	406	26,017	16,239	9,778	768	700	68
1972	19	431	27,966	17,327	10,639	821	743	78
1973	20	515	31,838	20,367	11,471	909	824	85
1974	21	581	34,978	22,274	12,704	1,026	929	97
1975	21	626	38,316	23,590	14,726	1,150	1,020	130
1976	21	668	39,636	24,454	15,182	1,095	967	128
1977	22	660	40,375	26,354	14,021	1,226	1,092	134
1978	22	718	44,183	27,693	16,490	1,238	1,069	169
1979	23	755	46,808	29,445	17,363	1,647	1,391	256

224) 《大邱統計年報》，1980, pp.150~151.

〈表 1-105〉 실업계고등학교 현황²²⁵⁾

구분 연대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70	14	308	19,551	13,714	5,837	604	563	41
1971	15	381	22,385	14,604	7,781	694	643	51
1972	15	404	23,969	15,557	8,412	722	676	46
1973	15	468	29,622	16,397	13,225	799	822	74
1974	15	514	31,152	17,918	13,234	894	793	101
1975	15	541	33,040	19,314	13,726	986	859	127
1976	15	577	33,491	19,040	14,451	1,008	859	149
1977	15	546	32,744	19,732	13,012	989	900	152
1978	16	644	38,534	20,746	17,788	1,106	919	187
1979	17	674	40,859	21,793	19,066	1,377	1,105	272

1979년말 현재 각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表 1-106〉과 같다.

〈表 1-106〉 각 고등학교 현황²²⁶⁾

구 분 학 교	설립및교명 변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교 및 재 단
〈인 문 계〉						
경대사대부속고등학교	1951. 8. 14	대봉동 60	21	1,305	54	경 대 사 대 부 중
경 북 고 등 학 교	1916. 5. 16	대봉동 124	36	2,234	80	경 북 중 학 교
대 구 고 등 학 교	1958. 3. 12	대명동 187	36	2,240	80	
달 성 고 등 학 교	1972. 12. 26	내당동 467-1	36	2,239	76	
경북여자고등학교	1926. 3. 27	남산동 70	36	2,248	82	경 북 여 중
대구여자고등학교	1954. 5. 28	동인동 78	30	1,875	73	
영 남 고 등 학 교	1947. 4. 18	대명동 2461	44	2,706	89	영 남 교 육 재 단
계 성 고 등 학 교	1906. 10. 15	대신동 277	34	2,133	76	계 성 교 육 재 단
대 룬 고 등 학 교	1950. 4. 29	수성동 624	36	2,246	84	대 룬 교 육 재 단

225) 위와 같음.

226) 앞의 책, pp.166~167.

第1章 教 育

구 분 학 교	설립및교명 변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병 설 교 및 재 단
능 인 고 등 학 교	1951. 9. 13	대봉동 650	30	1,858	63	능 인 학 원
대 건 고 등 학 교	1946. 9. 20	남산동 225	30	1,862	64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성 광 고 등 학 교	1954. 9. 8	칠성동 133	55	3,384	122	남 산 교 육 재 단
영 신 고 등 학 교	1954. 3. 16	신천동 557	29	1,794	58	영 신 교 육 재 단
청 구 고 등 학 교	1967. 12. 24	신천동 850	30	1,865	73	청 구 학 원
효성여자고등학교	1949. 8. 31	대명동 2188	30	1,873	64	대구교구천주교유지재단
남산여자고등학교	1945. 3. 15	수성동 96	26	1,624	56	남산여자학교유지재단
신명여자고등학교	1907. 10. 23	남산동 2	24	1,497	51	신명여학교교육재단
원화여자고등학교	1955. 2. 25	대신동 2	37	2,267	75	조 양 회 관
경명여자고등학교	1966. 1. 17	칠성동 2-411	47	2,891	96	경 명 학 숙
정화여자고등학교	1971. 12. 27	상 동 80	44	2,711	87	정 화 교 육 재 단
오 성 고 등 학 교	1953. 2. 18	수성동 1-96	18	1,113	46	오 성 학 원
심 인 고 등 학 교	1972. 12. 29	대명동 1745-9	30	1,865	62	위 덕 학 사
경 신 고 등 학 교	1978. 11. 8	범어동 100	16	978	36	경 보 학 원
(실 업 계)						
대구농림고등학교	1910. 5. 10	수성동 32	21	1,227	63	대 구 동 중 학 교
대구공업고등학교	1925. 4. 1	신암동 811	72	4,336	176	
대구상업고등학교	1923. 2. 16	대봉동 60	51	3,076	113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1962. 3. 1	봉산동 230	30	1,854	64	
경북공업고등학교	1967. 3. 2	남산동 2-2380	50	3,036	95	경북공업교육재단
대성공업고등학교	1952. 3. 30	봉덕동 565	48	2,853	93	대 성 교 육 재 단
경상공업고등학교	1967. 3. 2	대명동 101	40	2,422	83	일 용 학 원
중앙상업고등학교	1952. 6. 20	신천동 4-1145	40	2,407	83	경북상업교육재단
협성상업고등학교	1955. 3. 24	대명동 1804-1	41	2,436	76	자 혜 학 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1955. 3. 23	대명동 1835-3	39	2,413	90	난 강 학 원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1959. 6. 27	대명동 2148	50	3,083	84	협 성 학 원
구남여자상업고등학교	1968. 1. 9	내당동 252	33	1,943	66	구 남 학 원
경상여자상업고등학교	1968. 3. 1	비산동 240	48	2,914	87	춘 추 숙
상서여자상업고등학교	1962. 3. 17	장관동 1	38	2,353	70	상 서 학 원
경북예술고등학교	1964. 12. 18	대명동 1825	26	1,541	59	서 라 별 교 육 재 단
경희여자상업고등학교	1977. 11. 2		32	1,932	59	
제 일 모 직 부 설 여 자 실 업 고 등 학 교	1977. 11. 23	칠성동	15	1,033	16	

1970년대의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07〉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²²⁷⁾(1973)

구 분 \ 학 년				1	2	3
교과	도덕			70(2)	70(2)	70(2)
	국어			140(4)	175(5)	175(5)
	국사				70(2)	70(2)
	사회			105(3)	70~105(2~3)	70~105(2~3)
	수학			140(4)	105~140(3~4)	105~140(3~4)
	과학			140(4)	105~140(3~4)	105~140(3~4)
	체육			105(3)	105(3)	105(3)
	음악			70(2)	35~70(1~2)	35~70(1~2)
	미술			70(2)	35~70(1~2)	35~70(1~2)
	한문			35(1)	35~70(1~2)	35~70(1~2)
과외	국어			140(4)	70~175(2~5)	70~175(2~5)
실업 가정	필수	기술 가정	(남) (여)	105(3)	105(3)	105(3)
	선택	농공상수산 가사택일			105~140(3~4)	105~245(3~7)
계				1,120(32)	1,120~1,225 (32~35)	1,120~1,225 (32~35)
특별 활동				70~(2~)	70~(2~)	70~(2~)

〈表 1-108〉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배당 기준²²⁸⁾(1974)

교과	과목	단위수	필수 및 필수 선택교과목 단위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수		
				인문	자연	직업
국민윤리	국민윤리	6	6			
국어	국어 I 국어 II	20~24 8~10	20~24	8~10		
국사	국사	6	6			
사회	정치·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4~6 4~6 4~6 4~6 4~6	4~6 } 택1, 4~6	공통에서 제외된 3 과목 12~18		

227) 《韓國敎科敎育課程의 變遷》，中學校，p.24.

228) 《새綜合敎育課程 및 解説》，敎學圖書株式會社，1977，pp.14~15.

第1章 教 育

교과		과목	단위수	필수 및 필수 선택교과목 단위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수		
					인문	자연	직업
수	학	수학 I 수학 II	14~18 8~14	14~18		8~14	
과	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8~10 8~10 8~10 8~10	택 2 16~20		공통에서 제외된 2과목	
체 교	육 련	체 교 육 련	14~18 12	14~18 12			
음 미	악 술	음 미 악 술	4~6 4~6	4~6 4~6			
한	문	한문 I 한문 II	4~6 4~6	4~6	4~6		
외국어		영어 I	10~12	10~12	10~12	10~12	
		영어 II	10~12				
		독일어	10~12				
		프랑스어	10~12				
		중국어	10~12				
		에스파니아어	10~12				
		일본어	10~12				
실업· 가정에 관한 교과	실업	기술 (남)	8~10	택 1 8~10	18		
		농업	8~10				
		공업	8~10				
		상업	8~10				
		수산업	8~10				
	가정	가정 (여)	8~10	18			
가사 (여)		8~10					
직업에 관한 교과목			44~64				44~64
자유선택과목			0~6		0~6	0~6	
소계				140~160	44~64	44~64	44~64
교과목 총이수 단위수					192~210	192~210	192~210
특별활동			12		12	12	12

※ ① 체육, 음악, 미술의 3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는 26단위가 되어야 한다.

② 여학생중, 필요에 따라서는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택1할 수도 있다.

4) 고등교육기관

(1)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1960년대이후 산업화의 과정에서 유능한 산업의 고등기술인력을 육성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였다. 이같은 시책에 따라 대구시내에도 2년제 초급대학이 1970년대에 많이 설립하게 되었는데 1979년말 현재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09〉 전문대학 현황²²⁹⁾

구 분 학교명	설립연월일	인 가 학 과	편 성 학 과	재 학 생 수	교 직 원 수
영 남 전 문 대 학	1968. 2. 15	14	14	3,350 (665)	163(34)
계 명 실 업 전 문 대 학	1970. 12. 16	13	13	3,315(1,658)	107(23)
경 북 공 업 전 문 대 학	1963. 1. 28	9	9	3,691 (66)	103(16)
한 사 대 병 설 전 문 대 학	1973. 12. 19	14	14	2,472 (978)	116(21)
연 진 전 문 대 학	1976. 12. 31	5	5	1,429 (10)	56 (3)
신 일 여 자 전 문 대 학	1979. 3. 1	16	12	(480)	
동 산 간 호 전 문 대 학	1924. 5. 5	3	3	(120)	9 (8)
대 구 간 호 전 문 대 학	1960. 5. 9	9	9	(311)	25(20)

※ ()안의 숫자는 여자임.

(2) 대학교

대구시내의 대학교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대구대학교등 5개교가 있었으나, 영남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대구대학교가 경산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합대는 2개교뿐이다. 그러나 대구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몇개의 단과대학이 아직 대구시내에 있다. 대구시내의 대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9) 《大邱統計年報》, 1979, pp.168~169 및 pp.172~173.

(表 1-110) 대구시의 대학현황²³⁰⁾(1979. 4. 1)

학 교 명	구 분	학과수	학 생 수			교 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경 북 대 학 교		151	28,219	22,984	5,235	852	795	57
계 명 대 학 교		38	5,545	4,259	1,286	132	115	17
영 남 대 학 교		60	10,722	8,829	1,893	269	255	14
효 성 여 자 대 학 교		27	3,291		3,291	126	81	45
한국사 회 사 업 대 학		19	2,726	2,437	289	64	62	2
대 구 교 육 대 학		1	487	155	332	94	83	11

(3) 대학원

1979년 4월 1일 현재 대구시내의 각 대학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11) 대구시의 대학원 현황²³¹⁾(1980. 4. 1)

대 학 원 명	구 분	설립연월일	학 과 수	학 생 수 (현원)		
				계	남	여
경 북 대 대 학 원		1953. 5. 18	38	869	769	100
경북대교육대학원		1969. 2. 18	1	227	204	23
계 명 대 대 학 원		1967. 1. 26	21	204	147	57
계명대교육대학원		1967. 12. 19	13	193	150	43
계명대무역대학원		1979. 12. 5	2	29	29	—
효 성 여 대 대 학 원		1972. 1. 28	11	79	—	79
한 사 대 대 학 원		1973. 1. 9	8	110	100	10
영 남 대 대 학 원		1967. 12. 16	62	525	458	67
영남대경영대학원		1970. 2. 10	3	222	221	1
영남대환경대학원		1979. 12.	1	68	66	2

230) 앞의 책, 1979, pp.172~173.

231) 위의 책, 1979, pp.168~171.

5) 기타 학교

(1) 특수학교

대구시내의 특수학교는 1970년에 4개교였던 것이 1979년에는 6개교로 늘어났는데 이들 6개 특수학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12〉 특수학교 현황²³²⁾(1979)

구분 학교명	설립연월일	맹인학생	농아학생	지부자유	정신박약	교원수
남양학교	1968. 7. 9	109	280	234	219	29 (여9)
성보학교	1973. 3. 20					27 (여4)
영화학교	1959. 3. 10					29(여12)
광명학교	1959. 3. 9			154	164	24 (여6)
보명학교	1966. 12. 26					19 (여8)
보건학교	1966. 12. 26					21 (여7)
계		109	280	388	383	149(여46)

(2) 고등공민학교 및 기술학교

대구시내의 고등공민학교 및 기술학교는 1970년 22개교에 106학급, 학생수 4,968명, 교원수 258명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8개교에 24학급, 학생수는 884명, 교원수 43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에 따른 취학율이 높아지고, 의료시설의 발달의 결과라 생각된다. 1970년대의 공민학교 및 기술학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13〉 고등공민학교 및 기술학교 현황²³³⁾

구분 연도	학교수	학급수	학 생 수			교 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70	22	106	4,968	2,315	2,653	258	207	51
1971	18	74	3,941	2,236	1,705	214	159	55
1972	16	65	3,520	2,027	1,493	165	123	42
1973	15	77	2,544	2,246	1,298	187	144	43
1974	14	64	2,813	1,553	1,260	120	88	32
1975	12	61	4,606	2,679	1,927	217	140	77
1976	12	62	2,973	1,824	1,149	102	70	32
1977	9	33	2,202	1,149	1,053	84	53	31
1978	9	36	1,700	874	826	123	81	42
1979	8	24	884	427	457	43	26	17

232) 앞의 책, 1979, pp.170~171.

233) 위의 책, 1980, pp.160~161.

1979년의 8개 학교중 고등국민학교는 6개교에 18학급, 학생수 531명, 교원수 18명, 기술학교는 보성기술학교 1개교에 4학급, 학생수는 200명, 교원수는 7명, 각종학교(고등과정간이학교)는 1개교에 2학급, 학생수는 153명, 교원수 3명이었다. 이시기의 고등국민학교 및 기술학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14〉 각 고등국민학교 및 기술학교 현황²³⁴⁾ (1979)

구 분 학교명	설립연월일	학 급 수 및학과수	학 생 수			교 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복음고등국민학교	1948. 10. 15	3	148	96	52	3		
동구고등국민학교	1971. 3. 17	2	40	26	14	2		
청옥고등국민학교	1964. 2. 8	3	104	64	40	2		
오양고등국민학교	1975. 4. 1	2	145	90	55	2		
동성고등국민학교	1967. 5. 16	3	77	49	28	2		
보 성 기 술 학 교	1969. 4. 19	1학과	31	25	6	3		
보성고등기술학교	1974. 12. 20	13학과(9학급)	2,578	2,546	32	65	62	3
영남고등기술학교	1952. 3. 1	4	160	80	80	11	8	3
대구공업전수학교	1972. 2. 1	4개과(26학급)	1,458	1,458		40		
경 신 상 업 학 교	1968. 3. 19	11학급	720	720		23	22	1
경일여자상업전수학교	1977. 11. 16	60	3,614	1,807	1,807	76	48	28

(3) 방송통신고등학교

1979년말 현재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대구시내의 경우 3개교에 부설되어 있다. 이 3개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15〉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²³⁵⁾ (1979)

구 분 학교명	설립연월일	학급수	1 년		2 년		3 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경북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972. 3. 1	12	7	475	3	201	2	128
대구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974. 12. 31	16	8	511	6	290	2	91
경북여자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1974. 12. 31	24	10	644	8	446	6	379

234) 앞의 책, 1980, pp.466~475.

235) 《慶北教育統計年報》, 1980, p.478.

Ⅶ. 大邱直轄市 發足後の 大邱教育

1. 10·26사태와 제5공화국의 수립

1979년 10월 26일 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제4공화정은 무너졌다. 18년동안의 공화당의 장기집권이 무너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격동과 혼란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崔圭夏 총리를 대통령권한 대행에 취임시켰으나 혼란은 가중되었다. 10·26사태후 10월 27일 군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정치적 사회적 욕구와 국민의 민주적 절규는 갖가지 방법으로 분출되면서 사회적 혼미는 가중되어 갔다. 이에 1980년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군부의 조치에 광주에서는 학생과 시민의 연합으로 민주화운동을 일으켰으나 군부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군부는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하고, 이 위원장을 전두환장군이 맡아 명실공히 군정이 실시되었다. 국보위는 군부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고 개혁이란 미명하에 초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부정축재자 규제, 8,900명의 공직자 숙청, 순화교육, 사회정화운동을 비롯하여 교육면에서는 7·30조치라는 교육개혁을 내걸었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10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하고, 기존의 정당을 해산하였다. 국보위는 또한 1980년 11월 언론기관 통폐합을 결정하고, 12월에 언론기본법을 공포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폐합하였다.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로 민정당의 전두환 후보가 다시 7년 단임의 12대 대통령으로 선임되고, 이어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민정당 중심의 국회가 구성됨으로써 제5공화국의 체제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의 민정당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이란 4대 국정지표를 통치이념으로 표방하고 구악의 일소와 사회정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많은 허실과 낭비, 갈등을 가져왔고, 5공비리라는 문제를 낳았다.

2. 제5공화국하의 교육

제5공화국하의 교육의 특색은 한마디로 교육의 정상화와 과외 해소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된 「7·30교육개혁조치」라 할 수 있다. 과외금지 조치는 일부의 논란이 있었으나 275억원에

달하는 과외 수업비는 문교예산의 30%, 정부예산의 6%에 달하는 엄청난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였다. 7·30교육개혁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 1981년부터 대학입학 본고사의 폐지,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입학자를 선발.

② 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생은 정원보다 일정수를 더 입학시켜, 졸업은 정원수만큼 시킴

③ 대학의 전일제 수업 실시

④ 텔레비전 가정교과방송 운영, 교육전용방송 실시

⑤ 방송통신대학의 확충과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교원 처우개선 등이었다. 이중 과외금지 조치는 서민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 7·30조치이후 입시불안감은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명목으로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외의 고액과외, 편법과외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은 전인교육, 정신교육, 과학기술교육, 평생교육을 4대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은金玉吉, 李奎浩, 權 赫, 孫製錫, 徐明源 등으로 이어지는 문교부 장관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1982년 10월 8일에는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일제의 잔재였던 검정색 일색의 중·고교 교복을 입었으나 찬·반론이 분분하던 나머지 1986년 2학기부터는 학교장의 자유재량에 맡김으로써 교복은 3년 6개월만에 부활되게 되었다. 1984년 3월 15일에는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되어 그 이듬해 3월에 개교되었다. 이것은 교육계에 새로운 교육자상을 정립하는 요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으나 기존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그대로 둔채 옥상옥을 만든 격이 되어서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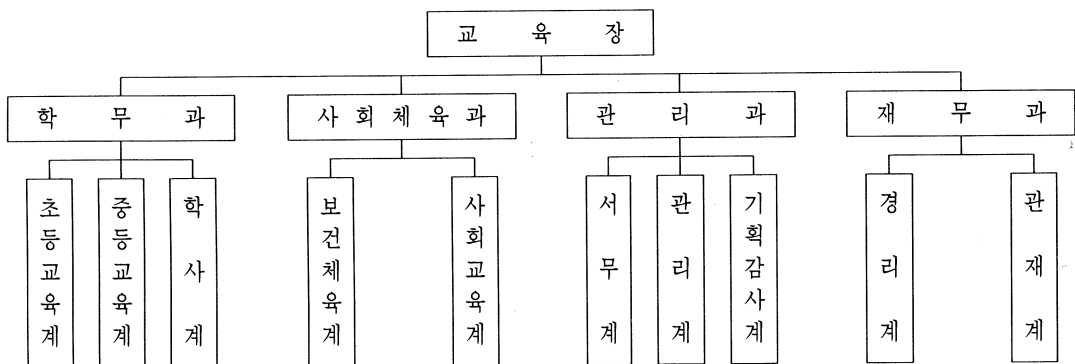
1984년에는 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는데 그 기본방침은 국민정신교육의 체계화, 전인교육의 충실,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에 두었다. 5공화국의 교육 개혁의 하나는 1981년부터 대학입학 본고사제를 없애고, 출신 고교의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예비고사 카트라인을 없앤 학력고사로 바꾸어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선지원 후시험의 제도로 바뀌게 되었고 출제방법도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를 혼합출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1948년 대학본고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40년동안에 10번이나 바뀌게 되었다. 이외에도 제5공화국하에서 실시한 교육정책중 중요한 것을 들면 교육세의 신설, 중앙교육평가원의 설치(1985), 학술진흥재단의 발족(1981), 대학교육협의회의 발족(1982. 4. 2), 학도호국단의 폐지와 학생회의 부활(1985), 대학

학기제의 개편 등으로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같은 정책에 관한 평가는 시기상조로 보이며, 먼후일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의 교육은 자율화, 민주화를 바탕으로 교육의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21세기에 대처할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꽃피우도록 힘쓰야 할 것이다.

3. 대구직할시의 교육

1)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의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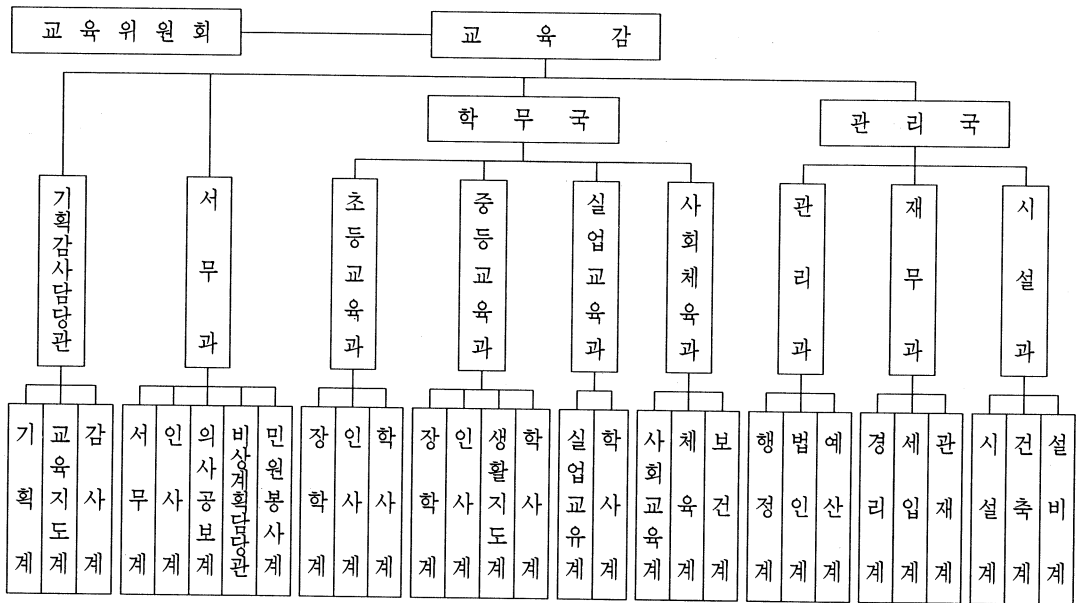
대구시의 교육은 종래에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하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그해 1월 1일 대통령령 제10386호로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가 설치·개청되었는데 그 직제구성은 2국, 1담당관, 8과로 편성을 보게 되었으며, 초대 교육감에 金容大가 1981년 7월 16일 취임하였다. 1983년 2월 12일에는 대구직할시 「교육과학원」이 설치되었고, 1984년 4월 6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여 「과학기술과」를 신설하였다. 그 후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 제11650호로 1985년 2월 27일 동부·서부교육청이 신설되었으며, 1985년 7월 16일 金鍾大가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였다. 1989년 6월 27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명실공히 대구교육의 본산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고, 그 해 7월 16일에는 吳東熙 교장이 제3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1993년 7월 16일에는 金演哲 부교육감이 제4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였다. 대구직할시 교육청의 기구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圖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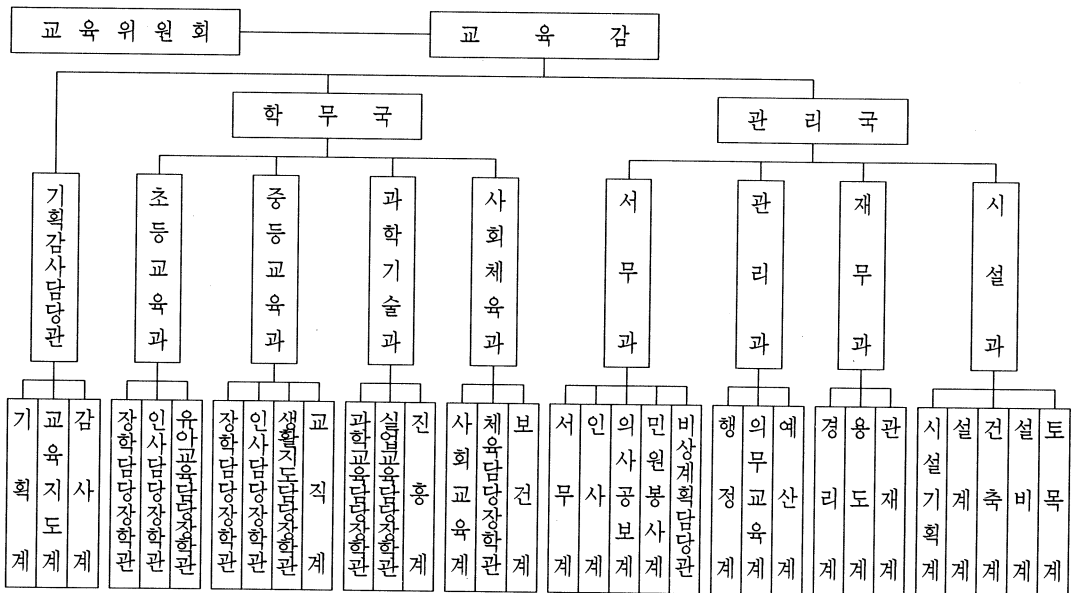
직할시 승격이전 대구시교육청 기구²³⁶⁾(1981)

236) 《大邱教育史》, p.854.



〈圖 1-11〉

개청당시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기구²³⁷⁾(1981. 7. 1)



〈圖 1-12〉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기구²³⁸⁾(1984. 4. 6)

237) 앞의 책, p.855.

238) 위의 책, p.858.

2) 대구의 학교교육

(1) 유치원교육

대구교육청은 1983년 초등교육과에 유아교육담당장학관 1명과 장학사 1명을 두어 유아교육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유치원 교육이 크게 진전되었다. 즉 1980년에는 유치원수 55개에 원아수 5,218명, 교원수 258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유치원수 166개, 원아수 16,216명, 교원수 69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함에 따라 유치원교육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表 1-116〉 1980년대 유치원 현황²³⁹⁾

구분 설립별 연도	학 급 수			원 아 수			교 원 수		
	계	공 립	사 립	계	공 립	사 립	계	공 립	사 립
1980	131		131	5,218		5,218	258		258
1981	174		174	5,985		5,985	259		259
1982	177		177	6,725		6,725	300		300
1983	243		243	8,606		8,606	417		417
1984	284		284	9,963		9,963	456		456
1985	332	4	328	12,300	161	12,139	554	5	549
1986	362	8	354	12,524	283	12,241	519	8	511
1987	401	12	389	13,843	416	13,427	513	4(8)	509
1988	427	13	414	14,446	445	14,001	523	6	517
1989	451	13	438	15,415	347	15,068	586	6	580
1990	482	12	470	16,216	292	15,924	696	5(7)	691

유치원교육은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졌는데 그 연도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39) 앞의 책, p.307.

〈表 1-117〉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현황²⁴⁰⁾(1985~1991)

유치원명	설립연월일	학급 원아수	연도							비고
			'85	'86	'87	'88	'89	'90	'91	
대구공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5. 1. 25	학급수 원아수	2 80	2 57	2 60	2 50	2 45	1 36	1 38	
대구송정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5. 1. 25	학급수 원아수	1 40	1 40	1 40	1 37	1 24	1 15	1 18	
대구성북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5. 1. 25	학급수 원아수	1 41	1 40	1 38	1 39	1 25	1 19	1 19	
대구숙천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6. 2. 18	학급수 원아수		1 40	1 28	1 34	1 17	1 18	1 17	
대구서촌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6. 2. 18	학급수 원아수		1 40	1 36	1 32	1 36	1 20	1 18	
대구성서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6. 2. 18	학급수 원아수		1 40	1 40	1 40	1 40	1 40	1 40	
대구도남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6. 3. 1	학급수 원아수		1 26	1 14	1 13	1 11	1 9	1 7	
대구침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7. 1. 11	학급수 원아수			2 80	2 80	2 58	2 45	2 45	
대구해서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7. 1. 30	학급수 원아수			1 40	1 40	1 40	1 40	1 40	
대구해안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7. 1. 30	학급수 원아수			1 40	1 40	1 29	1 24	1 20	
대구문성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88. 3. 1	학급수 원아수			1 40	1 19	1 19	1 26	1 26	
계		학급수 원아수	4 161	8 283	12 416	13 445	13 344	12 292	12 290	

240) 앞의 책, p.314.

유치원 교육을 위한 국가적 행·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직할시의 유아교육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구지회(1976. 1발족), 한국기독교 유아교육연합회 대구지회(1969. 10), 카톨릭유아교육협회 대구지회(1980. 6) 등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국민학교 교육

대구시내의 국민학교는 1980년에 64개교, 학급수 3,304학급, 학생수 214,949명, 교원수 3,495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18개교, 학급수 4,984학급, 학생수 255,071명, 교원수 5,692명으로 10년간에 약 배나 증가되었다.

〈表 1-118〉 국민학교 현황²⁴¹⁾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학급수	64	69	86	98	107	111	114	114	115	117	118
학급수	3,304	3,452	4,012	4,103	4,148	4,128	4,295	4,474	4,732	4,984	5,179
학생수	214,949	215,539	235,917	233,593	231,165	227,318	231,024	235,571	244,325	252,213	255,071
교원수	3,495	3,648	4,321	4,495	4,590	4,586	4,640	4,925	5,219	5,468	5,692

〈表 1-119〉 국민학교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²⁴²⁾(1991)

구칭별 구역		동부				서부				학교수	근무연한	
											학 교	구역
가		구덕목덕성어 대명효삼동범	남산양로천대신 아중동동효	신천앙성인명동 중수동북경	창도신덕 수동동동	서부선산남덕서 서영옥성대달	명암성명리부 대신대성평서	당운도성지현 대경남달인이	신홍덕격분현송 봉산대송남	46	4	8
나		지해덕불신대 산서성로성청	동원동산촌산 동성동방두	만고반안파 촌산야일동	황동동 금부일문	비산대성성영전평리당류 북칠문삼죽서본성두	남명상현곡천대부산남서 북칠매남달대내	동중리대서산신삼천인 대북서성대경감진덕	침산 리산구 효명 용산배봉 월비	56	4	8
다		해안서촌	지묘송정	숙천평광	공산	조야	성북	도남		10	3	5
특수 구역	공특	남양				성보				2	5	—
	국립	사대부국				교대부국				2	5	—

※ 만기연한은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함.

241) 《大邱統計年報》, 1986, pp.166~167 및 같은 책, 1991, pp.214~215.

242) 《大邱教育史》，p.434.

〈表 1-120〉 국민학교 2부제수업 현황²⁴³⁾

연 도	학교수	학급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981	63	565	110	273	148	34		
1982								
1983								
1984	56	390	105	197	75	13		
1985	51	334	97	184	36	17		
1986	51	316	100	174	42			
1987	55	412	137	220	55			
1988	60	552	210	245	85	12		
1989	75	674	307	252	108	7		
1990	74	718	278	292	134	14		

〈表 1-121〉 국민학교 아동수별 학급수²⁴⁴⁾

연 도 \ 아동수	계	~ 30	31 ~ 60	61 ~ 70	71 ~ 80
1981	3,452	14	629	2,758	51
1982	4,012	29	2,562	1,393	28
1983	4,112	60	3,456	592	14
1984	4,148	51	3,748	346	3
1985	4,128	84	3,910	134	
1986	4,259	95	4,020	176	4
1987	4,474	130	4,282	62	
1988	4,732	192	4,514	26	
1989	4,984	137	4,824	23	
1990	5,179	141	4,973	65	

〈表 1-122〉 국민학교 졸업자 진학상황²⁴⁵⁾

연 도 \ 구 분	졸 업 자 수	진 학 자 수	미 진 학 자 수	진 학 율
1981	37,789			
1982	41,135	40,706	378	98.95
1983	42,097	41,790	303	99.27
1984	42,828	42,578	250	99.41
1985	44,306	44,098	206	99.53
1986	42,800	42,636	159	99.62
1987	42,240	42,102	138	99.66
1988	40,650	40,513	136	99.66
1989	40,102	40,030	72	99.82
1990	41,151	41,089	62	99.84

243) 앞의 책, p.444.

244) 위와 같음.

245) 위의 책, p.447.

1980년대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23〉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²⁴⁶⁾(1981. 12. 31)

구 분 \ 학 년		1	2	3	4	5	6
교 과 활 동	도 덕	374 (11)	374 (11)	68 (2)	68 (2)	68 (2)	68 (2)
	국 어			238 (7)	204 (6)	204 (6)	204 (6)
	사 회			102 (3)	102 (3)	136 (4)	136 (4)
	산 수	204 (6)	136 (4)	136 (4)	136 (4)	170 (5)	170 (5)
	자 연		68 (2)	102 (3)	136 (4)	136 (4)	136 (4)
	체 육	204 (6)	238 (7)	102 (3)	102 (3)	102 (3)	102 (3)
	음 악			68 (2)	68 (2)	68 (2)	68 (2)
	미 술			68 (2)	68 (2)	68 (2)	68 (2)
	실 과				68 (2)	68 (2)	68 (2)
	계	782 (23)	816 (24)	884 (26)	952 (28)	1,020 (30)	1,020 (30)
특 별 활 동				34~(1~)	68~(2~)	68~(2~)	68~(2~)
계		782 (23)	816 (24)	918~(27~)	1,020~(30~)	1,088~(32~)	1,088~(32~)

※ ()는 주당 평균 시간수임.

(3) 중등학교 교육

① 중학교

대구시의 중학교는 1981년말 현재 18개교에 540학급, 학생수 37,507명, 교원수 779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42개교에 1,334학급, 학생수 71,871명, 교원수 2,466명으로 학교수는 24개교, 학생수는 3,400여명, 교원수는 1,687명이 증가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대구시의 중학교 학생의 취업율과 인구의 증가, 부모들의 교육열의 고조때문이라 생각된다. 1980년대의 공·사립중학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46) 文敎部, 《國民學校教育課程》, 1982, p.4.

국·공립중학교 현황²⁴⁷⁾

(表 1-124)

연도 구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학교수	18	23	28	32	35	39	40	41	41	42
학급수	546	771	889	962	1,049	1,133	1,215	1,264	1,294	1,334
학생수	37,507	52,240	59,248	63,335	68,064	70,358	71,659	71,668	71,627	71,871
교원수	779	1,116	1,313	1,435	1,569	1,687	1,878	2,011	2,199	2,466

사립중학교 현황²⁴⁸⁾

(表 1-125)

연도 구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학교수	31	32	32	32	32	32	32	32	32	32
학급수	973	991	978	979	961	961	955	948	941	936
학생수	67,277	67,547	67,547	64,210	62,718	61,045	58,380	55,528	53,573	61,749
교원수	1,348	1,369	1,425	1,430	1,416	1,417	1,433	1,489	1,583	1,578

② 고등학교

대구시의 고등학교는 국·공립 인문계(일반)의 경우 1981년에는 6개교에 195학급, 학생수 11,998명, 교원수 350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8개교에 237학급, 학생수 13,790명, 교원수 467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립의 경우는 1981년에 22개교에 710학급, 학생수 43,220명, 교원수 1,173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32개교에 1,201학급, 학생수 16,139명, 교원수 2,310명으로 늘어났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공립은 1981년에 3개교에 146학급, 학생수 8,649명, 교원수 295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5개교에 183학급, 학생수 9,847명 교원수 470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립의 경우는 1981년에는 15개교에 617학급, 학생수 36,853명, 교원수 980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5개교에 580학급, 학생수 30,927명, 교원수 1,150명으로 학급수와 학생수가 줄었다. 1980년대 고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47) 《大邱統計年報》, 1986, pp.168~169 및 같은 책, 1991, pp.216~217.

248) 위의 책, 1986, pp.170~171 및 같은 책, 1991, pp.218~219.

〈表 1-126〉 인문계고등학교 현황²⁴⁹⁾

연도 구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국·공립	학교수	6	6	7	7	7	7	7	8	8	8
	학급수	195	195	207	221	235	237	237	239	241	242
	학생수	11,998	11,933	12,718	13,474	14,105	14,019	13,790	13,728	13,529	13,255
	교원수	350	367	389	416	444	460	467	489	513	542
사립	학교수	22	27	27	28	29	32	32	32	32	32
	학급수	710	911	933	958	995	1,062	1,128	1,182	1,198	1,201
	학생수	43,220	55,142	56,656	58,092	59,494	62,485	65,069	67,498	67,158	66,139
	교원수	1,173	1,485	1,610	1,662	1,751	1,935	2,013	2,118	2,271	2,310

〈表 1-127〉 실업계고등학교 현황²⁵⁰⁾

연도 구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공립	학교수	3	5	5	5	5	5	5	5	5	5
	학급수	146	200	201	201	199	199	187	183	183	183
	학생수	8,649	11,578	11,614	11,576	11,244	11,037	10,229	10,003	9,877	9,847
	교원수	295	419	417	415	414	408	413	419	449	470
사립	학교수	15	15	15	16	16	13	13	15	15	15
	학급수	617	629	644	668	682	736	597	566	576	580
	학생수	36,853	37,186	37,968	39,254	39,410	41,928	33,440	31,462	31,417	30,927
	교원수	980	1,008	1,075	1,122	1,132	1,084	1,036	1,032	1,107	1,150

1980년대의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249) 앞의 책, 1986, pp.172~175 및 같은 책, 1991, pp.220~223.

250) 위의 책, 1986, pp.176~179 및 같은 책, 1991, pp.224~227.

〈表 1-128〉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²⁵¹⁾(1981)

교 과			학 년	1	2	3
교 과 동	도		덕	68(2)	68(2)	68(2)
	국		어	136(4)	170(5)	170(5)
	국		사		68(2)	68(2)
	사		회	102(3)	68 ~ 102(2 ~ 3)	68 ~ 102(2 ~ 3)
	수		학	136(4)	102 ~ 136(3 ~ 4)	102 ~ 136(3 ~ 4)
	과		학	136(4)	102 ~ 136(3 ~ 4)	102 ~ 136(3 ~ 4)
	체		육	102(3)	102(3)	102(3)
	음		악	68(2)	68(2)	34(1)
	미		술	68(2)	68(2)	34(1)
	한		문	34(1)	34 ~ 68(1 ~ 2)	34 ~ 68(1 ~ 2)
	외 국 어		영 어	136(4)	102 ~ 170(3 ~ 5)	102 ~ 170(3 ~ 5)
	실 업 가 정	필 수	생활기술(남)	102(3)	136 ~ 204(4 ~ 6)	
			가 정 (여)			
		선 택	농 업			택 1 ~ 2 170 ~ 238(5 ~ 7)
			공 업			
상 업						
수 산 업						
	가 사					
자 유 선 택			0 ~ 34(0 ~ 1)	0 ~ 34(0 ~ 1)	0 ~ 34(0 ~ 1)	
계			1,088 ~ 1,156(32 ~ 33)	1,088 ~ 1,156(32 ~ 34)	1,088 ~ 1,156(32 ~ 34)	
특 별 활 동			68 ~ (2 ~)	68 ~ (2 ~)	68 ~ (2 ~)	
총 계			1,156 ~ 1,190 ~ (34 ~ 35) ~	1,156 ~ 1,224 ~ (34 ~ 36) ~	1,156 ~ 1,224 ~ (34 ~ 36) ~	

251) 教育部, 《中學校教育課程》, 1982, p.4.

(表 1-129) 高等學校 敎育과정 단위배당 기준²⁵²⁾(1981)

교 과	과 목	보 통 교 과				전 문 교 과
		공 통 필 수	일 반 계 고 교 력		일반계 고교 직 업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고 교선택	
			인문·사회 과	자연과정		
국 민 윤 리	국 민 윤 리	6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기타 계열에 관한 교과
국 어	국 어 (I , II)	14~16	14~18	8~10	3~8	
국 사	국 사	6(4)				
사 회	사 회 (I , II)	4~6(2~6)	4		택1, 2~6	
	지 리 (I , II)	4~6(2~6)	4			
	세 계 사	2~(2)*택1	2			
수 학	수 학 (I , II)	8~14	6~8	10~18	4~18	
과 학	물 리 (I , II)	4~6		4	택1~2	
	화 학 (I , II)	4~6		4		
	생 물 (I , II)	4~6		4	4~12	
	지구과학(I , II)	4~6		4		
체 육	체 육	6~8	8~10	8~10	4~8	
교 련	교 련	12				
음 악	음 악	4~6	택1	택1	택1	
미 술	미 술	4~6	4~6	4~6	2~6	
한 문	한 문 (I , II)		8~14	4~ 6	4~ 6	
외 국 어	영 어 (I , II)	6~8	14~16	14~16	6~16	
	독 일 어		택1	택1	택1	
	프 랑 스 어					
	에 스 파 니 아 어					
	중 국 어		10~12	10~12	6~10	
일 본 어						
실 업 가 정	산 업 기 술		택1	택1	택1	
	가 정		8~10	8~10	4~ 8	
	농 업		택1	택1		
	공 업					
	상 업					
	수 산 업		8~10	8~10		
가 사						
자 유 선택			0~ 8	0~ 8	0~ 8	
이 수 단 위 합 계		88~102 *(72~84)	90~116	90~116	10~38	
이 수 단 위 합 계		192~204				
특 별 활 동		12~				
총 계		204~216				

※ ()안의 숫자와 *표시는 실업계 및 기타 계열의 이수 단위를 나타낸 것임.

252) 教育部, 《高等學校敎育課程》, 1982, pp.5~6.

1990년대에는 대구시의 도시화의 과정에서 많은 학교들의 위치가 바뀌어졌는 바 그 변경된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30〉 학교 재배치 현황²⁵³⁾

학교급별	연도	학 교 명	규모(m ²)	공사금액	위 치 변 경		비고
					전	후	
중 학 교	1981	경혜여자 중 학 교	4,735	672,370	중구 남산동 630	남구 대명4동 3056-20	
	1984	대구여자 중 학 교	12,860	2,368,861	중구 동인동 4	북구 침산3동 400-1	
	1987	능 중 학 교	7,728	1,590,312	중구 대봉동 650	수성구 지산동 800	
	1987	대 중 학 교	6,170	1,901,659	수성구 수성1가 624	수성구 만촌동 241	
	1989	대 중 학 교	5,800	1,403,200	중구 남산동 225	달서구 월성동 247	
	1989	효성여자 중 학 교	7,020	1,698,400	중구 남산동 2434	달서구 월성동 247	
	1989	영 중 학 교	9,381	2,097,409	중구 남산동 2461	달서구 상인동 70	
	1990	오 중 학 교	4,611	1,980,285	수성구 수성1가 96	수성구 만촌동 368	
고등학교	1984	남양학교	6,555	937,365	남구 대명9동 483	수성구 지산동 1022	
	1984	대구상업 고등학교	16,886	3,346,232	남구 대봉동 60-10	달서구 상인동 1	
	1984	대 제 일 여 상	6,104	1,024,188	중구 봉산동 230	서구 본리동 156-1	
	1985	경 고 등 학 교	20,784	4,237,540	중구 대봉동 111	수성구 황금동 9	
	1985	보성공업고 등기술학교	8,366	860,225	서구 비산동 705-1	동구 신평동 50	
	1987	능 고 등 학 교	11,485	2,363,448	남구 이천동 650	수성구 지산동 800	
	1987	대 고 등 학 교	15,569	4,798,341	수성구 수성1가 624	수성구 만촌동 산 241	
	1989	대 고 등 학 교	7,496	1,287,867	중구 남산동 225	달서구 월성동 247	
	1989	효성여자 고등학교	9,697	2,320,667	중구 남산3동 2188	달서구 월성동 247	
	1990	영 고 등 학 교	13,056	3,475,679	중구 남산동 2461	달서구 상인동 70	
	1990	오 고 등 학 교	4,470	1,929,715	수성구 수성1가 96	수성구 만촌동 1070	

253) 《大邱教育史》, pp.907 ~ 908.

대구시의 중·고등학교 학군 및 학구를 보면 (表 1-131)과 같다.

(表 1-131) 대구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²⁵⁴⁾

학 교 군 및 구	구 별	해 당 지 역	비 고
1 학 교 군	중 구	전 역	
2 학 교 군	수 성 구	전 역	경북 달성군 용계국민학교 통학구역내 거주하는 졸업생은 본학교군내 배정할 수 있다.
3 학 교 군	동 구	전역중, 안심중학교와 공산중학구는 제외	서촌, 지묘국민학교는 공산중학교와 자유학구로 한다.
4 학 교 군	서 구	전 역	
5 학 교 군	남 구	전 역	
6 학 교 군	북 구	전역중, 칠곡중학구는 제외	
7 학 교 군	달 서 구	전 역	경북 달성군 서재국민학교 통학구역내 거주하는 졸업생은 본학교군내 배정할 수 있다.
칠 곡 중 학 구	북 구	칠곡, 매천 도남국민학교 학구 지천(경북)	경북 칠곡군 지천국민학교 통학구역내 거주하는 졸업생중 금호동, 낙산동, 연호동(가정, 구슬계) 학생은 본학구에 배정할 수 있다.
안 심 중 학 구	동 구	반야월, 안일, 송정, 숙천국민학교 학구 청천(경북)	안일국민학교 통학구역중 안심2동 1-8통 거주하는 제외한다. 경북 경산군 청천국민학교 통학구역중 청천동, 남하1·2동은 경북 하양과 자유학구로 한다.
공 산 중 학 구	동 구	공산, 서촌, 지묘	서촌, 지묘국민학교는 3학교군과 자유 학구로 한다.

254) 《大邱教育統計年報》, 1992, p.347.

〈表 1-132〉

학군 및 학구 현황²⁵⁵⁾

구분 학군	고 등 학 교		해 당 소 속 지 역		조 절 학 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1	사대부고 영진고 영신고 성광고 청구고 경상고 정동고	사대부고 경북여고 성화여고 경명여고 신명여고 경상여고	중구: 달성동 서성동 북성동 동성동 동인1,2가동 동인3가동 동구: 전지역 북구: 전지역 (단, 칠곡1동 칠곡2동 칠곡3동 제외) 북구: 전지역	중구: 달성동 서성동 남성동 북성동 남산1동 남산2동 대신1동 대신2동 동구: 전지역 (단, 신천1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제외) 북구: 전지역	사대부고 청구고 성광고 영신고 영진고	사대부고 경북여고 신명여고 경명여고
2	경북고 오성고 덕원고 경신고 능인고 협성고	대구여고 남산여고 경일여고 정화여고 해화여고	중구: 대봉1동 대봉2동 동인4가동 삼덕1,2가동 삼덕3가동 봉산동 남산1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성동 수성구: 전지역 남구: 이천1동 이천2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달성군: 가창면 전지역	중구: 동성동 동인1,2가동 동인3가동 동인4가동 삼덕1,2가동 봉산동 대봉1동 대봉2동 수성구: 전지역 동구: 신천1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남구: 이천1동 이천2동 대명2동 대명5동 대명8동 대명9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달성군: 가창면 전지역	경신고 협성고	남산여고 경일여고

255) 앞의 책, pp.345~346.

구분 학군	고 등 학 교		해 당 소 속 지 역		조 절 학 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3	대구고 달성고 심인고 경원고 영남고 계성고 대건고 배영고	경덕여고 효성여고 경화여고 원화여고 송현여고	중구: 남선4동 대신1동 대신2동 서구: 전지역 남구: 전지역 (단, 이천1동 이천2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제외) 북구: 칠곡1동 칠곡2동 칠곡3동 달서구: 전지역	중구: 남산3동 남산4동 서구: 전지역 남구: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7동 대명10동 대명11동 달서구: 전지역	대구고 계성고	경덕여고 경화여고
특수지 학 교		배영여고 신라여중고				

(4) 고등교육기관

대구시의 고등교육기관은 1984년말 현재 종합대학교가 4개교, 대학원 15, 독립단과대학이 5, 전문대학이 9개교이었던 것이 1992년말 현재는 종합대학교가 2, 대학원이 21, 독립단과대학 5, 전문대학 7개교로서 대학원 수가 6, 종합대학교가 2개교 감소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효성여자대학교와 대구대학교가 경산지역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33〉 대학교 현황²⁵⁶⁾(1992)

학 교 명	소 재 지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법 인 명
경북대학교(국립)	북구 산격동 137	91	22,606	749	
계명대학교(사립)	달서구 신당동 1000	71	21,065	632	계명기독교대학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남구 대명동	1	382	76	영남학원
대구교육대학교	남구 대명2동 1797-5	1	2,113	81	
경북산업대학교	동구 효목동 55	21	12,457	131	일청학원
대구카톨릭대학	중구 남산동 219	7	273	65	선목학원
대구대학교사범대학	남구 대명동 2288	13	2,328	68	영광학원
대구대학교가정대학	남구 대명동 2288	4	593	18	영광학원
대구대학교재활과학대학	남구 대명동 2288	4	543	17	영광학원

※ 대구대학교는 경산 진량으로 옮겼으나 대명동 캠퍼스에는 위의 3개 단과대학이 있다.

256) 앞의 책, pp.456~457.

〈表 1-134〉 대학원 현황²⁵⁷⁾ (1992)

대 학 원 명	소 재 지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연월일
경 북 대 학 교 대 학 원	북구 산격동 1370	68	2,214		1953. 5. 18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북구 산격동 1370	28	421		1969. 2. 18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북구 산격동 1370	3	171		1979. 12. 5
경북대학교경영대학원	북구 산격동 1370	7	199		1981. 3. 1
경북대학교보건대학원	중구 동인2가 101	5	100		1980. 11. 3
경북대학교산업대학원	북구 산격동 1370	1	101		1985. 3. 1
경북대학교농업개발대학원	북구 산격동 1370	3	20		1992. 3. 1
영남대학교경영대학원	남구 대명동 317-1	3	194		1970. 2. 10
영남대학교환경대학원	남구 대명동 317-1	5	203		1979. 12. 5
영남대학교행정대학원	남구 대명동 317-1	3	125		1987. 11. 9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남구 대명동 213-9	43	603		1966. 12. 12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남구 "	23	309		1967. 12. 19
계명대학교무역대학원	남구 "	6	120		1979. 12. 5
계명대학교정책개발대학원	남구 "	2	44		1988. 11. 30
계명대학교여성대학원	남구 "	3	55		1990. 3. 1
대 구 대 학 교 대 학 원	남구 대명동 2288	27	289	129	1973. 1. 9
대구대학교교육대학원	남구 대명동 2288	20	154	125	1983. 10. 21
대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	남구 대명동 2288	1	44	11	1991. 3. 2
대구대학교재활과학대학원	남구 대명동 2288	1	40	8	1991. 11. 15
대구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남구 대명동 2288	7	170	38	1982. 3. 1
대 구 카 톨 릭 대 학 원	중구 남산동 219	1	23		1985. 11. 7
경북산업대학교산업대학원	동구 효목1동 55	9	72	71	1989. 11. 15
경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수성구 상동 165	4	52	22	1983. 11. 20
경산대학교보건대학원	수성구 상동 165	1	45	8	1987. 1. 19

〈表 1-135〉 전문대학 현황²⁵⁸⁾ (1992)

학 교 명	소 재 지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연월일
대 구 전 문 대 학	북구 태전동 산9	14	3,089	51	1960. 5. 9
영 남 전 문 대 학	남구 대명동 1737	16	5,230	94	1968. 2. 15
계 명 전 문 대 학	남구 대명동 2139	19	4,803	91	1970. 12. 16
대 구 보 건 전 문 대 학	북구 태전동 산7	16	3,696	81	1971. 12. 23
대 구 공 업 전 문 대 학	달서구 본동 831	13	3,489	50	1975. 12. 30
영 진 전 문 대 학	북구 복현동 218	15	7,352	131	1977. 3. 1
신 일 전 문 대 학	수성구 만촌2동 1091	22	3,822	108	1979. 3. 1

257) 앞의 책, pp.454~455.

258) 위의 책, pp.456.

(5) 기타 학교교육

①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1992년말 현재 대구시에 소재한 산업체부설고등학교는 4개교에 42학급, 학생수 1,750명, 교원수 71명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36〉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현황²⁵⁹⁾ (1992)

학 교 명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연월일
이현여자고등학교	서구 중리동 507-19	11	445	19	1983. 11. 23
성일여자고등학교	북구 침산동 105	5	188	3	1977. 11. 23
한일여자고등학교	북구 검단동 838	20	916	26	1980. 1. 24
지산여자고등학교	북구 검단동 777-1	6	201	11	1987. 10. 30

산업체 특별학급은 중학교가 1개교에 3학급, 학생수 146명, 고등학교가 7개교에 80학급 4, 152명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37〉 산업체 특별학급 현황²⁶⁰⁾ (1992)

학 교 명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학 과
상서여자고등학교	중구 장관동 1	18	989		상 업
대구공업고등학교	동구 신암동 1-811	16	809		기계, 화학, 섬유
신라여자종합고등학교	동구 각산동 199	4	215		상 업
경일여자상업고등학교	동구 신암동 80	5	276		상 업
경상여자상업고등학교	서구 비산동 4-240-2	13	704		상 업
경명여자중학교	북구 칠성2가 411	3	146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달서구 본리동 156	15	732		상 업
구남여자상업고등학교	서구 두류동 1207-1	9	427		상 업

② 고등국민학교

1984년말 현재 고등국민학교는 3개교에 9학급, 학생수 228명, 교원수 98명이었던 것이 1992년말 현재에는 1개교에 3학급, 학생수 44명, 교원수 3명으로 줄었다.

259) 앞의 책, 각구청별 산업체 고등학교현황을 수합한 것임.

260) 위의 책, 각구청별 산업체 특별학급현황을 수합한 것임.

③ 고등기술학교

1984년말 현재 고등기술학교는 2개교에 53학급, 학생수 2,394명, 교원수 69명이었던 것이 1992년말 현재에는 1개교에 36학급, 학생수는 1,689명, 교원수 5명으로 줄었다.

④ 산업학교

산업학교는 1990년 9월 18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대구산업학교를 개설하고 기계과 2학급에 104명, 자동차과 2학급에 104명, 전자과 3학급에 156명, 전산과 3학급에 160명으로 편성되었다.

⑤ 특수학교

1984년말 현재 대구시의 특수학교는 8개교에 128학급(인가는 144학급)에 학생수 1,668명(여 663명), 교원수 196명(여자 77)이었던 것이 1992년말 현재에는 8개교에 159학급, 학생수 1,703명(여 649), 교원수 253명(여 107명)으로 늘어났다.

〈表 1-138〉 특수학교 현황²⁶¹⁾(1992)

학 교 명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연월일
대 구 남 양 학 교	수성구 지산동 1022	26	281	48	1968. 7. 9
대 구 선 명 학 교	수성구 시지동 28-1	24	324	36	1982. 3. 1
대 구 보 건 학 교	남구 대명동 2288	16	194	26	1966. 12. 26
대 구 광 명 학 교	남구 대명동 2288	12	106	20	1946. 4. 19
대 구 덕 회 학 교	남구 대명동 2288	13	159	18	1982. 11. 20
대 구 보 명 학 교	남구 대명동 2288	19	191	25	1966. 12. 26
대 구 명 화 학 교	남구 대명동 2288	23	204	32	1946. 4. 19
대 구 성 보 학 교	북구 복현동 312-2	26	244	48	1973. 2. 20

⑥ 학원

1984년 현재 대구시의 사설강습소는 536개에 수강생수는 41,148명(여 15,868), 강사수는 1,464명(여 438)이었던 것이 1992년말 현재에는 2,319개에 수강생 14,739명(여 69,698), 강사수는 4,753명(여 3,192)으로 늘어났다. 평균 수강기간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12개월이상도 있다. 이것을 계열별로 보면 文理係 272개, 기술계 467, 예능계 557, 가정계 8, 사무계 1,015개, 독서실 287개소이다. 課程別로 보면 文理係 272개소중 입시학원이 204, 검정고시 6, 성인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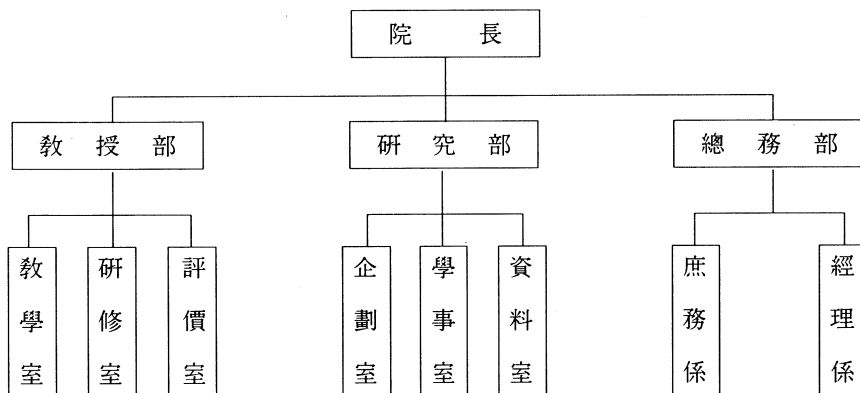
261) 앞의 책, 각구청별 특수학교현황을 수합한 것임.

17, 종교 4, 문리(영·수) 41개소이며, 기술계는 전자 307, 섬유 24, 기계 23, 통신 13, 정보처리 20, 전기 2, 화공 3, 항공 3, 건축 2, 기타 70개소이며, 예능계는 음악 280, 미술 189, 서예 55, 무용 32, 펜글씨 1개소이며, 사무계는 속셈 754, 용변 74, 주산 92, 타자 52, 속기 4, 관광 3, 속독 1, 언어교정 3개소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954, 서부 1,365개로 서부에 편중되어 있다.²⁶²⁾

第7節 大邱教育의 支援 機關

I. 大邱敎員研修院

대구직할시 교육청은 1989년 1월 5일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교원연수원 개설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대구의 명산 팔공산의 대구시 동구 신무동 산 113번지에 1989년 12월 30일 신축공사를 기공하였다. 총공사비 26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청우건설(주)이 맡았다. 1990년 6월 16일에는 교원연수원 설치조례를 공포하고 1991년 1월 18일에 개원업무 추진요원을 발령하여 교육과학연구원 구내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1년 6월 23일 신축건물 본관동과 생활관이 준공되어 사무실을 이곳으로 옮겼으며 초·중등 교감자격연수를 시발로 연수업무를 추진하였다. 이 연수원의 기구는 1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구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圖 1-13〉

대구교원연수원기구²⁶³⁾

262) 앞의 책, pp.290~293.

263) 《大邱教育史》, p.917.

第1章 教 育

대구교원연수원의 과정별 연수계획 및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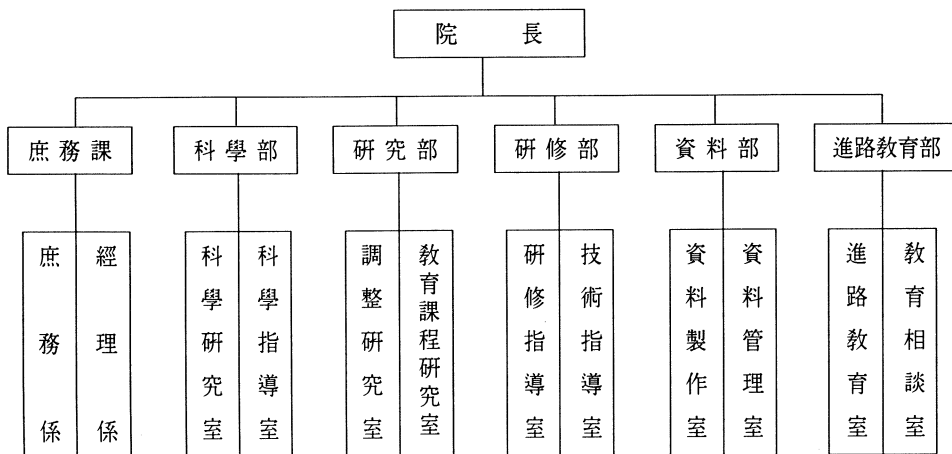
〈表 1-139〉 과정별 연수계획 및 실적²⁶⁴⁾(1991)

연수 종별	과 정 명	대 상	시 간 (일)	인 원		비 고
				계 획	실 적	
자 격 인 수	幼稚園 一 正	幼稚園 教 師	183 (30)	116	116	
	初 等 一 正	初 等 教 師	183 (30)	160	160	
	中 等 一 正	中 等 教 師	183 (30)	247	118	
	教 導 教 師	中 等 教 師	182 (30)	40		
	初 等 校 監	初 等 教 師	183 (30)	52	52	
	中 等 校 監	中 等 校 監	183 (30)	23	23	
	小 計			638	389	
일 반 연 수	藝能(音樂)實技	初 等 教 師	62 (10)	80		
	藝能(美術)實技	初 等 教 師	62 (10)	80	80	
	特 活 英 語	初 等 教 師	122 (20)	120		
	視 聽 覺 實 技	初 中 等 教 師	62 (10)	40 40		
	圖書館擔當教師	初 中 等 教 師	62 (10)	29 20	29 20	
	社 會 課 教 師	中 等 教 師	62 (10)	93	93	
	教 導 教 師	中 等 教 師	62 (10)	80	80	
	小 計			582	302	
직 무 연 수	新 規 實 務 者	一 般 職 (8・9 級)	156 (24)	116		
	中 堅 實 務 者	一 般 職 (6・7 級)	114 (18)	40		
	小 計			156		
특 별 연 수	幼稚園 教 師	幼稚園 教 師	32 (5)	120	120	
	新 規 採 用 教 師	初 中 等 教 師	18 (3)	328 110	328 110	
	養 護 教 師	初 中 等 養 護 教 師	18 (3)	165	165	
	元 老 教 職 者	退 職 對 象 者	16 (2)	38	38	
	小 計			761	761	
合 計				2,137	1,452	

264) 앞의 책, p.920.

II. 教育科學研究院

대구교육과학원은 1982년 4월 7일에 수성구 황금동 산 136-2의 시유지 13,811㎡(4,185평)를 대구시로부터 할양받아 착공하였다. 1983년 2월 10일에는 조례 제1638호를 공포하였으며, 그해 3월 1일에 대구대봉국민학교 3개교실을 빌려 초대 원장으로 서홍달이 취임하였다. 이 교육과학연구원은 35억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1983년 11월 14일 준공하여 교육연구와 교원연수, 각종 자료제작 보급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현장 교육지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기구의 편제를 보면 1원 5부 1과로 구성되어 있다.



〈圖 1-14〉

대구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 기구²⁶⁵⁾

※ 상기 기구중 진로교육부는 교육과학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1990. 1. 11 제2445호)에 의거, 추가된 기구임.

이 기구에서 활용한 중요한 활동상과 실적을 보면 〈表 1-140〉과 같다.

265) 앞의 책, p.924.

〈表 1-140〉 전국과학전람회 수상현황²⁶⁶⁾

구분 연도(회)	학 생 부				교 원 부				합 계			
	출품수	특상	우수	장려	출품수	특상	우수	장려	출품수	특상	우수	장려
1983(20)	19		9	10	2			2	21		9	12
1984(30)	12	1	5	6	8		2	6	20	1	7	12
1985(31)	12	2	7	3	8	1	3	4	20	3	10	7
1986(32)	10	3(1)	5	2	10	2	2	6	20	5	7	8
1987(33)	14	1	8	5	5	1	2	2	19	2	10	7
1988(34)	14	1	7	6	5	1	1	3	19	2	8	9
1989(35)	11	4(1)	4	3	7	3		4	18	7	4	7
1990(36)	11	1	6	4	7	2	3	2	18	3	9	6
누계	103	13(2)	51	39	52	10	13	29	155	23	64	68

※ ()는 대통령상 수상 작품수임

※ 대통령상 수상 작품명

1986 서도국 6년 이성원 : 마늘의 냄새는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89 경동국 6년 김동우, 5년 김동현 : 냉동시킨 동물은 소생할까?

〈表 1-141〉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개최현황²⁶⁷⁾

구분 연도	시 대 회				전 국 대 회								비고
	참가자	금상	은상	동상	참가자	대통령상	발명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입선	
1983	395	15	18	27	15			1			7	7	
1984	566	20	18	42	20			1		1	6	12	
1985	449	20	18	31	20	1			1	3	15		
1986	337	6	15	29	20				1	5	14		
1987	265	25	15	30	20					5	15		
1988	239	5	15	30	20				1	3			
1989	141	20	28	36	20		1		2	3	14		
1990	214	20	40	55	20				4	5	11		
계	2,606	131	167	280	155	1	1	2	9	25	82	19	

266) 앞의 책, p.927.

267) 위의 책, p.927.

〈表 1-142〉 과학발명품경진대회 개최현황²⁶⁸⁾

구분 연도	참가자수			수상자수							비고
	초	중	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지도상	계	
1987	120	71	121	3	6	9	30		3	51	
1988	120	71	191	3	6	15	30	30		84	
1989	127	74	201	3	6	9	30	60	3	111	
1990	127	74	201	3	6	9	30		3	111	
계	494	290	784	12	24	42	180	90	9	357	

〈表 1-143〉 과학교육자료 발간현황²⁶⁹⁾

연도	자료명	내용	실적	비고
1989	주요 과학 실험기기 사용설명서	• 물리: 버니어 캘리퍼 외 22종 • 화학: 배그만 온도계 외 11종	• 발간부수 300부 • 중·고등학교 및 유관기관 에 배부	
1990	"	• 생물: 키모그래프 외 9종 • 지구과학: 복각방위계 외 10종	• 발간부수 300부	
1990	과학 실험서 및 설명진도서	• 중학교 과학과 실험·실습안내 자료 (2학년용)	• 발간부수 400부	
1990	대구 과학 (창간호)	• 논문 3편 • 새 교육과정 2편 • 교수·학습 방법 개선 4편 • 현장교육사례 7편 • computer 교육 2편 • 작품소개 4편 • 과학교양 및 취미활동 3편	• 발간부수 500부	규격: 4,6배 판, 202쪽 (창간호)
1990	시·도 과학 교 육원 공동개 발 과학 실험 서 복제본	• 중학교 3학년용 • 고등학교 과학실험서 및 실험지도서 - 과학 I (상), 과학 II (상) - 과학 II (하), 물리 • 고등학교 생물 실험지도서	• 복제부수 400부 • 복제부수 2,700부 • 복제부수 300부	
1991		• 생물 실험서 • 지구과학 실험지도서 • 화학 실험서 및 실험지도서 • 과학 I (하) 실험서	• 복제부수 1,500부	

268) 앞의 책, p.928.

269) 위의 책, p.931.

교육과학연구원에서 1980년부터 1991년까지의 연구·시범·실험학교 지정 학교수는 303개교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44〉 지정기관별 연구·실험·시범학교 현황²⁷⁰⁾

구분 연도	유 치 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교 육 부			시교육청			교 육 부			시교육청			교 육 부			시교육청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1980										(1)	(1)							
1981						2			1	3	28(3)			2	2		8	
1982						2				1	12	1		1			3	
1983						2	1	1			7	1					3	
1984						2			1	1	16						4	
1985						3			1		8						5	
1986						3					16			1			4	
1987						2		2	2	1	6			1			9	
1988							1			2	7	1					3	
1989										1	9						6	
1990						1	1				9						4	
1991						1			1	1	11						5	
계						18	3	3	6	10(1)	129(4)	3	1	4	2		54	

구분 연도	고 등 학 교						특수학교·기관						계						총 계
	교 육 부			시교육청			교 육 부			시교육청			교육부			시교육청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연구	실험	시범	
1980															(1)		(1)	(2)	
1981	1		1			1	1						2		4	5	39(3)	50(3)	
1982			1	4		7	1						1		2	5	24	32	
1983	1					9							4	1		1	1	19	26
1984			1			3									2	1	25	28	
1985	1		3			5							1		4		21	26	
1986						2									2		25	27	
1987				2		5					2		1	2	3		24	30	
1988	1												3	2		2	10	17	
1989						4									1		19	20	
1990						2		1					1	1			16	18	
1991	1					4							1		1	1	21	24	
계	5		6	6		42	2	1	1				13	5	17	19(1)	1	243(4)	288(5)

※ () 는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학교로 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270) 앞의 책, p.933.

〈表 1-145〉 지정영역별 연구·실험·시범학교 현황²⁷¹⁾ (1980~1991)

연번	영역	학교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관	계	비고
1	도	덕 (반공)		2(1)	1			3(1)	
2	국	어 교 육		3	2			5	
3	사	회 교 육		4	1			5	
4	산	수 (수학)		5	2			7	
5	자	연 (과학)	1	13	6	11	1	32	
6	체	육 (올림픽)		20	10	7		37	
7	음	악 교 육		5					
8	미	술 교 육		6	1			7	
9	실	과 (가정)		1	2			3	
10	공	업 교 육				3		3	
11	특	수 교 육		2	1		3	6	
12	연	계 교 육	2					2	
13	정	화 교 육		6(1)	5	7		18(1)	
14	진	로 교 육			2	1		3	
15	교	련 교 육				4		4	
16	외	국 어 교 육			5	2		7	
17	새	마 을 교 육		4	3			7	
18	컴	퓨 터 교 육		4	4	2		10	
19	국	민 정 신 교 육		3	3	1	1	8	
20	과	학 영 재 교 육				3		3	
21	예·체	능 전 답 제		6				6	
22	육	성 회 운 영		1	1	1		3	
23	식	생 활 개 선		9				9	
24	교	수·학 습 방 법		7(1)	1	3		11(1)	
25	교	통 안 전 교 육		2	1	1		4	
26	특	별 활 동 (영어)		10	1	1		12	
27	기	본 생 활 (예절)	2	3				5	
28	교	육과정 (교과서)	9	3		2		14	
29	독	서지도 (도서관)		4	2			6	
30	환	경보존(자연보호)		4	1			5	
31	유	아교육(언어자료)	4					4	
32	생	활 지 도		2	2	4		8	
33	학	교 경 영		1	2			3	
34	교	육 평 가		4	1			5	
35	학	력 관 리		1	2			3	
36	교	육 환 경		1	1			2	
37	학	교 방 송		4(1)		2		6(1)	
38	사	회 교 육		3				3	
39	기	타 (11종)		8(1)	1	4	1	14(1)	
계			18	151(5)	64	59	6	298(5)	

※ ()는 경상북도교육청 지정교임.

271) 앞의 책, p.934.

〈表 1-146〉 각종 교원연수 실적²⁷²⁾ (1983~1991)

연도	과학교사 실험연수				컴퓨터교육 일반연수				예능과연수 시청각연수				영어	계			총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음악	미술	초	중	초	초	중	고	
1983	280	80		360	105	119	(179)	403	80	80	70		98	713	199	(179)	1,091
1984	638	80		718	50	60	(371)	481	80	80	70		107	1,025	40	(371)	1,536
1985	636	77		713	55	67	58	180	79	79	70		110	1,030	141	58	1,232
1986		80	59	139	61	61	58	180	79	79	40	4	120	380	181	117	669
1987			79	79	60	59	59	178	79	79	40	40	120	379	99	138	616
1988		80		80	61	60	60	181	80	80	40	40	120	381	180	60	621
1989		78	38	116	60	60	59	179	79	79	40	40	120	378	178	97	653
1990		78	39	117	316	80	40	436	80	80	40	40	120	636	198	79	913
1991	760	80	40	880	320	80	40	440						1,080	160	80	1,320
계	2,314	633	255	3,202	1,088	646	924	2,660	639	636	410	200	915	6,002	1,479	1,170	8,651

※ ()안은 교감, 교장, 전문직, 일반직 합계임.

※ 컴퓨터교육 일반연수 중 '83, '84년도는 30~34시간 연수임.

※ 컴퓨터교육 일반연수 중 '84년도 고교 교사 60명과 '85이후는 60시간 이상의 일반 연수임.

〈表 1-147〉 컴퓨터교실 운영실적²⁷³⁾ (19843~1991)

연도	초	중	고	학 모	계	비 고
1984	495	494			989	
1985	323	423			746	
1986	240	240			480	
1987	360	360			720	
1988	180	180	60		420	
1989	240	120	60	240	660	모자컴퓨터교실
1990	230		50	230	510	모자컴퓨터교실
1991	1,500				1,500	1일컴퓨터교실
계	3,568	1,817	170	470	6,025	

272) 앞의 책, p.937.

273) 위의 책, p.938.

교육자료전시회 개최실적²⁷⁴⁾

〈表 1-148〉

연 도	실 적	실 적								비 고
		시 대 회				전 국 대 회				
		출품수	특 상	우 수	우 량	장려	출품수	1등급	2등급	
1983	156	16	27	35		13	6	6	1	
1984	169	27	25	34		13	4	4	5	
1985	114	8	20	35		13	5	4	4	
1986	80	6	19		20	13	4	2	7	
1987	132	10	22		45	13	7	5	1	
1988	92	11	21		37	12	3	3	6	
1989	75	12	20		25	12	3	5	4	
1990	81	14	20		25	13	4	7	2	
계	899	104	174	104	152	102	36	36	30	

※ 전국대회 출품작 중 '87년 전국자료전에서 산격여중 교사 류시열, 신동준이 공동 제작한 국어교육 분야의 '문장' 성분의 이해와 적용력 신장을 위한 학습자료'가 국무총리상 수상

전국 시·도교육연구원 공동제작 자료현황²⁷⁵⁾

〈表 1-149〉

구분 연도	공 동 과 제			제작자료내용		비 고
	대 상	내 용	매 체 종 류	매 체 내 용	작품명 및 편수	
1984	국, 4-1 자연과	작은 생물	Viedo자료	8mm영화를 Video자료화	해감 등 10편	
1985	국, 3-1 자연과	동물의 한살이	"	"	개구리의 알 채집과 알 관찰 등 10편	
1986	국, 자연과 생물단원	생물단원	"	Video자료	생명의 탄생	
1987	"	"	"	Video자료	강물의 작용	
1988	초·중 과학과	관찰학습 자료	"	"	초:지층의 관찰 중:지질시대의 생물	기타 학습자료 제작 2편
1989	국, 사회과 중, 과학과	일반자료	"	"	사회:더운곳과 추운곳의 생활 과학:얼음의 작용, 바람의 작용	"
1990	초, 자연과	"	"	"	국교4년 자연과 '작은생물' 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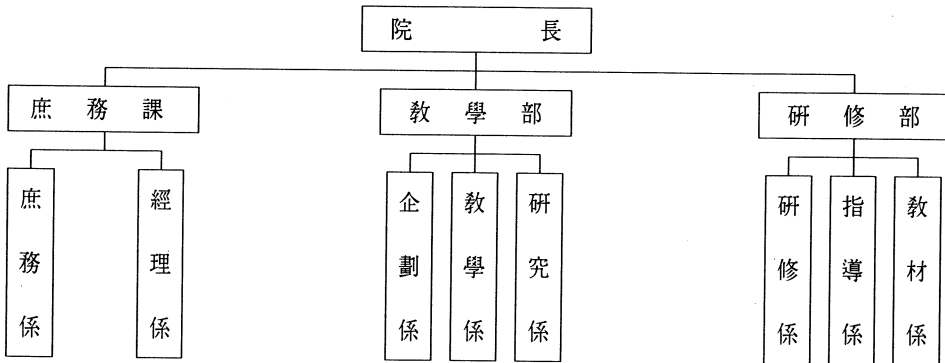
274) 앞의 책, p.941.

275) 위의 책, p.942.

III. 大邱教育院

대구직할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단련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협동·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하며, 굳건한 국가관을 확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을 기르고자 이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1981년 문교부의 청소년 여가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1981년 12월 7일 문교부에 청소년 야영장 설치 의견서를 제출하여 1982년 4월 2일에 그 승인을 받아 그해 12월 27일 야영수련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착공한 것이 대구교육원의 첫 출발이다. 그후 1983년 10월 4일에 대구교육원으로 설립 목적의 변경 절차를 밟아 그해 10월 20일 현재의 생활동을 준공하였으며, 1985년 7월 29일 관리동을 착공하여 1986년 10월 11일에 준공하였다.

대구교육이 자리잡은 곳은 신라때 호국 5大聖山の 하나인 中岳八公山 기슭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일찌기 신라의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하던 곳이며 왕건(고려태조)과 견훤(후백제)이 싸웠던 전장지이고, 임진왜란시 영남의 유생들이 의병 활동을 하던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때는 대구를 수호하면서 공산군을 맞아 싸웠던 다부동의 전첩지로서 많은 불적과 호국 사상이 깃든 곳이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대구교육원의 기구는 1원, 2부, 1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기구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圖 1-15〉

대구교육원 기구²⁷⁶⁾

대구교육원에서는 1984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수련이 시작되었고, 교직원과 기타 수련, 연수 활동이 실시되었는데 1990년까지 총 38,806명이 소정의 과정을 마쳤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76) 앞의 책, p.947.

〈表 1-150〉 수련 및 연수실적²⁷⁷⁾(1984 ~ 1990)

연 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계
대 상									
고 등 학 교	대표 학생 수련	1,098	3,630	5,060	4,620	3,600	4,520	3,665	26,193
	학도호국단 제대장 수련	73	72						145
	일반 학생 수련					800			800
	극기심 배양 수련					78			78
중 학 교	대표 학생 수련	1,759							1,759
	학생회장 수련	64	72	76	76	76	76	77	517
교 직 원	재직자 정신교육 연수	660	880	1,578	1,319				4,437
	신규 임용교사 연수	110	110	180	218	400	317	472	1,807
	정화담당자 연수				220				220
	일반직 공무원 정신교육 연수			220					220
	일반직 공무원 정규과정 연수			91					91
기 타	유네스코학생회 학생 수련	90							90
	청소년연맹 학생 수련	285	400						685
	대구교육대학 간부학생 수련	100							100
	재외 교포학생 수련(하계학교)		64	71	97				232
	핵심공직자 부인 연수		127						127
	전국 교육원 교관요원 합동연수			117					117
	캠프헨리 한국군 연수			90					90
	학교새마을 어머니회장 연수			280				150	430
	전국 새마을학교 지도자 연수				139				139
	정년퇴직 예정자 연수				29				29
	전국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100				100
	한국해양소년단원 수련				100				100
	대구과학고등학교 입학생 수련				60	60	60	60	240
	전국 생활지도담당 전문직 연수					60			60
계		4,239	5,355	7,763	6,978	5,074	4,973	4,424	38,806

1984년에는 대구시내 각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기에 걸쳐 1,098명을 수련시켰으나 1985년부터는 문교부의 방침에 의거 대구 1,980명, 서울 1,210명, 인천 440명, 계 3,630명을 23기에 걸쳐 수련시켰고, 1986년에는 대구 2,420명, 서울 2,200명, 계 4,620명을 21에 걸쳐 수련시켰다. 그후 1988년부터는 대구시내의 고교생만 대상으로 수련시키고 있다. 또한 1984년이후 1990년까지는 많은 교육자료를 제작하기도 하였으니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77) 앞의 책, p.949.

〈表 1-151〉

간행물 목록²⁷⁸⁾(1984~1990)

연도	간 행 물 명	크기(cm)	분량(P)	연도	간 행 물 명	크기(cm)	분량(P)
1984	• 수련계획서	19×26.5	22	1986	• 수련계획서	19×26.5	22
	• 수련결과보고서	"	36		• 수련결과보고서	"	51
	• 수련교본	15×21	164		• 수련교본	15×21	210
	• 중학교 학생회장				• 중학교 학생회장 수련		
	• 수련교재	19×26.5	42		교본	19×26.5	32
	• 재직자(교원)				• 재외교포학생 교육계획서	"	25
	정신교육연수안내	"	14		• 재외교포학생 교육 결과		
	• 신규채용자(교원)				보고서	"	61
	정신교육연수안내	"	15		• 재외교포학생 교육일기	"	33
	• 대화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83		• 재외교포학생 유관기관		
	• 대화프로그램 지도계획서	"	38		협조요청 사항	"	15
1985	• 상설야영장 운영	"	82	1986	• 재외교포학생 대외행사		
	• 수련계획서	19×26.5	23		계획서	19×13	27
	• 수련결과보고서	"	48		• 재외교포학생 교육안내	"	26
	• 수련교본	15×21	178		• 재직자(교원)		
	• 수련교본 부록	"	39		정신교육연수안내	19×26.5	15
	• 중학교학생회장 수련교재	19×26.5	30		• 신규채용자(교원)		
	• 재외교포학생 교육계획서	"	25		정신교육연수안내	"	16
	• 재외교포학생 교육결과	"	61		• 전국교육원 교관요원		
	보고서				합동연수 안내	"	11
	• 재외교포학생 교육일기	"	30		• 전국교육원 교관요원		
	• 재외교포학생 유관기관				합동연수사례 발표	"	16
	협조요청 사항	"	14		• 전국교육원 교관요원		
	• 재외교포학생 대외행사				합동연수 결과보고서	"	28
	계획서	19×13	32		• 팔공산유적지 교육자료		
	• 재외교포학생 교육안내	"	26		조사	"	92
	• 재직자(교원)				• 이데올로기 비판 모델	"	18
	정신교육연수안내	19×26.5	14				
	• 신규채용자(교원)						
	정신교육연수안내	"	15				

278) 앞의 책, pp.952~953.

연도	간행물명	크기(cm)	분량(P)	연도	간행물명	크기(cm)	분량(P)
1987	• 수련계획서	19×26.5	25	1988	• 수련계획서	19×26.5	27
	• 수련결과보고서	"	50		• 수련결과보고서	"	38
	• 수련교본	15×21	226		• 수련교본	15×21	229
	• 수련과정운영안	15.5×26.5	74		• 중학교 학생회장 수련교본	19×26.5	32
	• 수련일과진행요령	"	33		• 고교생 극기심	"	8
	• 중학교 학생회장 수련교본	19×26.5	32		• 배양수련 계획서	"	8
	• 재외교포학생 교육계획서	"	25		• 고교생 극기심 배양수련결과보고서	"	81
	• 재외교포학생 교육결과보고서	"	69		• 고교생 극기심 배양수련교본	"	74
	• 재외교포학생 교육일기	"	30		• 신규임용자(교원 직무연수 안내	"	34
	• 재외교포학생 유관기관 협조요청사항	"	13	1989	• 수련계획서	"	18
	• 재외교포학생 대외행사 계획서	19×13	24		• 수련결과보고	"	42
	• 재외교포학생 교육안내	"	26	1990	• 수련계획서	19×26.5	28
	• 재직자(교원) 정신교육연수안내	19×26.5	18		• 수련결과보고서	"	45
	• 신규채용자(교원) 정신교육연수안내	"	27		• 대구교육원오년사	15×22	188
	• 정화담당자(교원) 정신교육연수안내	"	18		• 교육원 수련이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17×24	95

IV. 學生綜合野營場

1984년 10월 10일 문교부로부터 야영장 건립추진 통보를 받고 대구시 동구 신무동에 부지를 선정하고 1985년 8월 1일 야영장 설치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개장업무와 기반조성에 착수하였다. 1986년 9월 13일 기공식을 갖고 267,412㎡의 부지에 쉼터 6개소를 비롯한 부대 시설 건설에 착수하여 1988년 6월 10일 개장하게 되었다. 이 야영장의 기구는 1관 2과에 12명의 인원을 배치하였다. 이 야영장의 활동 실적과 야영시간배당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52〉

야 영 실 적²⁷⁹⁾

구분	연도	1988	1989				1990				1991. 9현재				계	비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계	학교수		11	7	16	34	20	10	10	40	24	13	9	46	120	
	학생수		3,300	2,100	4,800	10,200	6,856	3,426	3,746	14,028	9,200	4,800	3,490	17,490	41,718	
실	학교수		12	7	17	36	20	10	10	40	19	10	8	37	113	
	학생수	7,205	3,567	2,125	4,944	10,636	6,869	4,316	4,678	15,863	9,111	4,321	40,37	17,469	51,173	

〈表 1-153〉

야영과정 시기배당(예시)²⁸⁰⁾

구분	학교	초		중		고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극 기 훈 련		8	35%	8	35%	8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험 하이킹 • 야영법 • 오래 달리기 및 걷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험 하이킹 • 야영법 • 오래 달리기 및 걷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험 하이킹 • 야영법 • 오래 달리기 및 걷기 	
심 성 수 련		7	30%	8	35%	9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의 장 • 명상의 시간 • 통일의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교의 장 • 명상의 시간 • 소감문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교의 장 • 명상의 시간 • 소감문 쓰기 	
레 크 리 에 이 셴		8	35%	7	30%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활동 • 동요 및 민요 부르기 • 촌극 및 건전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활동 • 촌극 및 건전 노래 • 놀이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게임 • 민속활동 • 놀이마당 • 건전노래 	
계		23시간		23시간		23시간	

279) 앞의 책, p.958.

280) 위의 책, p.957.

V. 圖書館

1. 1970년 이전의 도서관

대구의 도서관은 1918년 8월 10일 당시 대구부 조례 제5조로 대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도서관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후 1919년 7월 29일에는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도청(현 중앙공원)구내 賴慶館에서 그해 8월 10일 대구부립도서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설치된 도서관이었다. 1920년 1월 24일에는 도청사 관리 문제로 구내의 共進會陳列館(일인 재향동인회관)으로 이관하였다. 그후 1923년 5월에는 동인동(현 대구시 보사국 사무실)에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여 그 이듬해 4월에 준공하였는데 현관 상부는 3층으로 그 모양을 ‘반딧불이’의 머리형으로 좌우 양 공간은 눈을 중간 부분을 ‘반딧불이’형으로 조각하여 형설의 공을 상징케 하였다.

1938년 11월 1일에는 대구시 기구의 개편으로 도서관 일부가 대구시직할출장소로 사용되었으며, 1945년 광복과 함께 휴관되었다. 그후 1947년에 다시 개관되었으나 1949년 6월 6일 청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도서관은 시청사로 사용되었으며, 도서와 비품은 종로국민학교로 옮기고 무기휴관에 들어갔다. 1950년 6·25전쟁으로 다시 달성공원으로 도서를 옮겼다가 1955년 시청사가 신축되자 동년 10월 15일 6년간의 휴관을 끝내고 옛 건물에서 속관하였다. 1961년 12월 교육법 개정으로 도서관의 소속이 시장에서 교육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교육청 청사(현 대구직할시 동부교육청) 2층에 도서관이 자리잡게 되었다. 1963년 5월에는 달성공원내 박물관 건물을 도서관 본관으로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단순한 독서장소 제공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것마저 공원미화조성계획으로 1966년 8월에 폐관되었다.

2. 1970년이후의 도서관

1971년 5월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도서관을 대구시 남구 대명동 187번지(현 백작아파트)에 설립 개관하였다. 당시 학생도서관의 규모는 대지 831평, 연건평 396.6평, 좌석수 856, 장서수 10,179, 총공사비 7,000여만원이었다. 1972년에는 尹致斗 교육장이 당시 金壽鶴 시장으로부터 3동의 어린이 회관을 인수받아 그해 6월 30일에는 달성·신천·大明會館을 개관하였는데 達城分館(달성동 209-9)은 대지 109평, 좌석수 136, 신천대명분관(대명동 2292-1) 138.6평에 좌석수 136석을 두었다. 그러나 1981년 9월 20일에는 대명분관은 주변의 시장화로 폐쇄하였다. 또한 1972년에는 당시 李圭貳 시장으로 부터 옛 회도국민학교(중구 수동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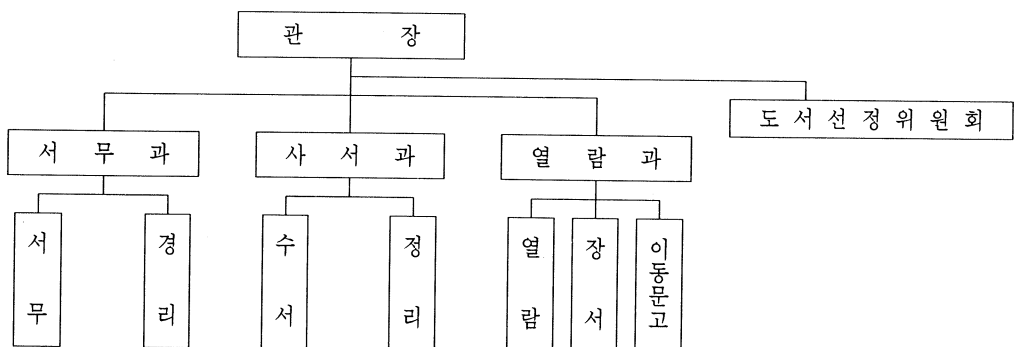
여군병영) 보수지원비를 약속받고 그해 6월 착공하여 8월 1일 완료하고 대구시립도서관을 8월 28일 이곳으로 이관하였다. 23년만에 도서관 단독청사를 갖게되었으나 708평에 연건평 340평, 좌석 524, 장서 35,000여권은 120만 당시의 시민에게는 태부족한 것이었다.

1973년에는 金宙晩 교육감은 이규이 시장으로부터 대구시립도서관을 양도받고, 학생 복지시설기금 5천만원을 전도받아 구대구지방(고등)법원 및 검찰청사를 법무부로부터 7천7백만원(당시 감정가 2억 2천만원)에 매입한 후 2억원의 투자로 시설보수와 조경사업, 집기구입 등을 마치고, 1974년 3월 1일 130만 대구시민의 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은 3,003평의 대지에 연건평 2,235평, 장서 7,984권, 좌석 2,000석의 규모였다. 1980년 이 도서관의 이용상은 1,362, 180명, 이용한 책이 519,051권이나 되었다.

3. 직할시 승격 이후의 도서관

1981년 대구시가 경북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행정 단위로서 직할시 승격이 되었다. 1981년에는 1,100석의 좌석을 가진 두류도서관 건립, 1983년에는 200석 규모의 북부도서관을, 1905년 12월에는 대구직할시립 대구도서관을 대구직할시립 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1989년에는 1,500석 규모의 효목도서관을 개관하였다. 한편 학생도서관을 중구 대봉동 옛 경북고등학교 본관으로 이전하였다가 1991년 3월에는 대구직할시 조례 제2,600호의 개정으로 학생도서관을 폐지하고 동건물에는 대구직할시립대봉도서관을 설치하여 학교도서관과의 자료 및 정보교환 업무를 갖는 공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1991년 현재 대구직할시립 도서관의 기구는 1관 3과 1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구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圖 1-16〉

대구직할시 도서관 기구²⁸¹⁾

281) 앞의 책, p.965.

1984년말 현재 대구직할시의 도서관은 4개였던 것이 1991년말 현재로는 5개로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54〉 대구직할시 공공도서관 현황²⁸²⁾(1991. 4. 1)

구 분 도서관명	대지 (㎡)	연 건 평 (㎡)					장서수	좌석수	('90)연간 이용자수	이용 도서수	비 고
		계	열람실	자료실	사무실	기타					
계	37,363	26,151	6,981	6,736	1,323	11,111	562,130	8,248	2,346,455	1,479,524	분관 포함
대구직할시립 중앙 도서관	10,677	10,413	2,752	2,015	303.9	5,342.1	244,705	3,351	1,181,226	588,891	중구 동인동 2가 42
대구직할시립 두류 도서관	8,212	3,527	762	1,322	189	1,254	121,982	1,110	319,825	321,239	달서구 두류3 동 153번지
대구직할시립 북부 도서관	6,598	4,136	1,089.8	1,227.6	255	1,564	92,996	1,200	339,546	331,255	북구 침산동 447-2
대구직할시립 효목 도서관	3,840	5,580	1,567	1,361	335	2,317	39,158	1,507	398,368	171,953	수성구 만촌 1동 1417
대구직할시립 대봉 도서관	8,036	2,495	810	810.8	240.5	633.7	63,289	1,080	107,490	66,186	중구 대봉동 111 사설현황은 1991. 6. 30현재

1991년 4월 1일 현재 도서관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55〉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관자)²⁸³⁾(1991. 4. 1)

도서 관명	연도 구분	총계	1960 ~1970 까지 소계	1971 ~1980 까지 소계	소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계	32045024	1057708	10816394	20170382	1609331	1792828	1740613	2180522	1886624	2098950	1885577	1909255	2210028	2346455	503199
	성 인	10818649	226964	3251937	7566712	582087	517056	570210	773770	64148	788011	705250	776919	941080	1043980	215931
	중·고생	1858389	814081	6825510	11778359	956438	1215079	1114217	1925160	1181613	1223712	1099763	1054723	1175888	1202396	258390
	어 린 이	1584798	16663	759487	825311	60806	60688	56186	111582	70583	86227	80564	77613	93080	100079	27878
중 앙	계	20426432	1057708	8219707	11149017	1122283	1045352	1081112	1059280	874792	1114140	1098675	1183880	1200470	1181226	237797
	성 인	8743248	226964	3251937	5264347	564470	431217	450565	545167	364444	500822	482146	546494	601192	651007	126823
	중·고생	10909573	814081	4416062	5679430	528271	597394	563025	488467	507235	588401	588903	615586	581335	513616	106657
	어 린 이	773611	16663	561708	205240	29542	16201	17522	25646	3113	24917	27626	21810	17943	16603	4317

282) 앞의 책, p.964.

283) 위의 책, pp.966~967.

도서 관명	연도 구분	총계	1960 ~1970 까지 소계	1971 ~1980 까지 소계	소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두	성 인	181402			1,814,02	27,617	85,889	110,104	120,174	158,513	136,457	124,782	122,815	135,181	136,289	26,631
	중·고생	2171465			2,171,465	87,038	320,111	293,780	312,379	239,657	251,443	166,754	141,375	152,319	165,222	35,407
류	어 린 이	219444			219,444	10,221	25,526	22,150	31,225	28,475	25,510	21,610	15,086	15,942	18,314	5,385
	계	2,652,740			2,652,740			33,666	407,966	382,131	362,949	339,618	351,826	356,832	339,546	78,116
북	성 인	894548			894,548			9541	108,429	118,461	151,732	98,322	107,610	127,300	137,831	35,322
	중·고생	1,533,244			1,533,244			19,147	257,653	237,204	185,854	217,235	211,903	197,430	172,375	34,443
부	어 린 이	224,948			224,948			5,008	41,684	26,466	25,363	24,261	32,313	32,162	29,340	8,351
	계	743,066			743,066									249,627	338,388	95,071
효	성 인	223,415			223,415									77,407	118,853	27,155
	중·고생	472,236			472,236									155,755	255,304	61,177
목	어 린 이	47,415			47,415									16,465	24,211	6,739
	계	467,475		259,227	2,050,248	332,172	316,000	243,791	249,498	210,056	208,451	134,138	94,263	99,597	107,490	24,792
대 봉 (학 생)	성 인															
	중·고생	431,1432		2,389,448	1,921,984	341,129	297,034	232,285	236,461	197,517	198,014	127,071	85,859	89,029	95,879	21,706
	어 린 이	336,043		207,779	128,264	21,043	18,966	11,506	13,037	12,537	10,437	7,067	8,404	10,588	11,611	3,086

1991년 4월 1일 현재 장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表 1-156〉 장 서 현 황²⁸⁴⁾ (1991. 4. 1)

도서 관명	유별 구분	총계	000 종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 과학	400 순수 과학	500 기술 과학	600 예술	700 어학	800 문학	900 역사	계	참고 도서	아동 도서	계	점자 비고	비고
계	보유량	562,130	30,754	26,744	12,347	77,238	13,469	38,911	16,144	12,137	167,480	28,492	423,402	43,402	94,864	138,266	148	
	%	100	55	48	22	136	24	69	29	22	298	51	75.37	77	169	246	0.03	
중앙	보유량	244,705	14,664	11,275	4,923	33,053	6,150	18,123	6,308	5,074	81,284	12,060	192,914	20,479	31,312	51,791		
	%	100	60	46	20	135	25	74	26	21	332	49	788	84	128	212		분관포함
두류	보유량	121,92	6,479	6,751	2,646	18,338	2,832	9,169	3,040	2,522	31,956	4,865	88,598	11,205	22,179	33,384		
	%	100	53	55	23	15	23	75	25	21	261	40	726	92	182	274		
북부	보유량	92,996	4,313	4,060	2,318	15,129	1,892	7,221	3,333	2,465	27,260	5,267	73,258	4,620	15,118	19,738		
	%	100	46	44	25	162	2	78	36	27	293	57	788	49	163	212		
효목	보유량	39,158	1,023	1,886	1,139	5,199	1,123	2,421	1,231	1,099	12,216	1,788	29,125	1,832	8,053	9,885	148	
	%	100	26	48	29	133	29	62	31	28	312	46	744	47	205	252	0.4	
대봉	보유량	63,289	4,275	2,772	1,321	5,519	1,472	1,977	1,977	2,232	977	14,764	4,512	39,821	5,266	18,202	23,468	
	%	100	68	44	21	87	23	23	31	35	15	234	71	629	83	287	37.1	

284) 앞의 책, p.968.

4. 독서운동과 학교도서관사업 지원

시민의 독서운동을 전개하고자 이동문고와 순회문고, 臨海·林間·公園文庫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6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2대에 책을 싣고 남부지역의 과동과 봉덕동 국민주택 단지를 가호마다 방문하여 독서를 권장하였다. 그후 손수레를 대체하여, 300권의 도서로 봉사하던 중 1970년 가을 金壽鶴 시장의 배려로 지프차를 마련하고, 그 이듬해 2월에는 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여 중구 동인동 국민주택 단지등 10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1981년에는 보고트럭을 이용하였다. 수동적 봉사에서 능동적 봉사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

또한 1975년부터 공공기관, 기업체, 고아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월1회 순회방문하여 200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다음 순회시 교환해주기로 하였다. 1972년 여름 구룡포 해수욕장에 臨海文庫를 출발로하여 폭서기에는 10~20일간으로 피서지(해수욕장, 산이나 유원지, 공원등)에 문고를 설치하여 독서풍토의 조성과 여가선용을 유도하였다. 이같은 문고운영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57〉

자동차문고 운영실적²⁸⁵⁾(1991. 4. 1)

연도	구분	차량 보유수	문고수	도서대출 회원수	대출도서수	비고
계		4	45	41,436	221,098	문고전용차(특수 화물 중형차)
1987 ~ 1990				32,624	184,131	운행시부터의 실적임.
1991		4	45	8,812	36,967	대봉도서관 미운영

〈表 1-158〉

순회문고 운영현황²⁸⁶⁾(1991. 4. 1)

연도	구분	계	1975~ 1981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비고
순회 문고수			평균20	22	19	17	23	22	33	39	32	중앙도서관 1982~ 1983까지 기록 없음.
대출 도서수		291,237	129,530	21,711	17,595	17,080	23,151	23,978	21,111	27,250	8,831	대봉(학생)도서관은 학교에 집단 도서 대 출을 하고 있음.

285) 앞의 책, p.970.

286) 위와 같음.

〈表 1-159〉 임해·임간·공원문고·운영현황²⁸⁷⁾ (1981~1990)

구 분 \ 연 도	총계	1972 ~1980 까지 소계	소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비고
문 고 수	27	2	25	1	1		2	3	3	3	3	4	5	
이 용 자 수	67,127	11,217	55,910	4,480	859		2,985	9,858	9,291	7,148	5,130	7,418	8,741	
이용도서수	121,167	13,264	107,903	6,420	859		5,556	5,196	25,039	19,262	12,240	15,320	18,011	

그외에도 독서회를 통한 도서의욕을 고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실적을 보면 〈表 1-160〉과 같다.

〈表 1-160〉 독 서 회 현 황²⁸⁸⁾ (1991. 6. 30)

구 분	계	노 인	주 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비 고
연 회 원 수	16,329	14,486	855	247	387	354	고등부에 청·장년 포함
'91. 6. 30 현 재 회 원 수	1,581	206	547	361	285	182	월 1~2회 토론

학생도서관에서는 희망학교에 한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도서관 지원현황을 보면 〈表 1-162〉와 같으며, 1981년에 중앙도서관의 시청각실 운영을 시초로 서예, 한문, 컴퓨터, 예능감상, 외국어 회화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表 1-161〉 학교도서관(실) 지원현황²⁸⁹⁾ (1990. 12. 31)

조언·지도학교수	도서 대출 학교수	대출 도서수	직원 연수	비 고
364	320	38,095	703	

287) 앞의 책 p.971.

288) 위와 같음.

289) 위의 책, p.972.

교양강좌 이수자 현황²⁹⁰⁾(1991. 4. 1)

연 도		계	1981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구 분	서 예 교 실	16,340					1,980	3,900	3,527	3,776	3,157	
	한 문 강 좌	1,528					60	60	401	640	367	
	컴 퓨 터 교 실	9,225					899	2,491	2,085	2,273	1,477	
	시 청 각 실 이 용 자											
	계	527,630	19,398		62,246		75,633	86,688	87,213	83,463	92,017	20,972
영 어 회 화	영 어 회 화	115,397			28,674		23,192	16,932	16,884	16,386	10,887	2,442
	일 어 회 화	12,351						1,223	3,856	3,223	3,382	937
	음 악 감 상	285,521	17,478		31,471		42,452	45,540	43,434	41,816	51,457	11,873
	영 화 감 상	114,361	1,920		2,101		9,989	22,993	23,309	22-38	26,291	5,720

第8節 大邱의 學生運動

I. 日帝下の 抗日學生運動

1. 3.1운동과 대구의 항일학생운동

1) 항일학생 시위

1910년 한국을 병합한 일제는 무단정치를 실시하면서 경제적 침탈을 하였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민족의 저항은 국내외에서 전개되었다. 3.1운동은 우리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의 최대의 발로였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에 있어서도 1919년 3월8일에 그 봉화를 올렸다. 대구는 경북지방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킨 곳이다.

미국의 북장노파 남성정교회 목사 李萬集은 1919년 2월 24일 대구 출신인 이갑성(33인의 1인)의 내방으로 서울의 3.1운동 계획을 듣고 대구 대표의 권유를 받았다. 2월 26일에는 이갑성이 보낸 세브란스 의전 학생 金大珍의 권유를 받았으나 응락하지 않았다. 그후 3월 4일 세브란스 의전학생 李容祥편에 독립선언서 200매가 도착되자 은밀히 동지를 규합하였다. 이만

290) 위와 같음.

집 목사는 북장노파 助事 金兌鍊과 상의하여 자신은 운동 권유를, 김태련은 선언서와 기타 준비를 맡았다. 그리고 거시일은 西門外 장날인 3월 8일로 결정하고 이만집은 계성학교 교사 白南塚, 崔相完, 金永瑞, 鄭在淳, 鄭光淳, 權義允, 崔敬學과 신명학교 교사 李在寅을 참가시켜 학생동원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 沈文泰, 金三道, 鄭元祚, 朴泰鉉, 李陞旭, 孫石鳳, 崔永學, 金在範, 李永植, 李聖容, 朴在坤 등을 시켜 전교생을 규합하였고, 신명학교는 李在寅, 李鳳善, 李善愛가 앞을 섰다. 또한 大邱聖經學院의 강습자 50명 중 14·5명도 규합하였다. 金光鍊은 3월7일 밤 자택에서 독립선언서 200매(관결문에는 100)를 등사하고 태극기 대소 40매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평양의 숭실학교 학생 金武生이 대구에 와서 거사에 동참할 것을 찬동하고 崔相元和 밀의한 후 대구고보 학생 申鉉旭(4년급장), 許範(大南여관 주인의 아들) 등에게 서울, 평양의 상황을 알리고 대구고보생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에 白基萬(3년) 河允實(2년), 金洙千(1년)이 참가하고 동급생의 참여를 담당하였다.²⁹¹⁾

3월 8일 오후 3시경 이만집, 김태련등은 시장에 숨어들어와 학생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삼삼오오 흩어져 서문시장으로 들었고, 예수교인과 일반인들이 들어와 800여명이 되었다. 김태련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되었으나 일경의 침입으로 중단되고 이만집이 독립만세를 고창함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서문통 우편국을 지나 동산과출소를 돌아 서문통 1.2정목을 지나 행진하였다. 신명여학교 50여명을 남성정방향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3시 30분경 대구경찰서로 일부 군중이 돌입하였다. 군중들은 서문통을 돌아 동성정을 지나 달성군청 앞 삼각지에 이르렀으나 기관총을 앞세운 대구주둔군 보병 제80연대의 출동으로 저지되고 말았다. 군중들은 10일경 다시 봉기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8시경(오후) 대구경찰서앞에 모여 “우리의 교우가 구금되었다. 우리도 같이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니 구속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방조까지 동원한 일경에 의해 저지되었고, 157명이 체포되어 75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²⁹²⁾ 이들은 대구覆審法院에서 정광순만 무죄가 되고 그외는 모두 6개월 내지 3년형을 받았다. 그후 계성학교 학생 30여명은 3월 9일 오후 3시경 달성공원에서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좌절되었으며 10일에는 대구고보학생 朴南俊, 金在炤, 계성학교에 박태현, 박성용은 시민등과 손잡고 남문시장에서 태극기를 날리며 독립만세를 불러 이곳 시장을 진동시켰다. 이때 65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중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9명이며 이들은 6개

291) 鄭世鉉, 《抗日學生民族運動史》, 一志社, 1985, pp.137~140.

292) 《慶尙北道史》中, p.295 및 같은 책 下, p.991.

월 내지 8개월 언도를 받았다. 3월 30일에는 남문시장에서 3,000여명(판결문에는 2,000명)이 모여 대대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학생 9명이 검거되어 10개월의 언도를 받았다. 이처럼 대구고보, 신명학교, 계성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에 대하여 일제는 휴교조치하였다.

이후 학생운동은 지하운동으로 전개되어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계성학교 학생 金壽吉, 權聖佑, 李鍾植, 李永植, 李榮玉, 李命健, 崔載華, 許聖徒, 李基明, 朴齊元, 李鍾憲, 李德生 등은 비밀결사인 慧星團을 조직하여 본부와 지부를 설치하고 각종 출판물을 인쇄 배부하여 독립심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4월 18일에는 「謹告我同胞」 27일에는 「警告我同胞」, 5월 7일에는 「警告官吏同胞」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금의 헌금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에는 일경에 체포되어 김수길은 징역 4년, 이종식, 이영옥, 이명건은 3년, 이영식은 1년, 권성우는 6개월 언도를 받았다.²⁹³⁾

2) 항일 학생맹휴

3.1운동이후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동맹휴학을 통하여 민족정기를 고취하였다.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단순한 휴학이 아니었다. 자유와 조국을 찾으려는 민족의식에 있었다. 3.1운동후 1930년에 이르기까지 경북도내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동맹휴학상을 보면 <表 1-163>과 같다.

<表 1-163>에서 볼 수 있듯이 1920년대에 들어와서 항일맹휴교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동맹휴학은 일인 교원에 대한 배척과 민족적 감정이 작용했으나 점차 식민지 교육정책과 일제에 대한 항일투쟁으로 바뀌어 갔다. 대구지방의 학생 항일동맹휴학 운동은 대구고보 학생들에 의해 일어났다.

1919년 10월 29일 대구고보 4학년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주장은 일본의 학제와 같은 학제로 개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3년생 3명과 2학년생 2명을 퇴학시켰다. 이에 격분한 학생 100여명은 11월 25일밤 달성공원에 모여 맹휴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일제는 12월 고등보통학교 규칙을 변경하였다. 1919년 10월 26일에는 姜裕文 구류사건을 계기로 대구고보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였다. 일경이 강유문의 집에 호적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가택수색하게 되자 언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구속되게 되었다.

이에 1920년 10월 3일 방과후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문제를 협의하고 일인 교유인 近藤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하교하였다.

293) 앞의 책, 中, pp.297 ~ 298.

〈表 1-163〉 학생항일동맹휴학 상황²⁹⁴⁾

年 度	件 數	人 員 參 加	原 因					結 果		
			教員排斥	設 備 不完全	昇格運動	教授不平	其 他	諭示復校	貫 徵	其 他
1916	2	72	1				1	1	1	
1917	1	43	1				3	1		
1918	1	22	1					1		
1919	3	111	2				1	3		
1920	5	608	3				2	5		
1921	6	779	3	1			2	5		1
1922	8	578	4	1			3	8		
1923	23	21,113	13	1	2		7	17	2	4
1924	11	713	7	1		2	1	7		4
1925	11	625	5	2		1	3	7	1	3
1926	7	620	6			1		3		4
1927	6	319	5				1	3	1	2
1928	9	512	3				6	2	2	5
1929	2	70	2					2		
계	95	27,285	56	6	2	4	30	72	7	23

그러나 동년 10월 26일 아침 교장의 훈화를 듣고 여의치 않음을 알고 맹휴에 들어갔다. 그 후 11월 5일 학생 122명이 출석하여 맹휴는 일단락 되었다. 이 사건으로 4학년생 4명, 3학년생 2명, 2학년생 2명이 퇴학되었고 2·3·4학년생 각 2명이 정학처분을 받았다.

1921년 11월에도 태평양회의(1921. 11. 26)를 계기로 대구고보 학생들은 맹휴하였고, 1922년에도 5월 30일, 6월 1일, 11월 1일에 맹휴를 하였고, 11월 8일에는 1학년생 3명, 2학년생 1명, 3, 4학년생이 각각 1명 퇴학당하였다. 1923년 6월 27일에는 대구고보의 일인 교원 太田健八에 대한 배척운동으로 맹휴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3학년생 9명이 퇴학을, 10명이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1925년 2월과 3월에는 대구고보생의 일인 교원 배척 운동이 일어났다. 학

294) 앞의 책, p.446.

생들은 ‘조선 역사를 가르쳐라, 악질일인 교유를 축출하라(田中, 森崎), 조선인 교유를 증원하라, 생도에게 오는 서신을 개봉 검열하지 마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맹휴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2, 3학년이 등교정지 되었으며 3학년 丈奉祚, 崔南教, 金台甲, 崔聖範, 張在斗를 비롯하여 1학년생 4명, 2학년생 5명이 퇴학되었다.

대구의 계성학교에서도 1923년부터 동맹휴학이 시작되었는데 1월 29일에는 학교승격을 위한 맹휴가 있었으며, 1925년 11월 30일에는 4학년 전원 졸업증서를 요청하면서 맹휴를 하였다. 이 결과 1923년 1월의 맹휴로 150명이 퇴학을, 1925년의 맹휴로 4학년 전원이 근신처분을 받았다.²⁹⁵⁾

1926년 2월 17일에는 대구고보 3학년생 60여명이 무자격 교원 사퇴, 학생에게 압박적 교훈을 함은 부당하고, 조선인을 야만인라 하여 차별적 언론을 말 것 등의 진정서를 학교에 내고 맹휴하였다. 이에 그 해 2월 27일 2학년생 60여명이 교장택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내고 맹휴에 가담하였다. 학생들은 일인 교원 二瓶教諭를 성토했으며 진정문을 학부형에게 발송하여 맹휴의 원인과 정당성을 역설하고 여론을 환기시켰다. 학교당국이 3학년생 5명을 퇴학시키자 전학년이 맹휴하였으며, 퇴학은 15명으로 늘어났다. 3월 7일에는 학부형의 중재로 맹휴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1926년 6.10항일학생운동을 계기로 맹휴는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갔다.

대구고보 학교 당국은 1928년 4월 2, 3, 4학년생 14명을 강제로 사립학교로 전학조치를 취하였다. 그 이유는 일인 교원이 역사시간에 충무공 이순신을 “적” 이라고 함에 학생들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충신’이라고 반론을 폈기 때문이다.²⁹⁶⁾

1928년 9월 26일 대구고보의 2, 3학년생들은 ①교내외의 언론 및 집회의 자유, ②학생을 자치, ③조선역사 신설, ④조선어 시간 연장 ⑤비인간적인 대우 철폐, ⑥교장 경질, ⑦퇴학생 복교, ⑧특정 불량 교사(일인) 경질 등을 요구하며 맹휴에 들어갔다.²⁹⁷⁾ 이에 학교당국은 가담한 2학년생 82명과 3학년생 90명을 정학 처분시키고 9월 29일에는 3학년생 15명과 2학년생 5명을 퇴학처리하였다. 10월 15일에는 2, 3, 4학년생이 새로이 맹휴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①전의 진정서 승인, ②희생자의 복교, ③교사배척의 철폐, ④교수 시간의 증가, ⑤교장의 실책 등의 진정서와 성명서를 내었다. 학교당국은 10월 15일 경북지사실에서 順藤 지사, 古橋 내무과장, 山地 학무과장, 早風 대구고보교장등이 밀의하고, 10월17일 10명을 무기정학 15명

295) 앞의 책, pp.448~449.

296) 위의 책, p.450.

297) 《東亞日報》, 1928년 9월 27일자 참조.

을 퇴학 처분시켰다. 그 뒤에도 전후 2회에 걸쳐 54명이 퇴학을 당하였다.²⁹⁸⁾

한편 1929년 1월에는 대구상업학교의 1학년생이 일인 동급생이 찬 난로가에서 전치 3주의 화상과 두부파열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일인 학생은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보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에 럭비선수 鄭雲均이 일인 학생을 때림에 일인 체육교원인 川久保는 정운균을 무수히 구타하여 수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에 격분한 1학년생들은 ①체육선생을 파면시킬 것, ②일인학생을 피해자(鄭某君)에게 사과시킬 것, ③학교측에서 정운균의 치료비 일체를 부담할 것, ④이상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에 돌입한다는 진정서를 내고 대표 3명이 富永 교장과 면담하였다.²⁹⁹⁾ 그러나 한가지도 관철된 것이 없어서 1학년생들은 1주간의 시한부 맹휴에 돌입하였다. 이 때에는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맹휴는 수습되었다.

2. 광주학생항일운동과 대구의 항일학생운동

광주고보학생과 광주중학학생사이에 민족적 충돌이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났다. 이 항일학생민족운동에 참가한 학교는 149개교, 참여학생 54,000여명, 이로 인하여 582명이 퇴학, 2,330명이 무기정학 당하였으며, 검거된 학생이 1,642명이나 되었다.

大邱에서는 1929년 11월 4일 대구농림학교 학생들이 제일 먼저 抗日示威를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애국가(이별의 곡)를 부르며 시위하였다. 그뒤를 이어 대구고보에서도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가려 하였으나 학교 당국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다. 계성학교 학생들도 시위운동을 밀의하였는데 李元雨, 曹活湧, 대구농림학교의 金乙龍, 경북여자고보의 郭鎭淑, 權宥鎭도 함께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구고보 학생들은 諺文研究會와 自聖會(1929. 11. 7)등을 조직하였으나 일경의 수색과 탄압으로 실패하고 말았다.³⁰⁰⁾

1930년 1월 중순경에는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의 대표가 하숙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2월 15일을 기하여 맹휴를 선포하고 대구고보, 대구여고보, 계성, 신명학교를 지나 사범학교, 농림학교까지 평화적 시위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3학년 한 학생의 밀고로 불발되고, 대표들은 2주 동안 고문과 고초를 당하였다. 그후 1930년 6월초 대구상업학교에서는 동맹휴교를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체육시간에 한인 학생의 태도가 불순하다고 하여 일인 체조교원 川久

298) 《慶尙北道史》中, p.451.

299) 위와 같음.

300) 위의 책. pp.452~453.

保는 학생의 척추를 몹시 상하게 한 사건이 일어남에 鄭學鎮, 李東雨, 權泰燮, 李鍾出, 鄭雲均, 石熙元 등은 이종출의 하숙집에 모여 ①체육교원의 파면, ②한·일 학생 차별대우 지양, ③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맹휴에 돌입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농성을 결의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1931년 10월 10일에는 대구농림학교 학생들이 한인학생을 경시하는 일인 교원 中村省三의 수업을 거부하고 맹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학과 3학년생 3명과 농업과 4명 등 7명이 퇴학되었다.

1931년 1월 26일에는 대구고보생들이 또한 동맹휴학을 책동하였으나 6명이 정학 당하였다. 그후에도 수업거부와 맹휴를 하여 1931년에는 4학년 입학생 116명중 58명이 제적을 당하였다. 1933년 6월초에는 군사훈련 반대를 위하여 1934년 3월 9일에는 아부학생 구타사건으로, 1935년 12월에는 일인 교원 토비배척사건으로 맹휴를 기도하고 농성을 하기도 하였으나 비밀누설로 좌절되고 말았다.³⁰¹⁾

1) 항일 학생비밀결사운동

학생들의 비밀결사는 1932년을 고비로 민족운동이 지하활동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가열되었다. 1928년이후 1945년까지 일어난 비밀결사운동을 보면 <表 1-164>와 같다.

2) 대구학생비밀결사사건

이 비밀결사는 1927년 11월에 조직되었는데 新友同盟을 조직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비밀결사에 가담한 학생들은 대구고보, 대구농림학교, 대구상업학교, 대구공립중학교, 사립교남학교의 학생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비밀결사는 그후 「草友同盟」, 1928년 2월 1일에는 「赤友同盟」등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이 비밀결사에서는 사상강좌를 1927년 2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청강생 수는 더욱 늘어났다. 이들은 ①학생운동은 실천적으로 행한다. ②우리는 견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③우리는 조선학생의 사명을 다한다 는 등의 목적을 정하였다.³⁰²⁾ 그러나 1928년 11월 6일 대구고보맹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赤友同盟이라는 비밀결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학생 105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중 26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고 7명이 최고 징역 3년에서 최하 1년을 받았으며 그외 20여명이 징역, 집행유예등을 받았다.

301) 앞의 책, pp.455~456.

302) 위의 책, p.459.

〈表 1-164〉

대구지방의 학생비밀결사사건³⁰³⁾

學 校 名	事 件 名	檢 舉			檢事處分		處分結果	
		年 月 日	總人員	送 置	起 訴	不起訴	免訴無罪	有 罪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 大邱公立高等商業學校 慶北公立高等女學校 大邱公立高等農林學校 大邱公立高等中學校 私 立 橋 南 學 校	大邱學生秘密結社	1928. 4. 6	105	36 (日人1)	30 (日人1)	—	—	8 집행유예 21
慶北大邱道立師範學校	秘密結社 주먹(拳)隊事件	1930. 3.31	6	4	4	1	—	4
慶北大邱師範學校	敎諭 및生徒의 秘密結社事件	1932. 1.26	37	37	9 (日本人1)	기소유예 13	—	—
慶北義城公立普通學校	秘密結社決死會	1933. 8.18	2	2	—	기소유예 2	—	—
慶北大邱公立農林學校	赤色學生突擊隊	1933.12. 2	27	혼계방면	—	—	—	—
慶北大邱師範學校	研 究 會 茶 革 黨	1941. 8 1941. 8	}300여명	35	34	1	—	34
慶北大邱師範學校	無 憂 園	1943. 6.29						
慶北大邱公立商業學校	太 極 團	1943. 5.23	36	10 방면26				
慶北安東公立農林學校	大韓獨立回復 研 究 團	1945. 3. 1	41					

3) 대구사범 학교의 비밀결사사건

일제하의 사범학교는 국민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기관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입학되었다. 대구사범의 항일운동은 반일·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3월 31일에는 「권(주먹)대사건」이 일어나 6명이 검거되고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1932년 1월 26일에는 「기요 및 생도의 비밀결사사건(대구사범RS사건)」이 일어났다. 현준혁교사가 연구회란 명목으로 학생들을 소집하여 항일의식과 혁명사상을 고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3명이 검거 송치되고 9명 기소, 13명이 불기소되었다. 1920년대에 대구사범에서 근무하던 金永驥 교사는 조선어 시간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강의함으로써

303) 앞의 책, p.457.

학생들의 민족적 긍지를 복돋아 주었다. 1938년에는 대구사범학생의 「倭館事件」이 일어났다.³⁰⁴⁾ 여름 방학동안 낙동강 철교 복선공사에 동원된 학생들은 일인학생과 한인학생들의 차별대우에 분개하여 5학년(7기생)의 朴永燮, 金在洙 등 20명이 악질 일인교사 「사꾸마」, 「오카모도」를 집단 폭행하고 백여명이 모여 논의하다가 7명이 퇴학당하고 11명이 무기정학을 받았다. 이것은 대구사범학생들의 항일민족운동의 시발이 되었다. 1939년 8월 16일 여름방학동안 낙동강 철교 복선공사에 강제 동원된 3학년생 대표 裴鶴甫, 金聖權, 權快福, 徐鎮九 등 18명이 밤 12시에 교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백사장에 모여 비밀결사의 조직을 모의하였다. 1940년 11월에는 왜관사건에 중심이 된 학생들이 「문예부」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 결사는 한글로 시작문등을 지어 발표하여 반일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한편 1941년 1월 23일에는 林宏의 주동으로 심상과 8기생들이 모여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연구회」를 조직하였다.³⁰⁵⁾ 이 연구회에 소속된 학생중 문예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문예부를 창설하고 비밀기관인 「학생」, 「반딧불」을 발간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9기생 대표들은 행동성이 강한 「茶革黨」을 1941년 2월 15일에 조직하였다. 연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갔다.³⁰⁶⁾ 다혁당, 당수에는 權快福 부당수에는 배학보가 추대되었다. 연구회는 16명, 다혁당은 18명으로 2중적을 가지기도 하였다. 1941년 8월초에 8회 졸업생 정 현(비회원)이 忠南 洪城에 교사로 부임하였다가 우연한 일로 잡지 「반딧불」이 일경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비밀이 탄로되었다. 이로 인하여 金永驥 교사를 비롯하여 300여명이 검거되고 35명이 구속되었으며 1943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을 받고 복역하다가 8.15해방으로 출옥되었다. 그중 5명이 옥사하였고 신병으로 출감후 12명이 사망하였다. 35명 중 16명이 교사(대구사범출신)였고, 19명이 재학생이었다. 당시 「반딧불」에 실린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⁰⁷⁾

대구사범학교학생발행 「반딧불」에서

〈新 年〉

부드럽고 가느다란 除夜의 鍾소리가
고요한 캄캄한 空氣를 울리니

304) 앞의 책, p.461.

305) 위와 같음.

306) 위와 같음.

307) 위의 책, pp.462~464.

第1章 教 育

새해는 닥쳐왔다.
새해는 希望이 가득하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있으며
太陽 빛은 如前히 燦爛하나
우리들의 兩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고
우리들의 心中에는
來日을 向하고 있으며
理想의 地平線에 到達
꿈을 꾸고 있다.
學徒들아! 힘있게 군세계
百折不掘의 勇敢과
正正堂堂한 意氣로
두주먹을 불끈쥐고
燦爛한 太陽 빛과 같이
不斷한 努力으로 우리들의 責任의 要求를
完全하게 나아가자
舊年中에는 모든것이 無事하였다
새해도 즐겁게 意味 깊게
時時刻刻의 修養을 힘써서 웃음으로 나아가자

〈우리토강이〉

바람이 부는구나 떠는구나
西쪽나라 죽고 죽으랴니
東쪽나라 빨은 물이 한창이구나
불은 元來 꺼지는 것이다
자는 토강이 깨일때가 이르렀거늘
둘러쌓은 총구먹을
뚫고 뚫고 다라나자면
첫째는 날람이요 둘째는 연구인걸
날람이 내할태이니 연구말으소서
연구내할터이니 날람 말으소서

DS...

〈歌 謠〉

十五夜 밝은달에 東風이 건듯 불어
黑雲群이 밀려와서 굴근비 떠러지니
白玉같은 흰 世界가 구름밤이 되단말가
黑雲이 힘이 센들 朔風이 이길손가
朔風아 일어나라 힘차게 기운있게
明月 덮은 黑雲群을 자취없게 쫓도록
黑雲이 지나가고 三更이 닥쳐오면
半島江山 어둔 밤이 百燭같이 밝을테니
우리들 젊은 青春一刻 아껴 努力하세
明月이 비취이고 無窮花 필때까지

〈寄宿舍의 하루밤〉

화로를 에워싸고
가으로 도라앉아
서로 서로 손을 내여
불기운을 놀리나니
저불도 구찬은듯이
이즈러져 가노라
화로를 한위로로
밤늦까지 남아 있어
받고줄 하는 말이 옛날의 한탄일세
옛수치 회복할 날도
멀지 않게 있으리

石 潭

〈孤 寂〉

1. 어디로 向하랴는
수레속에 실린 손님
고국을 뒤에 두고
부모처자 이별하고
길떠난 사람 회포야
오작이나 슬프리

第1章 教 育

2. 잃어진 그 옛날이

하도하도 그리워서

無心히 저녁 하늘을

우리러 쳐다보니

初旬달 실날 같아서 더욱 懷古 깊도다

朴 春 海

깊어가는 가을저녁

燈불을 벗삼을제

紗窓에 떠오르는

한무리 버레소리

고요한 가을밤

情趣*더욱 깊더라

世上이 넓다한들

그 얼마나 넓을소며

世上人間 허다한들

믿을 사람 얼마되리

이것이 世上 人間

땃함인가 하노라

日月이 높다한들

안지고 어이하며

草木이 풀다한들

있지지 앓할손가

제아모리 旺盛인들

(茶革黨) 規約³⁰⁸⁾

- ① 黨員은 祕密을 嚴守할 것
- ② 黨員은 週2回 회합하고 黨首, 副黨首 및 各 部長은 週1回이상 會合할 것
- ③ 各部長은 責任을 지고 下級生을 指導養成할 것
- ④ 黨員은 黨首의 命에 絶代服從할 것
- ⑤ 黨員은 結黨한 者만에 限하고 新加入을 認定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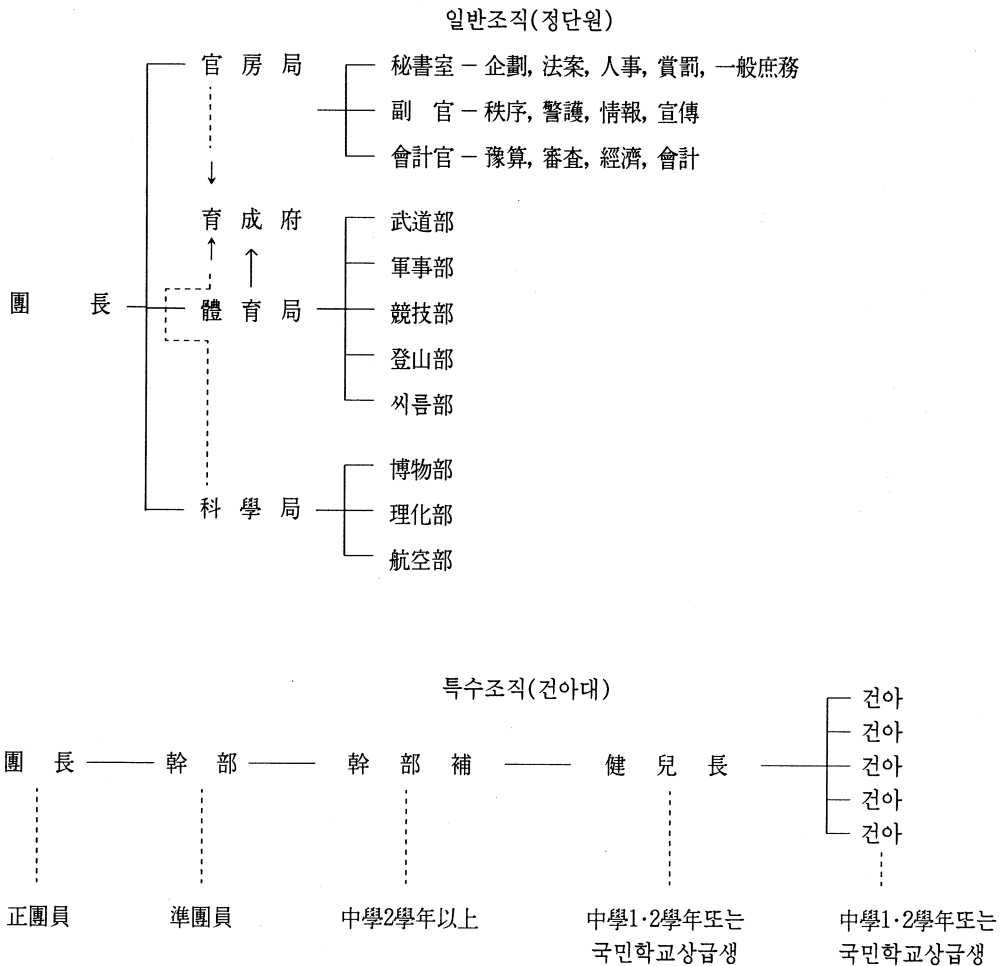
308)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資料編, pp.339~365.

- 茶革黨의 部署
 - 黨首, 權快福
 - 副黨首, 星山鶴甫(창씨명, 이하에서는 "로 표시)
 - 總務部長, 伽山芳雄(") 部員 吉村兵次(") 南川源三(")
 - 文藝部長, 李東雨
 - 文藝創作部責任, 平野情敏(") 部員, 李東雨 楠平祐尙(")
 - 研究部責任 文洪義, 部員 李柱鎬, 吉村岳次郎(") 星山鶴甫(") 松岡鶴夫(") 南川源三(")
 - 文藝部長, 權快福
 - 音樂部責任, 權快福
 - 書藝部責任, 瀧山清志(")
 - 運動部長, 清村毅
 - 球技部責任, 清村毅(") 部員(庭球) 楠坪祐尙(蹴球)(籠球)松岡鶴夫(")
 - (排球)星山鶴甫(")
 - 陸上競技部責任, 永山大領(")

4) 太極團事件

일제가 대평양전쟁을 일으켜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민족차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오카히사(岡久)가 대구상업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操行 점수를 50% 배정하여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한인 학생은 성적이 우수해도 1등을 할 수 없었다. 이때 평소 수재로 이름났던 李相虎(당시 17세, 4학년)는 일어 시험때 백지를 내어 낙제를 당하였다. 이상호 등 몇몇 학생들은 '일군 입대를 거부하고 일제의 전쟁에 협력하지 말자'는 호소문을 살포하였다. 그리하여 뜻있는 학생들은 1942년 5월 이상호를 중심으로 徐尙敦(18세, 5년) 金相吉(18세, 5년)은 세계 약소민족해방운동과 간디의 무저항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1943년 4월까지 金正鎮(18세, 5년), 李浚允(18세, 5년), 李元鉉(17세, 4년), 尹三龍(18세, 5년), 李兌達(16세, 4년), 鄭光海(16세, 4년), 鄭完鎮(16세, 4년)등을 동지로 규합하였으며, 뒤이어 13명이 동참하여 학생수는 36명이었다. 이들은 1943년 5월 9일 비슬산 약수터에 모여 태극단(T.K.D)라 하고 당면과제인 조선독립을 도모하여 투쟁하고 전 세계인류의 평화·자유·평등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조직은 일반조직과 특수조직으로 구분하였으며 간부로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서기관 2명을 두었다.



〈圖 1-17〉

태극단의 조직³⁰⁹⁾

단장에는 李相虎, 관방국장에는 金相吉, 체육국장에는 徐相教, 과학국장에 李浚允, 비서장에 金正鎭이 되었다. 그러나 단원의 한 사람이 배반하여 일경에 밀고함으로써 단장 金相虎가 체포되어 잔인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다. 일경은 이상호의 집을 수색하여 천정에서 관계 문서를 발견하고 5월 25일 학교를 급습하여 金相吉 등 9명을 체포하고 27일에는 남은 단원을 모두 체포하였다.

309) 《慶尙北道史》中, p.468.

1944년 1월 19일 이들은 國賊으로 몰리어 최고의 형을 받았는바 형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¹⁰⁾

〈表 1-165〉 태극단사건의 형량

姓 名	檢 査 求 刑	判 事 言 渡
李 相 虎	短期 5年 以上 長期 7年	短期 5年 以上 長期 10年
徐 相 教	短期 4年 以上 長期 7年	短期 5年 以上 長期 7年
金 相 吉	短期 4年 以上 長期 7年	短期 5年 以上 長期 7年
金 正 鎮	短期 1年 以上 長期 3年	短期 2年 以上 長期 3年
李 元 鉉	"	"
尹 三 龍	"	"

이들은 대구 및 김천, 인천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8.15해방으로 석방되었다. 그 중 이원형은 악성늑막염으로 1945년 3월 30일 병보석으로 출옥되었으나 5월 5일 자택에서, 이상호는 병보석되었으나 1945년 12월 9일 세상을 떠났으며, 이준윤은 1943년 9월 28일 고문으로 죽었다.³¹¹⁾

II. 光復後의 學生運動

1. 신탁통치 반대운동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은 자주적 독립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신탁통치를 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것은 해방이 곧 독립인줄 알았던 우리 민족에게는 제2의 식민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29일에는 서울에서 신탁통치 반대 國民總動員委員會가 각급 대표 72명으로 결성되었고, 31일에는 반탁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나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 대구의 반탁운동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빨리 일어났다. 1946년 1월 2일 오후 대구시민대회가 개최되기 전인 오전에는 대구사범학교

310) 앞의 책, p.469.

311) 위와 같음.

운동장에서 학생들만의 반탁운동 집회가 열렸다. 1946년 1월 7일에서는 학생중심의 반탁전국 학생총연맹이 결성되어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대구시내의 각급학교 학생들이 자주독립이 완수될 때까지 단결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한 것은 20세기 현대사에 있어서 광복후의 첫 학생운동이라 하겠다.

2. 2·28의 대구 학생운동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의 2.28학생운동은 3.15부정선거로 자유당 정부의 연장을 획책하려던 당시에 민주주의의 창출을 위한 일대 학생의 거사였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당의 패배는 정치적 긴박감과 초조감을 자아내었다. 즉 부정선거를 위한 자유당 정권의 노력과 야당 활동에 대한 음성적 탄압등이 노골화하였다. 2월 27일 대구의 수성천변에서 자유당의 강연회가 있었던 그 다음날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자의 정견발표회를 가지게 되었을 때 당국에서는 학생들의 강연회 참석을 막기위하여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2월 28일 등교를 강제하였다.

경북고등학교에서는 3월 3일부 실시예정이던 학년말시험을 예고도 없이 2월 25일 종례시간에 3월 3일 실시하려던 과목을 2월 28일에 앞당겨 실시하고 나머지 과목은 3월 4일부터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변경 발표하였다.

대구고등학교에서는 교내 운동회(뒤에 토끼사냥으로 바뀜)을 하니 일요일(2월28일)에 전원 등교하라고 하였다. 이같은 명목으로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2월 28일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하도록 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이는 학생의 인권 탄압이며 학원의 탄압으로 보고 항의 시위를 결심하고 결의문을 작성하는 한편, 경북고, 대구고, 사대부고 등 각 학교의 대표들이 숙의를 거듭하였다.

경북고등학교에서는 2월 26일 긴급전체학생위원회를 열어 일요일의 시험실시 계획의 철회를 결의하여 학교에 건의하였으나 28일 학년말 시험의 일부를 예고한대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관권에 눌린 무기력한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시위 감행을 주장하였다. 학교 당국은 영화감상을 한다고 전달하였다. 27일 자유당의 정치 강연회가 있을 때 도산하공무원과 학생을 동원하고자 근무시간의 단축과 단축수업으로 정오에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28일 12시 50분경 학생들은 조희단 앞에모여 결의문을 내걸고 정의의 횃불을 올렸다. 학생들은 “백만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라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오후 1시가 지나 가두 시위에 나섰다. 1,000여명의 학생들은 모자를 손에 들고 “학원의 인권을 지키자,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 민주주의를 살리며 학원내의 정치

력을 배제하자”고 외치면서 삼덕우체국(현 유신학원 앞 오거리)을 거쳐 반월당네거리까지 구보행진을 하였다. 구 매일신문사(현 주택은행 자리)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의 주장을 언론에 호소하였다. 학생들은 구 한국은행 대구지점을 돌아 도청(현 중앙공원)으로 밀어닥쳐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투입으로 학생들은 해체되고 일부학생은 연행되었다. 대구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였으며 사대부고, 대구상고, 경북여고 등에서도 가두 시위와 교내에서 농성을 하였다. 2.28학생운동으로 연행된 학생은 120여명 되었으나 모두 훈방조치되었다. 2월 29일자 대구매일신문은 학생들의 시위배경과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강조하였다. 문교부장관도 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휴일 학생소집은 그릇된 일”이라고 담화를 발표한 것은 2.28학생운동의 정당성을 시인한 것이다.

2.28학생운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대구매일신문사가 중심이 되어 「2.28학생의거기념탑」을 세우기로 하고 그 장소는 명덕로타리로 결정하였다. 탑의 형태는 두개의 백색 콘크리트탑으로 하였다. 높이 233피트인 이 탑은 남녀 학생들의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의거를 감행한 상징을 지니고 있다. 탑의 밑부분에 흑색의 대한민국 판도를 두고 한쪽 밑부분을 대구에 디디도록 했다. 이것은 의거의 중심지가 대구임을 의미한다. 1961년 4월 10일 기공하여 1962년 4월 19일 준공하였다. 그러나 도심의 교통난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두류공원내의 시립두류도서관 부근으로 옮겨 세웠다. 그 비문의 전문은 청마 유치환이 지은 것이다.

‘2.28학생의거’는 3.15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민주화의 과정에서 그 횃불이 되었다.